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辛 泳 周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18세기 燕行錄에 나타난 中國形象

2024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連 麗 麗

# 18세기 燕行錄에 나타난 中國形象

辛 泳 周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4년 6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連 麗 麗

認 准 書

連麗麗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柳 浚景   
심사위원 韓 榮奎   
심사위원 張 眞煥   
심사위원 宋 吉慶   
심사위원 李 泳周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중 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과 중국 학자의 연구 특성은 각기 다르다. 한국 학자는 문학 방면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중국 학자는 그 역사학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학자들은 ‘연행록’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 여지가 있다고 본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학자들은 民俗學, 形象學, 經濟學, 文化學 등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연행 경험을 통해 얻은 이국 형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문학적 형상학의 이론을 사용하여 18세기 연행작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형상학(imagologie)은 비교문학의 중요한 연구 내용으로, 1990년대 프랑스에서 탄생한 ‘비교문학의 프랑스 학파들이 선호하는 연구 분야다’<sup>1)</sup> 하지만 이 이론은 일반적인 의미의 문학적 형상이 아니라, 이국 문학에서 이국적인 형상을 형상화하고 묘사(représentation)<sup>2)</sup>하는 것으로,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형상학 연구의 범위는 매우 넓다. 형상학 연구는 ‘자아’에서 ‘타자’에 대한 관찰과 검토이기 때문에 이국의 모든 측면은 연구 대상이다. 문학 작품을 통해 기록된 이국의 재료는 연구 대상이 사람, 도시 풍경, 물질적 경관, 심지어 풍속, 관념, 언어까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1)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153면.

2) 위의 글, 2면.

긴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연행’이라는 활동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의 연행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김창업과 이의현은 18세기 초의 비교적 유명한 작가로서, 청나라 형상에 대한 선인들의 일관적인 비평 평가의 편견을 벗어나, 자신의 눈으로 청나라를 바라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시각은 긴 연행 역사에서 하나의 눈에 띄는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북학과(北學派)의 비교적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이 남긴 연행 기록에는 중국 형상, 특히 중국의 사회공간에 존재하는 ‘물체(物)’와 ‘사람(人)’에 대해 否定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점차 줄어들었고, 긍정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

연행 사신이 중국으로 출사하여 이국적인 공간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중국의 물질적 공간이다. 중국의 산천하류(山川河流), 명승고적(名勝古蹟), 인문경관(人文景觀), 도시궁궐(城市宮闕) 등을 포함한 경관들이 연행사신들을 매료시켰다. 김창업, 이의현, 洪大容, 朴趾源 같은 연행사신들은 한문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중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선인들의 여행기나 문학 전적을 통해 중국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선인들이 중국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입증하는 한편, 선인의 인식과 차별되는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찾아냈다. 그래서 연행 사신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웅장한 도시 궁궐, 역사 유적지에 감탄하면서 그 객관적 실체와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결합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이국 공간의 이국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것은 이국적인 사회 공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동시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곧 사회 공간에서의 물질적 공간과 인문적 공간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국적인 인문공간은 각계각층 인물들이 구현하는 다양한 삶의

집합체이다. 여기에는 각 인물의 특성을 비롯하여 이들이 드러내는 정신, 문화, 경제 등의 생활 모습이 포함된다.

그런데 선인들이 기록한 이국적 형상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후인들의 이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비교문학의 형상학에서 논하는 ‘사회 집단의 想象物’에서 보듯이, 연행 작품은 集團想象의 색채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상에는 크게 이데올로기화와 유토피아화의 두 가지 표현 패턴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이데올로기화에 따른 묘사는 이국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유토피아화에 따른 묘사는 이국의 도움을 받아 이상적인 자아를 창작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묘사는 네거티브적으로 비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유토피아적 묘사는 이상적으로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본질적으로 연행사신들이 18세기 중국 사회공간에 대해서 가한 모든 비판은 명나라 멸망 이후에 성립된 ‘소중화(小中華)’라는 우월감에 기반을 두고 있고, 모든 찬사와 긍정 평가는 조선 사대부가 갖추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학습심리에서 비롯되었다.

18세기 중국 사회 공간의 형상에 대한 글쓰기는 그 결론이 아무리 달라도, 당시의 사회 공간에서 생산된 역동적인 변화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 시대의 사회 공간 형상의 실체를 구현한 다각도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국을 관찰하고 글쓰기 하면서 합리적 사고와 포괄적 시선을 가지는 것은 유람자에게 요구되는 소양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종합적이고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진 연행 사신들은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集團想象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상투적인 언어’에서 기인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親見하고 親聞하는

경험을 통해 기존의 중국 도시 사회 공간 묘사에 나타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이 냉철한 관찰과 진지한 사고를 통해 도출한 중국 도시의 물질 공간의 형상 감각은 중국 도시 공간에 대한 知覺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공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구상을 담고 있다. 결국 知覺과 構想을 아우르는 實際적인 공간 인식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目 次

## 論文概要

I. 序論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방법 .....	4
3. 선행 연구 검토 .....	7
II. 18세기 중국 물질공간에 대한 형상 .....	23
1. 광활하고 수려한 田野와 山川 .....	24
1) 광활한 遼東의 田野 .....	24
2) 수려하고 기이한 山川 .....	26
3) 풍부하게 이어진 크고 작은 하천들 .....	32
2. 유서 깊은 人文景觀 .....	36
1) 역사가 유구한 변경의 고적 .....	37
2) 다양하고 유서 깊은 廟宇道觀 .....	43
3) 忠義와 氣節을 상징하는 인문경관 .....	52
3. 변화한 도시 공간의 풍경 .....	64
III. 18세기 중국 인물에 대한 형상 .....	71
1. 검소하면서 비범한 제왕의 형상 .....	71
1) 근검과 애민을 실천하는 康熙帝 .....	72

2) 온화하면서 엄혹한 乾隆帝 .....	79
2. 만주족 남성의 형상 .....	84
1) 풍채 좋고 文致는 적은 만주족 남성 .....	84
2) 騎射에 능숙한 만주족 남성 .....	89
3. 美麗하고 尊貴한 만주족 여성의 형상 .....	99
4. 지식인의 형상 .....	108
1) 탐욕스럽고 소심한 지식인 .....	108
2) 奇才를 갖춘 지식인 .....	123
<b>IV. 18세기 중국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형상 .....</b>	<b>136</b>
1. 번영한 경제생활의 형상 .....	136
1) 발달한 수공업 기술 .....	136
2) 변화한 시장 .....	142
2. 혼례와 장례 문화 풍속의 형상 .....	149
1) 혼례 풍속 .....	149
2) 장례 제도 .....	157
3. 민간 연희와 오락 풍속의 형상 .....	162
1) 戲子屋의 발달과 민간 연극의 성행 .....	162
2) 민간 곡예와 幻戲 .....	168
<b>V.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형상의 특징 .....</b>	<b>175</b>
1. 기성관념에 따른 이데올로기화된 중국의 형상 .....	175
1) 물질 경관을 대하는 고정된 인식 .....	179
2) 인물에 대한 이데올로기화된 인식 .....	184
3) 유불선의 사상 추이에 대한 세태 비판 .....	188

2. 연행을 계기로 형성된 유토피아화된 중국 형상 ..... 195

VI. 結 論 ..... 20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설문 조사

# I. 序 論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한반도는 고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 지역으로서,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고 밀접했다. 특히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중국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다. 명나라 시기에는 이를 ‘조천(朝天)’이라고 하였고, 청나라 시기에는 이를 ‘연행(燕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외교 사절 행차에서 동행자들은 여행 중에 보고 듣는 것들을 일기, 소설, 잡록 등의 형식으로 기록했다. 학자들은 사신들이 ‘조천’과 “연행” 과정에 관해 기술한 기록을 연행록이라고 통칭한다. 중국 학계는 연행록의 연구를 ‘돈황학(敦煌學)’과 견주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연행록학(燕行錄學)’<sup>3)</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역사상, 청나라는 소수민족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특별한 시대였다. 따라서 유교 문화권의 중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조선의 사신들은 청나라에 출사했을 때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8세기는 조선이 청나라에 가장 많이 출사한 시기였다. 이때 한 세기에 걸쳐 3대의 청나라 황제가 교체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출사 횟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연행록 작품도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

이 시기에 기록 연행록은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당시 중국 사회의 모든

---

3) 漆永祥, 「“燕行錄學”芻議」, 『東疆學刊』 Vol.36, No.3,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9, 1면.

분야에 걸쳐 다루었다. 외부의 시각으로 당시 중국을 바라보는 귀중한 문헌이 아닐 수 없다. 그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귀중하고 희귀한 기록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조선과 중국의 외교 관계도 이전에 비해 완화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연행 사신들도 우호적으로 완화된 외교 관계 속에서 당시 중국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유롭게 중국을 훑어보고, 비판하고, 감탄하면서 중국의 형상을 연행 기록을 통해 묘사하였다. 연행 사신들은 청나라를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국의 현실에 대한 반성도 병행하였다. 때문에 연행 사신의 연행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난 시대 현실을 추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문화적 성찰도 엿볼 수 있다.

1990년대에 이르면 중국 본토 학자들도 연행록의 연구와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점점 많은 중국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 국내에서 연행록의 정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례 없는 크기로 연구 영역이 확산되고 그 수준도 깊이가 있어졌지만, 일반인 심지어 대학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연행록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 내에서의 연행록 연구는 아직도 많은 학문적 공간이 남아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행록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깊이 파고들고자 한다. 연행록의 연구는 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나,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 학자들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 특징은 각각 다르다. 한국 학자들은 주로 문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 학자들은 주로 역사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연행록의 역사적 자료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문학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선행 학자들의 기초 연구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비교 문학 형상학과 공간 이론을 활용하여 18세기의 중국 형상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주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만이 아니라, 주로 문학적 관점에서 중국 형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18세기는 조선이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횟수가 가장 많았고 연행록 작품도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연행 사신들은 청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존경을 표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소중화(小中華)’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고 두 나라 간의 상호 호혜적인 정책이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행 사신들이 중국에 대해 갖게 된 형상은 칭찬과 비판, 인정과 부정이 상호 모순적으로 뒤섞여 나타났다. 이에 중국을 ‘타자(他者)’로서 기술하고 관찰하는 복잡한 감정도 표현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나라에서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출사하면서 대국(大國)의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기록과 글쓰기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이 상대국에 대해 남긴 기록과 평가를 비교하는 것은 심층적인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 외교 관계를 수립한 새로운 시대에 한국 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 드라마, 패션,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가 문화 트렌드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젊은이들은 현대 한국의 문화만 알고 있을 뿐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가까운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비록 그 가운데 전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원만한 외교 관계를 이어왔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옛 사신들이 교류한 기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의 변환기에 교류했던 기록인

연행록 작품 등을 통해 중국의 젊은이들, 특히 지식 계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옛날 한국의 우수한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며 한국 한문학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한중국 유학생의 입장에서 연행작품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중문화와 학술교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

기록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서 연행록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연구한 사람은 중국 인민대학의 청사 연구 전문가인 王政堯 교수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주로 역사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21세기에 이르면 일부 학자들이 민속학, 형상학, 경제학 및 문화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비교 문학 형상학과 공간 이론을 활용하여 연행록 속의 중국 형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전체 ‘연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연대와 문화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18세기를 선택했다. 이 기간은 또한 연행 작품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연행 기록에는 역사가 새롭게 변화하는 전환기에 조선 사신들이 관심 있게 바라본 중국의 형상이 담겨 있다. 중국에 대한 형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텍스트의 문면에 나타나 있는 표면적 형상이다. 이는 조선 사신들이 ‘연행’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형상이다. 20세기 서양의

공간 이론을 적용하여, 연행 사신들이 어떤 이유로 중국을 그렇게 기술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 형상 아래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이 역시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8세기의 연행 작품은 매우 다양한데, 金景善은 『燕轅直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경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행문(紀行文)을 남겼는데, 그중 3가(家)가 가장 저명하다. 그는 곧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다. 사례(史例)로 말하면 노가재는 편년체(編年體)에 가까운데 평순하고 착실하여 조리가 분명하다. 홍담헌은 기사체(紀事體)를 따랐는데 전아(典雅)하고 치밀하다. 박연암은 전기체(傳紀體)와 같은데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해박하다. 모두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어 각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4)</sup>

따라서 연구 대상 선택에서 본 논문은 18세기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金昌業, 李宜顯, 洪大容, 朴趾源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金昌業과 李宜顯은 18세기 초반에 비교적 대표적인 작가이다. 두 사람은 중국 형상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적인 편견을 벗어나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의 작가들과 대비되는 매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중국에 대한 형상이 새롭게 변화하는 명확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金景善, 『燕轅直指』,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70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46면, “適燕者多紀其行。而三家最著：稼齋金氏，湛軒洪氏，燕巖朴氏也。以史例則稼近於編年，而平實條暢。洪沿乎紀事，而典雅縝密。朴類夫立傳，而瞻麗闊博。皆自成一家，而各擅其長。”

洪大容과 朴趾源은 북학파에서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의 연행 작품은 중국 형상, 특히 중국 사회 공간의 “물(物)”과 “사람(人)”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고, 긍정과 찬양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김창업, 이의현,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 작품을 핵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2) 연구 방법

우선, 본 논문에서는 비교문학적 형상학의 이론을 사용하여 18세기 연행작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형상학(imagologie)은 비교문학의 중요한 연구 내용으로, 1990년대 프랑스에서 탄생한 '비교문학의 프랑스 학파들이 선호하는 연구 분야다'<sup>5)</sup> 하지만 이 이론은 일반적인 의미의 문학적 형상이 아니라, 이국 문학에서 이국적인 형상을 형상화하고 묘사(représentation)<sup>6)</sup>하는 것으로,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형상학 연구의 범위는 매우 넓다. 형상학 연구는 '자아'에서 '타자'에 대한 관찰과 검토이기 때문에 이국의 모든 측면은 연구 대상이다. 문학 작품을 통해 기록된 이국의 재료는 연구 대상이 사람, 도시 풍경, 물질적 경관, 심지어 풍속, 관념, 언어까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이 “작품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감정, 사상, 의식과 객관적 물상의 종합”<sup>7)</sup>이라고 말한 것처럼 형상학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상학의 형상은 프랑스 학자 장 마르크 모하(Jean-Marc Moura)의 “이국적 형상, 한 민족(사회, 문화)의 형상, 마지막으로 작가의

5)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153면.

6) 위의 책, 2면.

7) 陳惇·劉象愚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2006, 167면.

특별한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 라는 말처럼 세가지 의미가 있다.<sup>8)</sup> 즉, 형상학 연구의 형상은 반드시 이국적인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국적인 형상은 ‘타자’가 한 나라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상이며, ‘자아’ 대 ‘타자’의 주관과 객관적, 감정적과 이성적인 사상이 혼합되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국적인 형상의 리얼한 재현이자 창작자가 이국적인 형상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과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이국적인 형상의 재창조인 만큼 상상적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상상이 집단적 상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틀에 박힌 말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형상학은 문학 작품에서 ‘타자’로서 이국적인 이족에 대한 이해와 묘사, 상상과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상상적이며 작가가 처한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깊은 문화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주로 18세기 <연행록>의 청나라 중국 형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문학적 형상학을 본 논문의 기초이론과 틀로 삼고, 다량의 역사적 자료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텍스트 외부연구 등의 방법으로 18세기 중국과 조선사가 서로의 형상을 어떻게 썼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3. 선행 연구 검토

#### 1) 선행 연구

조선은 이웃나라로서 명나라와 청나라에 사신(使者)을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한 사신과 수행원들이 지은 시가(詩歌), 일기(日記), 잡록(雜錄), 주소(奏疏) 등이 현재 중국 밖의 한적(漢籍) 가운데 남아서 전해진다. 이

---

8) 陳惇·劉象愚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2006, 2면.

기록들은 당시 중국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성이 높고 史的 가치도 높다.

연행록에 대한 정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연행록은 조선에서 청나라로 파견한 사신이 쓴 한적(漢籍) 문헌을 가리킨다. 중국의 연행(燕行) 연구에 많은 성과를 제출한 연변대학 金柄珉 교수는 “연행록은 청나라에 파견된 조선 사신이 쓴 출사 기록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연행록이 청나라 때에 만들어진 한적 작품만이 아니라, 명나라에 파견된 조선 사신이 작성한 출사 기록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임기중은 562여 종의 연행록을 수년에 걸쳐 정리하여 2016년 6차 개정증보판에 『연행록 전집』을 영인 출판하였다. 이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중국에 출사한 사신의 기록을 망라하고 있다. 곧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이 그 대상국에 해당한다. 임 교수의 『연행록 전집』을 보면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세 왕조에 파견한 사신이 기록한 사행 기록을 모두 연행록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나라 때 고려 사신의 사행 기록은 출사 횟수나 사신 작품의 영향력이나 작품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연행’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의 연행 기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일컫는 청나라 시기의 연행록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작품도 모두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의 작품이다.

---

9) 金柄珉·金剛, 『對中國“燕行錄”研究的歷時性考察』, 『東疆學刊』 Vol.33, No.1,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6, 102면.

## ① 연행록의 문헌 연구 현황

연행록에 관한 그 동안의 선행 연구는 문헌 정리에 관한 연구와 개별 주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문헌 정리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30년대에 金毓黻가 편집한 『遼海叢書』에는 연행록 두 작품이 수록되었다. 두 작품은 柳得恭의 『灤陽錄』 2권과 『燕台再遊錄』 1권이다. 이것이 초기에 중국 학계에서 연행록 문헌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에 푸단(廈門)대학 문사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한문연행문헌선집』 33권을 출간하였다. 선정된 작품은 한글과 중국어로 소개되어 있다. 201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사이에 광시(廣西)사범대 출판사는 대형 문헌총집 『燕行錄全編』 1집부터 4집까지 40여 권을 잇달아 출간했다. 전편이 모두 정리되어 출간된 후,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연행록 문헌 총집으로 일컬어졌다.

특히 베이징대학 漆永祥 교수는 2021년에 출판한 『燕行錄千種解題』라는 책에서, 탄탄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12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700년 가까운 기간에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에서 중국에 출사한 사신들이 기록한 연행록을 요약하고 분류하여 간략하게 소개했다. 총 772명 저자가 남긴 1,168종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해제(解題)를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그 분량은 정편 80권과 부록 5권으로 총 150만자에 이른다. 현재까지 수집된 연행록의 총체적 내용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둘째, 연행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주제에 관하여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행록 연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연

10) 漆永祥, 『燕行錄千種解題』, 北京大學出版社, 2021.

행록의 문헌 정리 및 연구에 관한 한, 한국의 학자들은 자료에 있어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 학계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학 연구<sup>11)</sup>, 문학과 사상사 연구, 조선시대 지식인의 청나라 인식 연구, 조중 문인 교류, <sup>12)</sup>청나라의 문화 풍속 등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 학자들의 연행 문헌에 대한 연구는 복식문화, 건축문화, 민속문화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다. 임기중의 논문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의 복식(服飾)」<sup>13)</sup>은 조천록 6종과 연행록 14종에 대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사람들의 복식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조선 후기 복식문화의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 조선 복식문화가 중국 복식에 영향을 받은 것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학자들은 청나라 복식 변화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4)</sup> 이승연과 이상해는 「청대(清代) 중국(中國) 동북부(東北部) 지역(地域) 일자옥(一字屋)에 관한 연구(研究)」<sup>15)</sup>에서 건축사적 관점에서 연행문헌 중 청나라 동북부의 일자옥에 관한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의 발생과 보급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대학교 이창숙 교수는 연행록의 중국 공연예술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당시 중국 공연예술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하고, 조선 선비가 명나라와 청나라 두 나라의 幻戲라는 공연예술에 대하여 취한 서로 다른

11) 邱瑞中·崔昌源, 「『燕行錄』의 史料價値 (之一)」, 『중국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4, 409-429면.

12)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 교류에 대한 연구로는 한영규 교수의 저서 『18-19세기 한·중 문인 교류』가 대표적인데, 이 책은 한·중 지식인의 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연구하였다. 신익철 교수는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교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 출간한 『연행사와 18세기 한중 문화교류』라는 책에서 “복벌론에서 북학론으로, 세계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온 18세기 연행”이라고 정리하였다.

13) 임기중,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의 복식(服飾)」, 『한국복식』 10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2. 25-105면.

14) 진혜숙, 「18세기 初 “燕行錄”에 기록된 朝鮮知識人의 服飾觀 - 김창업 崔德中의 燕行錄을 중심으로 -」, 『한복문화』 8권1호, 2005, 117-137면.

15) 이승연·이상해, 「청대(清代) 중국(中國) 동북부(東北部) 지역(地域) 일자옥(一字屋)에 관한 연구(研究) - 연행록(燕行錄)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建築歷史研究』 8(2), 한국건축사학회, 1999, 47-57면.

태도를 분석하였다.<sup>16)</sup> 이외에도 임기중은 「연행록(燕行錄)의 환희기(幻戲記)」<sup>17)</sup>라는 글에서 민속학적 시각으로 연행록에 나타난 ‘환희’, ‘연기’(즉 마술, 잡기) 등의 공연활동을 정리하고 연구함으로써, 청나라의 민간공연예술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행록 문헌에 대한 연구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는 먼저 연구 분야의 추가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전 시기에 확립된 문학, 사상, 교류, 복식, 건축, 음식, 민속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심화되었고, 아울러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연행문헌을 탐구하는 현상도 나타나 사행노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sup>18)</sup> 또한 연행록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2002년에 박현규는 「조선 사신들이 견문한 北京 琉璃廠」<sup>19)</sup>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16) 이창숙, 「연행록(燕行錄)에 실린 중국 연희(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20권, 한국실학학회, 2010, 131-175면.

17) 임기중, 「연행록(燕行錄)의 환희기(幻戲記)」, 『韓國民俗學』 Vol.31 No.1, 한국 민속 학회, 1999, 257-328면.

幻戲에 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안상복, 「연행록(燕行錄)의 잡기(雜技) 관련 기사(記事) 연구」 『중국문학』 第53輯,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161-184면; 임준철, 「연행록 환술기사(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환사(幻史)」, 『한국한문학연구』 51권, 한국한문학회, 2013, 487-533면; 안순태, 「연행록 소재 동물희(動物戲) 기사 연구」, 『민족문화연구』 8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243-269면; 안순태, 「환희(幻戲)의 연행(燕行) 양상과 흥미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 후기 연행록 소재(所載) 북경(北京) 환희(幻戲)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78권, 한국한문학회, 2020, 117-147면.

18) 金泰俊, 「중국 내 연행노정고」, 『東洋學』 第35輯, 東洋學研究所, 2004, 43-58면; 최식, 「燕行錄의 地名과 人名—연행록국역총서를 중심으로—」, 『韓國實學研究』 42권, 韓國實學學會, 2021, 385~422면; 王珂·한중진·당윤희, 「명청(明清) 교체기 조선 사신의 해로사행노선(海路使行路線) 중 산둥(山東) 청주부(靑州府) 이제묘(夷齊廟)의 문화공간연구」, 『중국문학』 110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22, 87-122면.

19) 박현규, 「조선 사신들이 견문한 北京 琉璃廠」, 『中國學報』 第45輯, 한국중국학회, 2002, 169-188면;

琉璃廠에 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현규, 「북경(北京) 유리창(琉璃廠) 화폭과 한국 고문헌」, 『동방한문학』 第42輯, 동방한문학회, 2010, 254-278면; 박수밀, 「북경 유리창(琉璃廠)과 지식인 교류의 세 층위」, 『한국언어문화』 제4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51-80면;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18-19세기 연행록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第47輯, 한국한문학회, 2011, 593-622면; 이홍식, 「연행록 소재 북경 유리창 기록의 변화 추이와 의미 탐색」, 『漢文學論集』 第41輯, 근역한문학회, 2015, 339-375면; 왕연,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오류거 서점과 조선 지

유리창을 발판으로 한중 문인들이 벌인 문화교류에 관하여 모색하였다. 2008년에 정민은 ‘北京 琉璃廠’이라는 프로젝트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3년에 이전까지 연구팀원들이 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여 『18~19세기 동아시아 문화 거점—北京 琉璃廠』이라는 제목으로 편집 출판하였다.<sup>20)</sup>

일부 학자들은 문인들 간의 필담 대화에 주목하였다. 조선조 사신과 중국 문인 간의 교류 현상을 필담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 집중하여 만들어낸 연구 성과로는 가장 먼저 2013년에 박향란이 제출한 『연행록 소재 필담의 연구 : 홍대용·박지원 등을 중심으로』<sup>21)</sup>를 들 수 있다. 이는 연행 중의 한중 문화교류를 연구하는 ‘筆談學’이라는 새로운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연행록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문학’, ‘사학’, ‘문화학’의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한·중 수교 직후인 1990년대부터 연행 작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7년에 王政堯는 「“燕行錄”初探」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임기중의 『연행록 선집』과 각종 한국 문집을 근거로 연행록의 판본과 저자를 통계적으로 개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행록의 장르, 저자 그룹, 권수, 목록, 집필 시기 등을 선별하여 비교하였다. 중국 학자들은 가장 먼저 연행문헌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연행록 연구가 오랫동안 한중 관계사, 조선 시대 華夷觀의 변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역의 역사 자료,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회 현상 등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左江은 「值得關注的燕行錄文獻」<sup>22)</sup>이라는 글에서 연행문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유사한 문헌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였는

---

식인」, 『韓國漢文學研究』第85輯, 한국한문학회, 2022, 349-384면.

20) 정민, 『18~19세기 동아시아 문화 거점—北京 琉璃廠』, 민속원, 2013.

21) 박향란, 『연행록 소재 필담의 연구 : 홍대용·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 2013.

22) 左江, 「值得關注的燕行錄文獻」, 『古典文學知識』第1期, 江蘇鳳凰出版社有限公司, 2010, 122-129면.

데, 임기중의 『연행록 전집』을 바탕으로 연행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陳尙勝은 「명청 시대의 朝鮮使節과 中國記聞 -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의 자료적 가치를 겸하여 논함」<sup>23)</sup>이라는 글에서 조선 사절의 중국 견문을 고찰하여 연행록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劉爲는 『淸朝使者王來研究』<sup>24)</sup>라는 글에서 청나라 시대의 한중 양국 간의 사신 왕래 제도, 사행의 종류, 사절단의 규모, 사행 노선, 의례 등을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중국에서 연행록 연구가 대중화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중국 학계의 중견 고문학자들이 연행록 연구에 대거 투입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연행록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수준이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 난경대학의 張伯偉 교수와 푸단대학의 葛兆光 교수와 북경대학의 漆永祥 교수 등이 연행록 연구에 참여하게 된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일부 중국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한국 학술지에 발표했다. 예컨대 邱瑞中 선생은 연행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탐구한 중국어 논문 5편을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한국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저자는 이 5편의 논문을 묶어 2010년에 『연행록 연구』<sup>25)</sup>라는 제목의 단행본 책으로 편집하여 광시사범대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이렇게 한중 학자들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빈번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 한국의 연행록 연구 상황도 중국에 소개되었다. 예컨대 한양대학교 박사 韓東은 「한국 연행문헌 연구 총론」<sup>26)</sup>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한국의 연행록 연구에 대한 상황을 거시적으로 소개하였

23) 陳尙勝, 「明清時代的朝鮮使節與中國記聞 一 兼論“朝天錄”與“燕行錄”的資料價值」, 『海交史研究』第2期, 中國海外交通史研究會, 2001, 38-55면.

24) 劉爲, 『淸代中朝使者往來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25) 邱瑞中, 『燕行錄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26) 韓東, 「韓國燕行文獻研究綜述」, 『中國文學研究』第1期, 湖南師範大學, 2015, 116-121면.

다. 이로써 한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중국에 자세히 소개되면서 중국 학자들의 연구지평도 넓힐 수 있었다.

21세기 초부터 중국 학자들의 연행문헌 연구는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주로 문학, 경제학, 사회학, 민속학, 문화학, 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연행록을 문학적으로 연구한 저서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박지원, 홍대용 등 작가의 작품 연구와 북학과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 연행 문헌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많은 학위 논문이 이를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이었다. 이들 논문은 주로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주제학, 형상학, 역사미학, 매체학, 문화비평 등을 다루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연행문헌 연구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연구내용으로는 북학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 金柄珉의 「조선 중세 북학과 문학 연구」<sup>27)</sup>는 최초로 연행록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이다. 연변대학이 중국에서 연행록 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요약하면, 중국의 연행문헌 연구는 주로 사학과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21세기 이후로 점차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

27) 金柄珉, 「朝鮮中世紀北學派文學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1990.

北學派에 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李敦球, 「韓國北學派的經濟思想」, 『韓國學研究論叢』 第6輯, 夏旦大學韓國研究中心, 2000, 321-339면; 申嘉霖, 「十八世紀朝鮮“北學中國”之思想過程研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9; 陳毅立, 「朝鮮時期北學派的華夷天下觀」, 『韓國學研究論叢』 第2期, 夏旦大學 韓國研究中心, 2019, 169-181면; 付博, 「儒衣俠心: 朝鮮北學派的清代滿族認知建構及其影響」,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Vol.51, No.2, 吉林師範大學, 2023, 44-54면.

## ② 연행문헌의 중국 형상 연구 현황

중국 형상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대부분 중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 종류의 형상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김선자가 『중국어 문학 논집』에서 발표한 「중국 소수민족 신화 속 영웅의 형상- 이족의 즈거아루(支格阿魯)를 중심으로」<sup>28)</sup>와 같이 중국 소수 민족 문학 작품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난 영웅 형상을 연구하였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중국 형상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대부분 연행문헌에 집중되어 있다. '청나라의 형상'에 대한 인식은 조선 선인들의 청나라 정권에 대한 인식과 청나라 치하의 중국이 과연 어떠했느냐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1993년 임기중이 발표한 「연행록의 대청의식과 대조선의식」<sup>29)</sup>은 조선 선비들이 '존주사명(尊周思明)'과 명나라 멸망 후 '소중화(小中華)'를 자인하는 사상 아래 청나라 왕조를 호인(胡人)이라고 칭하며 코웃음을 쳤고, 이는 청나라의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력에 맞서 국교를 수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청나라에 대한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모순된 심리를 지적하며, 청나라가 조선을 경계와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1994년 김문식이 발표한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 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sup>30)</sup>에서는 조선 선비들이 중화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현실

28) 김선자, 『중국 소수민족 신화 속 영웅의 형상- 이족의 즈거아루(支格阿魯)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107輯, 중국어문학연구회, 2017, 313-347면.

29) 임기중, 「연행록의 대청의식과 대조선의식」, 『연민학지』 第1輯, 연민학회, 1993, 117-152면;

조명화, 「조선조사대부(朝鮮朝士大夫)의 중국관(中國觀) -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에 보이는 홍대용(洪大容)(1731-1783)의 중국관(中國觀)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43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5, 179-196면; 정훈식, 「『을병연행록』과 18세기 조선(朝鮮)의 중국(中國) 읽기」, 『국제어문』 33권, 국제어문학회, 2005, 169-201면; 노대환, 「18세기 후반 연암(燕巖) 일파(一派)의 연행(燕行)과 청조(淸朝) 정세 인식」, 『대동문화연구』 85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51-287면.

30) 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 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규장각』 第17輯, 서울

적 절박함 속에서도 청나라의 문화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청나라 정국에 대한 조선 선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시각을 지적하였다. 이 연행 문헌에 나타난 조선의 청왕조에 대한 태도는 조선 선비들이 보는 ‘북경’<sup>31)</sup>, ‘동북지역’<sup>32)</sup>, ‘강남’<sup>33)</sup>, ‘만족’<sup>34)</sup>, ‘여성’<sup>35)</sup>, ‘유생’<sup>36)</sup>, ‘하민’<sup>37)</sup>, 등의 형상과 앞서 언급한 ‘유리창’에 관한 연구 모두 한국 학자들의 관심거리였다. 예를 들어 김민호가 발표한 「他者の視線으로 바라본 中國 江南 형상——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sup>38)</sup>에서의 조선조 사

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1994, 1-55면.

- 31) 정혜중,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북경견문 -김창업의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3권, 명청사학회, 2005, 33-65 면; 김민호, 「연행록(燕行錄)에 보이는 북경(北京) 형상 연구」, 『중국어문학회』 32권, 중국어문학회, 2010, 163-187면; 이정재, 「조선 사절 燕行錄(연행록)에 나타난 청대 후기 北京의 민간연극」, 『중국어문학회』 52권, 중국어문학회, 2015, 103-134면; 임영길, 「18~19세기 조선 문인들의 北京 인식과 기록 양상-탐방 공간의 확장과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 54권, 동양한문학회, 2019, 157-195면; 이승수, 「연행로 중 요양(遼陽) ~ 심양(瀋陽) 구간의 노정과 풍물 - 지리 감각의 갱신과 신흥 왕조의 체험 -」, 『고전문학연구』 50권, 한국고전문학회, 2016, 261-296면.
- 32) 왕광의·리기기, 「조선 연행사(燕行使)가 본청대(清代) 중국 동북지구 형상」, 『중국사연구』 75권, 중국사학회, 2011, 265-271면; 조하나, 「연행록의 송가성(宋家城) 기록 고찰」, 『연민학지』 第30輯, 연민학회, 2018, 221-270 면.
- 33) 전민경,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 후기 만주족에 대한 인식」, 『동양한문학연구』 60권, 동양한문학회, 2021, 97-122면.
- 34) 김민호, 「燕行錄에 보이는 中國女性形象」, 『중국어문논총』 제54집, 중국어문연구회, 2012, 299-330면; 김철, 「“연행록(燕行錄)” 중의 맹강녀(孟薑女) 전설 기록 양상 소고(小考)」, 『민족문화연구』 6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157-209면; 정혜중,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청국 여성관-김창업과 박지원의 기록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73집, 한국중국학회, 2015, 377-397면; 신익철, 「연행사와 養漢的-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29-58면; 文麗華, 「한글본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여성」, 『한국고전연구』 제5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93~130면.
- 35)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류와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조건 -홍대용(홍대용)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4, 289-320면; 서의, 「18세기 조청(朝淸)문인 교류 장소 론략(論略)」, 『한문학보』 30권, 우리한문학회, 2014, 397-453.
- 36) 김동석, 「18세기 청나라로 간 조선 상인들의 활동」, 『동방한문학』 73, 동방한문학회, 2017, 331-363면.
- 37) 윤재환, 「18세기 전만 연행록(燕行錄)에 나타난 업힌 인식과 하민(下民)의 묘사」, 『한민족어문학』 85권, 한민족어문학회, 2019, 149-178면.
- 38) 김민호, 「他者の視線으로 바라본 中國 江南 이미지——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中國語文論叢』 第43輯, 중국어문연구회, 2009, 357-382면; 양훈, 「김구용(金九容)과 그가 기록한 중국 남방(南方)」, 『연민학지』 第27輯, 연민학회, 2017, 111-138 면.

신과 여행자들이 <연행록>과 <항행록(漂海錄)>에서 나타낸 중국 강남 형상과 유사하다. 이들 연구는 주관적으로 중국에 대한 형상의 전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조선 지식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형상을 나타낸다.

중국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전체적인 연구이다. 예를 들면 「朝鮮朝燕行使臣筆下清朝形象的嬗變及其內因」<sup>39)</sup>은 徐東日의 대표적인 학문적 성과로, 명청시대 조선 사신이 본 중국 형상의 내용과 형상의 변화 및 형성 원인을 시간적으로 고찰하였다. 徐東日의 저서 『朝鮮朝使臣眼中的中國形象——以<燕行錄><朝天錄>爲中心』<sup>40)</sup>은 명나라와 청나라 양대 중조 관계를 배경으로, 명나라 <조천록>과 청나라 <연행록>을 정리하여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중조 관계, 그리고 이러한 중조 관계의 영향을 받아 조선조 연행신이 여행기에서 그려낸 중국의 형상을 분석하였지만, 청나라 초기의 중국의 형상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해외국어대학교 吳雪의 석사논문 「康熙時期“燕行錄”中的中國」<sup>41)</sup>과 같이 『老峰燕行記』, 『老稼齋燕行日記』, 『庚子燕行雜識』을 연구 대상으로 康熙시대 <연행록>이 그린 중국의 형상을 개괄하였다. 본 논문은 청나라 康熙시대 중국과 조선의 사회경제문화, 외교정책, 외교관계를 연구 배경으로 하여, 강희시대 청나라가 안정 번영한 이후 <연행록>에서 중국 형상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연행록>에서 중국 형상 형성 과정과 중국 형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중국의 형상은 康熙시대 청나라를 대표하는 중국의 형상로서, 인문적 형상과 지리적 형상의 두

39) 徐東日, 「朝鮮朝燕行使臣筆下清朝形象的嬗變及其內因」, 『東疆學刊』 Vol.27, No.4, 延邊大學朝鮮半島研究院, 2010, 1-6면.

40) 徐東日, 『朝鮮朝使臣眼中的中國形象——以<燕行錄><朝天錄>爲中心』, 中華書局, 2010.

41) 吳雪, 「康熙時期“燕行錄”中的中國：以『老峰燕行記』『老稼齋燕行日記』『庚子燕行雜識』爲中心」, 上海外國語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韓龍浩, 「19世紀燕行錄中的中國形象研究——以三種燕行錄爲中心」,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李根碩, 「朝鮮的中國想像與體驗從17世紀到19世紀——以“燕行錄”爲中心」,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다만, 본 논문은 세 개의 작품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康熙시대 연행문헌의 중국 형상에 대한 거시적 파악이 부족하다고 본다.

둘째, 단일한 형상에서 출발하여 연행문헌을 연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만주족 형상과 한족 지식인 형상에 대한 연구다. 예를 들면 姚曉娟의 논문 「朝鮮時代“燕行錄”與清代滿族女子的域外鏡像」<sup>42)</sup>은 청나라 만주족 여성의 생활습관, 개성적 기질, 사회적 지위 등 청나라 만주족 여성의 형상 연구를 풍부하게 하였다. 한족 지식인의 형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이며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중 문화교류를 배경으로 중국의 지식인 형상을 분석하였다.<sup>43)</sup> 또 다른 학위 논문은 <연행록>의 인물 형상을 전문적으로 논술하였는데, 牛伊凡是 역사학의 각도에서 만청기 도시의 사회경제와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논하였다.<sup>44)</sup>

셋째, 청나라 만주족의 풍습이나 북방장터에 대한 논의, 나아가 중국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만주족의 풍습에 대한 연구는 크게 만주족의 복식, 건축, 음식 및 관혼상제 풍습의 여러 각도에서 논하고 있는데, 학위논문인 「朝鮮使臣所見清前期滿族習俗」, 「17至18世紀遼東地區的滿族文化研究—以“燕行錄”爲中心」<sup>45)</sup>, 「朝鮮使臣筆下的滿族建築」<sup>46)</sup>등의 건축물에 대한 연구이다.

42) 姚曉娟, 「朝鮮時代“燕行錄”與清代滿族女子的域外鏡像」, 『湖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湖北民族大學, 2010, 124-134면.

43) 王政堯·赫曉林, 「簡論“燕行錄”與清代中朝文化交流」, 『韓國學論文集』第7輯,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1998, 320-327면; 楊雨蕾, 「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以朝鮮赴京使臣爲中心」, 廈門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徐東日, 「朝鮮燕行使臣眼中的中國漢族士人形象」,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Vol.37, No.6, 2010, 143-147면; 張鍾午, 「通過《燕行錄》看18世紀北京琉璃廠與韓中文化交流」, 北京第二外國語學院, 석사학위논문, 2021.

44) 牛伊凡, 「晚清朝鮮燕行使筆下的中國(1850-1895)——以“燕行錄”爲中心」, 河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9.

45) 冀穎, 「朝鮮使臣所見清前期滿族習俗」,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 牛聰, 「17至18世紀遼東地區的滿族文化研究—以“燕行錄”爲中心」, 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22.

북방장터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劉靜으로 북방장터의 전반적인 상황과 한중 문화교류와 문화방사선 등에 대해 논했고<sup>47)</sup>, ‘북학파’ 연행사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북방장터의 번영으로 북학파의 중국역학 의지가 강해졌다.

이상으로 중한 양국이 연행문헌에 나타난 중국 형상 연구를 통해, 한국 학자들은 대부분 역사적 관점에서 중조관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행문헌은 역외 한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역사학과 문학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연행문헌이 ‘중국 형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거시적으로 형상의 여러 측면을 정리하였으며, 일부 박사나 석사 논문은 청나라 초기의 형상을 분석하지만, 연구 방법이나 연구의 폭과 깊이 모두 아직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박사 논문에 앞서 18세기 중국의 형상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는 만주족 여성에 관한 연구로 서양 서사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사와 신뢰할 수 없는 서사의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행록 작품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중국 여성은 무미건조한 연행록을 더욱 재미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선과 한족의 여성과는 달리 만주족 여성들은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만주족 여성에게 내린 평가는 그와는 상반된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고전적 서사학과 여성주의적 서사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 명의 사신이 연행 경험을 기록한 일기에서 그들을 대신해 작품 속에서

---

46) 劉錚, 「朝鮮使臣筆下的滿族建築」, 『殷都學刊』 Vol.40, No.3, 安陽師範學院, 2019, 42-46면.

47) 劉靜, 「從“燕行錄”看18世紀中國北方市集——兼論中朝文化交流與文化差異」, 『北京社會科學』第3期, 北京市社會科學院, 2006, 34-38면.

서술을 진행하는 주체는 ‘내포작가(implied author)’이다. 내포작가는 진짜 작가를 대신해 글 속에서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서술한다. 글 속 서술이 내포작가의 관점과 일치하면 ‘신뢰할 만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평가할 때, 작품의 표면적 서술만 보서는 안 된다. 여성주의 서사학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성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의 사신들은 유교문화의 전통적 사상을 따르는 남성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만주족 여성이 “내 외를 가리지 않고”, “외간 남자를 피하지 않는” 점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도덕관념에 기반을 둔 비판적 견해와 성차별적 평가는 ‘신뢰할 수 없는’ 서사이다.

두 번째는 서양의 공간 이론을 18세기 중국의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연행사들의 감정이 비교적 복잡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행 사신들의 연행 기록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자 했으나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정서와 가치판단을 지니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연행록에서는 당시의 중국 도시와 사회 공간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칭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서술 방식은 연행 사신들의 진지한 탐구 정신과 고통스럽고 원통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내면이 충돌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간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연행록은 형상학(形象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연행 사신들의 중국 도시와 사회 공간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물질”과 “사람”의 형상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으로, 서로 다른 기초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양자가 종합적으로 재현된, 도시 사회 전체 공간을 아울러 재현한 변증법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연구의 내용 모두 본 논문 내용의 일부이다.

## 2) 연구 의의

### ① 실제적 의의

본 연구는 연행록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연행록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행록은 중국의 출판계와 학계에서 이미 충분한 관심을 끌었지만, 일반인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의 인지 상황은 과연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는 일반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 조사로 얻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행록은 중국의 일반 대중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약간 생소한 것임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모르거나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역사 문헌에 대한 연구 저변을 확장하여 향후 중국 내에서 연행록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② 이론적 의의

연행록의 연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조선 사신이 청나라로 건너간 1636년부터 1895년까지 250여 년 동안 조선 사신은 연행록 약 280여 종을 남겼다. 그들이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연행록에는 중국인들이 간과한 사물과 역사가 실려 있고, 아울러 조선인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청나라의 외교정책, 민속, 풍토 등 일련의 역사적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떠난 조선 사신들의 한문 소양과 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높았다. 이들은 날카롭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그 형상을 연행록에 표현해 놓았다. 이런 점에서, 18세기의 대표

적인 연행 작품들은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다양한 형상을 분석하는 형상 연구 등에 중요한 보완적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학자들이 중국 형상을 연구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중국을 방문한 여행기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형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여행기의 시각만으로 중국의 형상을 연구한 저서는 아직 많지 않다. 때문에 여행기의 시각으로 중국의 형상과 조선의 형상을 아울러 연구하는 것은 중국과 조선의 형상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에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중국과 조선의 형상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주요 연구 내용 소개

본문은 총 7장으로 나뉜다. 제 1 장은 서론이며 제 2 장은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제 3 장은 18 세기 연행 사신의 청나라 물질 공간 묘사로 중국의 산천, 명승고적, 성곽과 산성 등을 포함한다. 제 4 장은 중국 사회 각계각층 인물에 대한 연행 사신의 묘사, 제 5 장은 중국인들의 사회생활 모습에 대한 연행 사신의 묘사, 제 6 장은 연행 사신들이 묘사한 중국 형상이 지닌 특징, 제 7 장은 결론이다.

## II. 18세기 중국 물질공간에 대한 형상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학 연구는 학문의 교차 연구 경향을 보였는데, 학자들의 연행(燕行) 작품 연구가 이를 가장 잘 증명한다. 1960년대 프랑스 학자 미셸 푸코가 철학 연구의 초점을 공간 연구에 둔 이후로는 공간 개념이 자주 등장했다. 미국의 유명한 현대 도시학자인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삶의 사회적, 역사적, 공간적 차원의 동시성과 상호 작용, 즉 분리할 수 없고 미묘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48)</sup>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공간의 존재로 태어나 유비쿼터스 공간적 사회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sup>49)</sup>라고 할 수 있다. 곧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연행사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중국의 성곽, 산과 굴, 사당, 도관 등을 포함하는 물질적 공간이다. 물질적 공간 속의 많은 자연경관이 그들을 매료시켰다. 김창업, 이의현, 홍대용, 박지원 등의 연행사들은 한문학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한문학에 관한 조예도 깊었기에,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선인들이 남긴 여행기나 문학 서적을 통해 중국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선인들이 묘사한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선인들이 기록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냈다. 따라서 연행사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 명승지, 인문경관, 도시와 궁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

48) Edward W. Soja, 『後大都市：城市和區域的批判性研究』, 李鈞 譯, 上海教育出版社, 2006, 9면.

49) 包亞明, 『後大都市與文化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5, 23면.

## 1. 광활하고 수려한 田野와 山川

인간은 심미적 활동의 주체로서 심미적 대상에 깊이 반응한다. 심미적 활동 중 인간은 주관적인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심미적 경험으로 표출되도록 한다. 연행사는 심미적 주체로서 중국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바라보고 느낀 심미적 대상이 중국의 산과 구릉 등 자연이었다. 이것은 이들에게 끝없는 신선함과 심미적 경험을 안겨주었다. 프랑스의 비교문학 형상학 연구 전문가인 파조(Daniel-Henri Pageaux)는 “나’는 타자를 주시하고, 타자 형상은 동시에 ‘나’라는 주시자, 화자, 작자의 어떤 형상을 전달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sup>50)</sup> 따라서 형상학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자연환경이 연행사들의 심미적 경험을 유발함으로써, 이들이 ‘주시자’이자 ‘화자’로서 중국 자연환경의 형상을 묘사하게 만든 것이다.

### 1) 광활한 遼東의 田野

연행사들이 청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광활한 요동 벌판이다. 김창업은 “九連에서 鳳城까지는 산수가 아름답고 이따금 벌판이 펼쳐져 있다.”<sup>51)</sup>라고 하였고, 이의현은 『庚子燕行雜識』에서 변경 위에 세워진 通軍亭의 광경에 대해 “이 정자는 연경과 요동의 경계를 누르고 있어 그 경관이 아득히 광활하면서도 기이하다.”라고 묘사하였다.<sup>52)</sup> 이 광경에 대해 김창업은 다시 “구련성 이후론 산이 치솟고 물이 굽이치며, 곳곳에 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토양이 기

50)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4면.

51)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自九連至鳳城, 山秀水明, 往往開野.”

52)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是亭正壓燕、遼之界, 莽蕩奇壯.”

름져서 모두 밭이 될 만하였다. 그리고 경치가 매우 좋은 곳도 있었다.”<sup>53)</sup>라고 하였다.

구련성은 연행사가 국경을 넘어 청나라로 건너가서 처음 보는 국경 도시이자,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 연행사를 맞이하는 곳이다. 청나라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연행사는 청나라의 들판은 넓고 땅은 비옥하며 산과 물이 서로 맞닿아 있어 “풍수 역시 좋은 곳”이라고 감탄했다.

압록강을 건넌 박지원이 본 것도 같은 풍경이었다.

홀로 높은 언덕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니, 산은 곱고 물은 맑은데 판국이 탁 트이고,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그 속에 은은히 큰 부락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개와 닭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며 땅이 기름져 개간하기에도 알맞을 것 같다. 溟江 서쪽과 압록강 동편에는 이와 비교할 만한 곳이 없다.<sup>54)</sup>

박지원은 “산수의 경치가 맑고 아름답다. [山明水淸]”라고 하면서, 토지가 광활하고 비옥하여 압록강 동쪽과 비교할 만한 곳이 없다고 감탄하였다. 연행사들이 청나라의 산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유교 문화에서 공자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智者樂水, 仁者樂山.]”<sup>55)</sup>에 나타나는 관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산을 좋아하는 것’과 ‘물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군자’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대체로 유교 지식인

---

53)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一月二十七日, “自九連城以後, 山回水灣, 處處開野, 土性膏沃, 皆可田, 風水亦有極好處.”

54)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朱瑞平 校點), 上海書店出版社, 1997, 6면. “獨立高阜, 舉目四望, 山明水淸, 開局平遠, 樹木連天, 隱隱有大村落, 如聞鷄犬之聲. 土地肥沃, 可以耕墾. 溟江以西, 鴨綠以東, 無與此比.”아래에 인용한 『熱河日記』의 내용은 모두 이 판본에서 나온 것이므로 부연 설명은 생략한다.

55) 孔子, 『論語·雍也篇』.

으로 살았던 연행사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2) 수려하고 기이한 山川

연행사들은 청나라의 산천을 묘사하기를 특히 좋아했다. 김창업은 『山川風俗總錄』에서 자신이 바라본 산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길에서 보이는 가까운 산으로는 九連城의 松鶴山, 鳳凰城의 봉황산, 廣寧의 醫巫閭山과 十三山, 山海關의 角山, 薊州의 崆峒山과 盤龍山이 있다. 이 일곱 산은 모두 石山이다. 먼 산 중에서는 昌黎縣의 文筆峯과 요동의 千山이 가장 빼어나다. 서북변 長城 일대에도 奇峯이 많은데, 이름을 알 수 없다.<sup>56)</sup>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보이는 것은 송학산이다. 구련성에서 멀지 않은 송골산은 성의 서북쪽에 있었다. 김창업은 “우리나라의 관악산보다 더 큰 산이다. 그 이상으로 기이하게 아름답다.”<sup>57)</sup>라고 묘사하였다. 국경의 한 산과 관악산을 비교한 대목에서 청나라 산수에 대한 김창업의 애정과 찬사가 대단했음을 엿볼 수 있다.

안시성에서 멀지 않은 봉황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5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九連城之松鶴山, 鳳凰城之鳳凰山, 廣寧之醫巫閭山·十三山, 山海關之角山, 薊州之崆峒山·盤龍山, 此七山皆石山. 其遠山, 昌黎縣之文筆峯, 遼東之千山, 最奇秀, 而西北邊長城一帶, 亦多奇峯, 不知名.”

5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一月二十七日, “是山大如我國冠嶽, 而奇秀過之.”

길이 봉황산으로 접어드니 산의 남쪽, 북쪽, 서쪽 삼면이 모두 눈에 들어왔다. 이 산은 크기가 우리나라의 水落山만 하다. 봉우리는 붓을 꽂은 듯하고, 돌 빛깔은 푸르고 윤택하였다. 동남쪽의 4, 5개 봉우리는 더욱 수려하여 우리나라의 산 중에는 견줄 것이 없었다. 이곳의 산들은 거의 깎아 세운 듯 가파르고 산기슭이 없다. 우리나라의 산형과는 조금도 같지 않았다.<sup>58)</sup>

요동의 산들이 자국의 산과 비슷한 점도 있을뿐더러 자국의 산보다 ‘기이하게 아름답다 [奇秀]’라고 묘사하였다. 같은 봉황산을 두고 김창업은 “기이하게 아름답다 [奇秀]”라고 감탄하였으며, 박지원은 “기이하고 뾰족하다 [奇峭]”라는 점에 감탄하여, “봉황산은 예닐곱 리 떨어져 있는데, 앞을 보니 진정 기이하고 뾰족하다.”<sup>59)</sup>라고 하였다. 박지원의 묘사에 따르면, 봉황산은 “날아다니는 새도 오르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삼면이 가파른 산이었다.

같은 사물을 두고도 심미적 주체마다 심미적 감상이 다르다. 홍대용은 연행 작품에서 따로 지면을 떼어 봉황산을 묘사하였다. 그는 봉황산의 “기이한 아름다움 [奇秀]” 뿐만이 아니라, 봉황산의 “기묘하고 험준함 [奇駿]”도 강조하였다.

푸른 산이 우뚝 천 길이나 솟아올라 있다. 관문 안팎으로 2천 리 중에 오직 昌黎縣의 文筆峯만이 그런대로 비교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道峯·金

---

5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一月二十八日, “山之南北西三面, 皆可見. 是山大如我國水落, 而峰如插筆, 石色蒼潤, 東南四五峯尤奇秀, 恐我國無可擬者. 此處山, 大抵皆壁立, 無餘麓迤邐, 與我國山形, 絕不同矣.”

59)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2면, “鳳凰山離此六七裏, 看其前面, 眞覺奇峭 ……”, 三面皆絕險, 飛鳥莫能上, 惟正南面一面稍平.”

剛·清涼·月出 등 여러 산이 비록 기묘하고 험준하기로 이름이 났으나 봉황산만은 못하다. 못 봉우리가 겹겹이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1만 개의 횃불이 하늘 높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sup>60)</sup>

파조(Daniel-Henri Pageaux)의 말처럼, “모든 형상은 비록 매우 미약할지라도 자아와 타자, 본토와 이국의 관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sup>61)</sup> 따라서 연행사들 또한 사신으로서 떠난 여정 속에서 바라본 청나라의 풍경을 무의식중에 자신의 주관적 의식에 담아 자국의 유사한 상황과 비교하였다. 홍대용도 그래서 봉황산과 금강산 산봉우리들을 비교하며, 봉황산의 “기이하고 험준한”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멀리서 바라본 봉황산은 “푸른 산이 우뚝하니 천 길이나 솟아올라 있었다.” 그래서 산에 오르기 좋아하는 연행사들은 올라가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험준한 산세 때문에 실제로 산에 오른 연행사는 소수였다. 네 명의 사신 중 홍대용만이 직접 봉황산에 올랐다. 동행한 이들은 모두 그에게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권했다. 아래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 통역이 역시 말하기를, “이 길을 오간 30년 사이에 오직 정승 한 사람이 上使가 되어서 이 산에 올랐었다. 그때도 수십 명을 거느리고 假輿를 탄 채로 오르내렸기에 자기 힘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겨우 낭패를 면했을 뿐이었다. 그 사람 말고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다.<sup>62)</sup>

---

60) 洪大容, 『湛軒燕記·鳳凰山』, “仰見碧嶂湧立, 秀出千丈, 關內外二千裏, 惟昌黎縣文筆峯略相當也. 在我東如道峯·金剛·清涼·月出諸山, 雖以奇峻名, 不若鳳凰之叢疊峭拔, 如植萬炬, 烘烘然烈焰騰空也.”

61)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4면.

62) 洪大容, 『湛軒燕記·鳳凰山』, “丁譯亦云三十年爲此行, 惟一宰相爲上使登此山, 率數十人乘假輿, 下上不費己力. 故僅免顛沛, 餘外無聞焉.”

봉황산은 너무 험해서 30년 동안 단 한 명의 재상만이 이 산에 올랐을 뿐인데, 그 또한 수십 명의 도움을 받은 뒤에야 산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홍대용은 평중과 산에 오르기로 약속하였으나, 등산의 위험 때문에 평중이 말없이 떠나 버렸다.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홍대용은 한 노인에게, “그대는 외국인이니 다시 오기도 쉽지 않은데 어찌하여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sup>63)</sup> 어려운 산행에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대용은 결국 노인들과 산행 중 만난 나그네들의 조언을 따라서 봉황산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멀리서 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산의 실제 경치를 보고서, 심지어 동방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고 감탄하였다.

산은 마치 藍田의 옥처럼 푸르렀고 폭포수가 흘러내려 석담을 이루었다. 또 흰 눈처럼 하얀 기암괴석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는 산을 휘감고 있는 도화동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몇 리 지나면 돌무더기가 이어지는데 마치 칼로 깎은 듯하였다. 그 위쪽에는 노송과 아름다운 들꽃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깊은 산 속에서 울려 퍼지는 두견새의 맑은 울음소리 또한 자국에서는 경험한 적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sup>64)</sup> 그래서 이에 대해 “솔바람과 냇물 소리가 유유히 들려와 심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니, 거문고 소리보다 좋구나.”라고 하였고, 또 봉황성을 본 후에는 “인가가 그림 같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이하여, 산행의 고됨도 잊힌다.”라고 하였다. 또 이러한 산속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홀로 걸으니, 흥이 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였다.<sup>65)</sup> 아름다운 경치를

63) 洪大容, 『湛軒燕記·鳳凰山』, “君是外國人, 再來不易, 何不努力前去.”

64) 위의 책, “峯勢益戍削, 壁色蒼潤如藍玉, 石礪懸瀉爲瀑爲潭. 往往有白石如雪, 練方數丈, 此則所未見於盤山桃洞也. 行里許, 左有十數丈壁, 累石相承, 橫張如屏者, 可三十步, 平削天成. 間以古松偃蓋, 鵲花映發, 在東方所未易得也.”

65) 위의 책, “悠揚於松風澗水之中, 心神清醒, 絕勝於琴筑也.” “人烟歷歷如畫, 四顧叫奇, 頓忘陟之勞.” “惟孤行無與語, 殊爲敗興.”

보고도 감상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 또한 지식인의 고독한 생의 한 면일 것이다.

봉황산은 아름다우면서도 기이하였으니, 험준한 자연 풍경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적 경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으로 들어가니 매우 큰 굴이 있었고 가파른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 안에는 大寧寺, 朝陽寺, 觀音窟, 藥王殿, 娘娘廟 등 여러 빼어난 경치가 있었다.”<sup>66)</sup>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大寧寺를 둘러보고 절의 도사에게 따듯한 대접을 받았다. 도사의 안내로 觀音窟과 朝陽, 藥王殿, 娘娘廟를 둘러본 홍대용은 관음굴 앞에서 세상과 단절된 신선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느꼈을 정도다. 이는 처음 보는 기이한 경관이었다. 이번 봉황산 유람에서 그는 산속의 기이한 풍경뿐만 아니라, 관음굴과 같이 흔치 않은 인문적 경관을 만날 수 있었다.<sup>67)</sup>

또 일반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겪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어 길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해 “숲이 깊고 골짜기가 깊어서 어둡침침하여 이미 저녁인 듯싶었는데, 범의 똥과 발자국이 가는 곳마다 수두룩했다. 나 역시 걱정되고 겁이 났다.”<sup>68)</sup>라고 하였다. 다행히 산에서 나물을 캐던 모자를 만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록에 따르면 홍대용에게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熱河日記』 권1의 끝부분에서 박지원은 청나라의 산천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 「山川記略」이라는 글로 작성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요양 남서쪽의 駐蹕山(본래는 首山), 봉천부 북서쪽의 開運山과 鐵背山, 승덕현 동쪽의 天柱

66) 홍대용, 『湛軒燕記·鳳凰山』, “入門, 洞府寬敞, 環以峭峯, 中有大寧寺·朝陽寺·觀音窟·藥王殿·娘娘廟諸勝.”

67) 위의 책, “至觀音窟前, 突立三四十丈. 上有藥王·娘娘兩廟殿, 皆架空御風. 因巖石爲墻壁, 古松數十根, 盤鬱交幹. 時有兩人佇立松石間, 莽蒼互望, 眞是隔仙塵也. 蓋此山, 專以峯著勝, 上頭成此洞府, 粧出許多寺觀, 奇巧幽妙. 雖萬石林立, 絕無峽山頑態, 是行山水中第一觀也.”

68) 위의 책, “林深谷邃, 沉沉已夕陰矣. 虎屎虎跡, 隨處狼藉, 余亦憂怖罔措.”

山, 승덕현 북서쪽의 隆業山, 금주부 동쪽의 十三山, 봉천부 남쪽의 渤海, 승덕부 서쪽의 遼河, 승덕부 남쪽의 渾河, 요양 북쪽의 太子河, 승덕부 남쪽의 小瀋水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駐蹕山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려 나섰을 때 주둔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鐵背山은 그 색이 철과 같고, 모양이 사람의 등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위에 있는 界蕃城은 일찍이 누르하치 후금의 제2 도읍지였고 역사상 유명한 사르후 전투의 격전지였다. 계번성과 사르후성 사이에서 명나라 자칭 40만(실제로는 십수만) 대군이 큰 타격을 입어 후금(이후 청나라)군의 대승으로 끝난 뒤에 후금은 산림을 벗어나 평원으로 진출하면서 청나라 건국의 토대를 다졌다. 건륭제는 이 전쟁의 의미를 말하면서 “기틀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開運山에는 청의 永陵이 있고, 天柱山에는 청의 福陵이 있고, 隆業山에는 청의 昭陵이 있다. 十三山은 금주부 동쪽에 있는 醫巫閭山의 餘脈으로 열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지원은 금나라 문인 蔡珪의 시구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여산이 다한 곳에 다시금 열세 봉우리 閭山盡處十三山

갯마을 집집마다 그림 사이 보이누나 溪曲人家畫幅間<sup>69)</sup>

十三山을 묘사하였다. 이 대목은 금나라 문학의 실질적 창시자로 ‘국조문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蔡珪의 시 「十三山下村落」의 구절이다. 박지원은 이 시를 인용하여 당시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山川記略」

69)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 58면.

에서 박지원은 『盛京(統)通志』, 『漢書』, 『水經注』로 발해, 요하, 혼하, 태자하, 소심수의 위치와 발원지를 고증하였으며, 관련 역사적 사실과 전설을 종합하여 고증하였다. 박지원은 요동의 산수에 대해 단순히 기록만 하지 않고 출처와 별칭을 고증하였다. 또한 산수 부근의 도시 지형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청나라 문인들의 시구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박학다식하였다.

### 3) 풍부하게 이어진 크고 작은 하천들

연행사들은 청나라의 산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도 많은 묘사를 하였다.

강물은 遼東의 太子河, 瀋陽의 渾河, (遼東은 곧 周流河이다.) 錦州衛의 大凌河·小凌河, 永平府의 靑龍河·灤河, 豐潤縣의 還鄉河, 薊州의 漁陽河, 三河縣의 滹沱河, 廣州의 白河이다. 이 13개 강에는 모두 배가 있고, 다리도 있다. 그런데 白河와 遼河가 가장 커서 거의 우리나라의 임진강과 비슷하다. 나머지 8개 강은 크기가 金川의 猪灘과 비슷하였다.<sup>70)</sup>

김창업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만 해도 송점 부근의 웅북하를 비롯하여 십여 군데에 달한다. 박지원은 조선의 저탄과 크기가 비슷한 삼가하와 유가하

---

70)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遼東太子河, 瀋陽渾河(遼東, 卽周流河), 錦州衛大凌河·小凌河, 永平府靑龍河·灤河, 豐潤縣還香河, 薊州漁陽河, 三河縣滹沱河, 廣州白河. 此十三水, 皆有舟, 而亦皆有橋. 白河·遼河最大, 幾如我國臨津. 其餘八水, 大如金川猪灘.”

도 함께 소개하였고, 강을 건너는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옹북하의 상류에는 八渡河(박지원은 ‘金家河’라고 일컬음)가 있다. 太子河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행사가 언급하는 강이다. 태자하의 명칭에 대해 이의현은 “태자하는 연나라 태자 丹이 숨은 곳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塔子河를 太子로 잘못 칭한 것이다’라고도 한다.”라고 했다.<sup>71)</sup> 김창업은 이곳을 지나면서 태자하뿐만 아니라 이 강에 합류하는 세 줄기의 하천도 언급하였다. 물을 싫어하였다면, 이국의 강의 흐름을 이렇게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연행사들이 청나라 산수를 즐겼다고 해서 그들이 청나라에 올 때 과연 기쁘고 들뜨기만 했을까? 이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다. 김창업은 처음 청나라로 넘어가기 위해 압록강을 건널 때 ‘우울하고 암울한’ 감정을 역력히 표현했다.

이 강을 지나면 저들의 땅이다. 조카 김제겸을 여기서 떼어 보냈는데, 이별의 회포가 갑절이나 슬펐다. 前導(길잡이)들도 다 떨어져 돌아갔다. …… 여기에 이르면 초행길인 사람은 흔히 눈물을 흘리고, 강 위에서 전송하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다가 푸른 일산이 너풀너풀 잠깐 사이에 사라져 가는 것을 보고 서러움에 낯을 잃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한다.<sup>72)</sup>

박지원은 압록강을 건널 때, 중국의 유명한 협객 荊軻를 언급하였다. 이로써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세찬 바람이 불고 물이 차다. [風蕭蕭兮易水寒]’라는

---

71)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太子河, 舊傳燕太子丹所匿處, 而或云 ‘非也, 是塔子河而訛稱太子’云.”

7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一月二十六日, “過江則彼地也. 濟侄至此落歸, 別懷一倍悵黯. 前導亦盡落. …… 到此, 初行之人多墮淚. 送者在江上望見, 青蓋翩翩, 須臾而滅, 亦無不銷魂云.”

느낌을 전달하였다. 그는 “칭이 들어와 중국을 차지한 후에 선왕의 제도가 변해 오랑캐가 되었다.”<sup>73)</sup>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행사의 마음은 명나라 시기의 고무된 감정이 아니라 호기심, 긍정, 신중함, 불쾌 등 모순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압록강은 조선과 중국에 있어 특별한 존재이다. 양국 사이에 놓인 천혜의 요새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지원은 『熱河日記·渡江錄』에서 압록강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압록강은 물빛이 오리 머리의 색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황하, 장강과 견줄만한 강이라고 하였다. 박지원의 이러한 견해는 명나라 張天復의 작품 『皇輿考』에서 말한 “천하에 3대 강이 있으니 황하, 장강, 압록강이다. [天下有三大水, 黃河·長江·鴨綠江也.]”에서 나온 것이다.

박지원이 속한 사신단이 강을 건너려 할 때는 다음과 같았다.

그럼에도 마침 한창 장마철이어서 나룻가 배 대는 곳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中流의 모래톱마저 흔적 없다. 사공이 조금만 실수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잡을 수 없는 정도이다.<sup>74)</sup>

압록강은 조선과 중국 사이의 국경지대를 흐르는 강일 뿐만이 아니다. 연행사가 여정을 출발하는 시작점이면서, 문화가 교류하고 충돌하는 기점이라는 데에 문화적 의의가 있다. 한국 학자 趙東一은 “『熱河日記』가 압록강을 건널 때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계속 묘사하는 것을 보면 ‘강’의 의미가 단순한

---

73)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면, “清人入主中國, 而先王之制度變而爲胡.”

74) 위의 책, 2면, “今當盛潦, 汀步艤泊皆失故處, 中流礁沙亦所難審, 操舟者少失其勢, 則有非人力所可回旋.”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의 여행기가 「渡江錄」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침 장마철이라 물살이 솟구쳤는데, 압록강의 물결이 하늘을 찌르는 장관은 새로이 부상하는 청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75)</sup>

이 학자의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박지원이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여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없애려는 개혁가로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압록강의 거친 물살은 연행사의 모순되고 복잡한 심경과 비슷하다. 또한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 내리며, 탁류가 하늘과 맞닿았다. [木石俱轉, 濁浪連空.]”라고 묘사한 대목은, 사신으로서 여정에서 느낀 고달픔과 허탈함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명의 연행사 김창업, 이의현, 홍대용, 박지원은 모두 청나라 산수에 관해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저마다 남다르게 뛰어난 부분이 있다. 그중에서도 김창업과 박지원은 기행문 형식으로 청나라 산수를 기록했다. 이는 자제 군관의 신분으로 사행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청나라를 방문하였기 때문인데, 두 사람의 묘사가 기행문 성격이 짙으면서 청나라 산수를 섬세하게 다루었다.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이의현은 청나라 산수에 대한 묘사 자체가 평범하다. 홍대용은 일률적인 여행기 형식이 아니라, 전문 주제별로 묘사하였다.

---

75) 趙東一等, 『韓國文學論綱』, 周彪·劉鑽擴 譯, 北京大學出版社, 2003, 124면.

## 2. 유서 깊은 人文景觀

인문경관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오랜 역사적 흔적이다. 이를 통해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여행사가 ‘타자’로서 청나라라는 이국 공간에 왔을 때, 그들은 이국적 특색을 지닌 자연경관을 보는 것 외에도, 민족적 특색을 지닌 인문경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자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경관에 관심이 있었으며, 이어서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할 수 있는 경관에 관심이 있었다. 이는 비판과 칭찬을 모두 포함한다.

자국과 다른 모습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청나라 사찰과 도관에 관한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다. 김창업도 “이곳은 사찰과 도관이 우리나라의 서원처럼 많다.”<sup>76)</sup>라고 하여 관심을 드러내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여 기록을 남긴 대상으로는 기자의 묘, 백이숙제의 묘, 맹강녀의 묘 등이 있다.

비교문학 형상학에서 주목하는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볼 때, 글쓴이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취하여 자기 글의 형상을 설계하는 데에 반영한다. 그가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는 일정한 수의 특징을 선택하고, 이 특징들이 그가 묘사하는 이국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sup>77)</sup> 즉 여행사는 이국의 형상을 기록할 때, 단순하게 그 현실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도덕관념이나 미학적 추구나 어떤 문화적 추구에 맞추어 그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이국 형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

7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初二日, “此地寺觀之多, 如我國書院.”

77)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206면.

## 1)역사가 유구한 변경의 고적

다니엘 앙리 파조(Daniel-Henri Pageaux)는 비교문학에서의 형상 문제에 대해 “비교문학적인 형상은 현실의 복제품(또는 유사한 사물)이 아니라, 주시자의 문화 속 패턴이나 프로세스에 따라 재구성되고 다시 쓰인다. 이러한 패턴과 프로세스는 형상보다 먼저 존재한다.”라고 하였다.<sup>78)</sup> 파조에 따르면 연행사들은 청나라라는 ‘이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청나라에 대한 관념을 형성했고, 그들 자신의 관념 속에서 ‘타자’의 형상을 구축하였다. 연행사들이 청나라라는 ‘이국’에 들어간 후에는 그들 작품이 표면적으로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진실한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원래 지녔던 관념과 잠재의식 속에서 주관적 정서에 깊이 뿌리를 두고서, 무엇을 선택하여 기록할지, 어떻게 기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청나라 명승고적에 대한 연행사들의 기록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광활한 요동 지역의 고적처럼 조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고적을 기록하였다. 또 사신단의 여정 속에서 모든 유교 사대부의 사상 관념에 부합하는 문화 고적을 이들이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연행사들은 상대적으로 청나라의 산수보다는 명승고적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행사들은 광활한 요동 지역에 있는 고적의 경관을 묘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 고적의 역사 또한 고증했다. 박지원은 역사적 사실, 고사, 전설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인용하여 조사, 실증, 설명하였다. 이는 청나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利用厚生’을 목표로 하는 그의 실사구시적 정신을 반영한다.

연행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에 이른 첫날 구련성에서 묵었다. 이들이

---

78)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157면.

본 것은 다만 “우거진 숲은 푸른 장막을 들렀고, 군데군데 호랑이 잡는 그물을 쳐놓았다.”라는 것이거나, “산과 물이 맑으며 환국이 탁 트이고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하다.”라는 것과 같은 광경이었다.<sup>79)</sup> 구련성은 금나라 때 만들어졌고, 명나라 때 九聯城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九連城으로 이름을 바꾸고 鎮江城을 증축하였다. 구련성은 요동 동남쪽 국경의 군사 요충지이자 명·청 두 시대에 걸쳐 청나라와 한국의 통상 길목이기도 하다.<sup>80)</sup> 또한 양국 사절들이 왕래하는 필수 길목이기도 했다.

높은 곳에서 비옥한 땅을 바라보던 박지원은 은은하게 들려오는 마을의 닭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압록강 동쪽에서 이곳에 비견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이곳에 巨鎮이나 雄府를 설치할 만하다. [合置巨鎮雄府]”라고 감탄하였다. 아울러 청나라가 요동을 함락했을 때, 鎮江 사람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무용담도 서술하였다.

청이 遼東을 함락시킴에 鎮江 사람들이 머리 깎기를 싫어하여 혹은 毛文龍에게 가고 혹은 우리나라에도 귀화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모조리 청의 요구에 따라 돌려보냈고, 모문룡에게 간 사람들은 많이 劉海(명을 저버린 장수)의 난리에 죽었다. 그래서 빈 땅이 된 지도 벌써 백여 년에, 쓸쓸하게도 산 높고 물 맑은 것만 눈에 띈 따름이다.<sup>81)</sup>

毛文龍은 명나라 말기에 청나라에 항거했던 유명한 명장이자, 청나라 군대

79)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6면, “綠蕪列幕, 周羅虎網.” “山明水清, 開局平遠, 樹木連天.”

80) 張麗娜, 『『熱河日記』 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87면.

81)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6면, “今清陷遼, 則鎮江民人不肯剃頭, 或投毛文龍, 或投我國. 其後投我者盡爲清人所刷還; 投文龍者多死於劉海之亂矣. 其爲空地且將百餘年, 漠然徒見山高而水清者是也.”

를 가장 많이 섬멸한 군사 지휘관이다. 그는 ‘바다의 만리장성 [海上長城]’으로 불리는 등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청나라 군대가 九連城을 함락시키고, 항복하지 않은 백성들을 학살한 사실을 안 모문룡은 밤에 구련성을 기습 공격을 하여 청나라 군의 수장을 사로잡았다. 이는 역사에 ‘鎮江大捷’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이곳 백성들은 毛文龍을 따라 청나라 군대에 맞서 싸웠다. 박지원은 청나라 군대에 맞서 싸운 백성들의 무용담에 감탄하면서도, 그곳이 결국은 청나라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이제는 황폐해진 뒤로 백여 년이 흘렀기에, 푸른 산과 물을 보면서 그 시절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연행사들은 구련성을 지나 또 하나의 고성 유적인 안시성을 만난다. 연행사 넷 중에서 김창업이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는데, 그는 봉황산 남쪽에 고적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자세한 설명을 남기지는 않았다. 김창업은 『一統志』의 기록에 따라, 안시성이 이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두 사신인 홍대용과 박지원은 이곳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홍대용은 봉황산에 오른 뒤에 안시성 터를 찾았는데, 고성(안시성)은 북문 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돌로 만들어진 성과 산을 따라 건축된 것들이 조선의 산성 축조 방식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비록 성안에 주민이 없고 옛 성벽만 남아있지만, 이곳이 틀림없이 안시성이라고 결론지었다.

밖은 험하고 안은 평탄하여 수만 호가 살 수 있을 만하다. 때마침 오래 가물고 난 끝인데도 물과 샘이 넘쳐흐르고 있으니, 정말 天險의 金城이다. 이곳 사람들이 혹은 古城이라고 하고, 혹은 安市城이라고 한다.<sup>82)</sup>

82) 洪大容, 『湛軒燕記·鳳凰山』, “外險內平, 可容數萬人戶. 時當久旱, 水泉豐溢, 實天險金城也. 此地人或稱古城, 或稱安市城, 想唐太宗以天下兵力, 攻之數月, 雲梯距圍, 終不得施其功. 豈惟城主之財力過人者, 必其地利有以制之也. 此其爲安市也無疑矣.”

홍대용은 고성(高城)의 위치가 아주 훌륭하면서도 산을 끼고 있어 적을 방어하기가 쉽고 물도 풍부하여 천혜의 요새일 뿐만이 아니라, 수비가 쉽다는 사실에 감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唐)太宗(太宗)李世民(世民)이 전국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성을 공격했으나 결국 얻을 수 없었던 것에 주목하였다. 곧 안시성(安時城) 성주가 재력이 풍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형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천하를 진동시키던 이 고성은 하나의 유적으로 남았을 뿐이다.

박지원은 자신이 본 유적지 모습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청나라의 옛 문헌을 활용하여 고증하기까지 하였다. 안시성을 처음 봤을 때, 박지원은 성이 봉황산(鳳凰山)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산속에安市城(安時城)의 옛터가 있어서城堞(성벽)이 지금껏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릇된 말이다. …… 이곳이 좀 평평하기는 하지만 주위가 수백 보에 지나지 않는다. 곧 이렇게 탄알처럼 작은 성은 큰 군사가 오랫동안 머물 만한 곳은 아니다. 이는 아마도 고구려 때에 있었던 조그마한堡壘(성)인 듯하다.<sup>83)</sup>

박지원은 이렇게 작은 성 하나가 대군이 주둔했던 안시성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튿날 사신단이 봉황성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봉황성이 바로 안시성이라고 했으나, 박지원은 『唐書』와 『資治通鑑』을 근거로 들어 봉황성도 안시성 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증했다. 중요한 것은 안시성과 봉황성뿐만 아니라, 광활한 요동(遼東) 벌판도 모두 조선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

---

83)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2면, “山中有安市城舊址, 遺堞尙存云, 非也. …… 周不過數百步, 卽此彈丸小城, 非久淹大軍之地, 似是句麗時小小壘堡耳.”

다.

더구나 요동에도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고 하면, 해괴한 말이라 하면서 나무랄 것이다. 그들은 요동이 본시 조선 땅이며, 肅慎·穢·貊 등 東夷의 여러 나라가 모두 위만의 조선에 예속되었던 땅임을 아직 알지 못한다. 또 烏刺·寧古塔·後春 등의 지역이 본시 고구려의 옛 땅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아, 후세 선비들은 이러한 경계를 밝히지 않고서, 함부로 漢四郡 위치를 전부 압록강 안쪽에 몰아넣은 뒤에, 사실을 억지로 꿰어맞추고 구구하게 나누어 배치한다. 그리고 다시 溟水를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여, 혹은 압록강을 ‘패수’라 하고, 혹은 청천강을 ‘패수’라 하며, 혹은 대동강을 ‘패수’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sup>84)</sup>

박지원은 당시 사람들이 봉황성이 한반도의 강토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오류가 ‘漢代四郡’이 압록강 안에 있었다고 잘못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의 옛 영토의 경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대의 溟水 위치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하였다. 박지원은 ‘漢代四郡’에는 요동뿐만 아니라 여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는 한나라 이후로 발생한 지리적 오차를 옛사람들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자국 사람들은 옛 평양을 좌표로 삼아 고대 패수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거리가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패수는 고구

---

84)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7면, “若曰遼東復有平壤則叱爲怪駭, 獨不知遼東本朝鮮故地, 肅慎、穢貊、東彝(夷)諸國盡服屬衛滿朝鮮. 又不知烏刺、寧古塔、後春等地本高句麗疆. 嗟乎! 後世不詳地界, 則妄把漢四郡地盡局之於鴨綠江內, 牽合事實, 區區分排. 乃復覓溟水于其中, 或指鴨綠江爲溟水, 或指清川江爲溟水, 或指大同江爲溟水, 是朝鮮舊疆不戰自蹙矣.”

려 영토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봉황성은 안시성이 아니라 고대의 평양인 것일까?

박지원은 『唐書』, 『金史』, 『文獻通考』, 『遼史』를 고증하여 평양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영평과 광녕 사이에 하나의 평양이 있었고, 요양현에도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 이후로 “땅 삼천리를 잃고 점차 동쪽으로 옮겨가기를 마치 청나라 진과 송이 남으로 옮겨가듯이 하였다. 그리하여 머무는 곳이 모두 평양으로 불렸다.”라고 한다. 따라서 당시 대동강 기슭에 있는 평양성도 그중 하나이다.

溟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지원은 패수에 대한 당시의 인식에 편차가 발생한 것도 평양의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곧 대동강을 패수로 인정하면서 조선 강토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당나라 의봉 2년의 역사적 사실을 보조적 증거로 들었다. 당나라는 고려의 요동 땅을 얻었으나, 이를 다시 고려 왕에게 돌려주었다. 박지원은 평양은 원래 청나라 요동에 있었고, 한나라의 낙랑군 지역도 당시 평양이 아닌 요동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熱河日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양과 패수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긴데, 박지원의 해박한 문화 역사적 지식과 실사구시적 고증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의 애국심이 더욱 잘 드러난다.

연행사들은 구련성과 안시성 외에 옛 요동과 건주성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박지원은 요동의 지리적 경계와 역사 연혁을 기록하면서, 옛 요동과 신 요동의 차이점까지 기록했다. 또한 이 성이 여러 차례 청을 무찌른 명나라 명장 熊廷弼이 쌓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85)</sup> 熊廷弼은 청나라 군대를 좌절시켰지만, 명나라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죄를 얻고 물러났다. 그 이후로 명나라 장군들

---

85)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30-31면, “遼東舊城在漢襄平·遼陽二縣地. 秦曰遼東, 後入衛滿朝鮮. 漢末爲公孫度所據, 隋唐時, 屬高句麗. 契丹稱南京, 金稱東京, 元置行省, 皇明置定遼衛. 今陞爲遼陽州. 移城距二十里爲新遼陽, 此廢, 稱舊遼東. 城周二十里, 或謂熊廷弼所築也.”

은 청군에 패했다. 박지원은 요동의 옛 잔해를 마주하고서 탄식을 금치 못했다.

아아, 슬프다. 명나라 말기에 인재를 쓰고 버림이 거꾸로 되고, 공과 죄가 밝지 못하였다. 웅정필과 원승환의 죽음을 보건대, 스스로 그 長城을 허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6)</sup>

이는 명나라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고 생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 2) 다양하고 유서 깊은 廟宇道觀

네 명의 여행사는 청나라의 산을 유람할 때마다 거의 반드시 그곳에 있는 사찰도 둘러보았다. 비교적 큰 산일 때는 산 하나에 사찰이 여러 개인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홍대용이 유람한 봉황산에는 대녕사, 조양사, 관음굴, 약왕전, 낭랑묘 등이 있었는데, 산과 사찰이 어우러져 마치 속세와 분리된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개 이 산은 봉우리의 모습이 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산꼭대기에 이런 큰 洞府가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사찰과 도관을 장식하여, 기이하고 그윽하다. 비록 일만 개의 바윗돌이 숲처럼 빼곡하게 서 있어도, 험한 산의 보기

---

86)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32면, “嗚呼! 當皇明末運, 用捨顛倒, 功罪不明. 其視熊廷弼·袁崇煥之死, 可謂自毀其長城矣.”

싫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걸음에서 본 산수 중 제일의 장관이었다.<sup>87)</sup>

산속 사찰은 고유한 특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명승지 산수 속에서 명승의 일부를 이룬다. 여행 여정에서 여행자들은 특히 다양한 종류의 사찰과 도관에 주목했는데, 청나라의 사찰 도관은 그 수가 많고 장식이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김창업은 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鳳城에서부터 마을마다 神廟나 佛寺가 있었는데, 土地廟는 두어 집이 사는 마을이라도 모두 있었다. 작은 토지묘는 돌을 쌓아서 室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말[斗]만 하였다. 그 안에 화상을 모시고 그 앞에 질화로[瓦爐]를 놓고 분향한다. 關帝는 집마다 모두 있었으며, 畫像이나 塑像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분향하고 절한다. 그들의 神, 佛을 믿는 풍습이 대개 이렇다.<sup>88)</sup>

국경의 작은 성에서부터 마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전이나 절이 있고, 작은 마을에도 토지묘가 있어서 關武大帝인 關羽를 집마다 모셔야 할 정도였다. 김창업은 이러한 ‘崇信神佛 풍조’에 대해 은근하게 비판하였다. 또 다른 여행자인 이의현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마을이 있으면 반드시寺와 廟가 있다. 예를 들면 요양, 심양, 산해관 등에 가장 많다. 북경성 안팎에 가면 寺觀의 수가 민가의 3분의 1에 이른다.”라고 기록하였다.<sup>89)</sup> 이의현은 요양, 심양, 산해관

87) 洪大容, 『湛軒燕記·鳳凰山』, “蓋此山, 專以峯著勝. 上頭成此洞府, 粧出許多寺觀, 奇巧幽妙. 雖萬石林立, 絕無峽山頑態, 是行山水中第一觀也.”

8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四日, “自鳳城以後, 有村必有神廟或佛寺. 其土地廟則雖數家村, 皆有之. 小或累石爲室, 大如斗, 中供畫像, 前置瓦爐焚香. 關帝則無家不供, 或畫或塑, 朝夕焚香頂禮, 其崇信神佛之風, 蓋如此.”

89)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有村, 必有寺有廟, 如遼陽·瀋陽·山海關等處最多. 至北京城內

등 사찰이 가장 많은 지역을 이야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경에 가면 사찰이 민가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사찰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청나라 시기 청나라의 신앙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청나라에서 불교는 한나라 때부터 매우 번성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사찰이 많고 심지어 천년고찰도 있다. 홍대용이 쓴 북경의 법장사와 홍인사가 대표적인 사찰이다. 법장사는 비록 “법당이 허물어지고 경내가 황폐하다. [殿宇圯傷，庭廡荒榛.]”라고 했지만, 그 뒤로 높은 탑이 볼만하였다. 홍대용은 탑의 정교함과 내부 구조에 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탑 안에는 커다란 불상이 있고, 불상을 따라 계단을 오르게 되어 있었다. 각 층에는 8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층에서 보는 경치가 제일 아름다웠다. 북경성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正陽門과 崇文門이 보이고 萬歲山과 太和殿까지 볼 수 있었다. 그 정도로 먼 시가지와 인가를 선명하게 내다볼 수 있었다. 서쪽으로는 天壇의 정자와 누각이 보이고, 멀리 바라보면 구름 사이로 紫瓦樓閣이 매우 아름답게 비치어 보였다. 더 멀리로는 귀족들의 묘원도 보였다. 북경에서 가장 웅장한 경관이라 할 수 있었다.<sup>90)</sup>

홍대용은 弘仁寺에 대해서 “殿廡가 크고 화려하여 雍和宮에 못지않다. 향나무 불상이 있고 부처의 뼈도 있는데 매우 크고 기이하고, 통나무집 속에 千佛을 모셨는데 나무 둘레가 10여 발이나 된다고 한다.”<sup>91)</sup>라고 하였다. 이 사찰은 전당이 翁化宮<sup>92)</sup>에 못지않게 화려하고 크며, 부처의 뼈와 천불상을 보관하고

---

外，寺觀比人家，幾居三分之一。”

90) 洪大容, 『湛軒燕記·法藏寺』, “至上層, 憑牕而望之, 北見正陽崇文兩門, 至萬歲山及太和諸殿, 滿城閭閻, 人烟瑞靄, 實爲燕都之第一偉觀. 西見天壇, 有紫瓦三簷圓閣, 高出半空. 外城三面, 極目雲樹, 皆墳園也.”

91) 洪大容, 『湛軒燕記·弘仁寺』, “殿廡之宏侈, 亞於雍和. 聞有栴檀佛像, 且有佛骨, 絕大而奇, 安千佛於一椽, 椽圓十數丈.”

92) 황제가 즉위하기 전에 살던 저택을 ‘潛龍邸’라고 불렀고, 황제가 된 뒤에는 올려 궁전으로 삼거나 비워 두는 것이 청나라 관례였다. 雍正帝의 즉위 전 저택을 雍和宮으로 고쳤고, 사당으로 바꾸어 보살들을 공양했다.

있었다고 한다. 비록 사신이 결국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외부 경관만 보더라도 홍인사는 외관이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그리고 내부에는 佛骨이라는 특별한 물건을 전하는 곳이었다. 홍대용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관리들과 민간에서 사역 중인 티베트 라마가 사원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康熙 때부터 라마를 존경하여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여 제왕의 스승으로 불렀다. 홍대용이 북경에 갔을 때에는 옹화궁과 홍인사에 머무는 라마(喇嘛)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 하지만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라마들은 출가하여 세속을 벗어난 수도자로서의 분위기가 사라져 옷차림이 사치스러웠고 매우 사나워 보였다. 라마에게 일어나던 모든 神異한 일도 줄었을 것이었다. 雍和宮과 弘仁寺로 대표되는 북경의 사찰이 더 이상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북경의 사당과 도관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역시 박지원이다. 그는 『熱河日記』에서 「蟲葉記」라는 제목의 독립된 글로 따로 분리하여 이 문제를 기술했는데, 그 서문에 황성인 북경에 사당과 도관, 특히 사찰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북경 안팎의 여염집과 점포들 사이에 있는 寺刹과 宮觀들이 전부 천자의 명에 따라 특별히 지은 것만 있을 뿐이 아니다. 모두 諸王과 駙馬 및 滿·漢의 대신들이 머무는 집들이다. 또한 큰 장사꾼들도 반드시 廟堂 한 채씩은 지어서 명복을 빌어 천자와 더불어 사치하고 화려함을 경쟁하였다. 그러므로 천자가 새삼스레 토목공사를 벌여서 따로 離宮을 두거나 하여 천자의 도성을 호화롭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sup>93)</sup>

93) 朴趾源, 『熱河日記·蟲葉記』, 341면, “皇城外内閭閻·塵鋪之間, 所有寺刹宮觀, 不特天子敕建, 皆諸王駙馬及滿漢大臣所舍第宅. 且富商大賈, 必創一廟堂以資冥佑, 與天子競其奢麗. 故天子不必更事土木, 別置離宮, 以奢天子之都也.”

청나라 황제는 불교와 도교를 깊이 믿었고 온 조정의 문무 대신도 앞다퉈 이를 본받았다. 민간의 부유한 상인들도 반드시 절을 세워 보호받고자 한 데다가, 서로 비교하며 절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따라서 황제가 크게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도 경성은 이들로 인해 매우 호화로운 곳이 되었다. 神佛을 숭상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풍조가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이처럼 ‘寺刹宮觀’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인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廟宇와 道觀의 사치스러운 풍조를 묘사한 것에 은근한 비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이 「蟲葉記」에서 언급한 10여 개의 사찰은 弘仁寺, 報國寺, 天寧寺, 法藏寺, 安國寺, 天慶寺, 隆福寺, 夕照寺, 明因寺, 大龍善護國寺, 崇福寺, 眞覺寺이다. 또한 白雲觀과 斗姥宮의 두 道觀과 關帝廟와 火神廟가 있고, 하나의 瑪竇塚과 여러 신을 모시는 太陽宮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교 사찰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의 사대부로서 유가의 도덕적 관념과 가치, 전통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청나라 역사 속의 현명한 군주와 신하를 매우 추앙하였다.

마찬가지로 홍인사에 대해서 김창업과 홍대용은 웅장하고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대해 기록했다. 하지만 박지원은 경내에 관한 언급이 매우 적고, 그 나머지는 전부 천수관음 뒤에 걸려 있는 화상에 대해 묘사하고 논의한 내용이다. 박지원은 뒤에 있는 그림 속 내용이 송나라의 어진 신하 陸秀夫가 황제 趙昀을 품에 안고서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라고 추정하였다. 陸秀夫의 자는 君實이다. 남송의 左丞相이자 민족 영웅이다. 그는 文天祥, 張世杰과 함께 ‘宋末三傑’로 불린다. 박지원은 충심으로 군주를 지키고 애국한 육수부의 영웅적 행동에 감탄하였다.

아아, 슬프도다. 충신과 의사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 간절한 忠君愛國의 마음을 늦추지 않는다. 곧 천하 국가의 근본이 진실로 오직 정의와 정심에 달려있을 뿐이다. …… 만일 이런 대의를 앞세울 줄을 안다면, 비록 조각배 속에 타고 있더라도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94)</sup>

박지원은 趙昞과 陸秀夫를 聖君과 良臣으로 칭송하였다. 그리고 한 나라에 그런 현명한 군주와 충실한 신하가 있다면, 비록 작은 나라라도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명한 군주에 대한 그의 칭송은 崇福寺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崇福寺의 원래 이름은 憫忠寺이다. 당 태종 李世民이 요동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사한 장병들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절이다. 박지원의 마음속에서 흥인사는 충의를 지킨 신하를 상징하고, 숭복사는 현명한 군주를 상징한다. 또 그가 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그 밖에도 숭복사에 있는 두 탑에 관해서도 썼다. 두 탑은 아마도 安祿山이나 史思明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그들을 반역자로 보지만, “중국인들은 천년의 유적이 있지만 몰락하지 않는다. [中國人猶以千年舊跡而不沒也]”라고 하며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국의 태도를 인정했다. 이는 통치자가 청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의 모든 실학자의 사상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

94) 朴趾源, 『熱河日記·崑葉記』, 342면, “嗚呼! 忠臣義士者, 不以顛沛覆亡而小懈其眷眷忠愛之心, 則誠為天下國家之本, 惟在於意識而心正. 一日無此君臣則已, 若一日有此君臣, 則此為一日之先務. …… 苟能先此, 則雖扁舟之中, 其治平之理未嘗不素具也.”

박지원은 북경 사찰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명한 군주와 충신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장터를 통해 북경의 변화함과 풍요로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배운 실학사상을 드러냈다. 宣武門 밖의 報國寺에는 매달 음력 초사흘과 초오일에 장이 선다. 이에 대해 박지원은 “나라 안의 모든 물건이 佛店에 모인다. 행랑을 돌아보면 살고 있는 중은 거의 없고, 다들 북경과 지방에서 온 장사치들이다. 변화한 거리와 다름이 없이 절 안이 도회지 같다.”<sup>95)</sup>라고 하였다.

그 변화한 모습은 『史記』에 기록된 “수레와 말이 서로 이어진다 [車馬相接]”라거나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히고 발끝이 부딪힌다 [人們摩肩擦踵]”라거나 “땀이 비처럼 쏟아진다 [揮汗如雨]”라거나 “행인들의 옷자락이 서로 이어져 장막을 이룬다 [行人衣襟連成帷幕]”라는 경우에 비견할 만하다.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 않다.

용복사는 매월 초하루와 초사흘이 장날이다. 장이 서면 보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몸을 돌리는 순간 동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찰의 상업이 번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조정의 충신들을 포함한 사대부들이 직접 절에 와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찾는 물건은 대개 골동 그릇이며 새로 발간된 서적이다. 또 法書·名畫·관복·염주·香囊·眼鏡 등이다. 타인에게 시켜서 군색스럽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직접 고르는 것이 유쾌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물건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소박하고 솔직함을 엿볼 수 있다. 이래서 중국 사람은 저마다 물건을 분별하고 감상할 줄 안다.<sup>96)</sup>

95) 朴趾源, 『熱河日記·蟲葉記』, 343면, “海內百貨輳集佛殿, 三寮廂周遭, 而居僧鮮少, 皆京外商旅, 無異闐闐, 禪林中一大都會也.”

96) 朴趾源, 『熱河日記·蟲葉記』, 347면, “其所覓物, 類多古董彝鼎、新刻書冊、法書名畫、朝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장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심지어 집에 하인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들조차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흥정을 벌이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청나라에서는 많은 조정의 충신도 시장에서 여유롭게 자신이 평소에 쓰는 소품들을 고르고, 원하는 가격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청나라 사대부의 실용 정신이 조선 사대부의 오만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태도와 확연히 대비되었기에, 박지원의 찬사를 받은 것이다.

박지원은 天慶寺에 관해 쓰면서 중국 장인의 솜씨에 감탄했다.<sup>97)</sup> 그리고 수많은 작은 불상을 쌓아 만든 큰 불상을 보고서, 눈썹과 이마, 옷, 주름까지 작은 불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뛰어난 재주 [心手之巧]”라고 감탄했다. 그는 이러한 정교한 솜씨에 대해 “토목공사를 하고 단청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其於土木之功, 丹靨之麗, 何難之有?]”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sup>98)</sup> 그는 중국의 토목공사에 감탄하며 선진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天寧寺에서 박지원은 절 안에 있는 影塔의 규모와 여인이 필사한 『嚴華經』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경전은 모두 640,043자인데, 5층 누각처럼 규모가 대단하였다. 불상이 가운데 있고 글씨가 개미 머리만큼 작았지만, 흐릿한 부분 없이 선명하게 잘 썼다며 여인의 재주를 칭찬하기를, “여인의 솜씨가 이처럼 신과 같을 줄 생각하지 못하였다.”<sup>99)</sup>라고 하였다.

또한 천경사의 十三簷金塔에 대해 “조각과 그림이 훌륭하여 귀신 솜씨 같

---

衣朝珠、香囊眼鏡。非可以倩人爲皮膜苟艱事，莫若親手停當爲愉快。選擇去就之際，亦見其簡易質直，而所以中國人人能有精鑒雅賞也。”

97) 위의 책, 345면, “空相殿中，以寸餘金佛數千萬軀，積累成大佛像。眉眼如生，額紋衣皺。無非小佛像，橫縱豎倒，如畫筆所摹搢也。”

98) 朴趾源, 『熱河日記·叢葉記』, 344면, “其於土木之功, 丹腹之麗, 何難之有?”

99) 위의 책, 344면, “不謂一女子, 心手之用若是其神.”

다.”<sup>100)</sup>라고 하며 중국 장인들의 솜씨가 뛰어나다고 찬사를 보냈다. 斗姥宮에서는 “토목공사가 상대하고 조각과 그림이 훌륭하니, 사람의 마음과 지혜로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sup>101)</sup>라고 하며 중국 장인들의 정교한 솜씨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大興寺院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손해를 끼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청나라 때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지만, 청나라의 통치자나 민간이 모두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당시 사찰은 국가적으로도 민간에서도 중요하여 화려하게 장식하는 특징이 있었다.

앞에서 김창업은 봉황성에 도착한 후에 “마을에는 반드시 神廟나 佛寺가 있다. [有村必有神廟或佛寺]”라고 언급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의 사찰도 장식이 매우 화려했다. 김창업은 煙台河까지 걸으면서 “민가는 수십 가구에 불과한데, 절과 신당은 화려하다. 절 앞은 번성했는데 민가는 황량하다.”라고 기록했다.<sup>102)</sup> 가난한 마을임에도 절은 화려하다고 기록한 대목이다.

이처럼 미신적 색채를 띠는 중국의 신앙 전통에 관해 쓴 김창업의 기록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김창업이 취하는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불교가 번성하는 현상을 은연중에 비판하였고, 심지어 이것이 국가 발전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

100) 위의 책, 345면, “刻鏤藻繪之盛,殆出鬼手.”

101) 위의 책, 346면, “大約土木之盛,藻繪之工,有非心智力量所到.”

10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七日, “人居不過數十家,而廟堂却宏麗,廟前有戲子屋半尺店,村居蕭條.”

### 3) 忠義와 氣節을 상징하는 인문경관

연행사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보고 느낀 것은 중국의 아름다운 산수와 수많은 사찰 도관이었다. 그 후 그들은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인문경관을 체험했다. 많은 연행사는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선배나 고전 서적을 통해 중국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유래된 경관에 흥미를 느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중국에 오기 전에 반드시 방문하겠다고 계획하기도 했다.

홍대용은 영평부 근처에 있는 ‘射虎石’을 방문했을 때,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땅 위에 쌓인 한 무더기의 돌밖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동행한 平仲은 이곳을 가장 중요한 경관으로 여겼다.

平仲이 분연히 말하기를, “나는 이를 이번 걸음의 제일가는 구경으로 삼겠네. 李將軍(한나라 李廣을 말함)이 취중에 활을 당겨 범을 개 보듯이 한 것을 생각할 때, 백세 후까지 그의 영웅 기상이 사람 마음을 울리지 않겠는가? 지금 이 돌을 보니, 기분이 산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네. 열 말 술이 없어 이 礮磊(가슴속 불평)를 씻어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일세.”라고 했다.<sup>103)</sup>

李廣은 한나라의 유명한 장군으로 ‘비장군(飛將軍)’이라고도 불린다. 흉노를 여러 차례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李廣은 키가 크고 원숭이처럼 팔이 길며 활쏘기에 재능이 있었다. 평생 여러 번 호랑이를 쫓았는데 때로는 상처를 입기

---

103) 洪大容, 『湛軒燕記·射虎石』, “平仲忿然曰 ‘吾將以此爲今行第一觀. 想得李將軍帶醉彈弓, 視虎如狗, 百世之下, 英風動人. 今見此石, 令人氣湧如山, 恨無十斗美酒, 澆此礮礪.’”

도 했다. 射虎石 이야기는 이광 장군이 술에 취해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여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촉 전체가 바위에 꽂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술이 깬 뒤에는 다시 쏘도 활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그는 술에 취했을 때 활쏘기 실력이 대단했다. 平仲은 射虎石의 이야기를 빌어, 흉노를 격퇴한 공로가 있는 영웅을 흠모한 것이다.

요동에 들어섰을 때, 연행사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요동 별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 있는 ‘遼東白塔’이다. 김창업에 의하면 탑이 요양의 서문 밖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수십 리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박지원은 “요동은 왼쪽으로 창해를 끼고 큰 별판에 접해 있다. 장애물이 없고 천 리 먼 곳까지 망망하게 트여 있는데, 白塔이 별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듯한 형세이다.”<sup>104)</sup>라고 하였다.

白塔의 건립에 대해 사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당 太宗이 요동을 원정할 때 尉遲敬德에게 명하여 건립하게 했다고 한다. 박지원은 또 다른 전설을 소개하면서 “혹 이르기를, ‘선인 정령위가<sup>105)</sup> 학을 타고 돌아왔는데, 요동 성곽을 사람들이 이미 고친 것을 보고, 슬프게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정령위가 머물던 華表柱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옳지 않다. 화표주는 요양성 밖에서 10리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고, 높거나 크지도 않다.”라고 하였다.<sup>106)</sup> 박지원은 華表柱는 白塔 밖으로 나온 적이 없고, 요양성 밖에 있었다는

104)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 33면, “遼東左挾滄海, 前臨大野, 無所障礙, 千里茫茫, 而白塔乃得野勢三分之一.”

105) 丁令威는 요동군 태수를 지냈다. 그는 청렴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으며 학을 기르는 것이 평생의 즐거움이었다. 어느 해 요동은 가뭄으로 쌀 한 톨도 거두지 못했는데, 그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사사로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참형을 당하게 되었다. 형을 집행하려던 때 그가 기른 학이 그를 구해 하늘로 날아갔다. 백성들은 이 청렴한 관리의 기리기 위해 그의 집에 화표주를 세웠다. 몇 년 후 백학이 된 정령위는 다시 화표주에 돌아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한탄하며 시를 짓고 날아가 버렸다. 훗날 강희제와 건륭제가 요양에 방문했을 때 정령위를 기리는 시를 짓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한 그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였다.

106)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 33면, “或云仙人丁令威乘鶴而歸, 見遼東城郭人民已改, 悲鳴作歌, 此其令威所止華表柱, 非也. 華表柱在遼陽城外, 不十里而近, 亦不高大.”

이유로, 이 전설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겼다. 丁令威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연행사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지원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부지런히 일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를 흠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丁令威는 도교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동진 시대 陶淵明의 『搜神後記』에 실린 것이 가장 처음이다. 총 10권 120편에 가까운 전설 중에서 첫 번째 편에 실린 것으로, 그중에는 많이 회자되는 『桃花源記』도 있다.

탑의 구조를 소개한 김창업의 기록에 따르면, 백탑이 벽돌을 쌓아 13층으로 만들어졌고 그 높이는 10여 길이다. 8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한다.<sup>107)</sup> 또한 탑 꼭대기에는 3면의 銅鼓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의 처마에 물통처럼 큰 金鐸이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불면 소리가 울리고 요동 별판이 흔들렸다”고 한다. 박지원은 백성을 사랑한 외국의 어진 관리 丁令威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어진 신화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였다.

요동과 심양을 거쳐 연행사들이 다음으로 관심을 보인 곳은 寧遠衛의 祖氏 가문의 牌樓였다. 네 명의 사신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온 김창업은 조씨 가문의 패루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祖大樂의 패루가 십자로의 남쪽 100보쯤에 있었다. 4개의 돌기둥으로 3칸을 세웠는데, 문 높이는 3장쯤 되고 좌우는 조금 낮았다. 기둥이나 들보, 서까래 모두가 돌이며 나무는 한 조각도 들지 않았다. 짜임새와 조각이 정교하여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 않았다. …… 또 좌우 기둥에 儷句를 새겼으니,

---

10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初六日, “高可十數丈, 其層爲十三, 面爲八, 每面八尺, 每層開四圓門, 而方位互換. 入最下門仰視, 中皆空, 制度亦奇. 此塔亦甃, 而簷椽則木也.”

소나무와 개오동나무 여전히 싱그러우니, / 松檟如新,

4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서 경사가 이루어졌고. / 慶善培于四世。

훌륭한 인재 찬란하게 배출되니, / 琳琅有赫,

천 년에 걸쳐 길이 영예롭게 빛나리라. / 賁永譽于千秋。

하였다. 또 그 남쪽 수십 보에 祖大壽의 牌樓가 있다. 정교함은 조대락의 패루와 똑같았으나 높이가 조금 낮았다.<sup>108)</sup>

후에 이의현과 김창업은 祖大樂과 祖大壽 패루의 외부 구조를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두 패루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였다. 祖大樂과 祖大壽는 모두 명장으로서 연행사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의현은 “祖大壽의 증조부는 祖鎭이고 조부 祖仁이다. 부친 祖承訓은 임진년에 李提督과 함께 우리나라를 구했다.”<sup>109)</sup>라고 하였다. 조대수의 증조부와 조부는 모두 명나라 장군이었고, 부친은 더욱이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참여하여 조선을 도운 이른바 3대 명장이었다. 祖大壽와 祖大樂 형제가 힘을 합쳐 浚河에서 청의 군대를 저지하고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막판에 투항하며 ‘가문의 명성을 실추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연행사들은 명나라 말기 청에 항거한 장군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청에 투항한 조씨 가문의 형제에 대해서는 안

10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五日, “見祖大樂牌樓, 在十字街南百步許, 當街立四石柱, 爲三間門, 高三丈餘, 左右差低. 棟樑榑桷皆石, 不假一木而成, 結構雕鏤之工, 殆非人力所爲. …… 左右柱刻麗句曰 ‘松檟如新, 慶善培于四世, 琳琅有赫, 賁永譽于千秋.’ 又其南數十步, 有祖大壽牌樓, 奇巧一如大樂之樓, 而其高稍不及.”

109)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大壽曾祖鎭·祖仁·父承訓, 卽壬辰年, 與李提督救我國者也.”

타깝게 여겼는데, 실제로는 비판적이었다.

寧遠衛 부근에는 연행사들의 관심을 끄는 역사문화유적지가 있다. 바로 貞女廟이다. 孟薑女의 이야기는 명나라 말기에 관청이 교화를 위해 퍼뜨렸다. 여기에서 다루는 네 명의 연행사들은 貞女廟에 대한 관심이 한창이던 시기에 있었다. 貞女廟는 “康熙帝와 乾隆帝 시기에 흥성하였다. 사찰이 때때로 수리되었으며 康熙와 乾隆을 주제로 많은 글을 썼다. 이곳은 산해관 밖의 유명한 고적이자 교화의 장소가 되었다.”<sup>110)</sup>라고 한다.

정녀묘는 들판에 툇 튀어나와 있는 산으로 북쪽에는 산줄기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시야가 탁 트여 있다.<sup>111)</sup> 김창업, 이의현, 박지원은 孟姜女가 천 리 길에서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다가 죽었다는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도 기록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한데, 박지원은 앞의 두 사자와는 달리 맹강녀가 돌로 변했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김창업은 가장 먼저 중국에 도착했기에, 그가 남긴 기록은 이후 사신들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 김창업은 貞女廟의 상황과 정녀묘의 門楣 위에 새긴 “聖之貞”이라는 3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 내부에는 孟姜女의 동상이 있다. 두 명의 동자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왼쪽 동자는 우산을 들고 있고 오른쪽 동자는 옷과 의대를 들고 있다. 둘 다 孟姜女의 자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맹강녀 남편인 範郎의 평상시 의복을 들고 있다. 정녀묘의 大殿에는 詩詞를 창작하여 노래한 것이 많이 적혀 있어서 일일이 기록할 수 없지만, 文丞相(文天祥)에 대한 존숭을 담아서 특별하게 그의 시를 기록해놓은 것이 있다.

110) 皮慶山, 「明清時期山海關的薑女廟與孟薑女傳說-以朝鮮燕行文獻的記載爲中心」, 『求是學刊』 Vol.44, No.3, 黑龍江大學, 2017, 142면.

111)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山上有殿, 北有大山橫亘十餘裡, 南臨大海, 四面通望, 剗石構廟.”

진황은 지금 어디 있느냐? / 秦皇安在哉,  
헛되이 만 리에 원망을 쌓았네 / 虛勞萬里築怨。  
강녀는 죽은 것이 아닐세 / 姜女未亡也,  
아직도 돌조각에 꽃다움을 전하네 / 尙留片石流芳。

시 옆에 “송 승상 문천상이 썼노라. [宋文丞相天祥書]”라고 적혀 있다.<sup>112)</sup>

이의현은 훗날 두 번째로 중국에 갔을 때, “書文天祥題, 明錢唐宋紀書.”라고 하였다. 貞女廟가 흥성하던 시기에 大殿에 名人들의 제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작은 전각이 있었다. 그 전각 안에 금 불상을 모셨고, 승려들이 이를 지키고 있었다. 그 뒤에는 望夫石과 振衣亭이 있었다.

이의현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모두 貞女廟를 돌아보았고, 김창업이 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충하였다. 孟姜女 동상의 모습을 보고서 “몹시 단정하고 엄숙한 용모 [貌甚端肅]”에 대해 썼고, 孟姜女의 이야기를 노래한 다른 사람들의 시구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예컨대 張延이 적어 놓은 “‘열녀의 일편단심을 알려거든, 한 번 천추의 망부석을 보라.’ 갑신년에 장연이 기록한다. [‘要知一片烈女心, 試看千秋望夫石.’ 甲申 張延記.]”<sup>113)</sup>라는 기록을 소개하였다. 18세기 중국은 貞女廟가 융성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이의현이 두 번째로 중국에 왔을 때, 묘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성대하게 바뀌어 있었다. 청나라 시기에 雍正帝가 이를 특히 중시한 결과였다.

11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八日.

113)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벽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다. 그 내용은, “雍正 2년(1724, 경종4)에 聖旨를 받들어 특별히 유시한다. 孟姜女의 사당은 바로 수많은 세대를 이어 전해오는 고적이니, 이것을 민몰시켜서는 안 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향을 올리고 절하는 것만 허락할 뿐, 무뢰배들이 별거벗고서 노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근처의 邊關에서 수시로 순찰하여 살필 것이다. 공경히 유시를 따르라.”라는 것이다.<sup>114)</sup>

雍正帝는 貞女廟를 중건했을 뿐만 아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대할 것이며, 장난치는 마음을 갖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서 당시 청나라 통치자들이 貞女廟의 교화 기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많은 책을 읽고 실제로 입증하는 고증 정신이 있었기에, 貞女廟를 방문하는 모든 사신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孟姜女 이야기의 두 가지 버전을 고증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孟姜가 산서 사람이라는 설에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 당나라 王建이 읊은 「망부석」이 貞女廟에 있는 望夫石이었는지에 관한 진위 문제에도 의문을 품었다. 이런 의문들은 모두 박지원의 실용적 고증 정신과 관련이 있다. 박지원이 중국에 왔을 때는 貞女廟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이다. 사실 황제가 1년 전에 심양을 순방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 “황제가 행궁을 마련했는데, 연례행사로 심양에 갔을 때 행궁을 모두 수리했기 때문에, 金碧이 있는 것을 자랑하였다.”<sup>115)</sup>라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의 친필 시문도 있고, 行宮에서 貞女廟

114) 李宜顯, 『壬子燕行雜識』, “壁上粘付一紙云 ‘雍正二年, 奉旨特諭. 姜女廟乃歷傳古迹, 不可泯沒. 無論本處、過經人等, 但許進香瞻仰, 不許棍徒裸體赤形以爲遊戲爾. 邊關近處, 不時巡查照看. 欽此.’云云.”

115)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82면, “皇帝置行宮, 去歲行瀋陽時, 所歷行宮, 皆重修, 故金碧所在炫耀.”

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乾隆帝가 쓴 “芳流遼海”라는 큰 글자도 있다.

貞女廟에서 孟姜女와 望夫石이 보여주는 부부간의 진실한 마음, 특히 아내의 남편에 대한 충정은 “사신이 받은 유가 윤리 교육에 부합하며, 그들이 일기와 시에서 거듭 찬탄하고 읊은 내용이기도 하다.”<sup>116)</sup> 따라서 네 명의 연행사는 18세기 강희제, 건륭제가 정녀묘를 표창한 것에 동의했다.

영평부 근처에도 연행사가 즐겨 찾는 문화 고적이 있었다. 바로 夷齊廟다. “夷齊廟는 淸節祠, 淸聖祠 등으로도 불리며, 伯夷와 叔齊 즉 유가의 경전에서 표방한 聖賢들을 제사 지내는 장소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백이와 숙제 두 사람의 신분이 상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고죽국 임금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sup>117)</sup>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중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거의 다 알려져 있다. 연행사들의 연행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 온 거의 모든 연행사가 영평부 근처의 수양산에 가서 이제묘를 참배하는 것은, 연행 여정이 대체로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백이, 숙제를 인의와 충절을 갖춘 현자로 보고 이들의 충절을 기렸기 때문이다. 백이와 숙제는 유가 사상의 충과 효, 절개와 의의 관념을 구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유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였다. “많은 연행사가 ‘夷齊’를 중국 정신문화의 대표자로 숭배하고, 많은 관련 기록과 시가 작품을 남겼다.”<sup>118)</sup> 특히 청나라가 중원에 입성한 이후에 연행사들은 伯夷와 叔齊의 忠義와 氣節을 더욱 높이 샀다.

夷齊廟는 박지원의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때 永平府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

116) 皮慶山, 「明清時期山海關的薑女廟與孟薑女傳說-以朝鮮燕行文獻的記載爲中心」, 『求是學刊』 Vol.44, No.3, 黑龍江大學, 2017, 145면.

117) 張循·李珮, 「明代朝鮮使節對永平府夷齊廟的認知-以『燕行錄全集』爲中心」, 『渤海大學學報』 第5期, 渤海大學, 2019, 63면.

118) 金哲·秦亞偉, 「朝鮮朝文人對“夷齊”的接受與認知研究-以“燕行錄”中伯夷叔齊記錄爲中心」, 『當代韓國』 第3期, 中國社會科學院 韓國研究中心, 2014, 59면.

이 묘가 영평에 있는 지 오래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洪武 초년에 영평부 성 동북쪽 언덕에 옮겨 세웠다가 景泰(명 景宗의 연호) 연간에 다시 이곳에 세웠다.”라고 하였다.<sup>119)</sup>

이 말은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지은 『永平府誌』에서 언급한 “옛터는 상고할 수 없다. 명 홍무 9년에 同知 梅圭가 府城의 북동쪽 구석으로 이전하였다. 景泰 5년에 知府 張茂가 孤竹故城을 복원하여 府城에서 북서쪽으로 이십 리 떨어진 곳에 다시 지었다.”<sup>120)</sup>라는 기록과 대체로 비슷하다.

4명의 연행사가 중국에 온 시기는 모두 18세기이다. 즉 康熙와 乾隆 두 황제의 재위 기간이었다. 두 황제는 모두 夷齊廟가 귀족과 민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여러 차례 수리하고 어필도 남겼다. 예컨대 절 안의 대전에 써놓은 “倫常師範”은 옹정제의 어필이고, “萬世標準”은 강희제의 어필이다. 이의현이 두 번째로 연행할 때 쓴 『壬子燕行雜識』에는 명·청 시대 황제의 수리 상황도 기록되어 있고, 절에 비문을 세운 시기와 비문을 세운 사람, 저자, 비문을 지은 사람 등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121)</sup>

홍대용도 묘의 재건 상황에 대해 기록하였다.

廊廡의 위치 및 빗들의 글자가 稼翁의 일기에 다 실려 있다. 하지만 최근 황제가 관동으로 행차할 때, 옆에 행궁을 꾸미고 廟宇를 중수하여 새롭게

---

119) 樸趾源, 『熱河日記·關內程史』, 91면, “廟之在永平久矣. 或曰洪武初移建于府城東北阿, 景泰中復建於此云.”

120) 董耀會 主編, 『康熙永平府志』, 秦皇島歷代志書校注, 中國審計出版社, 2001, 139면.

121) 李宜顯, 『壬子燕行雜識』.

하였기에, 전에 비해 훨씬 더 엄숙하고 정돈되었다. 正堂 좌우로 지금 황제와 和親王이 남긴 글씨들이 있다. 모두 뛰어난 것들이었다.<sup>122)</sup>

김창업은 이제묘의 전체 건물과 현판, 비문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孔子, 曾子, 孟子的 ‘夷齊’에 대한 평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김창업은 夷齊에 대해 다른 사람이 칭송한 내용을 비롯하여 역대 황제들이 두 선현에 대해 추존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夷齊廟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마을 서쪽에 거친 산이 하나 있다. 바로 수양산이다. 높이는 수십 길에 불과했다. 산 쪽으로 다가가니 더욱더 북향이였다. 2, 3리 앞에서 바라보니, 솔숲이 울창하였다. 이르러서 보니, 돌과 벽돌로 쌓은 작은 성이 있다. 매우 옛날의 제도였다. …… 우리 일행은 패루 밑에 이르러 모두 말에서 내렸다. 제2문에 이르러서는 伯氏는 의관을 갖추었다. 나는 해진 옷을 벗고 도포를 입은 뒤 정전으로 나아가 再拜禮를 올렸다. 백이와 숙제는 冕服 차림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좌우엔 8개의 비석이 있었다. …… 徽宗은 政和 3년(1113, 고려 예종 8)에 백이를 淸惠侯로, 숙제를 仁惠侯로 각각 봉했다. 원나라 세조는 지원 18년(1281, 고려 충렬왕 7)에 백이를 昭義淸惠公으로, 숙제를 崇讓仁惠公으로 각각 추봉하였다. 명나라 성화 9년(1473, 성종 4)에 영평 지부 王璽는 명을 받들어 제사하고 樓上에 비를 세웠다. …… 동쪽 문으로 나와 바깥으로 나오니 수십 그루의 장송이 강 언덕을 덮고 있다. 돌층계를 걸어 내려와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孤竹廟에 이르니, 사당은 황폐하여

122) 洪大容, 『湛軒燕記·夷齊廟』, “廊廡位置及碑字, 具載稼翁記, 而近因皇帝幸關東, 傍置行宮, 修廟宇而新之, 比前益嚴整. 正堂左右, 有今王及和親王詩筆, 俱絕佳.”

문은 기울어 넘어졌고 담도 무너졌다. 고죽군의 소상만이 엄연히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박쥐 똥이 수북하였다. 伯氏와 부사 및 서장관도 왔다. 이곳에서 청풍대를 바라보니, 은은히 숲 사이로 보여 그윽한 풍경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sup>123)</sup>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김창업은 夷齊의 현자 형상을 부각하면서 夷齊廟의 내부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夷齊에 대한 孔孟 선현의 평가와 비문 내용을 고찰하고, 역대 황제들이 두 현인을 추서한 상황도 고찰하였다. 또한 首陽山, 淸風台, 孤竹國遺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였고, 심지어 주변의 자연 경물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절간 주변에 “소나무가 울창하다 [松林蔚然]”라거나, “장송이 수십 그루이다 [長松數十株]”라거나, “예로부터 소나무는 정직하고 굳건한 의미를 상징하는 화신으로 여겨져서, 공자도 이를 절개와 의리의 상징으로 여겼다. [自古以來松樹就被視作是正直、堅貞的化身, 孔子也將其看作是‘節義’的象征.]”라고 하였다.<sup>124)</sup> 사신들의 소나무 묘사는 백이 숙제의 忠節과 仁義의 사상에 대한 찬사와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이 말한 것처럼 네 명의 연행사 중에서 김창업이 가장 빨리 중국에 이르렀다. 또한 네 명의 연행사가 夷齊廟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기록해놓았기에, 나중에 도착한 사신들은 그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다. 예를 들어 이의현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碑文에 관한 상황을 썼는데, 홍대

123)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二十一日, “村西有一荒山, 此所謂首陽山也. 山高不過數十丈, 循山趾益北行, 望見數里許, 松林蔚然. 至則有石甃小城, 其制甚古. …… 一行到牌樓下, 皆下馬. 至第二門, 伯氏具冠帶. 余脫敝衣着道袍, 就正殿楹內, 行再拜禮. 伯夷叔齊, 冕服並坐, 殿階左右立八碑. …… 徽宗政和三年, 封伯夷為淸惠侯, 叔齊為仁惠侯. 元世祖至元十八年, 追封伯夷為昭義淸惠公, 叔齊為崇讓仁惠公. 大明成化九年, 永平知府玉璽奉命致祭, 立樓上碑云. …… 從東邊門出去, 其外有長松數十株 蔭江岸. 從石磴步下渡江水. 至孤竹廟, 廟荒廢, 門傾牆頽, 獨塑像儼然, 而蝙蝠矢滿卓矣. 伯氏及副使書狀亦至. 在此望淸風台, 隱映松間, 更覺幽勝矣.”

124) 金哲·秦亞偉, 「朝鮮朝文人對“夷齊”的接受與認知研究-以“燕行錄”中伯夷叔齊記錄為中心」, 『當代韓國』 第3期, 中國社會科學院 韓國研究中心, 2014, 65면.

용은 廟宇의 건축과 碑文의 상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묘우 건축과 비문에 관해 썼지만, 이는 김창업이 쓴 내용을 보충하고 첨가한 것이었을 뿐이다. 중복된 내용은 매우 적었다. 아울러 백이와 숙제가 “孝子忠臣”인 점을 찬양하면서 忠節과 仁義의 상징으로 삼았다.

또한 박지원이 “우리나라 海州에도 수양산이 있어서 백이·숙제를 제사 지내나, 이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sup>125)</sup>라고 말한 것에서, 조선에도 夷齊廟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도 백이와 숙제 두 선현을 칭송하고 추모했음을 알 수 있다.

---

125) 朴趾源, 『熱河日記·關內程史』, 91면, “我國海州亦有首陽山祠夷齊, 而天下之所不識也.”

### 3. 변화한 도시 공간의 풍경

연행사들은 중국의 자연, 역사, 문화 고적 말고도 중국 도시의 변화한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겼다. 18세기의 중국은 청나라가 건국된 지 백여년이 지난 시기였다. 비록 청의 통치자가 한족의 항거를 잔혹하게 탄압했지만, 康熙와 乾隆 두 황제 재위 기간에 청나라는 태평성대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편안히 살고 즐겁게 일하며 도시는 계속 번성하고 있었다.

청나라 도시의 물질적 공간 구성에 있어 각 지역은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다. 18세기 초 이의현으로부터 18세기 말 ‘북학과’ 대표주자였던 박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나라 도시의 풍요와 번영에 감탄하였다. 이의현은 처음 심양에 들어섰을 때, “심양 성문 밖에서부터 말을 타고 우산을 썼다. 이곳에는 궁궐이 있는데 연경과 달리 전례에 따라 가마를 탈 수 없다. …… 여관이 즐비하고 시장에는 가게가 많으며 사람들이 많아 순간 기이하게 느껴졌다.”라고 하였다.<sup>126)</sup> 사찰조차도 매우 화려하여 “좌우 회랑은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난간은 꽃으로 조각하였고 금벽이 휘황찬란하다. 건물의 기와는 황벽으로 되어 있다.”<sup>127)</sup>라고 하였다. 당시 대도시인 성경은 물론 청나라의 국경 지역도 변화한 모습이었다.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천천히 문밖으로 나섰다. 변화하고 부유함이 비록 연경에 이르면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중국이 이처럼 번영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 길 좌우에 즐비하게 늘어선 점방들은 모두 아로새긴 들창, 비단을 드리운 문,

126)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到瀋陽城門外, 乘馬去傘蓋. 此有宮闕, 與燕都比竝, 自前例不許乘輜故也. …… 閭舍櫺比, 市肆豐侈, 人物繁衆, 頓令人異觀.”

127) 위의 책, “左右廊舍, 俱極奢麗; 雕闌曲檻, 金碧炫煌, 屋瓦蓋以黃碧.”

그림 그린 기둥, 붉게 칠한 난간, 푸른빛 柱聯, 황금빛 현판들이 현란하게 눈부실 지경이다. 그 안에 펼쳐 놓은 것은 모두 그 나라의 진기한 물건들이다. 邊門의 보잘것없는 이 땅에 이처럼 정치하고 아담한 鑑識이 있을 줄은 몰랐다.<sup>128)</sup>

박지원은 청나라 국경의 작은 마을조차 이토록 변화하고 정돈된 도시의 규모를 갖췄다는 점에 매우 놀랐다. 심양에 와서 “외곽문에 들어서니, 성곽 내 사람과 사물의 변화함과 시장의 사치스러움이 요양의 10배는 된다.”<sup>129)</sup>라고 하였다. 성내에 들어가면 더욱 변화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건물 아래 사거리로 나가면 사람으로 가득하여 매우 떠들썩하다. 길을 끼고 늘어선 시전에는 彩閣雕窗, 金扁碧榜, 각종 화물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시장에 온 사람들은 얼굴이 희고 깨끗하며 옷과 모자가 정돈되고 아름답다.”<sup>130)</sup>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심양의 변화한 상업적 풍경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이 ‘정돈되고 아름다운’ 것과 외모가 ‘희고 깨끗한’ 것 등 융성하게 발전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연행사들은 청나라라는 이국의 공간에 들어온 후에, 청나라의 물질적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건축이 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청나라의 건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전에 청나라를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할 것 없이 한족의 건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만주족의 건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더욱 많았다고

---

128)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5면, “緩步出門, 繁華富麗, 雖到皇京想不更加, 不意中國之若是其盛也. 左右市廛, 連互輝耀, 皆彫窗綺戶, 畫棟朱欄, 碧榜金扁, 所居物皆內地奇貨. 邊門僻奧之地, 乃有精鑒雅識也.”

129)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 36면, “入外郭門, 郭內民物之繁華、市肆之侈盛, 十倍遼陽矣.”

130) 위의 책, 37면, “樓下出十字路, 鞞擊肩磨, 熱鬧如海. 市廛夾道, 彩閣雕窗, 金扁碧榜, 貨寶財賄充物其中. 坐市者皆面皮白淨、衣帽鮮麗.”

할 수 있다. 劉錚의 언급에 따르면, 청나라 북동쪽 성경 가옥, 곧 만주족 가옥은 대부분 산의 돌을 이용해 담을 쌓고 나무 기둥으로 대들보를 받친 것이었다.<sup>131)</sup> 김창업은 이에 대해 “公家나 私家の 가옥은 대부분 남향으로 되어 있다. 하층민의 초가도 모두 들보 5개로 이루어졌다. 들보가 긴 것은 20척 이상이며, 적어도 14~15척을 넘는다. 큰 집의 경우에는 들보가 7개인 집과 9개인 집도 있다.”<sup>132)</sup>라고 하였다.

이의현은 또 심양 지역에 있는 만주족 가옥은 대들보의 ‘尺數가 매우 길고’, 처마는 ‘불인 서까래가 매우 짧고’, 벽면에는 ‘석회를 칠하고’, 가옥의 대들보에는 ‘모두 단청을 칠하고 청색으로 옷칠을 많이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33)</sup> 가옥의 용마루가 ‘^’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엉을 얹었는데, 이런 집들은 외관이 크고 안은 넓고 밝아서 간결하며 잘 어울린다. 박지원은 심양의 만주족 가옥을 둘러본 후에 감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저 겹문을 활짝 여니, 내 마음 통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은, 그 곧고 바름을 견주어 말한 것이다.<sup>134)</sup>

이런 집들은 내부에 굴곡이 없다. 안으로 들어서면 세 칸 방이든 다섯 칸 방이든 가로막는 것이 없는 긴 화항(火炕)<sup>135)</sup>으로 집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31) 劉錚, 「朝鮮使臣筆下的滿族建築」, 『殷都學刊』 Vol.40, No.3, 安陽師範學院, 2019, 21면.

13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公私屋, 大抵多南向. 屋制雖下戶草家, 皆五梁. 梁長者二十餘尺, 小不下十四五尺. 其大屋, 七樑九樑者有之.”

133)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134)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5면, “一望貫通, 其直如矢. 所謂洞開重門、我心如此者, 以喻其正直也.”

135) “화항”을 연행사들은 이를 “난돌”, “운돌” 등으로 칭했는데 그 생산은 동북 지역의 추운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나라 때 화항은 성경 지역에서 매우 보편적이었다. 집 안 3면에 화강을 쌓고 남북으로 화항 남쪽은 웃어른이 살고 아랫사람은 북쪽 화항에 살며 서쪽

청나라 북부의 추운 날씨에 적합한 건축 양식이다. 박지원은 이런 집의 구조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의 품격과 비교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연행사들이 청나라 도시를 묘사한 것으로는, 북경을 묘사한 것이 가장 분량이 많았다. 이 경우도 선인들이 소감을 적은 기록이 후대의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이의현은 북경에 출입할 때, “사신이 성문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수레와 말에 막혀 만나질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sup>136)</sup> 연행사들은 북경에 관해 쓸 때, 그 웅장하고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역사에 대해서도 썼다. 예를 들어 이의현은 “북경의 궁궐은 永樂帝가 창건했고 갑신년 李自成的 난리에 불탔다. 이후에 재건되었지만, 제도가 몹시 낡았다. 장엄하고 화려하며 가지런하니 진실로 황제가 거처하는 곳이다.”라고 기록하였다.<sup>137)</sup>

박지원은 연경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하였다. 북경의 역대 호칭과 3천여 년에 걸친 城 건설 역사와 수백 년에 걸친 도읍 건설 역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북경의 웅장한 지세를 묘사하면서 “좌로는 창해가 둘러싸고 우로는 태행을 끼고 있으며, 북으로는 거용을 베고 남으로는 하제가 있다. [左環滄海, 右擁太行, 北枕居庸, 南襟河濟.]”라고 하였다. 웅장한 도시 공간에 대해서는 “성문의 정남은 정양, 우는 숭문, 좌는 선무, 동남은 제화, 동북은 조양, 서남은 평택, 서북은 서직, 북동은 덕승, 북서는 안정이다. 외성의 문은 일곱이고 자금성의 문은 세 개이다. 궁성은 17리이고 그 문은 네 개이다.”라고 소개하였다.<sup>138)</sup> 이를 통해 박지원이 한국의 고대 서적뿐만 아니라 청나라 서적에 대해

---

은 벽에 기대어 좁은 화항을 만들고 아래로는 연도를 뚫었다. 남, 북, 서 삼면이 반원형의 화항을 이루어 이를 ‘만자항’이라고 하였다.

136)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曾聞使者行到城門, 常為車馬所塞, 半日不得入.”

137)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北京宮闕, 永樂所創, 而甲申經李自成火燒後, 頗重修, 而制度皆舊也. 壯麗整齊, 眞帝王居也.”

138) 朴趾源, 『熱河日記·關內程史』, 108면, “城門之正南曰正陽, 右曰崇文, 左曰宣武, 東南曰齊化, 東北曰朝陽, 西南曰平澤, 西北曰西直, 北東曰德勝, 北西曰安定. 外城之門有七, 紫禁城之門有三. 宮城十七里, 其門有四.”

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북경의 역사도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경의 변화한 모습은 연행사들이 관심을 두는 초점이기도 했다. 이의현은 “시장은 북경 정양문 밖에서 가장 번성하고 고루가가 그다음을 잇는다. …… 대부분 시장 건물의 화려한 장식도 북경의 것이 제일이다.”<sup>139)</sup>라고 하였다. 이의현은 연행 여정에서 경험한 모든 도시를 비교한 결과 “북경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지원이 성경에 대한 묘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귀국 후에 연경을 떠올리며 “모두가 감감하여 마치 아침 놀이 눈을 가리는 듯하고, 침침하기는 마치 낮을 잃은 새벽 꿈결인 양 싶다.”<sup>140)</sup>라고 기록했다.

金龍橋의 “수레와 말이 시끄럽고, 나그네들이 왁자지껄한 소리”, 菟園山의 “험하고 가파른 바위”, 천주교 성당의 “鐵鐘처럼 둥근 지붕, 우뚝 솟은 모양”, 五龍亭의 “유난히 기이한 광경”, 瀛臺의 “靑瓦와 紫贅”, 아랍인 식당의 “기묘한 재주”, 유리창의 “수많은 귀한 물건”을 비롯하여<sup>141)</sup> 彩鳥鋪, 花草鋪 등 30여 곳의 門館, 殿閣, 島池, 店鋪, 器物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또 청나라의 太學, 碑銘, 觀象台, 試院, 朝鮮館, 宗教場所, 利瑪竇塚 등에 관한 기록과 평을 남겼다.

이상으로 18세기 연행사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았다.

첫째, 청나라 도시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북경 이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경과 성경 두 도시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많다. 이 시기 연행사의 경로가 거의 같고, 지나는 도시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둘째, 연행사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차용하고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139)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市肆, 北京正陽門外最盛, 鼓樓街次之. 【在宮城北】 通州與北京幾相埒, 瀋陽、山海關又次之. 車馬輻輳, 百貨充物, 兩處一樣, 而士女都冶, 山海關爲勝, 永平府次之, 撫寧縣、豐潤縣、玉田縣又居其次, 而大抵市樓華飾, 亦北京爲最.”

140) 朴趾源, 『熱河日記·黃圖記略』, 317면, “愔愔如朝霞纈眼, 昏昏如曉夢斂魂.”

141) 朴趾源, 『熱河日記·盡葉記』, 341-350면.

청나라 연행록 연구 전문가인 漆永祥은 일찍이 “여러 사람의 ‘연행록’이 연이어 서로 답습하는 현상”<sup>142)</sup>을 언급하였다. 도시 공간에 대한 연행사들의 관심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같은 주제와 같은 표현이 시기별, 작가별 연행 작품마다 등장하며, 많은 묘사 내용이 타인의 결론을 참고하거나 상호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서로 다르거나 기이한 현상을 탐구한다. 일부 연행사들은 이전에 다녀간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틀에 박힌 말을 피하였다. 또한 만주족이 다스린다는 이유로 편견에 사로잡힌 인식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고쳐 나갔다. 많은 연행사가 연경에 도착하여 뇌물을 요구받은 정황을 기록하였는데, 이 의현은 연경에 도착한 후 세자 책봉과 관련하여 예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갈 협박을 하는 등 뇌물을 요구하는 계략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sup>143)</sup>

그러나 김창업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북경의 넉넉한 인심을 칭찬하였다. 그는 예시를 하나 든다. 한 부하가 八里鋪에서 낙오된 후 며칠이 지나도 쫓아오지 않았다. 이미 청나라 정부에 부하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밤이 매우 추웠던 데다 이 사람은 청나라가 초행이라 말도 통하지 않아 잠잘 곳도 찾지 못했을 것이니 죽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부하가 따라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부하는 날씨가 너무 추워 한 객잔에서 자신을 받아주고 따뜻한 온돌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 덕에 그는 서둘러 일행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김창업은 이런 경험을 통해 이 지역이 후한 풍습을 지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up>144)</sup>

---

142) 漆永祥, 「“燕行錄學”芻議」, 『東疆學刊』 Vol.36, No.3,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9, 10면.

143)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以不成說之言, 如是恐嚇, 似出於索賂之計.”

14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二十八日, “朝, 首譯來告曰 ‘驛卒一人, 自八里鋪落後, 至今不來, 言于衙門, 使甲軍尋來. 而昨日極寒, 其人又初行, 不通言語, 或不能得入人家, 則不無凍死之慮.’ 已而甲軍率來. 問之, 言因日寒入店, 處以溫炕, 饋之食. 此地風俗, 可知其厚也.”

김창엽,이의현,박지원 등과 같은 연행사들이 진지한 관찰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감각적 공간 인식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공간 인식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구상적 공간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주족 청나라 치하에서 청나라 도시의 물질적 공간 형상도 실제와 같이 드러나 있다.

### Ⅲ. 18세기 중국 인물에 대한 형상

#### 1. 감소하면서 비범한 제왕의 형상

비교문학 형상학에서 말하는 ‘형상’은 바로 “인식, 독서와 더불어 상상을 통해 얻게 되는 이국과 이국 사람의 특징, 모든 인종학적·물질적·정신적 삶 등 모든 측면에 대한 견해의 총합으로서의 감정과 사상의 혼합물”이다.<sup>145)</sup> 한 나라의 국제적 형상, 국민적 형상은 종종 그것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국의 형상은 우선 외재적 형상으로 문화학과 인류학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외모, 복장, 언행, 식습관 등은 모두 이국의 형상을 구축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이며 이국의 공간에서 ‘타자’와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둘 사이의 상호 관계와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게 된다. 청나라로 떠난 연행 사신으로서 그들은 방관자(旁觀者)의 시각으로 중국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심지어 많은 청나라인이 피해야 할 것들을 이들은 피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청나라 사회 각층 인물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도 있었다. 위로는 문무백관(심지어 당대 황제도 만날 수 있었다)부터 아래로는 장사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찰하는 연행 사신의 시야에 들어왔다. 연행 사신은 ‘자신’으로서 ‘타자’의 외모, 행동, 관습, 개성, 문화 수준 등을 관찰하고 서술함으로써 ‘타자’와의 상호 관계를 찾고 ‘타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였다. 연행 사신 4명의 작품은 우리에게 18세기 청나라 사회의 군상을 그려준다.

18세기 전기에 조선은 肅宗, 景宗, 英祖 세 임금을 거쳤다.<sup>146)</sup> 18세기 후반은

145)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8면.

146) 肅宗(1674—1720), 景宗(1720—1724), 英祖(1724—1776).

英祖와 正祖 두 임금이 통치하였다.<sup>147)</sup> 청나라의 경우 이 시기는 康熙(1662-1722), 雍正(1723-1735), 乾隆(1736-1796) 재위 기간에 해당한다. 4명의 연행 사신이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재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雍正帝는 만나지 못했고, 청나라 역사상 ‘康乾盛世’를 열었던 康熙와 乾隆 두 황제는 만날 수 있었다. 청나라 역사에서는 두 황제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는데, 방관자의 시각에 두 황제의 형상은 어떻게 비쳤을까? 연행 사신들의 연행 작품은 이에 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 1) 근검과 애민을 실천하는 康熙帝

김창업은 사신단 중 자제 군관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갔기에, 청나라 사람과 교류하면서 신분상의 제약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명나라 시기나 청나라 초기에 비해 연행 사신에 대한 제한도 비교적 느슨하였기에, 김창업이 북경이나 요동에서 모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청나라 사람과 교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老稼齋燕行日記』에서 청나라 사람에 관한 서술이 매우 자세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객관적이었다. 또한 이들과 필담한 내용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창업이 처음으로 만난 康熙帝는 새해 사냥 중이었는데, ‘신기의 청명함 [神氣清明]’이 여느 만주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황제를 바라보니, 서쪽을 향해서 무릎을 포개고 앉았는데, 이마는 넓고 턱은 조금 빠졌으며 볼에까지 난 성긴 수염이 희끗희끗했다. 雌雄眼으로 神氣가 청명하고 의복과 모자는 모두 검은 것이 보통 호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

---

147) 英祖(1724—1776), 正祖(1776—1800).

다. …… 키는 7, 8척은 되어 보였다.”<sup>148)</sup>

김창업 이전에 연행을 경험한 閔鼎重은 康熙帝의 형상에 대해 “청 군주의 키는 평균보다 작았고, 두 눈은 부어 있으며 작고 빛이 없다. 광대뼈는 약간 튀어나왔고 볼에 두드러기가 나 있고 턱은 뾰족하다. 그는 황옥을 드나들 때면, 번번이 우리나라 사신들을 돌아보았으며, 성미가 급하고 여러 차례 화를 냈다.”<sup>149)</sup>라고 묘사한 바 있다. 康熙帝는 보통 사람의 키에 눈이 작고 부은 데다, 생사여탈을 일삼는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이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형상이 강하여 대국의 제왕이라는 형상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김창업이 묘사한 康熙帝는 보통 50대 노인의 형상과 비슷하다. 눈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는데, 수염은 듬성듬성 희고 이마와 볼은 나이 때문에 통통하지 않으며 냉혹한 모습은 아니었다. 康熙帝는 제왕으로서 신기가 청명한 모습이었고, 키도 중간이 아니라 ‘7-8척’이었다. 동양인 가운데 7-8척이라면 몸이 상당히 장대한 편에 속한다.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康熙帝의 생김새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지만, 제왕으로서 맑은 기운과 엄숙한 기상을 지녔다. 閔鼎重을 비롯한 다른 연행 사신들의 서술과 비교했을 때, 강희제의 외모에 관한 김창업의 설명이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康熙帝 재위 시기에 청나라를 방문했던 연행 사신은 김창업과 이의현이다. 이의현은 그러나 “그 모습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sup>150)</sup>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의현이 기록한 황제 관련 사건을 종합해 보면, 康熙帝는 교육을 중시하고

---

14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一月二十五日, “皇帝向西, 盤膝而坐, 廣頰頤稍殺, 疏髻犯頰而斑白. 雌雄眼, 神氣清明, 其衣帽皆黑, 與凡胡無異. …… 見其身長, 可七八尺.”

149) 閔鼎重, 『老峯燕行記·聞見別錄』, “清主身長不過中人, 兩眼浮胞, 深睛細小無彩, 顴骨微露, 頰癭頤尖, 其出入輒於黃屋中回望我國使臣之列, 性躁急, 多暴怒, 以察爲明, 懲輔政諸臣專權植黨之患.”

15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而亦不得細見其形狀之如何矣.”

근면 성실했으며, 민심을 배려하고 검소한 황제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玉田의 察院에서 이의현은 벽에 붙어 있는 康熙帝의 친필 訓飭士子文을 보았다. 康熙帝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학교 설립을 중시하고 스승과 도를 존중했다. 또한 국가의 학교 설립 목적이 올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를 배양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힘쓰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원래 배우는 자는 먼저 품행을 세우고 다음으로 文學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學術이나 事功은 본래 차서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의현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비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헛된 이름을 표방하여 聲氣(성세)를 은밀히 통하고, 이를 연줄로 삼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과 집안을 돌아보지 않는다. 혹은 鄉貫(本貫)을 고쳐서 벼슬길의 출세를 도모한다. 또한 시끄럽게 다투고 소란을 일으켜서 이익을 노리고 사사로운 일을 경영한다. 여러 가지 폐해의 실정이 참으로 통탄할 만하다.<sup>151)</sup>

康熙帝는 학생들이 학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의 발전과 백성의 복지를 위해 공부하기를 바랐다. 곧 그들이 “공정함을 유지하고 나라를 위해 공적을 세우기”를 바랐으며, 고아한 품행으로 덕과 사람됨을 갖추기를 바랐다.

이의현은 康熙帝의 訓飭士子文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그 말이 상당히 격을 갖추고 엄해서 訓諭하는 체통을 얻었다. 오랑캐로서도 이같이 하

---

151)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先立品行, 次及文學, 學術、事功, 源委有敘.” “顧乃標榜虛名, 暗通聲氣, 夤緣詭遇, 罔顧身家. 又或改竄鄉貫, 希圖進取, 囂凌騰沸, 網利營私, 種種弊情, 深可痛恨.”

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다.”<sup>152)</sup> 그는 康熙帝가 이렇게 예리한 부분이 있는 황제인 줄 몰랐으며, 더구나 명리를 좇는 선비들의 나쁜 풍조에 일침을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康熙帝가 교육을 중시했다는 점과 유학을 숭상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선비들에 대한 勸誡나 訓飭士子文을 여러 곳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성실하게 국사를 처리하는 형상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의현 일행은 북경에 머물면서, 太學士와 九卿 등이 康熙帝의 재위 60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塘報 인쇄본<sup>153)</sup>을 보게 된다. 康熙帝는 대신들의 요청을 거둬 거절하는데, 여기서 민정을 배려하고 근검절약하는 康熙帝의 형상이 드러난다. 康熙帝는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은 어렸을 때부터 경하하는 禮를 참으로 원하지 않았다. …… 현재 西域 지방에 군대를 보내 싸우고 있으나, 아직 凱旋하지 못하여 관원과 백성들이 군량을 수송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山西와 陝西 지방에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지난해 섬서 지방에 있는 사당에 지진이 나서 군사와 백성들이 상해를 입었다. 금년에 일어난 沙城의 지진은 바로 경기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은 군주와 신하가 다 자신을 수양하며 반성할 때인데,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단 말인가. 하례의 일을 윤택하지 않으니, 공경히 시행하라.<sup>154)</sup>

152)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安望其秉公持正, 爲國家宣猷樹績.” “其言頗典嚴, 得訓諭體. 胡而如此, 亦可異也.”

153) 당보는 관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명·청 시기 주로 군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청나라 때는 경성에서 각 성까지 역참에 당병이 설치되어 도중에 이어서 전달받았다. “내용상 당보는 청나라의 국정 운영, 예를 들면 인사 발령, 일상 행정, 재해 구제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하고 있어 청나라 사대부들이 조정의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참고 자료이다.” (丁晨楠, 「韓國所藏清朝塘報關聯文獻初探-以首爾大學藏『環報刪節』爲中心」, 『歷史檔案』 第4期, 中國第一歷史檔案館, 2021, 91면.)

154)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朕幼以來, 慶賀行禮之事, 甚是不願. …… 現今西域用兵,

여기서 康熙帝가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검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康熙帝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경하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황제가 된 지 60년이 되었지만, 자신은 어려서부터 천연두를 피하여 모친을 떠났다는 점이 지난 60년간 가장 아쉬운 일이니, 성대한 축하는 감히 즐길 수 없다고 하였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전쟁과 자연재해로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힘들고, 심지어 백성들이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기이니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재물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학사와 九卿이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음에도 그는 단호하게 상소를 돌려보내었다.

康熙帝의 검소함에 관해서는 김창업 또한 작품 속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康熙帝는 스스로 검소할 뿐만 아니라, 황자들도 검소하게 살도록 제한하였다. 김창업은 한 의관이 황자를 진찰하러 갔을 때 본 광경을 기록했는데, 황자의 궁실은 “너무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하고, “황자가 입은 의복과 금침은 매우 검소하여 보통의 호인 부자만도 못하고, 쓰는 기물 따위도 역시 하나도 기이한 것이 없었다.”<sup>155)</sup>라고 하였다. 황자의 물건이 일반 부자보다 좋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제가 검소했기 때문에 관리들의 음식도 검소했다. 사신단과 함께 창춘원에 가서 강희제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김창업은 많은 청나라 관리가 황제의 부름을 기다리며 계단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돼지고기, 채소, 뜨거운 국 등을 탁자가 아닌 맨바닥에 내려놓고 먹고 있었다. 그는 이를 “매우 簡約하다.”<sup>156)</sup>라고 기록하였다. 고관대작들이 바닥에 앉아 밥을

---

尙未凱旋，官民運餉勞苦，山、陝累年歉收，百姓流離。去歲陝廟地震，兵民受傷；今年沙城地震，卽京畿亦震。此正君臣修省之際，何喜之有？不準行，欽此。”

15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一月初六日, “皇子所着衣服衾枕甚儉, 不如常胡之富者, 如器用之類, 亦無一奇物.”

먹는 모습을 보고 김창업은 그 簡約함에 감탄한 것이다.

김창업이 북경에 도착하여 본 것은 모두 康熙帝의 검소한 모습뿐이었다. 이는 과거 선배 사신들이 강희제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랐다.

옛날에 듣건대, 황제는 창춘원에 離宮 15채를 지어 북경 및 14성의 미녀들을 모았는데, 궁실 제도와 의복, 음식, 그릇 등을 모두 그곳 풍속에 따라 마련하였다. 황제가 그 가운데서 노닌다고 하였다. 지금 와서 보니, 소문과는 크게 달랐다. 또 그 문과 답을 보니, 제도가 순박하여 시골집과 다름이 없다. 진실로 놀기를 일삼고 사치에 바쁘다면 太液, 五龍 같은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여기에 거처하겠는가? 내 생각에 이곳은 西山과 玉泉에 가까우니, 산수의 경치와 전야의 취미를 겸한 곳이다. 이러한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듯하다. 이렇게 보건대, 그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 康熙帝는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며, 관대하고 간소함으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며, 財用을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50년 동안이나 통치하였다. 태평을 이룩한 것은 당연하다.<sup>157)</sup>

김창업은 康熙帝의 검소하고 애민하는 모습과 重農輕商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宜矣”라는 두 글자로 말을 아꼈지만, 그의 칭찬은 진

---

15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初六日, “大官數人飯于階上, 見其饌, 豬肉一器, 蔬菜一器, 熱鍋子湯一器, 而不設卓子, 直奠于地. 從者以磁器盛飯而進, 或一器或二器而止, 其簡約甚矣.”

157) 위의 책, 二月初七日, “舊聞皇帝於暢春苑, 作離宮十五處, 貯以北京及十四省美女. 宮室制度及衣服飲食器皿, 皆從其地風俗, 而皇帝沈湎其中. 今來見之, 與所聞大異.” “且觀其門與墻, 制度朴野, 無異村莊. 誠如事遊衍奢侈, 則棄太液五龍之倚麗, 而居此乎. 竊意此處, 與西山玉泉相近, 山水之景, 田野之趣兼焉, 似愛此而來耳. 以此觀之, 其人性稟可槩也.” “而以康熙之儉約, 守汗寬簡之規模, 抑商賈以勸農, 節財用以愛民. 其享五十年太平宜矣.”

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창춘원의 제도가 소박하고 시골집과 다름없는 데다, 옥천산과 가까워 “산수의 경치와 전야의 취미”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康熙帝가 산수와 전야의 정취를 즐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가 결코 사치스럽고 음탕한 성격을 소유한 자는 아닐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원에 가까이 있고자 하는 康熙帝의 취향은 은거를 좋아하고 들녘을 좋아하는 金昌業의 취향과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사신임에도 이를 매우 좋아할 정도로 공감하는 정서를 끌어낸 것이다.

홍대용은 康熙帝를 만난 적은 없지만, 북경의 창춘원과 원명원을 비교하며 강희의 검소함을 느끼고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창춘원은 康熙帝의 이궁(제2의 업무 장소)이며 원명원은 雍正帝의 이궁이었다. 雍正帝는 이를 크고 사치스럽게 지었으며, 乾隆帝는 이궁으로 삼은 후에 ‘도성의 궁보다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그래서 康熙帝의 검소함이 더욱 돋보인다. 홍대용은 이에 대해 “담 높이는 두 길이 채 못 되는데, 담을 둘러 바라보면 높은 지붕을 볼 수 없고, 고루 거각 등 볼 만한 것이 없는 듯하다. 문 옆으로 墳園이 둘러 있어 소나무·잣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그 법제가 간소하고 질실함을 알 수 있다.”<sup>158)</sup>라고 하였다.

김창업처럼 홍대용도 창춘원의 소박함을 묘사한 부분이 돋보인다. 재위 이후 60년이 된 임금의 궁실이 소박하다는 점에 이들은 감탄하였다. 홍대용은 “60년 동안 천하가 받든 궁실이 이처럼 낮고 검소했으므로, 천하가 그 위엄에 감복하고 華夷가 그 은혜에 젖어 오늘날까지 성인으로 불린 것이다.”<sup>159)</sup>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康熙帝가 居安思危의 원대한 식견을 갖춘 군주라고 칭찬했다.

---

158) 洪大容, 『湛軒燕記·暢春園』, “墻高不過二丈, 循墻而望, 不見峻甍, 宜無樓榭榮觀. 門側環列墳園, 松柏翳鬱, 其法制之簡質可知.”

159) 위의 책, “六十年天下之奉, 宮室之卑儉如此, 宜其威服海內, 恩浹華夷, 至于今稱其聖也.”

## 2) 온화하면서 엄혹한 乾隆帝

홍대용과 박지원은 乾隆帝 재위 기간에 청나라를 방문하였다. 건륭제는 60년 동안 재위했고 “최고 권력을 장악한 기간이 청나라 시기의 4분의 1에 육박하며, 청나라 봉건사회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황제”<sup>160)</sup>였다. 乾隆帝는 이전의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주력하였으니, 치세를 도모하기 위해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 곳곳이 수행함으로써 할아버지 康熙帝, 아버지 雍正帝와 함께 청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康乾盛世’를 열었던 매우 유능한 제왕이 될 수 있었다.

홍대용은 康熙帝의 勤儉愛民에 견주어 볼 때, 乾隆帝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원명원은 暢春園 서쪽 10리에 있는 雍正帝의 이궁이다. 지금 황제도 가끔 납시신다. 康熙帝가 60년 동안 천하를 거느리면서도 검약으로 평생을 마쳤다는 것을 창춘원에서 볼 수 있었다. 뒤를 이은 임금들은 제대로 법도를 따라 지키지 못하고 別園을 새로 세웠다. 벌써 전 임금의 본뜻을 저버렸는데, 그 제작의 사치하고 웅대함도 10배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 황제가 다시 수리하여 그 화려함이 도성의 궁궐을 능가할 형편이다. 康熙帝가 검약을 숭상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 있었던 보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sup>161)</sup>라고 하였다. 康熙帝는 행궁인 창춘원을 지었지만, 매우 소박하게 지었다. 뒤이어 등극한 雍正帝는 창춘원을 행궁으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명원을 지어 행궁으로 삼도록 명령했다. 乾隆帝는 즉위 후에 장식을 더 보태었는데, 홍대용이 보기에 이러한 사치스러움은 조상의 검소함에 어긋나고

160) 劉廣銘, 「朝鮮朝語境中的滿族形象研究-以十七、十八世紀的使行文學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175면.

161) 洪大容, 『湛軒燕記·圓明園』, “圓明園, 在暢春園西十里, 雍正帝之離宮, 今皇之時御. 康熙帝御天下六十年, 儉約以沒身, 卽暢春園可見矣. 嗣君不能遵守矩度, 創立別園, 已失先皇本意, 制作之侈大, 又不啻十倍, 而今皇益加增飾, 佳麗反勝於都宮. 康熙帝崇儉居野之義, 安在哉.”

잘못된 것이었다.

홍대용은 원명원을 둘러본 후 燕都八景 중 西山을 유람하였다. 乾隆帝는 西湖의 절경을 재현하기 위해 원명원에 인공호수를 지어 西湖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위의 누대와 정자들도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여 사신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 크고 웅장함에 있어선 阿房이나 建章만 못할지 몰라도, 교묘한 것은 오히려 나올 듯하다. 그러나 康熙의 어진 정치도 거의 식은 것 같다. 그러나 백성들이 부역의 고달픔을 느끼지 않고 세금을 더 물지도 않으며, 청나라와 오랑캐가 다 같이 평화를 누리고 관동 수천 리에 근심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 나라를 세울 당시의 간이하고 검소한 법도는 역대 조정이 따를 바가 아니지만, 지금 황제의 재략 또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62)</sup>

사신들은 원명원과 서산 누대, 정자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康熙帝의 근검절약 정책이 이제 끝났음을 알린다. 그러나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지 않고, 농토에 추가 세금도 붙지 않는다.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사신들이 가는 곳곳에 근심과 원망의 소리가 없었다. 비록 지금은 청나라 건국 당시의 검소한 제도는 없지만, 乾隆帝가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릴 수 있고 나라와 백성이 모두 편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가 분명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홍대용은 乾隆帝의 정치적 통치에 대해서도 긍

---

162) 洪大容, 『湛軒燕記·西山』, “其偉壯或不及於阿房建章, 而巧妙過之. 康熙之政, 幾乎息矣. 雖然, 民不苦役, 田不加賦, 華夷豫安, 關東數千里, 無愁怨之聲. 其立國簡儉之制, 固非歷朝之所能及, 而今皇之才略, 亦必有大過人者也.”

정적이었다. 여기서 홍대용이 乾隆帝의 사치스러운 삶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정치적 재능을 긍정적으로 본 그의 평가가 옳았음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熱河日記』에서 乾隆帝에 관해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乾隆帝의 성씨, 소속 부족, 황위의 명칭과 호를 서술하고 전설 속 황제의 직위로서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황제의 일상과 공문 용어, 일상 복식 등 특징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황제가 현세에 이르러 4대 제에 이르렀음을 소개하였다. 국호는 건륭이라 모두 乾隆帝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163)</sup> 이는 박지원이 막 경성에 도착해 북경성을 묘사한 뒤, 건륭제에 관해 묘사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그는 乾隆帝를 만나지 못했으며, 많은 책을 통해 그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

乾隆帝가 더위를 피해 열하로 가는 바람에 연암 박지원은 북경에서 황제를 만나지 못하였고, 열하에 가서야 이 전설 속 황제를 만나게 된다.

“황제가, ‘國王께서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사신은 공손히, ‘평안하옵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또, ‘만주 말을 잘하는 이가 있는가?’라고 하여, 上通事 尹甲宗이, ‘약간 아옵니다.’라고 하고 만주 말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좌우를 돌아보고 기뻐하며 웃었다. 황제는 모난 얼굴에 해맑으면서 약간 누런 빛을 띠었다. 수염이 반쯤 희고, 나이는 예순쯤 된 듯싶다. 애연히 春風和氣를 지녔다.<sup>164)</sup>

---

163) 朴趾源, 『熱河日記·關內程史』, 108면, “其姓曰愛新覺羅, 其種曰女真滿洲部, 其位則天子也, 其號則皇帝也, 其職則代天莅物也, 其自稱曰朕, 萬國尊之曰陛下, 出言曰詔, 發號曰敕, 其冠曰紅帽, 其服曰馬蹄袖, 其傳世維四, 其建元曰乾隆。”

164)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38면, “皇帝問:‘國王平安?’ 使臣謹對曰:‘平安.’ 皇帝又問:‘有能滿洲話者乎?’ 上通事尹甲宗以滿話對曰:‘略解.’ 皇帝顧視左右而喜笑. 皇帝方面白皙而微帶黃氣, 須髯半白, 貌若六十歲, 藹然有春風和氣.”

박지원이 본 바에 따르면, 乾隆帝의 의장은 그리 사치스럽지 않고 주위에 호위병이 많지 않다. 궁궐에 들어가는 관리와 사신이 많지만, 경내에는 시끄러운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여 규칙과 예의범절이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 황제는 연행 사신을 접견하면서 조선 국왕의 안부를 묻고, 사신에게 만주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는 등 상냥하고 친절하여 ‘봄바람이 부는 듯 화기에애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박지원이 만난 乾隆帝는 환갑의 나이로 머리와 수염이 반은 희끗희끗했다. 얼굴은 희면서도 약간 누런데 웃음을 보이며 친근하게 다가왔다.

박지원은 乾隆帝가 나이가 들면서 거친 성미를 드러낸 상황을 기록하면서, “황제는 나이가 많고, 또 在位한 지 오래여서 권세가 한 손에 있다. 총명이 쇠하지 않았으며, 기혈이 더욱 왕성하였다. 그러나 해내가 태평하고 임금의 자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새우고 사납고 엄하고 가혹한 일이 많았을뿐더러, 기쁘고 성냄이 절도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그때그때 잘 꾸며대는 것을 상책으로 삼고, 오로지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時義에 맞는 일인 줄로 알았다.”<sup>165)</sup>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乾隆帝가 고령인 데다 당시 청나라가 전국적으로 평안했기에, 만년에 번덕이 심해 신하들이 안일한 태도로 그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며 건륭 말년의 정치를 비판하며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은 또 乾隆帝가 말년에 청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관오리인 和珅을 지나치게 신임하여 또 다른 정치적 폐단을 만들어내었다고 비판하면서, “황제가 이제 여섯 살인 딸을 和珅의 어린 자식에게 약혼시켰다. 황제의 나이가 늙어서 성격이 점차 조급해져서 노여움이 잦고 좌우에게 매질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가 이 어린 딸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황제가 매우 성낼 때

165)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28면, “蓋皇帝春秋高, 御宇之日久, 權綱在手而聰明不衰, 氣血逾旺. 然海內昇平, 君道日亢, 猜暴嚴苛, 喜怒無常. 其廷臣皆以目前彌縫爲上策, 以悅豫帝心, 爲時義.”

면 궁인이 번번이 이 어린 딸을 껴안고 와서 황제 앞에 놓는다. 그러면 황제가 노여움을 그친다고 한다.<sup>166)</sup> 여기서의 건륭제가 어린 딸을 아꼈다는 점과 和珅을 총애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和珅에 대한 총애는 乾隆帝 말년 정치의 폐단을 보여준다.

중국의 청나라 역사 전문가인 戴逸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乾隆帝는 몸집이 작지만 비교적 균형이 잡혀있다. 또한 살집이 있고 피부는 희면서도 불그스름하다. 눈은 검으면서도 또렷하고 반짝반짝 빛나며 생기가 넘친다고 한다. “콧대가 조금 낮고 자태가 점잖으며 외모는 온화하다. 청년 시절에는 잘 생기고 멋진 미남이었다. 노년에는 존엄과 자상함, 자애로움이 묻어났다.”<sup>167)</sup>

여기서 乾隆帝에 관한 박지원의 묘사가 戴逸 교수의 고증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연암의 乾隆帝 묘사가 매우 객관적임을 보여준다.

---

166)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40면, “皇帝方以六歲皇女, 約婚於(和)珅之幼子. 皇帝春秋高, 多躁怒, 左右數被鞭撻. 而最愛此女, 故帝方盛怒時, 宮人輒抱置幼女於帝前, 帝爲霽威怒云.”

167) 戴逸, 『乾隆帝及其時代』,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9면.

## 2. 만주족 남성의 형상

### 1) 풍채 좋고 文致는 적은 만주족 남성

김창업은 4명의 연행 사신 중 가장 먼저 청나라를 방문하였다. 또 이전의 연행 사신에 비해 만주족 형상<sup>168)</sup>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山川風俗總錄』에서 만주족 남성에 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淸人<sup>169)</sup>은 풍채가 좋으나 文致가 적다. 문치가 적기 때문에 淳實한 자가 많다. 청인들은 漢語를 잘하는데, 漢人은 청어를 잘하지 못한다. 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황제는 이를 근심하여 충명한 어린이를 뽑아 寧古塔으로 보내어 청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sup>170)</sup>

김창업이 청나라에 간 것은 18세기 초반으로 만주족에 관한 그의 평가는 훗날 세 연행 사신의 기본 지식이 되었다. 만주족 남성은 키가 크고 지식 문화 수준이 높지 않지만, 성격이 비교적 온순하였다. 만주족은 중원에 입성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났기에 이미 한족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관리이든 일반 백성이든 기본적으로 한어를 할 줄 알았으며, 만주족 자체 풍습은 이미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창업은 만주족에 관해 “文致가 적다”라고 한 것은

168) 연행 사신이 만주족 형상에 대해 묘사한 경우 그 대상은 대부분 남성을 가리키며, 여성이라면 특별한 현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만주족 형상은 일반적으로 만주족 남성의 형상을 가리킨다.

169) 연행 사신은 보통 만주족을 청인(淸人)·호인(胡人)·만주인(萬州人)이라고 불렀다.

170)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淸人貌豐偉, 爲人少文, 故淳實者多.” “淸人皆能漢語, 而漢人不能爲淸語, 非不能也, 不樂爲也.” “皇帝患之, 選年幼聰慧者, 送寧古塔學淸語云.”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만주족을 묘사하는 고전적 ‘클리셰’가 되었다.”<sup>171)</sup>라고 하였다. 그보다 몇 년 후에 청나라를 방문한 이의현 또한 이렇게 기록했다.

清人들은 대개 몸이 살지고 크다. 그중에는 얼굴이 몹시 가증스러운 자도 있다. 누린내가 많아서 사람에게 풍기기도 한다. 언사와 행동이 전혀 공손한 기상이 없다. 漢人은 상당히 몸을 단속하고 외모도 좀 단정하다.<sup>172)</sup>

만주족과 한족, 남방 사람에 대한 이의현의 이해는 대체로 金昌業과 같았다.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의사소통이 주로 한어로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비슷했다. 만주족은 문화와 예의범절 측면에서 온화함과 우아함, 겸손이 부족하였고, 전체적으로 ‘文致’가 적었다. 여기서 ‘文’이란 단순히 지식 문화의 수준뿐만 아니라, 예의범절까지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文’과 ‘野’는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다. 『論語·雍也』에는 “質勝文則野 [본바탕이 외관을 지나치면 촌스럽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野’는 거칠고, 촌스럽고, 소박하다는 뜻이다. 김창업과 이의현은 여전히 오래된 유교의 ‘화이관(華夷觀)’의 영향을 받았기에, 만주족이 중원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유교 문화를 받아들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여겼다.

만주족은 청나라 사회 공간의 지배자이자 특권층으로서 연행 사신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김창업은 연행 길에서 만난 만주족 남성에게 총체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도 묘사하였다. 김창업은 강을 건너 요동 경계에 들어서자마자 야외에서 노숙하는 만주족을 보고, “清人 세

171) 劉廣銘, 「朝鮮朝語境中的滿族形象研究——以十七、十八世紀的使行文學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143면.

172)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清人大抵丰偉長大, 而間有面目極可憎者, 羶臭每多襲人, 言辭舉止, 全無溫遜底氣象. 漢人則頗加斂飭, 外貌亦稍端正.”

사람이 왔다. 바로 어제 지나간 자들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말을 몰아 산등성이로 달려왔고, 두 사람은 걸어서 천막 앞을 지나왔다. 그들은 역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담배를 요구하여 피우는데, 의복과 모자가 다 떨어지고 얼굴이 누추하여 처음 볼 때는 사람 같지도 않았다.”<sup>173)</sup>라고 하였다. 이는 김창업이 처음으로 그간 연행 선배들이 말한 만주족을 보고서 남긴 기록이다. 담배를 잘 피우는 그들은 일면식도 없는 외국 사신들에게까지 담배를 요구할 정도로 예의도 모르고 외모도 추하며 옷차림도 초라했다. 행동거지와 차림새 모두 부적절하여, 만주족 인물의 부정적인 형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김창업은 자신이 본 세 명의 만주족에 대해 “사람 같지도 않았다”라는 말로 마지막으로 평가했다. 무례하고 추한 만주족이 심지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상당히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만주족 남성에 대한 김창업의 평가는 유교 문화와 연행 선배들이 남긴 기록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만주족 남성 형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있었다. 예를 들면, 그가 북경으로 가는 길에 들른 小黃旗堡에서 한 만주족 가족을 만났을 때, 그는 修씨 성을 가진 사람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主胡(주인인 호인) 형제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났다, 형은 애꾸였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만주인이며 형은 봉성의 帶子라고 한다. 帶子란 章京직의 하나다. 봉금을 물었더니, 1년에 60냥인데, 장경은 80냥이고 장경 중에 牛泉은 100냥이라고 하였다. 주인은 모두 글을 알지 못하였다. 문답할 때 남을 시켜서 글을 썼지만, 사람됨은 다 양순하였다.<sup>174)</sup>

173)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一月二十七日, “清人三人來, 卽昨日過去者也. 一人驅馬從山坡間過去, 兩人步過幕前. 到諸譯坐處, 索烟吸之, 衣帽敝惡, 面目醜陋, 始見不似人.”

174) 위의 책, 十二月初九日, “主胡兄弟皆身長貌俊, 而其兄一目眇. 自言是滿州人, 其兄方爲鳳城帶子. 帶子, 卽章京之小者. 問其俸銀, 一年支六十兩, 章京支八十兩, 章京中又有號牛泉者, 支

쉴새 없이 성의 만주족은 체구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한자는 몰라도 성격이 착하고 온순했다. 김창업이 만주족에 관해 이전의 연행 사신들과 다르게 평가한 대목이다.

만주족 관리들에 대해 묘사할 때, 김창업은 한족 관리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새해에는 모든 외교사절과 신하들이 강희의 행궁인 창춘원으로 등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김창업은 며칠 내내 창춘원에서 강희의 사신 접견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 며칠 동안 김창업은 많은 만주족과 한족 관리를 만났다.

克登(목극등)은 황제의 寵臣이다. …… 위인은 작고, 눈에는 英氣가 있다. 말할 때는 웃는 듯하며 매우 지혜롭고 약은 듯하나, 역시 탁월한 인물은 못되는 듯했다.<sup>175)</sup>

만주족 각로는 松柱와 溫達이었다. 온달은 키가 작고 용모가 古怪하나 사나운 빛이 있었다. 얼굴은 붉으면서 시커멓고, 수염은 드물었다. 한쪽 눈이 찌그러졌다. 한족 각로는 李光地(호는 榕村, 청대 학자)인데, 복건성 安溪 사람으로 용모가 단정하고 미목이 청명하며 수염이 허영다. 하나는 蕭永祚로 봉천성 해주 사람인데, 키는 작고 얼굴은 길며 앞니 하나가 빠졌다. 또 하나는 王琰으로 강남 太倉 사람인데, 세련되고 우아한 기풍이 있으며 용모가 풍만하고 精彩가 넘쳐흘렀다. 상서는 청인으로 몸이 작고 눈에 정채가 있는데, 행동거지는 경솔하였다. 오른쪽에 앉은 시랑은 한인이었는데, 용모와 거동이 우뚝하게 뛰어났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엄이 있었으며 가벼이 주위

---

一百兩云. 主胡皆不解文字, 問答皆倩人書之, 然爲人皆良順.”

17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初六日, “克登, 皇帝寵臣. …… 爲人小, 而眼有英氣, 語時如笑, 甚慧黠, 亦非雄偉人.”

를 둘러보지 않았다. 왼쪽에 앉은 시랑은 용모가 보통인데, 청인이라고 하였다. 또 한 관리가 지나가는데 몸은 크고 얼굴은 검으며 자못 웅장하였다. 물으니 공부 상서로 청인이었다.<sup>176)</sup>

閣老 松柱가 지나가는데, 키는 크고 얼굴이 말랐으며 턱은 길고 수염이 드물며 눈에는 광채가 있었다. 이 사람은 瀋陽 장군으로 들어와 예부상서가 되고 각로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대관이 뒤뜰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계단 밑에 섰다. …… 그 사람은 키가 작으나 용모가 청명하며 文雅한 기품이 있었다. 벼슬은 호부 상서이며 성명은 張鵬翮으로 한인이었다.<sup>177)</sup>

위의 세 가지 인용문은 모두 한족 관리와 비교하면서 묘사한 것이다. “陸克登”, “松柱”, “溫達” 등 만주족을 묘사할 때 “위인은 작고, 눈에는 英氣가 있다”, “매우 지혜롭고 약은 듯하다”, “역시 탁월한 인물은 못 되는 듯했다”, “넘어지면 그 이가 닿는다”, “키가 작고”, “용모가 古怪하나 사나운 빛이 있다”, “행동거지는 경솔하다”, “용모가 보통이다” 등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반면 “李光地”, “王琰”, “侍郎在右者漢人”, “張鵬翮” 등 한족 관리를 묘사할 때는 “용모가 단정하고, 미목이 청명하다”, “세련되고 우아한 기품이 있으며 용모는 풍만하고 精彩가 넘쳐흘렀다”, “용모와 거동이 우뚝하게 뛰어났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엄이 있었으며 가벼이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용모가 청명하며 文雅한 기품이 있었다” 등 긍정적인 뉘앙스가 짙은 어휘를 사용하였다. 金昌業의 기록은 객관적인 서술과 직설적인 외모 묘사로 보이지

17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初六日, “五閣老在后殿月廊,余隨裨將輩往見.” “清閣老一松柱, 一溫達. 溫達短小, 容貌古怪而有猛意, 面赤黑須髯少, 一目眇. 漢閣老一李光地, 福建安溪人, 容貌端整, 眉目清明, 須髯白. 一蕭永柞, 奉天海州人, 身短面長, 前一齒豁. 一王琰, 江南太倉人, 有文雅氣, 而容貌丰盈, 精彩動人.” “尚書, 清人而身小, 眼有精神, 舉止輕率. 侍郎在右者漢人, 容儀魁偉, 沉靜有威, 不輕瞻視. 左者容貌平常, 清人云. 有一官過去, 身大面黑, 頗雄壯, 問之, 乃工部尚書, 清人也.”

177) 위의 책, 二月初五日, “又有一大官, 自后庭出來, 立于余輩所坐階下. …… 其人身短, 而容貌清明, 有文雅氣, 官戶部尚書, 姓名張鵬翮也, 乃漢人.”

만, 한족 관리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표하고 만주족 관리는 꺼리는 시선이 그의 표현에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보다 더 늦게 청나라에 도착한 이의현은 만주족 관리들에 대한 관찰과 묘사는 적었지만, 만주족 고위 관리에 관한 묘사는 있었다. 圖納이라는 한 관리가 병이 나서 연행 사절단을 수행하던 의관에게 진료를 청했고, 돌아온 의관은 圖納의 집안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고 전했다. 의관이 본 바에 따르면 말 60여 필과 낙타 50여 마리가 있었으며 문 안에는 300칸에 가까운 행랑이 있었다. 안마당이 거의 500여 칸이나 되고 그 가운데 30여 칸이나 되는 큰 집이 있는데 섬돌을 모두 옥으로 만들었다. 집 안의 그릇은 모두 금이나 은이 아닌 것이 없으며 서화, 도자기는 모두 골동품이었고, 진귀한 물건도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호화스러웠다. 만주족 귀족의 이러한 사치스러움을 보고 이의현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른바 圖納이라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이 이와 같다. 끝까지 편안히 부귀를 누릴 수 있을까?”<sup>178)</sup> 이 또한 달리 생각하면, 관리가 이 정도로 사치스럽다면 皇家는 더 심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청나라의 통치를 은근히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騎射에 능숙한 만주족 남성

사신들은 만주족 백성과 관리의 형상에 대한 묘사 외에도 만주족 남성이 “궁술과 마술을 숭상(尙宮馬)”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好騎射)” 특징을 특히 강조했다. 동북 지방에 살면서 유목과 사냥을 주로 해온 만주족에게 무

---

178)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所謂圖納, 不知何狀人, 而窮奢極侈如此, 其能終始安享富貴否?”

술, 기마, 활쏘기를 익히는 것은 전통이었다. 우선 만주족이 대대로 산림에 의존해 살아온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國語騎射(만주어를 하며 말 타고 활쏘기)”의 방침을 추구하는 통치자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옹정제와 건륭제는 여러 차례 유지를 내려 “기마는 만주의 근본이며, 만주인의 의무이다. [騎射國語, 乃滿洲之根本, 旗人之要務.]”라고 했다. 만주족이라면 관리와 백성의 구분 없이 모두 이런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은 연행 일기에 강희제가 오대산을 유람하며 호랑이를 쏜 일화를 기록했다. 강희제가 만주족에게 기마와 활쏘기를 자주 연습하도록 당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김창업은 小黃旗堡 부근에서 열두 살짜리 만주족 아이가 활과 화살을 쏘며 말을 타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호인 아이 하나가 활과 화살을 차고 말을 타고서 우리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다. 아이에게 물으니, 심양 병부 사랑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이는 열두 살이라고 하였다. 그는 말을 채찍질하여 우리의 교자 앞을 지나 딸린 하인들과 함께 달려갔다.”<sup>179)</sup> 승마와 활쏘기는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만주족 어린이들도 즐기는 풍습임을 알 수 있다.

무예, 승마, 활쏘기와 말 사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김창업은 연행 길에 만주족이 방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曹莊과 靑臺 사이에 한 石橋가 있었고 물이 꽤 깊었다. 기르는 말들이 100여 필이 있고 뒤에 호인 둘이 말을 타고 뒤따르는데, 여러 말들이 머리를 가지런히 가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서 특이하게 보였다. 이곳에 이르니 들녘에서 기르는 말들이 더욱 많아졌다. 한 떼가 수백 필에 이르렀다.”<sup>180)</sup> 수백 마리의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란

17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初九日, “有一胡兒佩弓矢騎馬, 與吾行或先或後. 問之, 卽瀋陽兵部侍郎之子, 隨其父往北京, 其年十二云. 俄而鞭馬出轎前, 與其從騎, 並馳而去.”

180) 위의 책, 十二月十六日, “曹莊靑台之間, 有一石橋, 水頗深. 有牧馬百餘匹, 兩胡騎而隨後, 羣馬齊首而行, 無小散亂, 見之可異, 野中牧馬, 到此尤多, 大羣多至數百匹.”

히 따르는 모습에 사신들은 놀라며 만주족의 뛰어난 방목 기술을 칭찬하였다. 4명의 연행 사신은 승마장에서 강희제와 건륭제를 만나기도 했다.

“궁술과 마술을 숭상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만주족 남성들에게 평화로운 시기에 사냥하는 것은 가장 큰 소일거리였다. 요동에서 북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는 만주족 남성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김창업은 “팔뚝에 매(鷹)를 얹은 호인이 왔는데, 금방 사냥을 시작한다고 하면서도 방울을 건지 않으니 괴이하였다. 또 말을 탄 매사냥꾼도 지나갔다.”<sup>181)</sup>라고 하였다. 사신들은 사냥하는 나그네나 말을 탄 사람들이 모두 구부린 팔에 매를 얹고 사냥하러 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사냥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동 지역 만주족만 사냥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皇族들도 자주 사냥을 나섰다. 김창업은 이에 대해 “웬 소년이 胡衣 차림으로 지나가는데, 담비 깃옷에 활을 메고 나귀를 탔으며, 앞뒤로 역시 호인 6, 7인이 활을 메고 준마를 탔다. 누구인지 물으니, 심양에 있는 황제의 近族인데 지금 사냥을 나가는 길이라고 한다.”<sup>182)</sup>라고 하였다. 사냥을 나간 사람은 황족일 뿐만이 아니라 소년이었다. 곧 나이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만주족 남자들은 모두 사냥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는 만주족의 특징은 홍대용의 연행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홍대용은 종자와 함께 角山寺에 갔을 때 사냥하는 만주족을 보고서, “몇 리를 가는데 난데없는 총소리가 숲속에서 들려 왔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말 모는 역졸은 쭈그려 엎드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에서 내려와 앉아 있었다. 世八은 한참 동안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틀림없이 獵胡(사냥하는 만주인)일 거라’고 했다. 뒤이어 총

181)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一月三十日, “胡人有臂鷹來者, 云方放獵, 而不綴鈴, 可怪. 亦有騎馬, 臂鷹而過者.”

182) 위의 책, 十二月初六日, “遇一少年, 胡衣貂裘, 帶弓箭, 騎驃而過, 前後從胡六七人, 亦帶弓箭, 馬皆駿. 問之, 卽皇帝近族在瀋陽者出獵云.”

소리가 계속 들려 왔다. 멀리 숲속을 바라보니 몇 사람이 총을 끼고 달리고 있었다. 世八은 ‘역시 엽호이니, 아무 염려 없다’라고 했다.”<sup>183)</sup>라고 하였다. 홍대용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모두가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종은 만주족이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대목이다.

한편 홍대용은 十三山에서 “나이는 젊으나 거동과 모양이 특이한 [年少儀狀特異] 만주족 관리와 마주쳤는데, “身長이 8~9척이나 되고 얼굴이 길고 코가 우뚝하였다. 눈에 광채가 있고 돌아다보는데 英氣가 사람을 움직일 만하였다. 나이 아직 어리어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sup>184)</sup>라고 하였다. 이 젊은 만주족 공자는 몸집이 크고 영기가 서려 있었다. 눈에는 광채가 있으면서 예쁘고 귀여웠다. 그의 하인(家丁)마저도 몸집이 크고 사납게 생겼다. 한어를 모르는 公子 대신 하인이 사신과 문답하였다.

家丁이 말하기를, “우리 집 大人께서 지금 북경에서 戶部郎中으로 벼슬하십니다. 이 때문에 公子께서 覬親하기 위하여 북경에 갔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북쪽 지방으로 打圍(사냥)하러 갑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 공자는 나이 아직 어린데, 타위할 줄을 아는가?”라고 하니, 家丁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勇力이 있으며, 활 쏘고 창 던지는 기술은 남보다 뛰어나서 벌써 큰 호랑이 두 마리를 쏘아 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너희 공자께서 이미 타위를 알면 軍陣에 나가서 전투하는 것도 잘하시는가?”라고 하니, 家丁이 말하기를, “타위는 군진의 하나이지만, 천하가 태평하여서 그 재주를 쓸 데가 없습니다.”라고

183) 洪大容, 『湛軒燕記·角山寺』, “行數里, 忽聞炮聲出林中. 四望無人跡, 牽馬者驛卒也, 蹲伏不敢動. 余亦心悸下馬而坐. 世八驚疑良久曰 ‘此必獵胡也.’ 頃之炮聲連發, 遙望林中, 有數人挾銃而走. 世八曰 ‘果獵胡.’”

184) 洪大容, 『湛軒燕記·十三山』, “其人身長八九尺, 長面隆鼻, 眼有光, 顧眄英氣動人, 年尚幼, 嫵媚可愛. 有人隨入立椅下, 亦豐軀雄猊, 其家丁也.”

하였다.<sup>185)</sup>

이 호부낭중의 공자는 겨우 스무 살이지만 벌써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았을 정도로 기마와 사격의 고수이다. 나아가 적을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천하가 태평하기에 그 재주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집안이 10년 전 강희제가 친정하여 回部の 반란을 평정하던 전쟁에 참전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시 도적의 반란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크게 되면 벼슬을 할 수 있고, 적게 되어도 우리 집안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썩썩한 남아로서 어찌 죽음이 두렵겠는가?”<sup>186)</sup>라고 하였다. 만주족은 귀족부터 평민까지 모두 용감하고 강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잊지 않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강대국을 배우기 위해 청나라를 방문하였다. 저명한 한국학 학자인 金柄珉 교수도 “박지원의 청나라 시찰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당시 청나라의 선진 과학 문화와 백성의 실제 삶의 모습을 실사구시적으로 조선에 알림으로써 ‘利用厚生’하고 ‘富國裕民’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분석했다.<sup>187)</sup> ‘이용후생’과 ‘부국유민’의 목적을 가지고 청나라에 도착한 박지원은 만주족의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풍습에도 관심을 보였다.

목동이 방망이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맨 앞의 푸른 놈을 힘껏 한 대 후려

---

185) 洪大容, 『湛軒燕記·十三山』, “家丁曰 ‘我家大人, 方仕于北京爲戶部郎中, 公子爲觀親入京, 方奉皇旨, 往北方打圍.’ 余曰 ‘你公子年尙幼, 能解打圍乎.’ 家丁曰 ‘公子年雖少, 有勇力, 射箭放鎗, 技巧絶人, 已射得兩大虎.’ (金)問曰 ‘你公子既解打圍, 亦能上陣善鬪乎.’ 家丁曰 ‘打圍上陣一也, 但天下昇平, 無所用其才.’”

186) 위의 책, “大則爲官, 小亦可富其家, 好漢寧畏死乎.”

187) 金柄珉, 『朝鮮—韓國文學의近代轉型與比較文學』, 延邊大學出版社, 2004, 80면.

갈기니 소가 씩씩거리며 달려간다. 그때 모든 소도 그 뒤를 따르는데, 마치 대오가 행진하는 듯하였다. 이는 대개 아침나절에 방목하기 위하여 끌고 나서는 것이었다. 한가한 때에 다니면서 살펴보니, 집마다 대문을 열고서 말, 나귀, 소, 양 등을 몇십 마리씩 몰아서 내놓는다. 돌아와서 우리 사관 밖에 매어 둔 말의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sup>188)</sup>

박지원은 태학관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여러 선비와 필담을 나누곤 했다. 그런데 열나흘째 날에 집을 나설 때, 목동들이 이렇게 능숙하게 소 떼를 모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소 떼는 마치 군대처럼 나란히 달렸다. 또 다른 집의 소와 양이 수십 마리나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타는 말을 보니 한심하기도 했다. 여기서 박지원은 주로 자국의 군마가 부족하고 질이 좋지 않으며, 말의 종자를 수입할 필요가 있지만, 사육하여 번성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문관이 말을 타지 않고 무관은 말을 가질 형편이 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떠올리며 탄식하고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낀 이유를 든다. 군사적으로 군마가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말의 종자가 여러 해 개량되지 못했다. 또한 자국의 사대부인 양반들은 “일반 허드렛일은 알려고도 않으려는 버릇들이 있어서” 이런 속된 일은 하지 않으려 하니, 군마를 잘 기르는 것을 한 나라의 큰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18세기 조선의 국력이 약한 이유가 “목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지원은 자신이 ‘연암’이라는 호를 쓴 것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자신의 위대한 포부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

188)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43면, “牧童持大杖如杵者, 盡力一打在前者青牛, 牛犇突騰踏而去, 群牛皆隨此牛, 如隊伍行陣. 蓋朝日放牧也. 於是閑行察之, 則家家開門, 驅出馬驢牛羊輒不下數十頭. 回看館外所繫我東鬣者, 可謂寒心.”

실상 내가 燕巖에 살 곳을 마련한 것은, 일찍부터 牧畜에 뜻을 두었던 때 문이다. 연암에 자리 잡으니, 첩첩산중에 양쪽이 편평한 골짜기인 데다가, 水草가 매우 좋아서 말, 소, 노새, 나귀 등 몇백 마리를 치기에 넉넉하였다.<sup>189)</sup>

따라서 청나라 만주족의 뛰어난 목축업과 군마 육성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낸 것이다.

박지원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사냥을 떠난 황실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사냥을 떠난 만주족 황실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특히 豫王에 관해서도 기록하였다.

나이가 20여 세 된 어떤 귀족 청년 하나가 붉은 보석과 푸른 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검은 말을 탄 채 달려갔다. 그 앞에 한 사람이 가고, 뒤에 따른 자가 기병 30여 명이나 되었다. 모두 金鞍을 올린 駿馬에 의관 곱고 화려하였다. 혹은 화살을 지기도 하고, 혹은 鳥銃을 메기도 하고, 혹은 茶鎗을 받들기도 하였다. 혹은 화로를 들고서 번개처럼 달리면서도 辟除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다만 말굽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시종하는 말 탄 자에게 물었더니, “황제의 친조카 豫王이다.”라고 하였다.<sup>190)</sup>

박지원은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말에 탄 豫王

189)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43면, “蓋余之所取乎燕巖者, 嘗有意于牧畜也. 燕巖之爲區, 在萬山中, 左右荒谷, 水草最善. 足以養馬牛羸(驪)驢數百.”

190) 朴趾源, 『熱河日記·還燕道中錄』, 150면, “有少年貴人年可二十餘, 帽戴紅寶石, 懸翠羽, 騎驪馬翩翩而去. 只一騎在前而從者三十餘騎, 皆金鞍駿馬, 帽服鮮侈, 或佩弓箭, 或負鳥銃, 或捧茶槍, 或擎燕爐, 馳驟如電而不除辟呵喝, 但聞馬蹄之聲. 詢于從騎, 曰皇帝親侄, 號豫王者也.”

을 마주쳤다. 다음날 그는 예왕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왕은 전혀 “교만하고 고귀한 서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 가장 압권인 것은 황실 자제들의 사냥 모습이었다.

뒤에 백여 명이나 되는 말 탄 사냥꾼이 멀리 산 밑을 바라보며 달린다. 독수리를 안은 자 10여 명이 산골에 흩어져 있다. …… 그즈음에 별안간 옥수숫대 꺾이는 소리가 나며 등골이 서늘해진다. 말 탄 이 하나가 나는 듯이 말 가운데로부터 달려 나오는데, 화살을 힘껏 버틴 채 안장 위에 엎드려 달리되 그의 희디흰 얼굴은 눈처럼 눈부시다. 담배 태우던 자가 그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열한 살이 된 황손입니다.”라고 한다. 그는 토끼 한 마리를 쫓아 달렸는데, 토끼는 달리다가 모래 위에 넘어져 누워서 네 발을 모은다. 말을 빨리 달려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였다. 토끼는 다시 일어나 산 밑으로 달음질친다. 그제야 백여 명이 달려가 에워싸니, 아득한 평원에 티끌이 공중을 가리고 총소리가 진동하였다. 그리고 별안간 에워쌌던 것을 풀고 가버리니, 티끌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一團이 감돌다가 아득히 그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과연 토끼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 달리는 법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아이를 불구하고 모두 타고난 천재들이다.<sup>191)</sup>

박지원은 예왕과 황손들이 사냥하는 모습도 기록했는데, 읽는 이에게 생동감이 그대로 전달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마지막에는 감탄을 표하며 만주족이 “말 달리는 법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아이를 불구하고 모두 타고난

191) 朴趾源, 『熱河日記·還燕道中錄』, 151면, “百餘騎遙馳山下, 臂鶴者十餘騎, 散行山谷間, ……背後薊黍鳴折, 一騎飛出田中, 注矢伏鞍而馳, 面如玉雪. 燕煙者指謂曰: ‘此十一歲皇孫.’ 逐一兔馳射, 兔走沙上, 仰臥湊蹄, 馬走快射不中, 兔復起走山下, 百餘騎馳圍. 平原塵土蔽天, 炮聲迭發, 忽解圍而去, 塵影中一團旋轉, 渺然不見其蹤跡. 未知逐獲兔子否也. 然馳馬之法, 無壯幼, 皆天性也.”

천재들이다.”라고 한다. 뒤에는 강희제가 오대산에 놀러 갔을 때 호랑이를 사냥했던 모습을 언급하였다. 열한 명의 황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황가 자손들이 “사냥할 때 재빨리 달리는 것을 구경하니, 대체로 그들의 家法이 그러함을 알겠다.”<sup>192)</sup>라고 하였다. 만주족들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것은 전체 민족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황실 자손들도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의 연행 사신이 만주족 남자들을 묘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김창업부터 이후로는 17세기 선배들이 묘사한 만주족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전까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將·相과 대신 모든 관원이 머리를 깎았다. 士와 庶人들까지도 모두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공덕이 殷·周와 같고 부강함이 秦·漢보다 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아직껏 머리 깎은 천자는 없었다. 또 비록 陸隴其·李光地の 학문이 있고, 魏禧·汪琬·王士澂(王士禛인 듯함)의 문장이 있고, 顧炎武·朱彝尊의 박식함이 있다고 한들 한번 머리를 깎는다면 곧 되놈이고, 되놈이면 곧 짐승일 것이다.<sup>193)</sup>

이전의 조선 지식인들은 청나라가 황제, 문무백관, 사대부, 백성까지 모두 머리를 깎았다고 하면서, 청나라의 강성이 秦漢을 앞서고 학문의 대가가 많더라도, 예전의 청나라는 아니라고 여겼다. 변발한 만주족은 이들에게 “짐승”과

192) 朴趾源, 『熱河日記·還燕道中錄』, 152면, “圍場馳驟如此, 其輕豪, 蓋其家法也.”

193)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0면, “皇帝也薙髮, 將相、大臣、百執事也薙髮, 士、庶人也薙髮. 雖功德侔殷、周, 富強邁秦、漢, 自生民以來未有薙髮之天子也. 雖有陸隴其、李光地之學問, 魏禧、汪琬、王士澂(禛)之文章, 顧炎武、朱彝尊之博識, 一薙髮則胡虜也, 胡虜則犬羊也.”

다름없었다. 또한 청나라 정부가 ‘剃髮易服’의 정책을 시행한 것도 “神州가 더럽힘을 입어서 그 산천이 피비린내 나는 고장으로 변했고, 성인들이 끼친 자취가 묻히자, 언어조차 야만을 따르게 되었다.”<sup>194)</sup>라고 할 정도로 전혀 없는 재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전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청나라 왕조와 청나라 문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 왕조 자체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는 정권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문화 계승 측면에서 볼 때 통치자가 중원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중원의 한족도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 왕조가 비록 오랑캐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중화 지역이 이어가는 것은 중원의 유교 문화인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자국 사람들이 마땅히 현재의 청나라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의 이런 견해는 매우 획기적이고 앞서가는 것이었다. 그는 진부한 화이관을 타파했으며, 조선 왕조가 청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이론적 장벽을 제거하였다. 또한 만주족의 말 기르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馬政은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馬政’ 문제는 ‘이용후생’ 뿐만 아니라 국방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sup>195)</sup> 따라서 박지원은 만주족의 목축업 기술을 강조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만주족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다.

---

194)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0면, “神州陸沉則山川變作腥膻之鄉, 聖緒湮晦則言語化爲侏儒之俗.”

195) 劉廣銘, 「朝鮮朝語境中的滿族形象研究-以十七、十八世紀的使行文學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190면.

### 3. 美麗하고 尊貴한 만주족 여성의 형상

연행 사신들의 청나라 방문 일정은 기간이 길고 이동 거리가 길어서 몹시 고생스러웠고, 밖에서 노숙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이런 까닭에 청나라 국경에 들어왔을 때, 보게 된 만주족 여성은 조선 여성이나 책에 기록된 한족 여성과는 달리 특별해 보였고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김창업, 이의현, 홍대용, 박지원은 감탄과 찬미의 시선으로 만주족 여성의 세련된 치장과 개성적 면모를 묘사했다.

만주족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세련된 치장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꽃을 좋아했다. “귀밑머리에 꽃을 꽂는 것[滿鬢插花]”은 만주족 여성들의 특징으로, 연행 사신이 받은 첫인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꽃은 만주족 여성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했다. 꽃은 만주족 여성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만주족 여성은 정원에서 꽃을 기르고, 시장에서 꽃을 팔고, 머리 장식과 옷, 신발에도 꽃 모양으로 수를 놓았다. 만주족 사람들은 화초를 좋아해서 특별한 화원도 소유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울타리 바깥에 거주하는 만주족 鄂氏 집안의 정원 배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울타리 주위로 울긋불긋 접시꽃이며 비비추가 만발하였다. 처마 밖으로 석류 몇 그루와 수국 한 그루, 베고니아 두 그루가 있다. 주인 악군(鄂君)의 아내가 손에 대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차례로 꽃을 따다. 아마 저녁 화장(化粧)에 쓰기 위해서이리라.<sup>196)</sup>

196)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3면, “籬邊紅白蜀葵及玉簪花盛開. 簷外有石榴數盆及繡球一盆、秋海棠二盆, 鄂之妻手提竹籃, 次第摘花, 將爲夕妝也.”

꽃을 좋아하는 만주족 여성은 정원에 있는 꽃으로 자신을 치장했는데 채스민, 호접란, 들장미, 헤란 (일경구화)이 주로 사용되었다.

꽃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제사에서 화환으로 쓰기도 했다. 또 다른 들꽃, 작약은 귀신을 내쫓는 상서로운 물건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聲息花는 신을 경배하는 물건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신에 대한 인간의 경건함을 표현했다.<sup>197)</sup> 위에 서술한 내용을 통해, 만주족이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제사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꽃을 기르고, 귀밑머리에 꽃을 꽂아 장식하는 문화는 이미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만주족의 기원은 청나라 동북의 백두산과 흑룡강 지역인데, 남녀 모두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다. 또 사냥하기에 편한 검은 옷을 선호하였다. 만주족 여성은 검은색 창파오를 입고 귀밑머리에 알록달록한 꽃을 꽂았는데, 눈에 띄게 짙은 수박에 없었다.

홍대용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주족 여성이 머리를 말아 올리는 것을 좋아했다. 동그랗게 말아 올려 서너 번 둥글게 돌려 올렸다. 비녀를 안에 꽂고 색색의 꽃들을 안에 꽂았다. 노인이나 과부도 마찬가지다.<sup>198)</sup>

---

197) 劉錚, 「朝鮮使臣筆下的滿族建築」, 『殷都學刊』 Vol.40, No.3, 安陽師範學院, 2019, 201면.

198) 洪大容, 『湛軒燕記·巾服』, “總發爲髻, 穹其中而盤其端, 可三四旋焉. 周簪小笄以安之, 遍插綵花, 雖老寡婦, 不去也.”

만주족 여성이 “귀밑머리에 꽃을 꽂는[滿鬢插花]” 풍속은 나이와 빈부귀천을 막론하는 것이었다. 박지원이 塔鋪에서 만난 노파는 머리에 홍백색 해바라기를 꽂고 있었다. 만주족 鄂氏의 집을 보고서 “그의 어머니 나이가 칠순에 가까운데, 머리 가득 꽃을 꽂고 있고 눈매가 아주 아름다웠다. [其母年近七旬, 滿頭插花, 眉眼韶雅.]”<sup>199)</sup>라고 기록하였다.

뒤로 넘긴 머리카락은 술이 없어서 바가지처럼 빛이 났으나, 뒤로 모은 손가락만 한 크기의 쪽에 잔뜩 꽃 비녀를 꽂았다. 양 귀에도 옥 귀고리를 달고 검은 저고리에 누런 치마를 입었다.<sup>200)</sup>

박지원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만주족 여성은 부풀려 올린 머리에 꽃 비녀를 꽂았고 금팔찌와 보석 귀고리를 하고 붉은 분으로 가볍게 화장하였다. 검은색 창과오를 입고 은으로 만든 사슬 허리띠를 둘렀다. 발아래 신발을 벗어 두고 꽃과 나비를 수놓고 있었다. 만주족 여자들은 전족하지 않기 때문에 弓鞋를 신지 않는다.<sup>201)</sup>

한족 여성들은 전족하고 弓鞋를 신어서 자태가 만주족 여성에 미치지 못한다. 만주족 여성은 꽃다운 얼굴과 달과 같은 자태를 뽐낸다.<sup>202)</sup>

---

199)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2면, “其母年近七旬, 滿頭插花, 眉眼韶雅.”

200) 위의 책, 23면, “鬢髮盡禿, 光緒如匏, 寸髻北指, 猶滿插花朵, 兩耳垂瑤, 黑衣黃裳.”

201) 위의 책, 20면, “滿髻插花, 金釧寶璫, 略施朱粉, 身着一領黑色長衣, 遍鎖銀紐, 足下穿一對靴子, 繡得草花蜂蝶. 蓋滿女不纏脚, 不着弓鞋.”

202) 위의 책, 30면, “漢女皆纏足, 著弓鞋, 姿色不及滿女, 滿女多花容月態.”

머리 가득 꽃을 꽂고 검은색 창과오를 입은 아름다운 만주 여성이 花盆底 (화분 모양의 받침으로 된 만주족 여성의 신발, 馬蹄底로 불리기도 한다.)<sup>203)</sup>를 신고 걸으면, 맵시가 났다.

만주족 여성의 충만한 생명력은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예의범절에 구속받지 않는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김창업은 『老稼齋燕行日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김창업이 부사, 서장관 등과 함께 연극을 관람하던 중 맞은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집 문 안에 온돌이 하나 있고, 여인들이 창문가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善興이 나를 앞에 앉도록 했다. 여인들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문밖으로 나왔다. 여인 중에는 胡女, 즉 만주족 여인이 있었다. 나이는 12세였다. 자태가 풍만하고 분을 바르지 않았다. 얇은 綺羅를 걸치고 말아 올린 머리에는 장신구를 꽂고 있었다. 귀에는 찰랑이는 귀걸이를 달고 손에는 함석으로 만든 주전자를 쥐고 있었다.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茶器이기도 했다. 자주 차를 따라 마시며 친구에게 권하기도 했다. 행동거지를 봤을 때 친한 신분 같지 않았다.<sup>204)</sup>

203) 만주족 여성들은 나무로 만든 굽이 높은 신을 신었는데, 그 모양이 화분과 같아서, “花盆底”, “馬蹄底”라고 불렀다. 이러한 신발은 튼튼하고 아름다웠다. “신발의 바닥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만드는 방법은 나무 바닥의 중앙에서 양 끝을 뚫는데, 말발굽 모양이라서 馬蹄底, 말발굽 신발이라고 불렀다. 굽의 높이는 2촌에 가까운데 보통 1촌(3cm)을 넘었다. 모양이 다양하고, 땅에 닿는 부분이 말발굽과 같았다. 바닥이 단단하여 신발이 낡아도 바닥을 제사용할 수 있다.” 徐珂, 『清稗類鈔』, 第13冊, 中華書局, 1984, 6212면.

20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二十一日, “人家門內有一炕, 羣女滿窓, 善興欲引餘坐其中, 羣女不肯避去, 遂坐門外. 羣女中有一胡女, 年可十二歲, 姿貌豐盈, 不施朱粉, 穿淺緣綺錦衣, 髻插花鈿, 耳垂鐙, 手執白錫壺, 制甚精巧, 乃茶器也. 以小鐘頻頻斟茶自呷, 亦勸同伴. 見其舉止, 似非下賤人也.”

여기서 김창업은 만주족 여성의 외모를 묘사했을 뿐만이 아니다. “행동거지를 봤을 때 천한 신분 같지 않았다. [見其舉止, 似非下賤人也.]”라고 하여 그녀의 행동과 태도도 평가하고 있다. 청나라 전기의 만주족 여성들은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예의범절의 속박을 거의 받지 않았고, 여성이 지닌 본연의 솔직하고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胡女가 정교한 다기를 들고 직접 따라 마시는 천진난만한 모습과 친구에게 이를 권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를 통해 시원시원하고 발랄한 만주족 여성들의 힘찬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만주족 여성들은 활발하고 명랑하며 시원시원하고 유머러스하여, 처음 만난 연행 사신들에게 농담도 건넸다.

길에서 胡女 여덟아홉이 있는 것을 보고 元建이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중 한 여인이 “고려인을 보려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실로 우스웠다. 원건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여인들이 모두 웃었다.<sup>205)</sup>

김창업은 다른 부분에서, 만주족 여성이 명랑하고 외향적이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연행 사신들이 오히려 불편할 정도라고 말했다.

백씨가 앉은 구들은 너무 작아 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방으로 갔는데 작은 구들이 있었다. 꽤 정교하고 깨끗했다. 내가 막 앉

---

20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初五日, “路遇胡女八九人步行. 元建問‘何往?’一女答曰: ‘爲觀高麗人’, 蓋戲之也. 元建曰‘好生不安.’ 群女皆笑.”

았는데, 부사가 들어와 서쪽에 있는 방으로 피했다. 서쪽 방에 있는 구들이 매우 작았는데, 한 호족 남자가 그의 아내와 같이 앉아 있었다. 灣裨가 그에게 말해, 그가 내게 자리를 내줬다. 그 남자는 구들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 아내는 여전히 구들에 앉아 자리를 내주지 않고 나와 붙어 앉아서 굉장히 불편했다.<sup>206)</sup>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만주족 여성은 남성과 같이 앉아 식사하고 남성처럼 외출하여 일상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대담하고 명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7)</sup> 이렇게 거칠 것 없는 명랑한 성격 때문에, 연행 사신들이 마음속으로 불편을 느꼈을 정도라고 하였다.

연행 사신 세 명의 연행 작품 속에서 그들을 대신한 내포 작가는 서술자인 “나”를 통해 만주 귀족 여성의 모습과 만주족 여성의 존귀한 사회적 지위를 기록했다.

김창업의 『老稼齋燕行日記』 서술에 대해, 楊光은 “청나라 후궁 여인상에 대한 묘사는, 굉장한 창작적 가치를 지녔다. 청나라 후궁에 살던 妃와 侍女 등의 인물에 대한 기록을 통해 청나라 사회와 청나라 황실의 전반적인 모습과 특징을 알 수 있다.”<sup>208)</sup>라고 평가하였다.

鼓樓 서쪽에 가니여섯 대의 마차가 있는데, 네 명의 宦官이 말을 타고 채

---

20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二十七日, “伯氏所坐炕甚小, 餘不得坐處. 就其東廂有小炕, 頗精灑纔坐, 而副使及書狀入來, 遂避之西邊屋. 炕尤小, 一胡與其妻同坐, 灣裨言之, 遂虛半邊, 使與坐, 渠則坐炕下凳子, 其妻仍坐炕上不動, 與餘坐席幾相接, 可苦.”

207) 姚曉娟, 「朝鮮時代“燕行錄”與清代滿族女子的域外鏡像」, 『湖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湖北民族大學, 2010, 129면.

208) 楊光, 「『老稼齋燕行日記』滿族形象及滿族文化研究」, 長春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1, 32면.

찍을 휘두르면서 행인들을 한쪽으로 몰고 있었다. 사신들은 골목으로 피했다. 말에서 내려서 보니, 앞에 있는 두 대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마차 안에 있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거리가 좀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으나, 절색이었다. 뒤에 있는 네 대는 검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시녀들이 타고 있었다. 호인에게 물으니, 황자의 부인과 황제의 후궁이다. 황제가 霸州로 가기에, 暢春苑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09)</sup>

이 글은 김창업이 북경에서 남긴 것이다. 당시 사신들이 청나라를 방문하는 중에 목격한 만주족 귀족 여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존귀한 청나라 후궁의 외모(절색)와 복색, 행동거지 등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청나라 방문 중에 보게 된 만주족 여성의 외모와 복색 등 외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형상을 표현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창업이 청나라 후궁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드러냈다.

만주족 여성의 “존귀함”은 만주족이 지닌 특유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나타난다. 만주족 여성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반영된다. 연행 사신들은 만주족 여성들이 기녀가 되지 않는 점과 가정 내의 지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姚曉娟은 “만주족은 샤머니즘과 모계 중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성 지위가 높은 편이다. 남존여비 전통에 익숙한 조선 사신들은 이 점에 매우 놀랐다.”<sup>210)</sup>라고 하였다. 조선 여성과 한족 여성이 가사 노동으로 고생하는 것과 달리, 만주족 여성의 일상 생활은 여유롭고 자유로웠다. 심지어 신분이 낮은 여성도 가장 기본적인 노동

20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初五日, “到鼓樓西邊六屋車, 有四宦官騎馬揮鞭辟行人, 使臣避入巷, 餘輩下馬立視, 車中皆坐女人, 前兩車皆紗幔, 車中女子面目可見, 而餘立處稍遠, 故不能細看, 譯輩皆雲絕色. 後四車皆黑帷, 侍女所乘雲. 問於胡人, 言皇子夫人及皇帝後宮, 以皇帝將往霸州, 故往暢春苑雲.”

210) 姚曉娟, 「朝鮮時代“燕行錄”與清代滿族女子的域外鏡像」, 『湖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湖北民族大學, 2010, 128면.

을 남성이 대신했다.

여자는 綺羅를 걸치고 비녀에 꽃가루를 발랐으나, 남편은 옷이 낡고 얼굴이 초라하여 처음 보는 사람은 하인인 줄 알았다. 크고 작은 일 모두 남자가 도맡아서 했다. 마차를 몰고, 밭을 갈고, 땀감을 만들고, 쌀을 찧고, 밭을 경작하고, 천을 짜는 등 모든 일을 남자가 했다. 여자는 밖에 나가는 일이 드물고, 신발 밑창을 꿰매거나 곡식을 손질하고 밥을 짓거나 하여, 자신의 할 일만 하고 가게에 드나들지 않았다.<sup>211)</sup>

이를 통해 평범한 만주족 여성은 보통 ‘綺羅’를 걸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으며 남편들은 노예처럼 옷을 입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소박하게 옷을 입고 여성을 대신하여 많은 일을 했다. 이 부분을 통해 만주족 여성들의 가정 안에서의 지위를 알 수 있다.

청나라가 세워진 후, 순치 시기부터 시작하여 강희 시기를 거치면서 관기 제도가 사라졌다.<sup>212)</sup> 게다가 만주족 여성이 창기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만주족은 정치적 특권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경제적 혜택도 받았다. 사실상 “入關했을 때부터 八旗 제도에서 지정된 差役, 糧草(양식과 사료), 포목을 납부하는 것을 면하고, 병역 의무만 이행한다.”<sup>213)</sup>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연행 사신 徐有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211)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女子被綺羅, 塗粉簪花, 而其夫衣服敝, 面貌醜陋, 乍見者皆認爲其奴. 凡大小事役, 男子悉任其勞. 驅車耕田負薪之外, 運水舂米種田, 至織布裁縫等事, 亦皆男子爲之. 女子則罕出門外, 其所爲不過縫鞋底而已, 村女則簸穀炊飯等事, 或自爲之, 店房中絕不見女人往來.”

212) 신익철, 「연행사와 양한적(養漢的)—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 고전 여성 문학 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30면.

213) 劉小萌, 『清代北京旗人社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28면.

만주족은 모두 고향이나, 벼슬, 호적과 관계없이 재산이 있다. 만주족이 입은 옷으로 빈부를 판단할 수 없다.<sup>214)</sup>

이러한 조치와 특권은 만주족 여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보호하였다. 연행 사신들은 북경의 거리와 골목에 가득 찬 한족 기생들과 비교하며 “이 땅에서는 만주족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生於此土者, 反是爲(滿)女好矣.]”라고 감탄하듯 말했다.

---

214) 徐有素, 『燕行錄』, “凡滿人無論京鄉, 皆入於仕籍、旗籍, 各有恆產. 故所至見滿人, 其衣服外樣, 皆非貧窶者.”

#### 4. 지식인의 형상

프랑스 학자 파조(Daniel-Henri Pageaux)는 이국 형상의 소재 선택에 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국의 ‘형상’을 만들 때 작가는 현실을 복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이국 묘사를 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분인 특징을 일정 개수 이상 선별한다.”<sup>215)</sup> 연행 사신들은 청나라에 온 이후 청나라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들의 묘사 대상은 선택적이었다. 청나라 지식인 계층을 대표하는 지식인은 4명의 연행 사신의 관심 대상 중 하나였다. 지식인은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그들의 언행을 통해 당시 사회의 사상적 현황을 이해할 수 있고, 최신 학술 사상과 기타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4명의 연행 사신은 일반적으로 필담의 형식을 통해 각양각색의 지식인들과 접촉했다. 이들은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연령,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경험이 모두 달랐는데,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았고 양국의 문화 교류 역사에 하나의 미담도 일구어냈다.

##### 1) 탐욕스럽고 소심한 지식인

18세기 연행 사신으로 대표되는 한국 지식인의 청나라 지식인(주로 한족 지식인)에 대한 인식은, 18세기 초기와 말기의 견해가 달랐다. “화존이비(華尊異卑)’라는 사상에 갇힌 조선 학자들은 18세기 초에 중국 지식인들을 기본적으로 장사꾼, 탐욕스러움, 소심함 등 부정적 형상으로 묘사했다.”<sup>216)</sup> 한족의 지식인들은 청나라가 가혹한 문자의 옥(文字獄)을 시행하자, 형벌을 피해 자신을

215)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138면.

216) 朴青梅, 「“燕行錄”中的中國知識份子形象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1면.

보호하기 위해 시사에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필담에서 조금이라도 시사에 관한 글이 나오면, 즉시 없애버리는 바람에 사신들에게 비겁하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사신들, 특히 홍대용과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북학과 사상가들은 ‘華夷之變’의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利用厚生’을 중심 사상으로 삼고 모든 것을 현실에서 출발하여 백성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 때문에 청의 선진 문화를 배우고 거울삼아 조국의 뒤떨어지는 현상을 바꾸고자 갈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본 청나라 지식인의 형상은 박식한 것을 넘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적 태도와 실사구시 정신을 지닌 진보한 선비”<sup>217)</sup>였다. 이를 통해 18세기 연행 사신들의 중국 지식인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1712년 김창업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 청과 조선 사이에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난 후로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시기였다. 하지만 청나라가 조선에 끼친 피해는 18세기 초까지 큰 민족적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지식인,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모두가 청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김창업의 연행 작품은 청나라에 대한 당시 사회 전반적 인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비교문학 형상학에서 지적하듯이 “이러한 타자의 형상은 작가의 손을 거쳐 창조되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다. 즉, 작가의 이국에 대한 이해는 직접적이지 않다. 작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상상을 통해 그려지는 문학작품 속 이국 형상은 사회 전체의 상상력이 참여해 만들어 낸 결정체이다. 작가는 그 안에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프랑스 학자들은 이러한 ‘타자’ 형상 창조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그가 속한 사회적 영향의 원인을 ‘사회 전체 상상물’이라고 한다.<sup>218)</sup> 따라서 김창업이 청

---

217) 朴青梅, 「“燕行錄”中的中國知識份子形象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1면.

나라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는 이미 청나라의 형상에 대한 잠재적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잠재적 인식은 저자의 청나라 형상 묘사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김창업은 집안의 영향도 받았다. 김창업의 가족은 청나라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김창업의 조부와 아버지, 숙부와 형이 차례로 정식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김창업의 증조부 金尙憲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서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1641년 심양으로 끌려가 4년 넘게 머물며 청나라에 반기를 든 강경 인사였다. 따라서 사회 분위기나 집안 내력 모두 청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김창업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은 그의 연행 일기에 나타난다.

봉건사회 시기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청나라와 조선 모두 ‘중문경상(重文輕商)’ 사상이 강했다. 선비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장사는 하지 않으려 했고, 김창업도 이런 사상의 영향 속에서 선비들이 책을 사고파는 상황을 묘사했다. 산해관에서 수재들이 사고파는 서화는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짜도 많았다. 게다가 부르는 값도 비쌌는데, 익살맞은 김창업은 스스로 명가의 필적을 본떠 글씨를 쓰고 그 위에 銀 삼십 냥이라고 썼다.

밤에 서화를 팔러 온 자가 몹시 많았다. 그들은 흔히 수재들이었다. 그중에 蘭亭墨本(왕희지의 글씨)이 꽤 좋았으나 부르는 값이 너무 비쌌다. 또 飲中八仙帖, 花鳥帖, 山水簇은 다 俗筆이었다. 또 唐白虎의 수묵산수도, 范鳳의 淡彩山水, 米芾의 수묵산수는 다 贗品(위조품)이었다. 미불의 그림이 은 30냥을 호가하기에 粉帖 위에 미불의 글씨를 모방해서 쓰고 30냥이라고 그 위에 썼더니, 여러 호인이 웃어 댔다.<sup>219)</sup>

---

218) 陳惇·劉象愚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2006, 271면.

이곳 수재들이 높은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썼기에, 자신이 이들을 풍자해 ‘호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수재들은 사신들에게 서화를 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높은 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신들이 영평부 왕씨 집에 묵은 일이 있다. 그때의 일을 김창업은 “저녁에 주인집 아들이 이웃에 사는 秀才 5, 6명과 함께 와서 書帳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시험 삼아 그 값을 물어보았더니, 북정보다 배나 비쌌다. 또 花梨筆筒도 꺼내 놓았는데, 崔壽昌이 銀 1냥으로 흥정하였으나 모두 사지 못하였다.”<sup>220)</sup>라고 기록하였다. 수재들이 비싼 값을 부르자 사신 중에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창업은 두 곳의 수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행간마다 그들의 신분을 강조하며 그들이 가짜 서화를 팔고 비싼 값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한족 지식인들의 저속한 형상을 보여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김창업은 崔壽昌과 함께 조수재의 집에서 함께 서책을 구매한 모습을 기록하였다. 저녁을 먹은 후 최수창이 와서 말하기를, “이곳에 冢성을 가진 秀才家가 있는데,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또한 깨끗하고 화려하여 볼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의 이름은 永著인데, 지난겨울에 『文選』을 판 사람이었다. 서책을 많이 꺼내 놓고 팔려고 하는데, 『文選』이 또 있기에 책값을 僧頭扇 9개로 다시 흥정했더니 곧 허락하였다. 김창업이 서책을 구매한 조수재의 집은 넉넉해 보였고 집안에 글 선생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책을 매매하는 데다, 그것도 여러 사신에게 팔았다는 정황을 근거로 그가 순수한 선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21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八日, “夜來賣書畫者極多, 其人多是秀才. 其中蘭亭墨本頗佳, 而索價過多. 又有飲中八仙帖, 花鳥帖, 山水簇, 皆是俗筆. 唐白虎水墨山水, 范鳳淡彩山水, 米芾水墨山水, 亦皆贗作. 米芾畫, 討銀三十兩. 余於粉帖上, 倣其筆, 意塗抹, 書三十兩三字于其上, 羣胡大笑.”

220) 위의 책, 二月二十一日, “主人子及隣居秀才五六人來示書帳, 試問其價, 比北京倍高. 又出花梨筆筒, 崔壽昌論價, 討銀一兩, 皆不買.”

장사를 하는 선비에 대해서 홍대용은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寧遠城에서 멀지 않은 沙河에서 郭氏 성을 가진 한 수재를 만났다. “나이 40여 세쯤 되어 보였다. 키는 크지 않고 몸집도 작은 편이었다.”<sup>221)</sup> 수재 곽생은 이미 중년이 고 체구는 작지만 잘생긴 외모에 훌륭한 태도까지 지닌 인물이었다. 곽생은 18년 전에 舉人이 되었으나,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통역관 李氏가 웃으며 말하기를, “독서하던 선비가 상인이 되었는데 어느 여가에 독서하겠으며, 또한 독서하고서도 과거에 응시하여 공명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독서해서 무엇하리오?”<sup>222)</sup>라고 하였다. 또 “농사꾼이 밭 갈고 工匠이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이 화물을 유통하고, 선비가 독서하는 것은 모두 좋게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수재로서 독서하여서 벼슬을 구하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어디서 생기겠는가?”<sup>223)</sup>라고 하였다. 이 역관은 이어서, 인생에 뜻을 얻는 것으로는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존귀한 사회적 신분과 명성을 얻고 殺活과 榮辱을 부리는 권세를 얻어서 이웃 마을과 친척들이 집을 먹고 와서 달라붙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능사라고 하였다. 선비, 농부, 공장, 장사꾼 중 가장 굶은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웃기는 일이 아니냐고 곽생에게 되묻기까지 하였다.<sup>224)</sup>

그러나 곽생은 과거 급제만을 위해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221) 洪大容, 『湛軒燕記·沙河郭生』, “年可四十餘, 短少有風儀.”

222) 위의 책, “身爲店主, 奚暇讀書, 且既不應舉, 讀書將何用?”

223) 위의 책, “農之耕田, 工之制器, 商之通貨, 士之讀書, 皆所以求食也. 讀書而不求官, 食從何出?”

224) 위의 책, “人生得意, 孰如官祿? 位尊俸厚, 身安名立, 佩殺活之權, 掌榮辱之柄, 鄰里親戚, 畏懼趨附, 承望頌笑, 惟恐或後, 此非人生之能事乎. 看君溷身店肆, 甘心卑瑣, 烹羊作飯, 以供行旅, 懸秤握籌, 以競刀錐. 此丈夫之賤行, 布衣之辱處. 然且不知恥, 強爲大言, 以爲貧賤不足憂, 富貴不足求, 可乎.”

때에는 利와 不利가 있고, 命에는 幸과 不幸이 있습니다. 不利와 不幸이 없는 것은 道입니다. 이제 내가 낮고 굽은일을 몸소 행하고, 천하고 욕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곧 때가 불리함이요, 명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리함도 없고 불행함도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增減이 없는 것이니, 내 어찌 이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닭이 울면 일어나서 방과 마루를 깨끗이 쓸고 닦으며, 문을 열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장사꾼들이 돌아갈 때면, 술과 밥을 정결히 장만하여 그들의 고생을 위로하며 말먹이까지 넉넉히 마련하여 그들의 가는 길을 편리하게 합니다. 비용이 든 대로 돈을 받으니 양측이 공평하며, 그 남는 이윤으로 가족들이 먹고삽니다. 몸에는 근심과 위태로움이 끊어지고, 남들의 원망과 꾸짖음이 없습니다. 초연하게 되는 대로 사는 속에 지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억지 수작으로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sup>225)</sup>

또 이어서 탄식하며 “재주 높은 이는 山野에 묻혀 있고 돈 많은 이가 직위에 있으니, 요새 세상에 벼슬한다는 것을 나는 몹시 부끄럽게 여깁니다.”라고 말하였다. 광생의 말에서 우리는 초연한 경지에 달한 한 선비의 형상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선비의 신분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독서를 통해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초탈하고 자연스러운 독서를 위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가질 뿐이다. 또한 사람은 각자 운명이 있고 모든 일은 강요할 수 없다. 각자의 생계와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 “벼슬이란 영화스러운 때도 있고 치욕스러운 때도 있는” 것이다.

225) 洪大容, 『湛軒燕記·沙河郭生』, “時有利不利, 命有幸不幸, 無不利無不幸者, 道也. 今我躬行卑瑣, 不恥賤辱, 乃時不利也, 命不幸也. 其無不利無不幸者, 固無所增減焉. 吾何爲不樂哉. 鷄鳴而起, 灑掃室堂, 開門招客. 商旅如歸, 既潔酒食, 以慰其苦. 亦豐菽秣, 以利其往, 計費收金, 物我無憾. 取其贏餘, 以資家食, 身絕憂危, 人無怨詈. 迢然開放, 至樂在中, 吾何嘗強爲大言乎.”

그리고 당시 시대에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조정에서 관직을 맡을 수 없고, 오히려 부자들이 조정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곽생은 그런 조정에서 관직을 맡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자신에게 급제는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말에 홍대용은 “무의식중에 칭찬이 튀어나왔다 [余聞之失聲稱奇]”라고 하였다. 또 그가 옛말처럼 “시문에 숨어 사는 현자 [賢而隱於市門者]”인 것 같다고 말한다. 갈 길이 바빠 더 길게 이야기하지 못한 홍대용은 “무엇을 잃은 듯이 서운하다 [悵然如有失焉]”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김창업의 한쪽 지식인 묘사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欽天監 옆에 있는 작은 절을 지나면서 한 擧人의 허황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과거시험을 치르러 온 擧人이 절에서 점괘를 받은 후에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의 사적을 절의 비석에 새긴다는 사연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었다.

왼쪽 비석 위에 陰刻한 印本 종이가 붙어 있다. 그 글을 읽어 보니, 과거 시험을 보러 온 擧人이 이 묘당에 와서 점괘[籤]를 뽑고, 그날 밤에 신기한 꿈을 꾸 뒤엔 과연 登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점괘와 꿈이 모두 영험했으므로 마침내 돌에다 새겨 기록해 놓은 것이다. 수백 글자로 남달리 특이한 영험을 칭송한 글이었다.<sup>226)</sup>

김창업은 이 거인의 글을 칭찬하면서도, 선비라는 사람이 귀신을 믿어 점괘를 보고 귀신 덕을 본 일을 절에 남긴 것은 허황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자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道義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sup>227)</sup>라고 하였듯이 선비라면 책 읽기를 중시하고 귀신을 멀리

22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十五日, “左碑上貼一陰刻印本紙, 見其文, 卽擧人之赴試者, 來廟中拈籤, 夜夢甚異. 其後果得第, 籤與夢皆驗. 遂刻石爲記, 縷縷數百言, 稱其靈異.”

해야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창업은 거인이 귀신을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비꼬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형상을 풍자하였다.

군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시한다. 유교 문화는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sup>228)</sup>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창업이 본 한족 지식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 김창업은 북경으로 가다가 영원성을 지날 때, 王寧潘이라는 수재와 필담을 나누게 된다. 王寧潘은 앞서 청나라를 다녀간 이들의 연행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며 이미 四書를 읽었다고 한다. 이 인물이 궁금했던 김창업은 그를 불러 필담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에 관해 즐겁게 논하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王寧潘은 자신이 잘 아는 사신이 “宋公(김창업이 언급한 왕씨 성 수재에 관해 기록한 宋玉汝)”이라고 한다. 王寧潘은 『春秋』라는 책을 그에게 보내려고 한다면서 김창업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글의 행간에서 우리는 김창업이 송공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 王寧潘의 행동을 기뻐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물은 가벼울지라도 그것을 준 사람의 뜻은 무겁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을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관본이 모두 좋으니 낡았다 해도 관계가 없고, 더구나 물건보다 뜻이 중한 것이 아니겠냐고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전해 주겠다고 하고, 내년 2월에 돌아올 때 반드시 이곳을 들러 달라는 수재의 부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김창업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王寧潘에게 책을 받기 위해 왔을 때 번고가 생겼다.

그가 답하기를, “저의 숙부는 일찍이 그런 책[文稿]을 가진 적이 없습니

227) 『論語·雍也篇』,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228) 『論語·子路篇』, “言必信, 行必果。”

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러면, 그 책은 명년에 사행이 올 때 부쳐 주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王眉祝은 일어나 가더니 잠시 후에 다시 와서 책 한 권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책을 보니 지난달 보았던 『춘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사람의 시문들을 類抄한 책이었다. 볼 만한 가치가 없었다.<sup>229)</sup>

한 해 전에 영원을 지날 때, 王寧潘은 사신에게 “송공”에게 꼭 『춘추』를 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찾아갔더니, 王寧潘이 남겨둔 것은 당시 시인의 시와 雜集 한 편뿐이었다. 王寧潘은 집에 없었는데, 그의 조카와 아버지는 집에 있었고 이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문학적 가치가 없는 책을 가지고 와서 김창업에게 얼버무렸다. 김창업은 이 일에 관해 명확한 평가는 기록하지 않았다. 송공에게 반드시 책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관련 없는 책을 선물한 王寧潘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신용이 없는 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의 일을 그가 기록함으로써, 읽는 이들은 한눈에 王寧潘이 신용을 지키지 않는 선비임을 알 수 있다.

김창업은 청나라에서 문자의 옥이 크게 일어난 이후에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도 기록했다. 한족 지식인들은 당시 時事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신중하였으며, 보통 민감한 단어는 지우거나 필담을 나누었던 종이를 찢어 버렸다.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영원성 부근에서 송산, 행산, 탑산 전투가 벌어졌다. 김창업이 王寧潘에게 세 곳을 지킨 장수들의 순절을 물었을 때, 王寧潘의 대

22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二十五日, “答曰 ‘我家叔, 未曾得此文稿.’ 余曰 ‘然則這文稿, 不妨俟明年使行寄來.’ 答曰 ‘即是如此, 便耳.’ …… 王眉祝起去, 頃之復來, 以一套書示之曰 ‘此書, 我家祖叫拿來送老爺.’ 見之, 非前日所見春秋也. 卽今人詩文類抄之書, 而無足可觀.”

답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殉節 두 글자는 알고 있으나, 이는 다만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말한 뜻을 알겠지만, 남의 신하가 되어서 각기 임금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것은 천지의 당연한 법입니다. 꺼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쁘게 들렸다면, 취소하고 시비를 논하지 맙시다. 신하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곧 節입니다.” 그는 “두 글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사람의 순절 사실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 처음에는 문답이 척척 잘 되었다. 하지만 송산과 행산의 일을 묻자, 영반의 얼굴빛은 갑자기 변했다. 억지로 답변하느라 힘썼지만,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sup>230)</sup>

김창업은 명나라 말기에 세 성의 장수가 순절했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런데 王寧潘은 눈치를 보다가 겨우 대답했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겁을 내었으니, 그가 답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절은 한 신하가 나라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자질이다. 유교 문화에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sup>231)</sup>라는 것은 인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청나라의 통치자도 이러한 충심을 지닌 애국자를 표창하였다. 그런데 글 읽는 수재로서 “순절”이라는 글자에 꺼림칙해하는 모습을 보고서 김창업은 경멸을 느꼈다. 겁이 나고 놀라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王寧潘을 보고서, 그는 오히려 애처로움을 금할 수 없었다.

230)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五日, “答殉節二字可知, 但此寔事, 而未敢枉談. 答所示亦然, 但爲人臣, 各爲其主致忠者, 乃天地之常經, 有何可諱乎. 然旣惡聞, 則抹之. 勿論是非, 爲臣死國, 乃節也. 答不是二字不知, 但二人殉節之寔事, 不知也. …… 前此酬酢如響, 及問松杏事, 寧潘色忽變. 雖強勉爲答, 而額汗如水, 見之可哀.”

231) 孔子, 『論語·顏淵』.

한족 지식인들이 시사나 명나라 사건에 관해 논하기를 꺼리고 피했다는 것은 홍대용과 한족 지식인들의 필담에서도 언급되었다. 홍대용은 「蔣周問答」에서 蔣本과 周應文 두 수재와 필담을 나누었다. 蔣本은 이미 쉰셋으로 여러 해 동안 監生으로 있던 나이 든 수재였다. 周應文은 스물셋이었는데, “백옥 같은 얼굴에 눈썹이 빼어나고 말소리가 온순 민첩하였으며, 응대하는 것이 물 흐르듯 하고 글솜씨도 일찍 성취되어 있어, 布衣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sup>232)</sup> 周應文은 재능과 용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홍대용이 관심을 가진 과거제도와 팔주문에 관해 필담을 나누었고, 연행 사신의 의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응문이 “귀처의 의관은 기자가 남긴 제도입니까?”라고 하니, 홍대용은 “帽子는 세상에 ‘기자가 남긴 제도’라고 전해지지만, 분명한 증거가 없다. 의복은 오로지 명나라의 옛 제도를 준행하지만, 간혹 풍속을 바꾸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明朝’라는 글자를 일부러 한 글자 낮춰 써서 높이는 뜻을 보였다. 그러자 이를 보고서 장본이 곧 찢어버렸다. 漢人들의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매양 이러하였다.<sup>233)</sup>

사신이 보기에는 모두 정상적인 대화였다. 명나라에 관해서는 칭찬의 말도 하지 않고, 현 왕조에 관해서는 평가나 폄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明朝’라는 글자를 낮추어 썼다는 이유로 周應文이 필담을 보자마자 찢어 버리자, 홍대용은 “漢人들의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매양 이러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한족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화들짝 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훗날 홍대용은 항주의 세 수재와 필담

232) 洪大容, 『湛軒燕記·蔣周問答』, “玉貌秀眉, 聲容溫敏, 應對如流, 詞翰夙成, 知非久於布衣者.”

233) 위의 책, “周曰 ‘貴處衣冠, 可是箕子遺制否.’ 余曰 ‘帽子世傳箕子遺制, 無明徵. 衣服專遵明朝舊制而間有未變俗者.’ 書明朝, 故低一字, 以示尊之之意. 看畢, 蔣即裂去之, 漢人之畏慎每如此.”

을 나누다가 한족 지식인들의 지나치게 소심한 면모를 마주하였다. 그리고 문자의 옥으로 인한 한족 지식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대개 漢人은 지금 도리어 羈旅의 신하처럼 謹慎하고 嫌畏하니, 사세가 그렇다.”<sup>234)</sup>라고 하였다.

박지원도 연행 작품에서 한족 지식인들이 시사 논하기를 꺼리는 것에 관해 언급했다. 청나라가 문자의 옥을 단행하여 당시 청나라의 지식계에 끼친 영향이, 시문에서 ‘明’ 자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야 할 정도로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안이 침침하여 촛불을 켜놓았다. 나는 “인간이 촛불을 켤 필요가 무엇 있나, 매달린 해와 달 쌍으로 천지를 밝힌다네. [不須人間費膏燭, 雙懸日月照乾坤.]”라고 읊었다. 鶴汀이 손을 휘저으면서 먹으로 ‘雙懸日月’ 네 글자를 지워 버렸다. 대개 日과 月을 쌍으로 쓰면 ‘明’ 자가 되기 때문이다.<sup>235)</sup>

사실 박지원의 시는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문자의 옥에 시달리는 청나라 지식인들은 매사에 조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박지원은 태학관에서 만난 거인 王鶴汀과 많은 문제에 관해 필담을 나누었다. 박지원은 그 필담을 「鶴汀筆談」으로 따로 엮었다. 「忘羊錄」에도 王鶴汀과 나누는 필담 내용을 기록하였다. 王鶴汀은 거인이었지만, 나이가 많아 과거시험을 치르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벼슬길을 걷지 않는 나이 든 수재는 당시 청나라의 가혹한 문화 정책에도 매우 민감했다. 이 때문에 박지원의 시에 ‘日月’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급히 지워버린

234)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二月初三日, “蓋漢人於當今, 反同羈旅之臣, 謹慎嫌畏, 其勢然矣.”

235) 朴趾源, 『熱河日記·鶴汀筆談』, 242면, “炕內沉沉, 故已喚燭矣. 余曰 ‘不須人間費膏燭, 雙懸日月照乾坤.’ 鶴汀搖手, 又墨抹 ‘雙懸日月’. 蓋日月雙書則爲 ‘明’ 字.”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한족 지식만이 아니었다.

비록 심상한 수작을 한 것이라도 말을 마친 뒤에는 곧 불살라 버려서 쪽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는 비단 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滿人들은 더욱 심하다. 만인들은 그 직위가 모두 황제와 近密한 데 있는 터이므로, 법령이 엄하고 가혹한 것을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고 보니, 비단 한인들의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천하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 자의 마음도 괴로울 것이다.<sup>236)</sup>

박지원은 한족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만주족 지식인들도 조심스러워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아마도 만주족들은 법의 엄격함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엄격한 법에 묶여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한족 지식인들의 마음도 쉽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법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박지원이 이 문제를 철학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아마도 사신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 떠오른 감회일 수도 있다.

김창업과 달리 홍대용과 박지원은 청나라에 귀순 후에 의탁한 한족 지식인들에게 이해와 동정을 표했다. 박지원은 한족 지식인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사람들의 문자를 볼 때, 비록 그것이 尋常한 두어 줄 편지라 하더라도, 만

---

236) 朴趾源, 『熱河日記·黃教問答』, 165면, “與人語, 雖尋常酬答之事, 語後卽焚, 不留片紙. 此非但漢人如是, 滿人爲尤甚. 滿人皆職居近密, 故益知憲令嚴苛. 然則非但漢人之心苦矣, 天下法禁之心苦矣.”

드시 역대 황제들의 功德을 늘어놓고 당세의 은택에 감격한다고 말한 것은, 모두 漢人의 글이다. 대개 스스로 청나라의 遺民으로서 항상 걱정을 품고 혐의하는 경계를 이기지 못하여, 입만 열면 稱頌하고 붓만 들면 아첨함으로 써, 자신들이 당세에서 벗어나 있는 듯이 생각한다. 이를 보면 한인들의 마음도 이미 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7)</sup>

18세기 중후반의 한족 지식인들은 이미 청나라가 중원에 입성한 후에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었다. 청나라의 한국학 연구 전문가인 徐東日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乾隆帝 때에 청나라 치하에서 성장한 신세대 한족 문인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식인들이 청나라 통치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증거이다. 한족 문인들의 反清 의식은 희미해지고, 청나라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급증했다.<sup>238)</sup>

우선 청나라 정부가 회유정책을 펼쳐 한족 지식인들을 구슬렸다. 다음으로 일반 대중들도 청나라 정부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홍대용과 박지원이 청나라에 왔을 때, 세상은 이미 평화로워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족 지식인들은 명나라를 그리워하더라도, 이를 몰래 마음 깊숙이 담아 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시 정부와 황제의 공덕만 이야기했다. 한족 지식인들은 초야에

---

237) 朴趾源, 『熱河日記·黃教問答』, 165면, “觀人文字, 雖尋常數行之札, 必鋪張列朝之功德, 感激當世之恩澤者, 皆漢人之文也. 蓋自以中國之遺民, 常懷疾疾之憂, 不勝嫌疑之戒. 所以開口稱頌, 舉筆諛佞, 益見其自外於當世也. 漢人之爲心亦已苦矣.”

238) 徐東日, 「朝鮮燕行使臣眼中的中國漢族士人形象」 Vol.37, No.6,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 143면.

문혀 지낼 것이 아니라면, 시대에 순응하여 과거시험을 보고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의 이상을 실현해야 했다. 이 시대 지식인들에게 명나라는 이미 너무 오래된 과거였다. 명나라 의관조차 이들에게는 이미 낯설어진 후였다.

한 수재가 홍대용이 명나라 때와 비슷한 方冠에다 廣袖의 常衣를 입은 것을 보고서 “이는 곧 秀才의 常服입니까”<sup>239)</sup>라고 물었다. 홍대용이 그렇다고 하자, 수재는 그저 “制度가 고야하다”라고만 칭찬하였다. 여기서 당시 신세대 지식인들에게는 명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명나라 의관이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되어 잊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의관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고풍스럽고 단아하다고 칭찬만 할 뿐이었다. 이는 한족 지식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조선 시대에 전해지던 민간 설화 중에는, 관동의 한 知縣이 연행 사신을 만나 의관을 빌려 가더니 아내와 함께 서로 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홍대용이 이 이야기를 전하자, 力闇은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있었다. 蘭公은 탄식하며 ‘좋은 知縣이다.’라고 하였다. 또 ‘진실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벼슬을 버리고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또 ‘이것도 그다지 쉽지 않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인데, 어찌 감히 남에게 책망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모두가 한동안 조용하였다.<sup>240)</sup> 이를 통해 명나라를 그리는 한족 지식인의 마음과 이들의 무력감을 엿볼 수 있다.

---

239)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240) 위의 책, “力闇垂首默然, 蘭公歎曰 ‘好箇知縣.’ 又曰 ‘苟有此心, 何不棄官去.’ 又曰 ‘此亦甚不易, 吾輩所不能, 何敢責人.’ 皆愀然良久.”

## 2) 奇才를 갖춘 지식인

홍대용은 여정에서 만난 지식인 외에도 북경에서 머무는 동안 강남의 지식인과 교류하였고,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중에서도 “古杭三才”(모두 항주에 거주)를 거듭 언급했다. 세 수재는 嚴誠, 潘庭均, 陸飛이다. 嚴誠은 자는 力闇이고 호는 鐵橋이다. 나이 서른다섯이었다. 潘庭均은 자는 蘭公이고 호는 秋이다. 나이 스물다섯이었다. 陸飛는 자는 起潛이고 호는 篠飲이다. 나이는 마흔여덟으로, 관직은 解元이었다.<sup>241)</sup> 홍대용과 항주의 세 수재는 며칠간 필담을 통해 천문, 지리, 철학, 역사, 민속 문화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면서 청나라와 조선의 관심 사안에 대해 깊은 교류를 나누었고 서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홍대용은 항주의 세 수재에 관한 묘사에 붓을 아끼지 않았는데, 고향삼재 중 특히 潘庭均을 처음 보고 매우 높이 평가했다.

朝廷, 官方, 西湖故蹟과 기타 수천 리 밖의 일까지 붓을 대면 전부 문장이 이뤄지고 막힘이 없었다. 의관과 前朝事에까지 말이 미치니, 副使가 짐짓 박절하게 물어서 時諱에 저촉되어 응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마다 本朝를 찬양하면서도 사이사이 농담을 섞어 넣었다. 그렇게 半點의 빈틈도 없게 하면서도, 그 말 밖으로 드러나는 뜻은 절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리가 당연하면서도 경각의 사이에 말을 이어 나가면서 주선하고 덮고 가리는 솜씨가 또한 奇才였다.<sup>242)</sup>

241) 명나라와 청나라 과거 제도의 공식 과거 시험은 동생시, 향시, 회시, 전시로 구분된다. 향시는 성의 1급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면 거인, 1등은 해원이다. 여기서 潘庭筠이 陸飛의 신분을 강조한 것은 항주가 본래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陸飛는 해원이니 그 재주가 남보다 뛰어남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242)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衙筆談』, “朝廷官方, 西湖故蹟, 其他數千里外事, 下筆成文, 無有不會. 語及衣冠及前朝事, 副使故爲迫問, 多犯時諱, 難於應酬而不慌不忙, 言言贊揚本朝而間以戲笑, 無半點虧漏, 而言外之意, 自不可掩, 則其事理當然, 而頃刻立談之間, 周旋蓋覆之狀, 亦奇

위 내용을 통해 반생은 아는 것이 많고 재주가 많을 뿐 아니라, 침착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사신이 꺼리는 일을 물어도 웃어넘기며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학다식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홍대용은 반생에 대한 총평을 남기면서 “秋生는 연령이 가장 젊다. 사람이 산뜻하고 자태가 아름다우며, 성질이 활발하고 해학을 좋아한다. 文辭가 영달하여 붓대를 들면 나는 듯이 써낸다. 참으로 재치 있고 아름다운 귀공자이다. 성격이 명랑하여 사람을 대하면 마음을 드러내어 성실함을 나타내고, 몸차림에 무관심하여 그 사람됨이 사랑스럽다.”<sup>243)</sup>라고 하였다. 반생은 젊고 활발하며 지식과 재주가 많았다. 또한 잘 생기고 소탈하며 꾸밈에는 관심이 없는 멋진 공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陸飛와 嚴誠도 매우 좋게 평가하였다.

陸飛의 자는 起潛이고 호는 篠飲이다. 기해년에 출생하여 항주의 湖西 大關 안에 있는 珠兒潭에 살았다. 陸贄의 후손이다. 소음은 체구가 작으면서도 풍성하고 우람하게 보였다. 談笑와 諧謔을 잘한다. 술을 잘 마시어 종일 마셔도 취하여 넘어지지 않는다. 詩文書畫가 모두 몹시 高妙했다. 오직 천진난만하게 자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뿐이고, 일부러 다듬어 세상에서 알아줌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것으로 남에게 자랑삼지도 않았다. 天性이 자잘한 예절에 구애하지 않았으니, 순수한 유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호탕하면서도 節制함이 있어 放縱에 이르지 않았고, 疏脫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狂蕩에 이르지 않았다. 술자리에서나 해학을 하는 때다 온화하면서 간결하

才也.”

243)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錄後語』, “秋 年最少, 蕭灑美姿容, 性穎發好諧謔. 詞翰英達, 操筆如飛, 直翩翩佳子弟爾. 氣味昭朗, 對人開心見誠, 不修邊幅爲可愛也.”

고 정중하여 매우 귀인의 氣象이 있었다. 단지 두 사람이 우러러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드문 器量과 풍치를 갖춘 뛰어난 선비[奇士]라고 할 수 있다.

嚴誠의 자는 力闇이고 호는 鐵橋이다. 임자년에 출생하였다. 항주의 城內 東城의 太平門 안쪽 菜市橋에 산다. 嚴光의 후손이다. 鐵橋는 살이 없이 마른 체구에 뼈대가 굵다. 英特하고 峻潔하여 한세상을 내려다본다. 善言을 듣고 善行을 보았을 때는 그 좋아함이 지성에서 나온다.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다. 붓 가는 대로 써도 문장이 이루어졌는데, 조리가 창쾌하고 찬란하여 珠玉을 꿰어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찍이 이로써 자랑할 뜻이 없었다. 鐵橋는 재주가 높고 식견이 민첩하였다. 王·陸과 불학의 서적까지 이미 두루 읽고 그 설을 궁구하여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心學에서 얻은 것도 또한 알지 않다. 지금은 스스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없어도, 옛 버릇을 잊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성취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궁금하다. 철교는 처음에 내가 王·陸과 불학을 논박하는 것을 듣고서 자못 좋아하지 않는 기색이 있었다. 그 순간에는 물어도 대개 답변하려 하지 않았고, 답변해도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상을 조롱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말도 가끔 섞어서 하였다. 그 뜻을 보건대, 아마도 세상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한갓 남이 무엇이랴 하면 따라서 무엇이랴 하는 자들을 미워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못 오만한 빛을 가진 것이다. 이는 그 氣質의 편벽된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매우 좋아하여 더불어 벗 삼을 만하다고 생각한 까닭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 후에 내가 의론을 平淡하게 하여 진실을 힘쓸 뿐, 경망하고 과격한 습성을 일삼지 않음을 본 뒤에, 나를 세상의 떠들썩한 무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진정으로 좋아해서 날이 갈수록 친밀해졌다.

…… 이 세 사람은 그 타고난 성질이 비록 같지 않고 재주와 학문에 있어

서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요컨대 내외가 일치하고 마음과 입으로 하는 말이 서로 맞아, 세속 선비들의 자잘하고 걸치레하는 태도가 없는 것은 모두 같다.<sup>244)</sup>

행간을 보면, 홍대용이 항저우의 세 수재에 대해 지닌 찬사와 경모의 정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변발하고 胡服을 입은 자”이지만, 그들이 지닌 학식과 재주를 보면 중화문화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명나라의 의관을 입은 조선 문인들을 조롱하는 그들의 기백에 대해 “기풍과 情味가 벌써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한족 지식인에 대한 홍대용의 묘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徐東日 교수는 이에 대해 “홍대용은 청나라의 한족 문인에 대해, ‘아예 과거로 입신양명하는 길을 버리고 자유로운 발전을 꾀한 인물’과 ‘청나라 치하에서 과거로 일생의 공명을 꾀한 인물’로 명확히 구분하였다.”라고 하였다.<sup>245)</sup> 육비, 반정균과 그 형제 등과 같은 사람은 유교의 이상인 “濟世”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시험에 참가한 지식인이었다. 엄성과 吳西林 같은 사람은 모두 벼슬을 얻기를 거부한 자

244)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錄後語』, “陸飛字起潛號篠飲, 己亥生, 居杭州湖西大關內珠兒潭, 陸贊之後. 篠飲爲人短小, 狀貌豐偉, 喜言笑, 雜以諧謔, 善飲酒, 飲終日不亂. 詩文書畫, 俱極其高妙. 惟任眞陶瀉而已, 不事雕飾以求媚於世, 亦未嘗以此加諸人. 天性不拘小節, 非醇乎儒者. 雖然豪而有制, 不至於縱, 曠而有節, 不至於蕩. 卽盃樽諧笑之際, 亦溫濕簡重, 甚有貴人氣象. 不特二人者之所仰重, 其器量風味, 可謂問世之奇士也. ○嚴誠字力闇號鐵橋, 壬子生, 居杭州城內東城太平門裡菜市橋, 嚴光之後. 鐵橋瘦削多骨格, 英特峻潔, 傲視一世. 及其聞善言而見善行, 愛好之出於至誠. 才識超詣, 信筆成文, 辭理暢快, 燦然如貫珠, 其志亦未嘗以此自多也. 鐵橋才高識敏, 於王陸及佛學, 皆已遍讀之而窮其說矣. 其得之於心學, 亦不淺矣. 今則自謂無所好而亦不能無宿處之難忘, 未知早晚成就, 將何以究竟也. 鐵橋始聞余論斥王陸及佛學, 頗有不悅之色. 當其時有問而多不肯答, 有答而多不肯詳. 問以玩世不恭之語. 觀其意, 蓋嫉世之不識何狀而徒人云亦云者也. 是以於余頗有傲色, 此其氣質之偏處. 雖然, 余之所以喜之深而謂其可與友者, 亦以此也. 其後見余之議論平淡務實而不事浮躁矯激之習, 然後亦以余爲異於紛紛之輩而情好日密矣. …… 此三人者, 其資性雖不同, 才學有短長, 要其內外一致, 心口相應, 無世儒齷齪粉飾之態則一也.”

245) 徐東日, 「朝鮮燕行使臣眼中的中國漢族士人形象」 Vol.37, No.6,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 144면.

들로, 두 사람 모두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 책을 두루 읽어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모두 “高雅絕俗”하는 비상한 인물이었다. 吳西林은 더욱 “隱居修道”하여 일없이 城府에 들지 않았다.”<sup>246)</sup>

이 두 사람 외에 절강성의 다른 문인 중에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홍대용은 “고상한 선비로서 徐介, 汪颯, 王曾祥 같은 몇 사람이 있다. 역시 모두 流俗을 따르지 않고 능히 스스로 탁연하여 不朽하는 자이다. 徐, 汪 두 사람은 벼슬한 일이 없는 선비로서 정국이 바뀐 뒤에 세상을 피하고 벼슬하지 않았다.”<sup>247)</sup>라고 기록하였다. 홍대용은 이 두 유형의 지식인 형상을 강조하면서 우선 청나라의 가혹한 문자의 옥 속에서 세상을 구제하려는 지식인들에게 감탄하였다. 다음으로 본심을 따라 초연하게 세속을 떠나 학문에 전념한 학자들을 칭찬하였다.

한족 지식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박지원도 홍대용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 있는 문제에 관해 필담을 나누었다. 박지원은 매우 박식한 인물로, 북학과의 ‘이용후생’ 철학을 가지고 청나라를 방문하였다. 청나라 한족 지식인에 대한 그의 평가는 조선 지식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華夷之變’ 사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대부 중에 『춘추』의 尊·攘의 이론을 일삼는 이가 군데군데 우뚝 서서 백 년을 하루처럼 즐기치게 이어졌다. 가히 장한 일이라 이르겠다. 그러나 尊周는 尊周일 뿐이고, 夷狄은 夷狄일 뿐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곽과 건물과 인민들이 예와 같이 남아 있고, 正德·利用·厚生의 도구도 파괴된 것이 없다. 崔·盧·王·謝의 씨족도 없어지지 않았고, 周

246)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高雅絕俗” “隱居修道, 無事不入城府.”

247) 위의 책, “高尚之士如徐介, 汪颯, 王曾祥數人, 亦皆不隨流俗, 能自卓然不朽者也. 徐, 汪二人, 布衣草屨後避世不仕.”

·張·程·朱의 학문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三代(하, 은, 주) 이후로 성스럽고 밝은 임금들과 漢·唐·宋·明의 아름다운 법률 제도도 변함없이 남아 있다. 저들이 이적일망정, 실로 중국이 자기에게 이로우니 길이 누리기에 족한 줄을 알아서, 이를 빼앗아 옹거하기를 마치 본래부터 자기가 소유했던 것처럼 한다. 대개 천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진실로 인민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비록 夷狄에게서 나온 법일지라도, 이를 거두어서 본받아야 한다. 하물며 삼대 이후의 聖帝, 明王과 한, 당, 송, 명 등이 본디 소유하고 있었던 옛것이라면 어떻겠는가. 성인이 『춘추』를 지을 때, 물론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쳤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힌 것을 분히 여겨서, 존숭할 만한 중화의 실체까지 아울러 물리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sup>248)</sup>

박지원은 4가지 측면에서 조선 지식인들이 지닌 기존의 華夷 관념을 반박하였다. 첫째, 중국의 성곽과 산성은 그대로 있고 중국인들도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공맹의 덕과 선진 기술도 그대로 남아 있다. 둘째, 중국의 유명한 집안, 문인 명사의 후손들도 아직 남아 있다. 셋째,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숭상한 周敦頤, 張載, 程顥, 朱熹의 학문이 소실되지 않았다. 넷째, 청나라가 중원에 입성한 후 이미 순치, 강희, 옹정의 세 황제를 거쳤으며 그들도 모두 현명한 군주라 할 수 있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후의 우수한 治國策도 계승되었다.

248)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1면, “我東士大夫之爲『春秋』尊攘之論者, 磊落相望, 百年如一日, 可謂盛矣. 然而尊周自尊周也, 夷狄自夷狄也, 中華之城郭、宮室、人民固自在也. 正德、利用、厚生之具固自如也. 崔、盧、王、謝之氏族固不廢也, 周、張、程、朱之學問固未泯也, 三代以降聖帝明王、漢唐宋明之良法美制固不變也. 彼胡虜者, 誠知中國之可利而足以久享, 則至於奪而據之, 若固有之爲天下者, 苟利於民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夷狄, 固將取而則之, 而況三代以降聖帝明王、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 聖人之作『春秋』, 固爲尊華而攘夷. 然未聞憤夷狄之猾夏, 並與中華可尊之實而攘之也.”

나아가 박지원은 ‘夷狄’으로 불리던 만주족들조차 중국의 앞선 분야를 자신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더 강하게 만들어 지배자 위치를 공고히 했다고 결론지었다.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배울 점이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선진적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로 인민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비록 夷狄에게서 나온 법일지라도, 이를 거두어서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다음은 정확한 華夷 관념이다. 만약 정말로 오랑캐를 중국에서 쫓아내어 진실로 이적을 물리치려면, “중화의 끼친 법을 모조리 배워서 먼저 우리나라의 유지한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sup>249)</sup>고 하였다. 자신이 충분히 강해져야만, 오랑캐를 감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국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 박지원의 와신상담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그의 화이관은 전통적인 조선 지식인들의 관념을 깨는 것이었다. 그는 ‘利用厚生’을 통해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여, 우선 중국의 선진기술을 배운 후에 진정한 尊周 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華夷觀의 영향으로, 박지원과 홍대용은 한족 지식인에 대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도중에서 본 이른바 秀才라는 자도 더불어 말할 만큼 글을 잘하는 자가 전혀 없고, 비루하고 무식하기가 우리나라 촌구석의 상놈들만도 못하다.”<sup>250)</sup>라는 이의현 시대에 있었던 선대의 가치관을 버렸다.

이의현은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중국의 지배계층이 된 후에 중국이 오랑캐의 땅으로 변해 변변한 선비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 개탄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러했을까? 북학파의 대표주자인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품을 통해 완전히 반

249)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1면, “苟利於民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夷狄, 固將取而則之.”, “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椎魯.”

25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路中所謂秀才, 絕未有能文可與語者, 惟陋無識, 甚於我國遐鄉常漢之類.”

대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박지원은 열하의 대학관에 머물면서 엿새간 중국 사대부와 필담을 나누었으며, 많은 지식인도 만났다. 접한 지식인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좋아하는 중국 지식인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王鶴汀과의 필담이 가장 많았는데, 「鶴汀筆談」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鶴汀은 문답에 민첩하였다. 종이를 잡으면 문득 수천 마디의 말을 써 내려가고 종횡으로 막힘이 없다. 천고의 經, 史, 子, 集을 손에 닿는 대로 들춰내어 아름다운 句와 절묘한 偈가 입만 열면 선듯선듯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모두 조리에 닿고 맥락이 어지럽지 않았다.<sup>251)</sup>

또 「傾蓋錄」에서 여러 명의 한족 지식인을 소개하였다.

郝成은 歙(안휘성 지명) 사람이다. 그의 자는 志亭이고, 호는 長城이다. 현재 山東都司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비록 武人이었으나, 학문이 넓고 아는 바가 많았다. 키는 8척이고, 붉은 수염과 번쩍이는 눈동자에 골상이 비범[精緊]하였다.

尹嘉銓은 直隸 博野(옛 趙나라 땅) 사람이다. 호는 亨山이다. 通奉大夫 大理寺卿으로 치사하였다. 당시 나이 일흔이었다. 올해 봄에 글을 올려 물리하기를 청하니, 황제가 특별히 2품의 官帽와 의복을 하사하며 총애하였다. 그는 시와 글씨와 그림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시는 正聲과 詩刪에 많이 실려

---

251) 朴趾源, 『熱河日記·鶴汀筆談』, 243면, “鶴汀敏於酬答, 操紙輒下數千言, 縱橫宏肆, 揚扨千古, 經史子集隨手拈來, 佳句妙偈順口輒成. 皆有條貫, 不亂脈絡.”

있다. ……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얼굴과 자태가 아담하고 조출[雅潔]하였다. 두 눈동자가 맑아 안경을 쓰지 않고서도 가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는 매우 건강하여 겨우 쉰 살이 넘은 듯싶으나, 수염과 머리칼은 하얗게 희었다. 대체로 간솔하고 화락한 사람이다.

敬旬彌는 자는 仰漏이고, 몽고 사람이다. 현재 講官으로 있다. 나이는 서른 아홉이다. 키는 7척이 넘는다. 얼굴은 희면서 눈이 길고 눈썹이 짙으며, 손가락은 파 뿌리[葱根] 같다. 미남자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나와 옛새 동안 같이 있었으나, 한 번도 이야기 자리에 오는 적이 없었다. 滿·漢을 논할 것이 없이 남에게 정성껏 대하지 않음이 없는데, 유독 이 사람 하나가 제법 오만한 듯하다.

鄒舍는 산둥 사람으로, 舉人이다. 王鶴汀과 태학에서 수양하는 중이다. 그때 연경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곳에 머물던 선비 70명이 모두 그곳으로 떠났다. 다만 이 王, 鄒 두 사람만 잔류하였다. 그의 사람됨이 몹시 강개하여 時諱를 피하지 않을뿐더러, 얼굴이 괴이하고 행동이 거세었다. 그래서 그를 狂生이라 지목하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奇豐額은 만주 사람이다. 자는 麗川이다. 현재 貴州按察使로 있다. 나이는 37세이다. 그는 애초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들어간 지 이미 4대째였다. 그러나 본국에서의 門望이나 조상은 알 길이 없다. 다만 그의 本姓이 黃氏인 줄을 알 뿐이다. 키가 8척에 얼굴이 희고 風度가 아름다우며, 威儀를 잘 갖추었다. 학문이 넓고 글에 능하며 해학과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불교를 몹시 배격하고 의론이 제법 올바르긴 하나, 사람됨이 교만하여 온 세상이 안중에 없었다.

…… 汪新은 자는 又新이다. 절강 仁和에 살았다. 현재 廣東按察使로 근무하고 있다. 麗川에게서 나의 성명을 듣고서, 여천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여

친의 자리에서 서로 만나 한번 보자마자, 곧 마음이 기울어져 옛 친구와 다름없게 되었다. 그의 키는 7척이 넘었다. 성긴 수염에 얼굴빛이 검으면서 더러워 별다른 威儀는 없었으나, 성격이 진솔 그대로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 破老回回圖는 몽고 사람이다. 자는孚齋이고, 아호는華亭이다. 현재講官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강희 황제의 外孫이다. 키가 8척이고, 긴 수염이 심히 성하였다. 얼굴이 여윈 데다가 누르고 바싹 말랐다. 그의 학문은 깊고도 넓었다.

…… 曹秀先은 江西 新建 사람이다. 자는 地山이다. 현재 禮部尙書로 근무하고 있다. 나이는 60세 남짓 되었다. …… 曹公은 얼굴이 늙고 더러워서 아무런 威儀가 엿보이지 않는다. 사람됨이 愷悌하고 평화로웠다. 내가 연경에 돌아온 뒤에 중국의 사대부가 많이들 曹公을 기리며 “地山先生의 문장과 학문이야말로 당세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를 歐陽永叔에게 건주기도 하였다.<sup>252)</sup>

여기에 소개한 한족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벼슬을 하고 있었고 각기

252) 朴趾源, 『熱河日記·傾蓋錄』, 161-164면, “郝成, 歙人也. 字志亭, 號長城, 見任山東都司. 雖武人乎, 博學多聞. 身長八尺, 紫髯炯眸, 骨相精緊. ○尹嘉銓, 直隸博野人也(古趙地), 號亭山, 通奉大夫、大理寺卿致仕, 時年七十. 今年春, 上章謝事, 皇帝特賜二品帽服以寵之. 工詩, 善書畫. 詩多載于《正聲詩刪》. ○身長七尺餘, 姿貌雅潔, 雙眸炯然, 不施鬢鬚能作細書畫. 强康如五十餘歲人, 然髭髮盡白, 大率簡易和樂人也. ○敬旬彌, 字仰漏, 蒙古人也. 見任講官. 年三十九, 身長七尺餘, 白皙, 脩眼濃眉, 手如葱根, 可謂美男子. 同寓六日, 未嘗一參談筵. 無論滿漢莫不與人款曲, 而獨其爲人頗似簡傲. ○鄒舍是, 山東人也. 舉人, 與王鶴汀藏修太學中. 時皇京有重會, 藏修之士七十人盡赴京師, 而獨王、鄒兩生未赴也. 爲人慷慨, 不避忌諱. 形貌古怪, 舉止麤厲, 人皆目之以狂生, 多厭之者. ○奇豐額, 滿州(洲)人也, 字麗川. 見任貴州按察使, 年三十七. 本我國人, 入中國爲四世, 不知本國門望所自出, 但記其本姓黃氏. 身長八尺, 白皙, 美姿容, 善修威儀. 博學能文, 善諧笑, 斥佛甚峻, 持論頗正, 然爲人驕矜, 眼空一世. ○汪新, 字又新, 浙江仁和人. 見任廣東按察使. 聞余姓名於麗川, 約麗川訪余來也. 相晤麗川座, 一見輒傾倒如舊. 身長七尺餘, 疎髯, 面色黑. 寢陋無威儀, 不修邊幅. ○破老回回圖, 蒙古人也. 字孚齋, 號華亭. 見任講官. 年四十七. 康熙皇帝外孫, 身長八尺, 長髯鬱然. 面瘦黃骨立, 學問淵博. ○曹秀先, 江西新建人也, 字地山. 見任禮部尙書, 年可六十餘. …… 曹公容貌老, 寢陋無威儀, 爲人愷悌樂易. 余既還燕, 中原士大夫多譽曹公地山先生, 文章學問當世冠首, 以比歐陽永叔.”

풍채가 달랐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박지원을 만났을 때, 王鶴汀은 이미 선네 살의 나이로 학문이 깊고 經, 史, 子, 集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난에 시름 하느라’ 자주 불평불만의 탄식을 내뿜으면서도 학문에만 전념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王鶴汀은 “몹시 질박하여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학성은 무관임에도 “학문이 넓고 아는 바가 많았다.” 윤가전은 나이가 가장 많지만 매우 정정했고, 시와 글씨와 그림에 조예가 깊었다. 汪新은 성격이 진솔하고 꾸밈이 없었다. 曹秀先은 예부 상서였으나, 용모는 평범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대부는 그의 글을 두고 “당세 으뜸”이라고 칭송하였다.

박지원은 각각의 인물에 대해 훌륭한 묘사와 평가를 남겼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지원이 한족 지식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인 몽골과 만주 지식인도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 敬甸彌는 성격이 도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박지원은 객관적으로 그가 미남자였다고 묘사했다. 강희의 외손자인 破老回回圖는 학문이 뛰어나다고 칭찬했을 뿐, 그가 몽골인이라는 이유로 깎아내리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奇豐額도 만주족이라고 깎아내리지도 않았으며, 성격이 오만하지만, 그의 재능은 박학다식하고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박지원은 18세기 후반 북학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反淸崇淸’이라는 북벌과 전통사상에 반대하였으며, 청나라의 선진기술로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청나라에 건너왔다. 따라서 청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고 관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때문에 청나라 지식인에 대해 묘사할 때, 그는 선배들이 청나라 지식인과 청나라를 깎아내리던 관점은 버리고 더 객관적인 태도로 묘사할 수 있었다. 또한 관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지식인의 글과 학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지식인만 무조건 좋게 평가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한족을 제외한 만주족이나 몽골인과 같은 異族을 모두 미개한 오랑캐로 인식하는 기존의 관념을 깬다. 이의현은 청나라에 왔을 때 몽골 사신과 붙어 앉는 것조차 치욕스럽다고 느껴 “이른바 몽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용모가 이상하고 입은 웃은 추하고 더러워서 악취가 사람의 코를 찌르기 때문에 떨어져 앉아 있는데도 마음속으로 몹시 더럽게 여겨진다.”<sup>253)</sup>라고 했었다. 하지만 박지원은 몽골인과 몽골 귀족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破老回回圖의 학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연장자의 풍모를 갖추었다고 칭찬하였다. ‘북벌과’와 극명하게 반대되는 이러한 발언은 박지원의 북학 사상 속 ‘이용후생’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비교문학 형상학 관점에서 보면 화자는 결국 자신을 위해 말을 한다.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도, 역시 선별한 사실로 구성된 형상에 해당한다. 孟華는 이에 대해 “형상은 문화적 현실에 대한 묘사인데, 그 묘사를 통해 그 형상을 만든(또는 동의, 선전)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서, 기꺼이 자신이 처한 그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허구적 공간을 보여주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 한 사회는 ‘타자’를 관찰하거나 상상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sup>254)</sup>라고 하였다. 박지원이 기록한 청나라의 수많은 형상, 특히 지식인에 대한 묘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담고 있다.

박지원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떠난 것은 목적성이 매우 강했다. 이는 분명하게 기록에 남아 있다. 그는 “내가 서울을 떠나서 8일 만에 黃州에 이르렀다. 말 위에서 혼자 생각하기를, ‘학식이 본래 없는 내가 이번 청나라에 들어가서 만일 큰 선비를 만난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질문을 할 것인가?’”<sup>255)</sup>라고 하였

253)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所謂蒙古, 廣額隆頰, 容貌詭異, 衣裘龕汚, 惡臭襲人, 雖間席而坐, 心中甚覺穢惡.”

254)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22면.

255) 朴趾源, 『熱河日記·黃圖紀略』, 243면, “余離我京八日, 至黃州, 仍於馬上自念, 學識固無藉手入中州者, 如逢中州大儒, 將何以扣質?”

다. 여기에서 청나라 지식인과의 만남과 필담이 그의 사행에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청나라 지식인과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대결을 펼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원이 북경에 도착한 후에야 사절단은 황제가 이미 열하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곧장 열하로 달려갔다. 열하의 태학관에서 머문 엿새 동안 박지원은 청나라를 대표할 만한 지식인들을 만났다. 이 지식인들은 박지원의 글 속에서 이상화된 색채를 띠는데, 어떤 학자는 “박지원이 묘사한 청대 지식인은 대부분은 비교적 박식하고 비판적인 학술 태도와 실사구시의 정신을 지닌 이문들이다.”<sup>256)</sup>라고 하였다. 인류 사회의 어떤 형상이든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지만, 박지원은 북학과 사상가로서 조선 지식인들이 배울만한 점을 찾기 위해 청나라 지식인들의 긍정적인 형상에 더 주목하였다.

---

256) 朴青梅, 「“燕行錄”中的中國知識份子形象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22면.

## IV. 18세기 중국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형상

연행 사신들은 청나라의 발달한 민간 수공업과 변화한 장터, 청나라인의 신앙 상황, 민간의 문화 예술적 삶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 1. 번영한 경제생활의 형상

연행 사신이 청나라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이 공간의 자연경관과 역사 고적, 그리고 이 공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이어 이곳의 생활상을 묘사하였다. 그중 이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경제생활이었다. 4명의 연행 사신은 18세기 중국의 수공업과 상업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묘사하였다.

#### 1) 발달한 수공업 기술

4명의 연행 사신 중에서 가장 먼저 청나라에 온 김창업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청나라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요동 지방에 있을 때는 당시 수공업을 관찰하였고, 자신이 요동에서 본 것을 기록하였다.

또 각종 공장이 있다. 나무를 켜는 곳, 수레 만드는 곳, 관을 짜는 곳, 의자와 탁자 만드는 곳, 鐵器와 錫器 만드는 곳, 쌀을 찧는 곳, 옷을 만드는 곳, 목화를 타는 곳 등 온갖 곳이 있다. 기계가 어찌나 편리한지 한 사람이

하는 분량이 우리나라에서 열 사람이 하는 몫은 되었다.<sup>257)</sup>

김창업은 당시 발달한 청나라의 기술을 칭찬했다. 수공업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매우 편리하여 한 사람이 해내는 몫이 조선에서 열 명이 하는 몫은 되었다.

김창업은 심양성을 둘러본 후 목화 타는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하였다. 심지어 온몸에 솜 가루가 하얗게 묻어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집중하였다. 그는 철 두드리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요동 지방은 다양한 수공업 기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 품질이나 효율성 모두 같은 기간 조선의 기계보다 앞서 있었다. 요동 지방의 수공업 기계는 지역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간 것으로, 주요 목적은 인력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었다.”<sup>258)</sup>

김창업은 이전에 다녀간 선배 사신들의 묘사에 구애받지 않고서, 신기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청나라의 여러 가지 발달한 수공업 기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요동 지역 만주족 특유의 유아용 ‘요람’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남여[籃] 같은 그릇이 있는데, 장지를 바르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용처를 물었더니, 들보에 매어 달고 어린아이를 담아 흔들면 울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59)</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국의 문물을 보고서 이의현도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앉거나 서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으레 큰 바구니에 담고, 바구니 밑에 포대

---

25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初七日, “各色工匠, 如鉅木造車造棺造椅卓. 打造鐵器, 錫器及磨米縫衣彈綿花之類. 種種皆有, 而器械無不便利. 一人所爲, 可兼我國十人之事.”

258) 李孟眞, 「“燕行錄”中清代遼東地區民俗文化研究」, 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19, 22면.

25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初七日, “又有一器, 似籃而長, 紙塗而畫之. 問其用處, 盛小兒懸于樑搖之, 則不哭云.”

기를 깔고 끈을 매어 대들보에 걸어 놓는다. 그리고 마치 그네를 태우듯이 좌우로 흔들여 주어 어린애가 좋아서 울음을 그치게 된다.<sup>260)</sup>

이의현은 이 기록에서 요람을 사용한 사람, 사용 방법,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이는 신기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유아를 돌보던 방법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용후생’을 목적으로 청나라에 온 홍대용과 박지원은 둘 다 수공업 상황과 관련 있는 기록을 남겼다. 홍대용은 전반적으로 “청나라의 器物들은 오로지 편리한 것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구차하게 경솔히 만들어 지는 일이 없다.”<sup>261)</sup>라는 감상을 남겼다.

박지원의 기록은 더 상세하다. 네 명의 연행 사신 모두 청나라의 벽돌 굽는 기술을 묘사했는데, 그 가운데 박지원이 묘사한 내용이 더욱 자세하며 조선의 벽돌 굽기 기술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박지원은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벽돌이라고 하면서, 청나라에서 구운 벽돌은 같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모두 모양이 같다”라고 하였다. 모서리가 떨어진 데가 없이 평평하며, 더욱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교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서 늘어놓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석회를 사용하여 벽돌을 함께 접착했기에, “불이 번질 염려도 없고 도둑이 뚫을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새, 쥐, 뱀, 고양이 같은 놈들이 넘볼 걱정도 있을 수 없다. 가운데 문 하나만 닫으면 저절로 굳은 성벽처럼 이루어져 집 안의 모든 물건을 께 속에 간직하는 것 같이 된다. 이로써 본다면, 많은 흙과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못질과 흙손질도 필요 없이, 벽돌

---

26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孩兒之不能坐立者, 例盛以大籃, 籃底鋪以襪, 而垂索懸掛於樑間, 如鞦韆狀, 左右搖颺, 俾令兒快爽止啼.”

261) 洪大容, 『湛軒燕記·器用』, “大抵中國器物, 專事便利, 不如東俗之苟率也.”

만 구워 놓으면 집은 벌써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sup>262)</sup>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벽돌 굽는 기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이와 같은 벽돌로 집을 지어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와를 이는 방법은 이와 아주 다르다.”라고 적었다. 지붕에 진흙을 두껍게 올리기에 지붕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고, 벽에는 벽돌을 쓰지 않기에 네 기둥이 의지할 데가 없어 아래가 허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조선의 기와장은 너무 크고 지나치게 굽어 있기에, 저절로 틈이 많아져서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진흙이 마르면 다시 틈이 생겨 “바람이 들고 비가 새며, 새가 뚫고 쥐가 숨으며, 뱀이 서리고 고양이 가 뒤적이게 되는 걱정을 면하지 못하는 것”<sup>263)</sup>이었다. 박지원이 이렇게 비교한 것은 조선의 벽돌 굽기 기술이 좋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벽돌 굽기 기술을 배워 자국의 건축법을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벽돌가마가 집을 짓기 좋은 점을 기록하고, 청나라의 벽돌가마에서 벽돌을 굽는 과정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먼저 조선의 벽돌가마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조선의 벽돌가마는 길고 낮아서 화력이 고르지 못하고 왕성하지 못했다. 둘째, 이러한 벽돌가마는 화력이 많이 필요한데, 화력을 공급하는 주요 땀감인 소나무가 비싸고 희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청나라의 벽돌가마 구축법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262)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6면, “不畏延燒, 不畏穿窬, 尤絕雀鼠、蛇貓之患. 一閉正中一門則自成壁壘城堡, 室中之物都似櫃藏. 由是觀之, 不須許多土木, 不煩鐵冶墁工, 甃一燔而屋已成矣.”

263) 위의 책, 16면, “我東蓋瓦之法與此全異, 屋上厚鋪泥土, 故上重; 墻壁不磚築, 四柱無倚, 故下虛; 瓦體過大, 故過彎. 過彎故自多空處, 不得不補以泥土, 泥土厭重, 已有棟撓之患, 泥土一乾則瓦底自浮, 鱗級流退, 乃生罅隙, 已不禁風透雨漏、雀穿鼠竄、蛇繆貓翻之患.”

이곳의 벽돌가마를 보니, 벽돌을 쌓고 석회로 봉하여 애초에 말리고 굳히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마음에 따라 높고 크게 할 수 있는데, 그 꼴이 마치 큰 鐘을 엮어 놓은 것 같다. 가마 위는 못처럼 움푹 패게 하여 물을 몇 섬이라도 부을 수 있고, 옆구리에 연기 구멍 네댓 개를 내어서 불길이 잘 타오르게 하였다. 그 속에 벽돌을 놓되 서로 기대어서 불꽃이 잘 통하게 하였다. 대개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 묘법은 벽돌을 쌓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제 나에게 손수 만들게 한다면, 극히 쉬울 듯싶다. 그러나 입으로 형용하기에는 매우 힘들다.<sup>264)</sup>

박지원이 보기에 청나라의 벽돌가마는 목재를 절약하고 벽돌을 잘 굽는 데다, 벽돌가마 구축 자체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벽돌가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조선이 경제적으로 적합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벽돌 가마를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작물의 짚으로 벽돌을 구울 수 있다면 산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수수깡을 태우면 불과 천 개 남짓 들여서 거의 만 개의 벽돌을 얻을 수 있다.”<sup>265)</sup>라고 하였다. 그가 벽돌 굽기 기술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사신은 모두 청나라의 벽돌 굽기 기술에 찬사를 보냈지만, 이렇게 발달한 기술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다. 박지원은 다른 사신들이 탐구 정신이 없어 이런 기술을 일찍이 조국에 들여오지 못한 것에 원망을 표하며, “옛날 鰲城(李恒福의 봉호)과 老稼齋가 모두 벽돌의 이로움을 논하였다. 그러나 가마의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sup>266)</sup>

264)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22면, “今觀此窰, 輒築灰封, 初無燒堅之費, 任意高大, 形如覆鍾, 埃頂爲池, 容水數斛. 旁穿煙門四五, 火能炎上也. 置磚其中, 相支爲火道, 大約其妙在積.”

265) 위의 책, 22면, “藟秸爲薪不過千餘柄, 可得近萬之磚耳.”

266) 위의 책, 22면, “鰲城(李公恒福)·老稼齋皆說甃利而不詳窰制, 甚可恨也.”

라고 하였다.

이것 외에 박지원은 청나라 북쪽 지방의 火炕도 극찬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火炕 만드는 법을 배워서 “삼동의 그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온돌 제조법의 6가지 단점을 일일이 논하기도 하였다. 후에 그는 청나라의 수레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먼저 청나라의 수레 종류를 열거한 다음에, 나라가 발전하는 데 수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周禮』의 말을 인용하여 수레가 나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중국에도 “劍閣 아홉 굽이의 험한 棧道와 太行과 羊腸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할 곳이 없다. 그리하여 關, 陝, 川, 蜀, 江, 瀟, 閩, 廣 등 지역과 같은 먼 곳에서도 큰 장사치들이나, 또는 온 가족을 이끌고 부임하는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바퀴가 서로 잇달아 이어진다. 마치 자기 집 뜰 앞을 거니는 것과 다름없이 다닌다.” 그래서 “중국의 재화가 풍족할 뿐더러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流通된다.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이다.”<sup>267)</sup>

박지원은 청나라인들이 평지처럼 곳곳을 누비고 화물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것이 모두 청나라의 발달한 수레 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수레의 제도를 미루어 모든 일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어렵듯이나마 몇천 년 모든 성인의苦心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박지원이 중국의 수레 제도를 극찬한 것은, 주로 수레를 이용해 통행하기 어려운 조선의 난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이동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이었다. 그는 항시 ‘自強’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

---

267)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5면, “劍閣九折之險、太行羊腸之危, 而亦莫不叱馭而過之. 是以關陝、川蜀、江浙、閩廣之遠, 巨商大賈及繫眷赴官者, 車轂相擊, 如履門庭.” “中國之貨財殷富, 不滯一方, 流行貨遷, 皆用車之利也.”

## 2) 변화한 시장

네 여행 사신은 18세기 청나라의 수공업 상황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특별히 당시 일반 백성들의 경제적 삶에 관해 기록하였다. 가장 중요한 활동 범위는 바로 시내의 상점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시내 상점에 관해 김창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시가는 북경 正陽門 밖이 가장 번창하고 鼓樓街가 그다음이다. 通州와 북경은 서로 비슷하고, 심양과 산해관이 또 그다음이다. 거마가 밀리고 온갖 물건이 풍부한 것은 이 두 곳이 같다.<sup>268)</sup>

이를 통해 북경은 청나라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내 상점이 가장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장소는 정양문 밖이다. 그로부터 몇 리까지 모두 상점이 들어선 시가 범위에 속하며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수레와 말 때문에 길이 막히고 통행하기가 어려울”<sup>269)</sup>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심양과 산해관의 시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심양의 시가는 북경만큼 좋지는 않아도 상당히 변화했으며 오가는 인파로 붐볐다. 박지원은 “문루 밑에 십자로가 트여 있는데, 수레바퀴는 서로 부딪히고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이다. 그 변화함이 바다 같다. 점방들은 한길을 사이에 두고 채색한 누각과 아로새긴 들창에다 금빛 간판과 푸른 榜을 써 붙였으며, 가지각색의 보화가 그 속에 가득하였다.”<sup>270)</sup>라고 기록하였다. 소도시마저도 작은 상점들이 즐비하여 변화하였다는 것

26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市肆, 北京正陽門外最盛, 鼓樓街次之. 在宮城北, 通州與北京幾相埒. 瀋陽, 山海關又次之. 車馬輻輳, 百貨充牣, 兩處一樣.”

26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一月十九日, “市肆繁華, 倍於通州, 百貨充溢, 不可勝記.” “車馬塞路, 難于穿去.”

270)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 37면, “樓下出十字路, 輻擊肩磨, 熱鬧如海. 市塵夾道, 彩

이다. 이의현의 청나라 도시와 상점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金昌業과 비슷하며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해 간략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시가지 상점마다 木板을 달거나 세웠다. 더러는 용으로 현수막을 쳐서 좋은 이름으로 아무 누[某樓], 아무 사[某肆], 아무 포[某鋪]라 했다. 그리고 날마다 쓰는 음식, 書畫, 器玩에서 百工의 賤技에 이르기까지 모두 벌여 놓고 팔지 않는 것이 없다. 희고 굵은 베로 상점 앞에 가로로 치기도 하고, 깃대를 내세우고서 무슨 물건을 판다고 크게 써서, 지나가는 사람이 얼핏 보아도 바로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리고 꼭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는데, 술에 蘭陵春, 차에 建溪茗이라고 하는 따위이다.<sup>271)</sup>

이의현은 시가지 상점에 판매하는 물건이 매우 다양하다고 썼을 뿐만 아니라, 물건 배치 방식, 점포의 간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지 등을 기록하였으며, 가게의 간판을 특색 중 한 가지로 꼽았다. 가게의 간판에 관해 홍대용은 더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모든 상점은 간판을 붙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처마에는 저마다 표시물을 달아매어 알렸다. 그래서 바람에 펄렁거리 오색이 찬란하게 빛났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상들도 저마다 표시가 있다.<sup>272)</sup>

---

閣雕窗，金扁碧榜，貨寶財賄充物其中。”

271)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每於市肆, 輒懸豎木版, 或排張絨帳, 揭以佳號, 或稱某樓, 或稱某肆、某鋪. 日用飲食、書畫器玩, 以至百工賤技, 無不列肆以售. 而以白大布, 橫張於肆前, 或懸揭旗幢, 大書某物和買, 使過去者瞥見即知. 而輒以佳名稱之, 如酒則稱蘭陵春, 茶則稱建溪茗之類是也.”

272) 洪大容, 「湛軒燕記·市肆」, “諸鋪, 不惟具扁牌字號, 遍簷各懸標具以識之. 因風飄颻, 雜彩煥爛, 至行路小商, 亦各有標號.”

간판은 상점의 아름다운 풍경 역할을 하며 가게를 알릴 뿐만 아니라 새롭고 아름다웠다. 다채롭고 각양각색인 간판은 여행 사진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사행 도중 시가의 간판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비교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간판은 색을 칠했는데, 심양의 것은 더욱 화려하고 북경의 간판은 “금은 빛이 찬란”하였다.

시장 문에도 丹青을 해두었다. 심양에 이르니, 그곳은 모두 眞彩를 칠하였다. 북경의 경우는 창문이나 가게 문을 다 아로새겨 금은 빛이 찬란하고, 간판과 문패도 서로 신기함을 다룬다. 의자와 탁자, 그리고 장막과 발 등도 지극히 華奢하다.<sup>273)</sup>

상점의 간판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경제의 번영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의 말처럼 “18세기는 청나라 초 상업이 가장 발달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시장 또한 호황을 누렸다.”<sup>274)</sup>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간판에 높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 사진들은 과하다고 생각하였다. 박지원은 길가의 도시 상점 간판들을 비교하였다. 심양의 것이 가장 사치스럽지만, 국경 소도시의 간판도 으리으리했다. 그는 가게의 간판이 이렇게까지 화려한 것은 미신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번 천여 리 길에 지나온 市舖는 鳳城, 遼東, 盛京, 新民屯, 小黑山, 廣寧 등의 지역이었는데, 그 크고 작고거나 사치하고 검소한 구별이야 없지 않겠지만, 그중 성경이 가장 화려한 편이다. 그곳은 모두 비단 창에 수 놓은 문

273) 洪大容, 「湛軒燕記·市肆」, “市門猶加丹雘, 至瀋陽皆施眞彩. 若皇城則鏤窓雕戶, 金銀璀璨, 招牌門榜, 競爲新奇, 椅卓帷簾, 窮極華侈.”

274) 劉靜, 「從“燕行錄”看18世紀中國北方市集」, 『北京社會科學』 第3期, 北京市社會科學院, 2006, 34면.

을 달아놓았다. …… 봉성은 동쪽 변두리에 있는 더욱 발전하지 못한 궁벽한 곳이다. 하지만 그곳의 의자, 탁자, 주렴, 휘장, 담요 등의 모든 도구라든가 꽃과 풀까지도 모두 우리로서는 처음 본 것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패나 간판들이 서로 사치하고 화려함을 다투어, 그 걸치레를 꾸미기 위한 낭비가 천금에 그칠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되지 않을 뿐 아니라, 財神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sup>275)</sup>

이러한 일상적인 상점 외에도 중국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많았다. 홍대용은 중국 아침 시장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언젠가 아침 장을 보러 가면서 동서 牌樓 밑을 지난 일이 있다. 길 좌우 수백 보 거리에 마치 검은 구름 떼처럼 천만 마리의 돼지들이 늘어서 땅을 메우고 있었다.”<sup>276)</sup>라고 하였다. “아침 장”이란 바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아침 시장이다. 이른 아침에 여는 이 시장은 중국 시장의 특색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아침 시장 외에도 북경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큰 시장이 여럿 있었다. 김창업은 “崇文門 밖에서 매월 4일, 14일, 24일에 세 차례 시장이 열리는데, 원근의 진기한 물건들이 모인다.”<sup>277)</sup>라고 하였다. 또 사신들과 함께 이곳에 들렀을 때 본 광경에 대해 “사람들은 어깨를 서로 비비고 지나가고, 여러 상품이 길에 즐비하여 지나가기 어려웠다. 일찍이 듣지 못한 기이한 물건이 매우 많다.”라고 하였다.

사신들이 시가 상점에 가장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다양한 상품이나 변화한 모습 때문이 아니다. 양국 지식인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소인 서점

275) 朴趾源, 『熱河日記·駟汛隨筆』, 67-68면, “今行千餘里之間所經市舖, 若鳳城、遼東、盛京、新民屯、小黑山、廣寧等處, 不無大小奢儉之別, 而盛京爲最, 皆紋窓繡戶. …… 鳳城乃東盡頭, 邊門僻輿, 更无進步之地, 而不特椅卓、廉帷、氈毯、器什、花草俱是創睹, 其招牌、認榜競侈爭華, 即其觀美, 浪費不啻千金. 盖不若是則賣買不旺, 財神不祐.”

276) 洪大容, 「湛軒燕記·飲食」, “嘗趁朝市, 過東西牌樓下, 夾道數百步, 列千萬剛鬣遍地, 如兩陣黑雲.”

27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一月二十四日, “崇文門外, 以每月初四, 十四, 廿四, 三次開市, 而遠近珍奇之物皆聚.” “人肩相摩, 列貨布路, 難於進行.” “各樣奇玩”, “曾所未聞者甚多.”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지원은 심양에 도착하자마자 거리를 둘러보며 화려하고 변화한 도시의 모습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한 골동품 가게에서 그곳의 주인인 다섯 명의 수재를 만났다. 이를 기회로 삼아 중국 문인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어떤 한 골동품을 다루는 점포에 들렀다. 그 집 이름은 藝粟齋이다. 秀才 다섯 사람이 동업하여 점포를 내고 있는데, 모두 나이가 젊고 얼굴이 아리따운 청년들이다. 다시 밤에 이 집을 찾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상세한 이야기는 따로 『粟齋筆談』에 실었다.<sup>278)</sup>

박지원은 골동품 가게와 옷 가게에서 다섯 명의 수재를 만나고, 행동과 인상이 단아한 여섯 명의 상인을 만났다. 이들과 밤이 되면 다시 모여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박지원은 밤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 이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시를 논하고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필담을 나누었다. 이들 수재와 상인들은 山海關, 山西, 四川, 杭州, 河南 등 지역 출신이다. 그중 몇몇은 타향에서 장사하면서도 독서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로 이들과 박지원은 서로 동병상련을 느꼈다. 이틀 밤의 필담 끝에, 박지원은 그들의 인품과 학식을 상세히 기록하여 『粟齋筆談』과 『商樓筆談』을 완성하였다.

연행 사신들이 청나라에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길에서 본 풍토와 인정이고, 둘째는 청나라 지식인과의 필담이고, 셋째는 시가의 서점에서 구매한 책이었다. 따라서 대도시 길가의 가게들은 사신들이 필히 들러야 할 곳이었다. 시가의 서점은 여러 청나라 지식인과 만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하고자 하는 책을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흥대용은 더욱이 북

---

278)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 38면, “入一收賣古董舖子, 舖名藝粟齋. 有秀才五人, 伴居開舖, 皆年少美姿容, 約更來齋中夜話, 俱載『藝粟筆談』.”

경의 유리창에서 ‘古杭三才’를 만나 ‘曠世神交’의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홍대용과 박지원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다. 박지원은 청나라에 왔을 때, 열하의 태학관에서 광동안찰사 汪新을 만나 陸飛에 관해 물었다. 陸飛는 홍대용이 사행 중 알게 된 절강 지역 才子 중 한 명이었다. 어떤 학자가 “북경의 유리창은 조선 후기 한중 문화 교류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sup>279)</sup>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 북경의 유리창은 한·중 지식인의 문화 교류에서 남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유리창은 정양문 바깥에 있었으며 주로 “색색의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곳”이었다. 외부인은 물론 내부의 장인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다. “공장 바깥은 모두 점포로서 거기에는 재화와 보물이 넘치고 있다. 서점으로서 가장 큰 곳은 文粹堂, 五柳居, 先月樓, 鳴盛堂 등이다. 천하의 舉人과 명성이 있는 많은 인사들이 그 속에서 묵었다.”<sup>280)</sup>라고 한다. 박지원 이전의 연행 사신들도 유리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박지원은 특별히 유리창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의 지리적 위치와 그곳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소개하였다. 특히 유리창의 유명한 서점 몇 곳을 언급하고, 이곳에 청나라의 유명한 지식인들이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유리창 외에도 박지원은 청나라 특유의 廟會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報國寺와 隆福寺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장이 열렸다. 報國寺는 “매월 3일과 5일”에, 隆福寺는 “매월 3일과 1일”에 장이 열렸다. 곧 두 寺廟에서 각각 한 달에 두 번 장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서 박지원은 조선 지식인들이 업신여기는 시장에서, 청나라의 고관대작과 명사들이 모두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다고 기록하였다. 자국 사람들은 “가난한 선비들로서 비록 부리는 하인 한 명

279)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 예술-18~19세기 연행록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第47輯, 한국한문학회, 2011, 340면.

280) 朴趾源, 『熱河日記·黃圖紀略』, 334면, “廠外皆塵鋪, 貨寶沸溢. 書冊鋪最大者曰文粹堂、五柳居、先月樓、鳴盛堂, 天下舉人、海內知名之士多寓是中.”

없는 집안일지라도, 아직 자기 밭로 장터에 나가지 않는다”<sup>281)</sup>라고 비교하였다.

박지원은 계속 ‘利用厚生’을 자신의 사상으로 삼고 주장하였다. 그는 ‘利用厚生’의 의미를 “각종 도구를 만들어 재화를 상업적으로 유통함으로써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의복과 음식으로 백성의 후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용과 실전을 중시하고 농업, 공업, 상업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sup>282)</sup>라고 주장하였다. 박지원은 국가의 상공업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청나라의 수공업과 시장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의 전통적인 사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시대의 인식을 넘어선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생각이 박지원의 진보적 사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

281) 朴趾源, 『熱河日記·盡葉記』, 346면, “我國貧士, 家雖乏無尺僮者, 未嘗敢身至場市間.”

282) 全海宗, 『中韓關係史論集』, 全善姬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381-382면.

## 2. 혼례와 장례 문화 풍속의 형상

연행 사신들은 청나라라는 이국 공간에 도착한 후 인문 공간에서 청나라의 다양한 인물을 묘사하고 기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나라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인물의 형상과 그들의 경제적 생활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정신문화 생활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이 있다. 연행 사신들은 18세기 중국에 도착하여, 우선 청나라가 100년간 나라를 안정시켜 평화를 이룬 점에 감탄하였다. 다음으로 마음속으로는 명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에, 당시 청나라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이 어떤지 무척 궁금해했다. 따라서 그들은 크게 결혼과 장례, 문화 예술 활동, 종교적 신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청나라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의 현황을 관찰하였다.

### 1) 혼례 풍속

“관혼상제는 다른 예속과 마찬가지로 계승되고 변화하며 발전한다. 모든 시대의 예속은 당대의 정신적인 면모를 흡수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sup>283)</sup>라고 한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나라 건국 초기부터 중국의 관혼상제 풍습은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만주족이 중원에 입성한 후 중국의 사회 공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중국 사회 공간의 주도 계층이 되었다. 만주족의 관혼상제 문화는 유교와 달리 사신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유교의 관혼상제 문화가 만주족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연행 사신들의 관심사였다.

---

283) 王增永·李仲祥, 『婚喪禮俗面面觀·前言』, 齊魯書社, 2001, 1면.

유교 문화에서 혼인은 사회,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일로 정해진 예절과 규범이 있다. 청나라 이전에 중국의 결혼 풍습은 모두 『禮記』에서 ‘六禮’<sup>284)</sup>의 예절을 채택했다. ‘六禮’는 주나라 때 확립되어 한족들의 혼례 예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과 규범이 되었다. 연행 사신들은 만주족 치하의 중국이 유교 전통 의례에 따라 혼례를 치르는 지 관심이 많았다. 주요 관심사는 혼인 상대, 혼인 관념, 혼례 의식 등이었다.

혼인 상대의 경우 사신들은 만주족과의 통혼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만주족이 중원에 입성한 후, 청나라 통치자들은 종족 혈통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주족과 한족의 결혼을 금지했다. 하지만 만주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요동 지방에서는 만주족과 한족의 통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홍대용은 일찍이 중국 사대부에게 만주족과 한족의 통혼 상황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만주인과 한인 간에 通婚을 합니까?”라고 물으니, 彭官이 “통혼하지 않습니다. 경성에서 남쪽 지방은 庶民들도 통혼하지 않지만, 관동 지방은 혹 통혼하는 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sup>285)</sup>라고 대답하였다. 통치자들만 혈통의 순수성과 정통성 문제를 우려한 것이 아니었다. 한족들도 민족의 氣節을 위해 만주족과의 통혼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요동 지방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한족과 만주족이 뒤섞여 살았으므로, 18세기 후반에는 만주족과의 통혼이 상당히 많았다. 이는 같은 시기 沈樂洙의 연행 작품에서도 알 수 있다.

“한인과 청인 사이에 서로 혼인합니까?”라고 물으니, “무릇 旗人の 혼인은 황제가 은을 하사하지만,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인과 민간의 혼인은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인과 기인 간 혼인하면 서로 관아에 아되고 상을

284) 육례는 한족의 전통적인 혼인 의례다. 의혼에서 완혼까지의 6가지 예절을 의미하는데 즉, 납채, 문명, 납길, 납징(납폐, 하혼례라고도 함), 청기, 친영 순이다. 육례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납징과 친영이다.

285) 洪大容, 『湛軒燕記·吳彭問答』, 正月二十三日, “余問‘滿漢通婚乎.’ 彭曰‘不通, 自京以南, 庶民亦不通, 關東想或有之.’”

받습니다.”<sup>286)</sup>라고 하였다.

沈樂洙의 기록을 통해, 만주족과 한족의 통혼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민간에서는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족은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혼례에 정부 보조를 받지만, 만주족과 한족이 혼인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민족적 심리와 문화 차이로 인해 만주족과 한족의 통혼을 ‘私婚’이라고 불렀는데, 혼하지는 않았어도 일종의 사회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혼인 상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 사신인 홍대용은 고모, 외삼촌, 이모의 자식인 사촌과의 결혼인 ‘친척 간 결혼(中表婚)’ 현상에 대해서도 물었다.

내가 “내외종 간의 혼인이 아직 있는가?”라고 물으니, 力闇이 “이는 법률로 금하는 바이다. 그 죄가 씌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 『大清律』의 조목에 명백히 실려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두 형의 집에도 있는가?”라고 물으니, “없다.”라고 하였다.<sup>287)</sup>

청나라 한족의 전통적 결혼 관념 중에는 홍대용이 말한 “내외종 간의 혼인”, 즉 근친혼이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에 와서는 이를 금지하였고, 형제간의 자녀도 결혼할 수 없었다. 이런 율령은 시대적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 관념에 대해서는 嚴誠과 같은 지식인들도 동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교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연행 사신들은 여성의 정조 관념을 매우 중시했

286) 沈樂洙, 『燕行日乘』, 110-111면, “曰 ‘漢清人相婚嫁否?’ 曰 ‘凡旗人嫁女、娶媳俱有皇賜賞銀, 民則不然. 旗與民婚姻不得領賞. 旗人對旗人婚姻者, 互相遞呈衙門, 各自領賞.’”

287)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衙筆談』, “余曰 ‘中表婚尙有之乎?’ 力闇曰 ‘此係律所禁, 其罪當笞. 然人家不以此爲非也. 大清律, 明載此條.’ 余曰 ‘兩兄家亦有之乎?’ 曰 ‘無.’”

다. 이 때문에 한쪽 지식인과 필담하는 과정에서 종종 여성의 재혼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는 홍대용과 嚴誠, 潘庭筠의 필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개가함을 그르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니, 蘭公(반정균의 자)이 “사대부 집에서는 개가하지 않으나, 가난하고 자식 없으면 개가해도 마땅하다. 宋儒 중에 程子 같은 이도 집에 再室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내가 “禮에 동거하는 繼父의 복을 입는 일이 있는가?”라고 하니, 蘭公이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家禮圖 중에 있다.”라고 하니, 난공이 “지금 사람은 이 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개가한 어머니의 복도 입는가?”라고 하니, 난공이 “心喪 3년을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는 衆人으로서 사람에게 바라는 뜻이다. 그 실은 일부종사가 어찌 부인의 의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니, 蘭公이 “가난하여 돌아갈 데가 없고, 그 사람이 능히 堅忍한 사람이 아니라면, 개가하여도 무방하다. 왕왕 큰 가문에서 소년 과부가 된 자가 개가를 할 수 없는데, 그 일이 이보다 심한 적이 많았다.”라고 하였다. 내가 “반드시 금하지도 말고 또 반드시 권하지도 말고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 力闇이 머리를 끄덕였다.<sup>288)</sup>

홍대용이 반생에게 청나라에서 재가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반생은 사대부 집안은 재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가난하고 자식이 없는 집에서는 여성이 재가할 수 있었고, 송나라 시기 유명한 집안에서도 재가한 여성이 있었다고 대답

288)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改嫁不以爲非耶?’ 蘭公曰 ‘士大夫家不改嫁. 然貧而無子, 改嫁亦宜. 宋儒如程子, 卽家有再室之女.’ 余曰 ‘禮有爲同居繼父服.’ 蘭公曰 ‘無.’ 余曰 ‘家禮圖中有之.’ 蘭公曰 ‘今人不爲此服.’ 余曰 ‘亦有嫁母服.’ 蘭公曰 ‘心喪三年.’ 余曰 ‘此以衆人望人之義. 其實事一而終, 豈非婦人之義?’ 蘭公曰 ‘貧無所歸而其人非能堅忍之人, 則再適亦無害. 往往大族少寡者, 既不得改嫁而其事有甚於此者多矣.’ 余曰 ‘不必禁之, 亦不必勸之, 任之而已.’ 力闇頷之.”

한다. 홍대용이 다시 청나라의 관혼상제는 모두 사마광의 『家禮』에 따라 치르는 것이냐고 묻자, 반생은 청나라의 관혼상제가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생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청나라는 여성의 재가를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청나라 또한 ‘三綱五常’을 따르고 있고 정조를 지킨 여성에게 깃발이나 패를 주기도 하지만, 여성의 재가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조선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였다.

박지원은 王鶴汀과 필담을 나누다가 “우리나라가 비록 바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나, 역시 네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온 나라 풍속이 儒教를 숭상함이 첫째요, 땅에 黃河처럼 큰 수해의 걱정이 없음이 둘째요, 고기와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빌리지 않음이 셋째요,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함이 넷째로 좋은 일입니다.”<sup>289)</sup>라고 자부하듯이 말하였다. 그리고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평생 과부의 절개를 지키며 개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홍대용과 필담을 나누는 한족 지식인 嚴誠이나 潘庭均, 박지원과 필담을 나누는 王鶴汀이 모두 여성의 정조 관념을 강조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였다.

蘭公이 “이것은 도리어 바른 情義가 아니다. 이미 시집갔어도 가묘에 참배하지 못하고 죽으면, 母家에 歸葬한다. 아직 婦道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시집도 안 가고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수절하는 것은, 옛사람이 私奔처럼 보았다. 비록 그 사람이 실로 심상한 부녀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해도, 역시 賢者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라 하겠다.”<sup>290)</sup>

289)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31면, “弊邦雖僻居海陬, 亦有四佳. 俗尚儒教, 一佳也; 地無河患, 二佳也; 魚鹽不藉他國, 三佳也; 女子不更二夫, 四佳也.”

290)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二月十二日, “蘭公曰 ‘此却非情義之正. 已嫁未廟見而亡, 則歸葬於母家, 謂其未成婦道也. 未嫁夫死而守節者, 古人比之爲奔. 雖其人實非尋常婦女可比, 然亦賢者之過也.’”

반생은 혼인을 약속했을 뿐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성은 일반 여성과 다를 바 없고, 또한 재혼하지 않는 그 여성들의 품성도 보통의 다른 여성보다 못하지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 여성에게 수절을 요구하는 것은 人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성에 수절을 요구한 현자가 지나치다고 말한 것이다. 王鶴汀은 박지원과의 필담에서 여성이 정조를 지키는 데서 오는 폐단에 관해 언급했다.

청나라에서는 여성이 혼인하기 전에 남편을 잃으면 평생 과부 노릇을 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정혼한 사이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혼인은커녕 약혼자를 만난 적도 없는 여성조차 독약을 마시고 순장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일들이 청나라의 고질병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딸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청나라 동남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청나라에서 여성의 정조 관념이 인간성에 어긋날 정도로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sup>291)</sup>

위의 嚴誠과 王鶴汀의 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세기 중국 지식인들은 유교적 윤리 규범에 따라 여성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여성의 개가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여성에게 지나친 정조 관념을 요구하는 것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18세기 조선과 중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혼인 예측에서 조선 사신들이 가장 많이 본 것은 친영례였다. 따라서 연행 문헌에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김창업은 통주 시가지를 유람하던 중 청나라의 새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

291)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31면, “鶴汀曰 ‘中國此俗亦成痼弊. 或有納采而未醮、合卺而未媾, 不幸有故, 終身守寡, 此猶之可也. 至於通家舊誼, 指腹議親, 或俱在鬻鬻, 父母有言, 不幸而至有飲鴆投繯, 以求殉祔, 非禮莫大. 君子譏其屍奔, 亦名節淫, 國憲申嚴. 父母有罪而遂以成俗, 東南尤甚.’”

거리에는 또 잡물과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자가 많았다. 대개 의자, 탁자, 장막, 그릇 따위의 물건들이었다. 동서로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끌고 다녔는데, 그 수가 무려 수십 대였다. 조금 뒤에 한 소년이 비단 교자를 타고 가고, 늙은 부인이 교자를 타고 뒤따랐다. 저자 사람에게 물으니, 新婚者가 신부의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sup>292)</sup>

신부를 맞이하는 행렬은 매우 규모가 컸다. 깃발을 들고 의자, 탁자, 장막, 그릇을 든 행렬이 매우 길었고 매파가 따라가기도 하였다. 바로 신랑이 처가댁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행렬이었다. 박지원은 사행 중 통원보를 지날 때 우연히 친영례 행렬을 보게 되었다. 집안에서는 북소리가 났으며 밖으로 나가니 거대한 친영례 행렬과 신부가 탄 가마가 보였다. 그 가마에 대해 “사면에 유리를 끼워서 창을 내었고, 네 모퉁이에는 색실을 드리워서 술을 달았다. 가마 허리에 통나무를 받혀서 푸른 밧줄로 가로 묶고, 그 통나무 앞뒤로 다시 짚은 막대를 가로질러 엮어매어 그 양쪽 머리를 네 사람이 메었다.”<sup>293)</sup>라고 기록하였다.

신부가 타는 가마는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이었다. 수레 두 대가 가마 뒤를 따랐는데, 한 수레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노부인이 타고, 나머지 한 수레에는 세 명의 소녀가 타고 있었다. 박지원은 “그 늙은이는 粧婆와 乳媪이고, 이 소녀들은 몸중”<sup>294)</sup>이라고 추측하였다. 30여 명의 말 탄 사람들이 신랑을 뺨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는 ‘九爪蟒袍(청인 관리들이 입는

29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二十六日. “有街上持雜物旗麾者。相屬於途。凡椅卓帷帳器皿等東西。或擔或挈。其數無慮數十對。俄有一少年乘綵輜。其後一老婦人乘輜隨之。問市人。以爲新婚者往婦家。而老婦人。卽媒婆云。”

293)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23면, “四面傅玻璃爲窗, 四角彈彩絲流蘇. 輜正腰爲杠, 以青絲大繩橫絞杠之, 前後再以短杠當中貫絞, 兩頭肩荷.”

294) 위의 책, 23면, “蓋老的是妝婆、乳媪, 少的是丫鬢也.”

관복)’를 걸쳐 입었다. 그리고 흰 말과 황금 안장에 은 등자를 던지시 디디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하게 띠고” 있었다.<sup>295)</sup> 이렇듯 신랑이 기쁘게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과 신랑의 화려한 복식도 묘사하였다.

뒤에는 또 “衣籠이 가득 실린 수레”가 세 대 있었다. 신혼부부가 옷장을 신고 갈 때, 그 옷장 장식을 보면 주인이 신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대개 북쪽 풍속에는 新婚 때에 반드시 채색 장롱을 갖추어 주기 때문에 집집마다 장롱을 벌여 놓기 마련이다. 장롱이 새것인 자는 신혼인 자임을 알 수가 있고, 오래된 자는 혼인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sup>296)</sup> 그래서 사람들은 장롱이 새것인지 보고 대략 언제 결혼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북쪽 지방의 혼례 예절이다. 당시의 중국도 지방마다 풍습이 달랐다. 혼인 의례에 관하여 사신들이 관심을 보였던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아직도 전통적 유교 의례를 따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홍대용은 潘庭均과 필담하면서 중국의 혼인 의례에 관해 물었다.

내가 혼례 때의 절하는 법을 물었다. 蘭公이 “漢人은 四拜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이 절은 夫婦가 서로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天地와 祖先에게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천지에 절하는 것은 아마 朱子の禮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니, 力闇이 “가례는 준행하는 자가 적다. 이는 모두 俗禮이다.”라고 하였다. 난공이 “사당에 참배한 뒤에 舅姑를 뵈고 八拜禮를 행한다. 연후에 부부가 함께 절하는데, 각각 再拜를 한다. 이는 항주 풍속이다. 다른 곳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내가 “奠鴈禮가 있는가?”라고 하니, 力闇이 “항주에서는 유독 이 예를 폐지하였으니 가소롭다.”라고

295)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23면, “九爪蟒袍, 白馬金鞍, 穩踏銀鏡, 堆着笑臉.”

296) 李宜顯, 『壬子燕行雜識』, “蓋北俗當新婚, 必備給彩幟, 故家家有列幟. 新者可知其為新婚, 故者可知其為經婚之久矣.”

하였다. 또 농담으로 “親迎을 하지 않아도 妻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혼인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가는가?”라고 하니, 蘭公이 “男家에서 먼저 彩輦와 名帖을 갖추어 往迎한다. 그러나 신랑은 親迎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sup>297)</sup>

潘庭均과 嚴誠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당시 『家禮』의 혼인에 관한 의례를 완전히 따르고 있지는 않았다. 천지에 절을 하는 등의 예절에서 이미 뚜렷하게 세속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혼례 의식 중에 친영례도 완전하게 지키지는 않고 있었다. 사신들의 이런 기록은 만주족 치하의 중국에서 유교 의례가 아직 남아 있지만, 순수하게 본래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장례 제도

맹자는 “살아 계실 때 봉양하는 것은 大事에 해당할 수 없고, 오직 돌아가신 뒤에 葬送하는 것이라야 大事에 해당할 수 있다”<sup>298)</sup>라고 했다. 생과 사는 곧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연행 사신들은 청나라 치하의 중국 장례 제도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중국의 장례 제도에 관해 김창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297)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二月十二日, “余問婚禮拜法. 蘭公曰‘漢人四拜.’又曰‘此拜非夫婦相拜, 乃同拜天地祖先耳.’余曰‘拜天地, 恐非朱子之禮.’力闇曰‘家禮遵行者少, 此皆俗禮.’蘭公曰‘廟見後見舅姑, 行八拜禮. 然後夫婦同拜各再拜, 此杭俗也. 他處不盡然也.’余曰‘有奠鴈禮耶?’力闇曰‘杭州獨廢此禮, 可笑.’又戲曰‘不親迎, 竟得妻.’余曰‘婚時, 男先於女耶?’蘭公曰‘家先備彩輦名帖往迎, 特新郎不親迎耳.’”

298) 孟子, 『孟子·離婁(下)』, “養生者不足以當大事, 惟送死者以當大事.”

상례의 복제는 한결같이 『家禮』를 따라서 굵은 흰 베로 만든다. 부모상에는 殯禮를 하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먹지 않았다가, 빈례를 치르고 나서 평소처럼 술과 고기를 먹는다. 혹 漢人은 3년제를 행하고, 淸人은 易月制를 행한다고도 한다. 청인은 모두 火葬을 하며, 한인은 화장하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인도 화장한다고 한다.<sup>299)</sup>

중국 장례 문화에서 상복은 朱熹의 『家禮』에서 요구하는 대로 베옷을 입고 服을 벗기 전까지 오락과 교제를 끊고 애도를 표시하였다. 金昌業은 또한 한인들이 웃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는 옛 제도를 따랐다고 언급하였다. 한족은 줄곧 ‘땅에 매장하는 토장’을 중시해 왔지만, 최근 일부 한인들은 만주족처럼 화장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근래에는 화장하는 자도 꽤 된다. 이것은 대개 호인의 풍속에 물들어서 그런 것이다.”<sup>300)</sup>라고 하였다.

한족의 장례 제도에 비해 만주족의 장례는 기간을 한 달로 줄여서 더 짧게 하였다. 그리고 발인까지는 곡기를 끊었다가 발인이 끝나면 평상시대로 식사하였다. 出葬하는 방식도 모두 화장으로 하였다. 두 사신은 만주족의 장례가 어떻게 나쁜지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행간을 통해 이들이 여전히 『家禮』의 방식을 준수하는 한족들의 장례가 좋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족의 장례 제도는 만주족 장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바뀌었는데, 사신들은 만주족의 문화가 중국의 전통 상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여겼다. 여기에서 18세기 중국에서 만주족과 한족의 문화가 섞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홍대용은 만주족과 한족의 관혼상제가 융합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연행

---

29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喪服之制, 一倣家禮, 以白大布爲之. 父母喪, 未殯, 水醬不入口. 既殯則飲酒食肉如常. 或云 ‘漢人尙用三年之制, 淸人用易月之制, 淸人皆火葬, 漢人不火葬, 而近來亦頗火葬云.’”

30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而近來頗有火葬者, 蓋染胡俗而然也.”

작품에 기록하였다. 그는 향주의 두 벗인 嚴誠, 潘庭均과 필담을 나누면서 중국의 예법이 朱子の 理學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논하였다. 이때 潘庭均은 천하가 모두 朱子를 존경하고 있다고 하였다. 혼례 때 절하는 방법에 관해 묻자, 嚴誠은 이미 순수한 朱子의 예가 아니라 민간의 俗禮라고 답하였다. 이어 홍대용은 당혹스러워했던 문제에 관해 질문하면서 “중국은 喪家에서 음악을 하여 尸를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 극히 해괴하다.”라고 하였고, 또 “喪家에서 음악을 쓰는 것이 가장 나쁘다.”<sup>301)</sup>라고 하였다. 가족의 죽음은 가장 슬픈 일인데, 어떻게 악기로 곡을 연주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반생은 사신에게 이것이 민간의 풍습이라고 답했다.

이전의 예법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청나라의 지식인 중에는 전통 예법을 계속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학문을 하지만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은거하는 吳西林이 그 예였다. 潘庭均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西林 선생이 상중에 있을 때 마늘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 손님을 만나지 않고 시문을 짓지 않고 琴瑟을 타지 않았다. 葬祭의 예와 의관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것과 전혀 달랐다. 그 의관은 國朝의 제도를 따르고 喪服은 모두 明制를 따랐다. 국조에서 喪禮에 대해서는 민간에 頒布한 바가 없기에, 선생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다.<sup>302)</sup>

潘庭均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홍대용이 중국을 방문했던 18세기 중후반에는 만주족과 한족의 장례 풍습이 뒤섞이는 양상이 뚜렷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선현의 뜻을 이어받아 융합된 세속의 의례를 따르지 않고, 『家禮』의 장례 의식을 엄격하게 따랐다. 喪服도 명나라 제도를 따름으로써

301)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中國於喪家, 動樂娛尸, 極可驚駭.” “喪家用樂最可惡.”

302) 위의 책, “西林先生居喪, 不茹葷飲酒, 不見客, 不作詩文, 不御琴瑟. 葬祭之禮, 以及衣冠, 與世大殊. 其衣冠遵國朝制度, 喪服皆遵明制. 因國朝喪禮不頒於民間而先生獨行之也.”

자신의 心志를 표명하였다. 평상복은 만주족의 의관 제도를 따라야 하겠지만, 효를 지키려는 부모 상례의 제도까지 청나라 통치자가 방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족 지식인들이 ‘剃髮易服’에 대해 취한 일종의 항거였다. 따라서 홍대용과 嚴誠, 潘庭均이 모두 吳西林에게 탄복하였다.

청나라의 장례 문화는 만주족과 한족의 풍습 융합 외에도 의식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장례에 쓰이는 수레까지도 매우 화려하였기에, “중국 풍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器用에 있어서 편리하고 정교한 것을 전적으로 숭상하였다. 오직 북경의 喪輿 제도만은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컸다. 어깨에 메는 양쪽 輅[輅]는 길이가 7, 8丈에 이르고 그 지름이 한 자가 넘는다. 黃錫으로 장식하고 붉게 칠하여 찬란하게 번쩍였다.”<sup>303)</sup>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중국의 그릇과 도구를 관찰하던 중 집에 사용된 벽돌, 수레, 배, 그릇은 모두 경제성을 따졌는데, 유독 장례에 쓰이는 수레만은 화려하고 큰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

홍대용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귀족들이 발인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장례 의식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가마 메는 법과 같았다. 마주 드는 나무 하나에 10여 명씩 붙어 모두 백여 명이나 되었다. 수레 다섯 대가 횡대로 갈 수 있는 폭넓은 길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다. 銘旌은 붉은 비단에 滿州 글자로 썼다. 그 길이가 30척쯤 되며, 밑에 발등나무[跗]가 붙어 있다. 역시 양쪽 끝채에 걸쳐서 10여 명이 메고 갔다. 언젠가 유리창에서 돌아오다가 보니, 앞에서는 10여 쌍의 旗幡을 들고 가고, 뒤에서는 피리와 통소를 불며 북을 치는 악대가 따르고 있었다.

---

303) 洪大容, 「湛軒燕記·器用」, “華俗, 凡屬器用, 專尙便巧. 唯京城喪輿之制, 侈大過當. 雙輅長七八丈, 圍徑尺餘, 飾以黃錫, 紅漆耀爛.”

한 사람이 7-8세 된 아이에게 큰 베옷과 두건을 씌우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시내 사람들이 말하기를, “返魂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언젠가는 장엄하게 꾸민 기를 수십 쌍이나 들고 기이한 향기를 풍기면서 길 좌우에서 僧徒들이 鎗巾과 袈裟를 입고 塵尾如意棒을 손에 들고 梵唄를 불렀다.

널[柩]은 모양이 몹시 컸다. 다만 아래쪽이 거의 3분의 1정도 좁다. 네 개의 널판자가 모두 두어 치 정도 위로 나와 있는데, ‘圭’(上圓下方)라는 옥의 머리 부분처럼 둥글게 깎여져 있었다. 전체를 붉게 옷칠하고 이따금 화초를 그리기도 하였다. 또한 金字로 그 위에 ‘靈壽堂’이라고 쓰기도 한다.<sup>304)</sup>

여기서 “旗幡”은 ‘招魂幡’이라고도 한다.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司馬光의 『書儀』에 “開元禮에 ‘重’이 있는데, 宋代에도 이를 사용했다. 士民들은 重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魂帛을 쓰면 되는데, 비단을 묶어서 귀신이 의탁하게 한다.”<sup>305)</sup>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魂帛’이 바로 招魂幡이다. 장례 발인을 할 때 고인의 적장자가 발인 행렬 맨 앞에서 초흔번을 흔들어 길을 연다. 이는 고인의 영혼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속어에 이렇게 초흔번을 들고 흔드는 것을 “상주가 깃발을 든다”라고 한다. 따라서 당시 청나라의 장례 의식은 영구 수레가 호화로웠다. 그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관을 메는 등 규모도 매우 컸다. 혼을 부르는 가벼운 깃발도 준비해야 했다. 스님을 모셔 불경을 읽게 하고, 사자의 관에는 붉게 옷을 칠하고 화초를 그려

304) 洪大容, 「湛軒燕記·器用」, “如擔輜之法, 一扛十數人, 摠百餘人, 非五軌之塗, 不可行. 銘旌用紅緞, 題以滿書, 長可三丈有跗, 亦架以雙輶, 舁者數十人. 嘗從琉璃廠歸, 見旗幡十餘雙, 笙簫鼓樂繼之, 一人抱七八歲兒, 蒙以大布衣巾, 隨其後. 市人言返魂也. 又嘗見幢幡數十雙, 異香夾途, 僧徒具鎗巾袈裟, 各持塵尾如意, 梵唄咻聒.” “柩制甚鉅, 但下殺幾三之一. 四板并上出數寸, 圓削之如圭首. 全體朱漆, 往往畫花草, 亦有以金字, 題其上曰靈壽堂者.”

305) 司馬光, 『書儀·魂帛』, “開元禮有重, 宋亦用之; 士民不用重, 用魂帛; 束帛依神.”

‘靈壽’라고 적었다. 만주족과 한족의 장례 모두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도 서로의 문화가 섞이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 3. 민간 연희와 오락 풍속의 형상

네 연행 사신은 청나라로 사행을 떠난 동안 청나라의 경제 발전과 관혼상제를 자세히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북방 민족의 여가 문화 생활도 관찰하였다. 戲曲, 幻戲, 動物 雜耍(곡예), 講書 등을 포함하여 청나라 북부 지방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극 문화는 극본, 배우, 무대, 관객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sup>306)</sup>라고 하는데, 네 연행 사신이 기록에서 강조한 점은 서로 다르지만, 네 사신 모두 이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다.

#### 1) 戲子屋의 발달과 민간 연극의 성행

민간과 황제를 막론하고 18세기 청나라에서는 모두 연극을 즐겼다. 김창업은 자신의 연행 일기에서 청나라 북방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戲子屋(극장)”에 관해 기록했다. 여기에서 청나라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연극 관람을 매우 즐기고 좋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06) 王政堯, 「略論“燕行錄”與清代戲劇文化」, 『中國社會科學院 研究生院學報』3期, 中國社會科學院, 1997, 60면.

날이 채 밝기 전에 출발하였다. 서문의 안쪽 왼편에 단청한 樓閣이 있는데, ‘丁’ 자 모양으로 지어졌다. 역졸이 ‘戲子屋(극장)’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시가가 변화해지고, 가는 곳마다 이런 집이 많이 있었다. 반드시 사찰과 도관의 문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로새긴 마루 기와와 단청한 기둥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었으니, 청나라의 사치스러운 풍속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sup>307)</sup>

이는 김창업이 영원성에서 본 극장의 풍경이었다. 그 후 북경으로 가는 길에는 모든 마을에 극장이 있었다. 대부분 사찰이나 도관의 근처에 있었으며 장식이 몹시 화려했다. 민가가 수십 채에 불과한 작은 마을에도 으리으리한 사찰과 극장이 있는 모습을 본 김창업은 청나라의 사치스러운 풍속에 탄복하면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김창업은 청나라 극장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공연 모습도 함께 기록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영평부에 묵을 때, 그의 숙소 근처에 광대들이 공연하는 곳이 있었다. 남자들은 “담을 치듯이 빙 둘러 모여” 있었으며, 여자들은 비록 남자들처럼 나가서 연극을 볼 수는 없었지만, 무대 맞은편 집에서 구경하였기에, 연극을 보려고 모여든 “여인들이 창문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기록했다.

김창업은 청나라 광대들의 내력, 가는 곳마다 상황을 이룬 모습, 공연의 내용, 선행을 유도하는 교화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

배우들은 모두 남방에서 왔는데, 아무리 멀어도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대개 州, 府, 村, 鎮, 市, 坊 할 것 없이 변화한 곳이면 모두 극장이 있다.

---

30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十二月十六日, “未明發行. 西門內有一彩閣在路左, 製如丁字. 驛卒言是戲子屋也. 自是凡市鎮熱鬧, 去處多有此屋, 而亦必在於寺觀門前. 雕甍畫棟, 照耀街路, 中國侈靡之俗, 此亦可見.”

극장이 없는 곳이면 임시로 갈대집을 만들어서 공연한다. 길게 할 때는 10여 일 동안 계속한다. 짧게 할 때는 며칠 만에 끝내고 다른 지방으로 간다고 하였다. 구경 오는 남녀들이 물결을 이룰 정도다. 혹은 수십 리 밖에서 와서 구경한다. 관람자들은 모두 돈이나 재물을 내는데, 수월치 않은 값이다. 그런데 그 연극 공연은 모두 역사나 소설 이야기이다. 내용이 선과 악을 주제로 하여, 공연을 보는 사람에게 勸善懲惡의 마음을 갖게 한다.<sup>308)</sup>

청나라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연극 관람을 즐겼다. 남성들은 물론 북방 여성들도 나가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연극을 보기 위해 수백 대의 수레가 진을 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 “길에 수레가 끊이지 않고 수레마다 여인이 7, 8명씩 탔다. 모두 진한 화장에 고운 나들이 차림새였다. 그런 수레가 몇백 대나 되었다. 이는 모두 小黑山에서 광대놀이를 구경하고 해가 저물어서 돌아가는 시골 부인네들이었다.”<sup>309)</sup>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 연극 관람은 매우 즐거운 일종의 여가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이 편안했음을 상징한다.

또 “州, 府, 村, 鎮, 市, 坊 할 것 없이 변화한 곳이면” 모두 극장이 있었는데, 희극 배우들이 대부분 남방 사람이어서 방언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현지 백성들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김창업은 당시에 공연한 희곡을 모두 보고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공연 내용과 배우의 내력, 공연 시간, 공연 범위 등에 관한 정보가 이미 들어서 아는 것들이었다. 희곡의 내용이 대부분 ‘前史小說’이

30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二十一日, “戲子皆從南方來, 無遠不到. 凡州府村鎮市坊繁盛處, 皆有戲屋, 而其無屋處, 皆臨時作簞屋設戲. 多至十餘日, 小或數日而罷. 又轉而之他. 所至男女奔波, 或自數十里外來觀. 觀者皆施錢財, 費亦不貲. 然其所演, 皆前史及小說, 其事或善或惡, 使人見之, 皆足以勸懲.”

309)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7면, “車乘連絡不絕, 女子共載一車, 不下七八, 皆凝妝盛飾. 閱數百車, 皆村婦之觀小黑山場戲, 日暮罷歸者.”

기 때문이다. 공연의 취지는 관람객에게 경중을 울리고 교육해서 “보는 사람에게 勸善懲惡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극장의 규모와 양식에 관해서는 김창업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극장[戲屋]의 모양은 크기가 세로 3길[丈], 너비가 2길[丈] 남짓하다. 위에 갈대로 덮었는데, 높이는 땅에서 6, 7척쯤 되었다. 아래에 시렁[棚]을 만들어서 관자를 깔았다. 그 절반을 나누어 앞에 무대[軒]를 만들고, 뒤에 방을 만들었다. 그 방 3면을 대나무 발로 둘러쳐 벽을 만들고, 방과 무대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 놓았다. 배우들은 모두 10여 명인데, 등장하는 사람만 무대에 오른다. 나머지는 모두 방에 있다가, 자기 역할이 있을 때마다 방에서 나오곤 하였다.<sup>310)</sup>

여기에서 김창업이 설명한 것은 변화한 마을이나 사찰 옆에 있는 극장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는 광대들이 임시로 지은 극장이다. 매우 민간적인 극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극장이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로 지은 극장은 크지 않다. 하지만 공간을 앞뒤로 나누고 중간을 휘장으로 막아 배우들이 편하게 대기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다. 관객과 이들을 격리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대에 오른 배우가 매번 연주가 바뀔 때마다 소리를 내어 곡을 부르면, 방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그 소리에 호응하였고 악기가 함께 연주되었다. 배우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淸婉”하여 들을 만하였다.

김창업이 청나라 민간 예술가들이 임시로 지은 연극 무대를 묘사했다면, 박

---

310)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二十一日, “戲屋之制, 長僅三丈, 廣二丈許, 上皆覆簾, 去地六七尺. 鋪板爲棚, 分其半, 前爲軒, 後爲室. 室三面, 圍簾爲壁, 室軒之間, 隔以帷. 凡戲子共十餘人, 而惟登場者在軒, 餘皆在室中, 每扮戲, 自室中出來.”

지원은 『駟汎隨筆』에서 사찰 옆에 있는 극장의 형태, 규모, 건축 기술 등에 관해 기록하였다.

사찰이나 도관(도사가 깃들이는 건물)이나, 사당의 맞은편 문에는 반드시 戲臺가 하나씩 있다. 들보의 수가 모두 일곱 개 혹은 아홉 개라서 드높고 깊숙하고 웅결하다. 보통 점방과는 비길 바가 아니었다. 이렇게 깊숙하고 넓지 않으면 만 명에 이르는 사람과 의자, 탁자 등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앉을 자리가 적어도 천 개에 이른다. …… 樓, 閣, 宮, 殿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무대는 그 정교한 구조가 기와집보다도 더 나왔다. 혹은 ‘中秋慶賞’이라는 편액을 달았고, 혹은 ‘中元佳節’이라는 편액을 달았다.<sup>311)</sup>

이렇게 화려한 극장은 일반적으로 사찰 근처에 세워져 있는데, 일반 객짓집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 일반적으로 극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외형상 궁궐만큼이나 화려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비교적 큰 명절에 맞춰 현판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김창업은 배우가 연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희곡에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班超萬里封侯’ 이야기, ‘秦檜夫婦殺害岳飛’ 이야기, ‘孟姜女’ 이야기, ‘一個秀才典當衣服不贖回’ 이야기 등으로, 조선의 옛 희곡과 비슷하였다. 그중 광대들이 입은 옷은 모두 옛 복식이어서, 그는 “옛날의 冠服制度나 청나라의 풍속들은 볼 만한 것이 많다.”라고 하였다. 김창업은 광대들의 의상이 청나라 전통 의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바람직하게 여겨 “지금 漢人들의 후예가 오히려 중화의 제도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연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배우도 없어서는 안 될

311)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 67면, “寺觀及廟堂對門必有一座戲臺. 皆架七梁, 或架九梁, 高深雄傑, 非店舍所比. 不若是深廣, 難容萬衆. 登卓椅兀. 凡係坐具動以千計. …… 樓閣宮殿之狀, 而結構之工更勝瓦葺. 或扁以‘中秋慶賞’, 或扁以‘中元佳節’.”

것이다.”<sup>312)</sup>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홍대용도 청나라 희곡이 중화의 의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潘庭均과 이를 주제로 필담을 나누었다. 홍대용은 도중에 관람한 ‘극장 무대’에서 청나라의 옛 의관을 계속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반생이 무대극의 어떤 점이 좋았느냐고 물으니, 홍대용은 ‘무대극’ 대부분이 황당무계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蘭公이 “무엇을 取하는 것인가?”라고 물어서, 나는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蘭公이 “어떻게 다시 漢官의 威儀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곧 지워버렸다. 내가 웃으면서 끄덕거렸다.<sup>313)</sup>

이를 통해 연행 사신이 청나라의 희곡 관람을 좋아한 것은 희곡 자체가 지닌 감동적인 부분 외에도, 광대의 복장에도 특별히 애착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광대의 의복은 현재의 만주족 복식이 아니라 명나라 이전의 복식이었다. 조선 사신과 청나라 지식인이 모두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서로 비밀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었다.

---

312)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二十一日, “前代冠服制度, 中國風俗可觀者多. 如今日漢人之後生, 猶羨慕華制者, 不由於此. 以此言之, 戲子亦不可無也.”

313) 洪大容, 「湛軒燕記·乾淨衛筆談」, 二月初四日, “蘭公曰‘取何事?’余笑而不答. 蘭公曰‘豈非復見漢官威儀耶?’即塗抹之. 余笑而頷之.”

## 2) 민간 곡예와 幻戲

연행 사신이 본 18세기 청나라인의 여가 문화 생활 중에는 희곡 외에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의 곡예와 ‘幻戲’였다. 민간 곡예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곡예사의 원숭이 놀이였다. 김창업은 북경으로 가는 길에 민간 곡예사의 원숭이 놀이를 여러 차례 보게 되었다. 그는 白旗堡에서 “한 胡兒가 원숭이를 안고 들어와 쇠줄로 목을 묶어서 휘두르고 굴려서 곤두박질시켰다. 그밖에 다른 재주는 없는 것을 보니, 이제 처음 길들이는 놈인 모양이다.”<sup>314)</sup>라고 하였다. 김창업은 이 밖에도 자신이 본 원숭이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당시 원숭이는 약간 작고 이마가 높으며 눈, 볼, 엉덩이가 모두 붉었고 얼핏 보면 작은 노파처럼 보이기도 했다.

김창업은 十三山에 있을 때 원숭이 곡예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곡예도 보았다. 여기서 본 원숭이 곡예는 백기보에서 본 것보다 재미있었다. 원숭이가 이미 사람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마리의 원숭이가 각기 궤짝에서 나와 胡人의 모자를 쓰고 사람처럼 일어서서 빙빙 돌았다. 조금 후에 또 한 번 고향을 지르니, 두 원숭이가 다 모자를 벗고 궤짝에서 가면을 꺼내 썼다. 한 마리는 갈래머리를 한 동자가 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점잖은 수염을 단 長者가 되었다. 동자는 총채를 들었고, 장자는 구부러진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빙글빙글 돌았다. 얼마 뒤에는 다시 벗어 버리고 여자의 가면을 썼다. 한 여자는 시름겨운 얼굴에 수건을 들고 때때로 눈물을 닦는 시늉을 했다. 이어서 여자 가면을 벗고, 이번엔 갑옷을 입고 木馬에 앉아 병기를 잡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빙빙 돌

31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日, “有一胡兒持猿入來, 以鐵索繫其頸而揮轉之, 使爲筋斗. 此外無他技, 蓋新馴者也.”

기를 두어 번을 하고 그쳤다. 그 동작은 징 소리에 맞추었다. 이 놀이는 광대[戲子]를 모방하여 만든 듯하다. 어느 演本(놀이 대본)인지 알 수 없다. 호인들은 말하는 것도 마치 몸을 하는 것과 같다.<sup>315)</sup>

이 대문에서 김창업이 본 원숭이 곡예는 매우 성숙한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두 원숭이는 스스로 모자와 가면을 쓰고 다양한 인물을 흉내 낼 수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자가 눈물을 닦는 동작을 할 수 있고, 무기를 든 채 말을 타고 싸우는 모습도 흉내 낼 수 있었다. 원숭이 훈련사는 모든 과정에서 희곡에 맞춰 노래했는데, 이는 희곡 공연 모습을 모방한 것이었다. 사신들은 그들이 무슨 대본을 연기한 것인지 몰라도, 매우 생동감이 있어서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흉내 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

이어 김창업은 개가 쳇바퀴를 통과하는 곡예를 보았다. 개는 쳇바퀴를 통과한 후 ‘串’ 자 모양으로 붙여서 세워 놓은 바퀴 네 개를 통과했다. ‘山’ 자 모양을 만든 것도 능숙하게 통과하였다. “이 개가 돌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모두 호인의 뜻대로 하고 한 번도 쳇바퀴를 건드려 움직이는 일이 없었다. 한 회가 끝나면 즉시 누웠다가 징 소리를 들으면 천천히 일어나 가는데, 한가로운 그 맛이 더욱 기특하였다.”<sup>316)</sup> 개가 이렇게 능숙하게 쳇바퀴를 돌아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고 매우 여유롭게 보여 보기에다 좋고 신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청나라의 민간 예술을 통틀어 ‘雜技’라고 부르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안상복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雜技는 “기예의 성격에

---

31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二日, “兩猿各自開櫃出胡帽戴之, 人立回旋. 既已又喝聲道辭, 則兩猿皆脫其帽, 又於櫃中, 出假面着之. 一雙髻童子, 一美鬚長者. 童子持塵, 長者偃僕扶筇, 相與回旋, 既已又皆脫去, 更着女人面. 一女有愁容, 持巾時時作拭淚狀. 既已又脫女面, 更着甲冑, 跨木馬持兵器, 作擊刺狀, 回旋數次而止. 其行止, 以鑼聲爲節. 此似皆倣戲子, 而不知其演何本也. 胡人所道之語, 亦似戲子唱曲矣.”

31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二日, “其回旋出入, 悉如人意, 而一不觸動其輪. 每回一次輒臥, 聞鑼響徐起而行, 意甚閑暇, 尤可異也.”

따라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뉜다. 뛰기, 구르기, 회전 등과 같은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身體技藝, 형태를 모방해 재현하는 象形과 소리를 흉내 내는 像聲, 현대 마술의 전신이라 할 幻術, 동물 놀이, 그리고 滑稽演技 등이다.”<sup>317)</sup> 안상복 교수는 여기에서 중국의 잡기, 동물 놀이, 환희 등을 총칭하여 잡기라고 일컬었으며 잡기를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金昌業이 본 것은 중국 민간 동물 놀이였다. 사실 잡기와 ‘幻戲’는 다른 유형이지만, 그가 환희를 마술의 전신이라고 하는 것도 맞다. 또한 안상복 교수가 잡기, 동물 놀이, 환희가 때로 섞여서 서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한 견해도 인정한다. 김창업이 본 것이 바로 동물 놀이와 잡기가 섞인 형태였다.

박지원은 환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유래에 관해 설명하였다.

대개 上世로부터 이런 데 능한 자가 있어, 小鬼를 부려서 사람의 눈을 속였다. 이를 요술이라고 한다. 夏나라 시기에 劉累(술사의 이름)는 용을 길들여서 孔甲(하의 임금)을 섬겼고, 周穆王 시기에 偃師(술사의 이름)라는 자가 있었다. 墨翟은 군자인데 능히 木鳶를 날렸다. 후세에도 左慈, 費長房(東漢 시대 요술사)의 무리가 이런 술법으로 사람을 놀렸다. 燕과 齊에서도 迂怪스러운 선비들이 신선 이야기를 가지고 당시 임금들을 의혹시켰다. 이것이 모두 요술이다. 당시에 능히 이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술법이 西域에서 나왔다고 한다.<sup>318)</sup>

317) 안상복, 「연행록(燕行錄)의 잡기(雜技) 관련 기사(記事) 연구」 『중국문학』 第53輯, 한국 중국어문학회, 2007, 165면.

318) 朴趾源, 『熱河日記·幻戲記』, 253면, “蓋自上世有此, 能役使小鬼, 眩人之目, 故謂之幻也. 夏之時, 劉累擾龍, 以豢孔甲. 周穆王時, 有偃師者. 墨翟, 君子也, 能飛木鳶. 後世如左慈、費長房之徒, 皆挾此術以遊戲人間. 而燕、齊迂怪之士, 談神仙以誑惑世主者, 皆幻術, 當時來之能覺. 意者其術出自西域.”

박지원은 幻戲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오래된 것이 귀신을 쫓고 사람을 현혹하는 괴이한 요술이었다고 한다. 하나라의 劉累, 周穆王 때의 偃師<sup>319</sup>, 墨子 등은 기본적으로 이를 숙련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후세에 일부 과상한 사람들은 이런 술법으로 군주를 현혹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幻術’이 서역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박지원은 이를 통해 서역에 마술사가 비교적 많은 이유를 짐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의 ‘幻術’ 공연은 무엇인가?

박지원은 통치자가 영리하다고 여겼다. 통치자는 이러한 공연을 금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간에서 공연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를 통해 부녀자나 아이들이 모두 이러한 幻戲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마음을 놀래고 눈을 현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행 사신들은 중국 사행 기간에 幻術이 진화한 幻戲 공연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의현의 연행 작품에는 그와 다른 사신들이 베이징에서 ‘幻術人’를 찾아 사관에 들어가 공연하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공연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두 번째 벌인 능숙한 공연에서는 곡예와 환술이 뒤섞인 광경이 펼쳐졌다. 광대들은 엽전 옮기기, 작은 종이 조각을 비둘기로 만들기, 공중에서 물독에 물 채우기, 입에서 바늘을 뺀기 등의 마술을 하였다. 또 중국 전통 곡예인 ‘그릇 묘기 [頂碗]’를 선보였다. 사신들의 기록에서 공연이 훌륭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의현은 공연에 사용된 소품과 공연 과정뿐만 아니라 공연자의 노력과 공연의 놀라움까지 꼼꼼히 기록하였다.

홍대용은 사행 중 북경을 유람하면서 중국의 요술에 관해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이러한 민간 곡예를 좋아하여 관객이 수천 명에 이르렀고,

---

319) 전설에 의하면 주나라 목왕 때 뛰어난 장인이 만든 인형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고 한다. 후대에는 인형놀음을 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를 언사라고 불렀다.

이들이 그 묘みに 일제히 갈채를 보내며 매우 떠들썩하게 즐거워했다고 기록하였다.

일찍이 내가 유리창에 놀러 갔었다. 길 왼쪽에는 천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 떠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수십 자 되는 긴 장대가 끝이 송곳처럼 뾰족한데, 그 위에 직경 한 자 되는 큰磁樸磨(등근 사기 접시)를 올려놓고 빙빙 돌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돌리고 있어도 기울어져 떨어지지 않았다. 구경꾼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갈채를 보냈다.<sup>320)</sup>

사실 홍대용이 유리창에서 본 공연은 진짜 마술, 즉 그가 말한 ‘幻戲’가 아니라 중국 전통 곡예인 ‘그릇 묘기 [頂碗]’였다. 그릇 묘기는 중국의 유서 깊은 곡예이다. 이 곡예는 상나라의 ‘靑玉人形’과 한나라의 ‘漢墓畫’ 등에 기록되어 있다.<sup>321)</sup> 이 ‘그릇 묘기’가 사신들의 흥미를 끌었고, 이들은 공연자를 사관으로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연자는 모두 셋이었다. 그들은 “모두 容儀와 行狀이 용렬해 보였으며, 옷과 모자가 낡고 때 묻은 광대 같은 천한 사람들”<sup>322)</sup>이었다. 여기에서 사신들이 이 예술가들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은 사신들을 놀라게 했다. 공연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과일 접시, 술, 대추, 수박 등이 나타나게 하거나, 사람의 몸에 실을 췌 바늘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등의 묘기를 선보였다. 심지어 사행단 일원을 참여시키기도 했는데, 참여한 사람조차 마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320) 洪大容, 『湛軒燕記·幻術』, “嘗遊琉璃廠, 道左千人擁聚, 挨排不可入. 遙望, 數丈長竿尖銳如錐, 上置徑尺大磁樸, 磨轉良久而不傾下, 觀者齊聲喝采.”

321) 趙維宗, 「“頂碗”漫話」, 『雜技與魔術』2期, 中國雜技家協會, 1998, 21면.

322) 洪大容, 『湛軒燕記·幻術』, “皆儀狀庸迷, 衣帽垢弊, 優伶賤品也.”

여기에서 사신들은 공중에 나타난 물건을 치우는 이유를 추측하며 “요술꾼이 재주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리 밖에서 장치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일이 없고, 요술이 끝나면 돌아간다.”<sup>323)</sup>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마지막에 공연자가 “대개 여러 가지 재주놀이 중에는 거의 손을 민첩하게 놀리는데 연유한 것이다. 그렇게 神怪할 것이 없겠다.”라고 추측한다. 단지 숙련된 연기일 뿐이지 보기에 그렇게까지 신기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그저 연기자의 기량이 대단하다고 감탄한 것이다.

네 명의 사신 중에 박지원은 幻戲의 명칭부터 공연의 다채로움, 幻戲에 따른 삶에 대한 사유까지 다루었다. 그는 幻戲라는 단어의 유래를 고증했을 뿐만이 아니다. 글 말미에, 연기자가 연기를 마칠 때 일부러 허점을 드러내 관객에게 기교를 알려준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의 연기 기교일 뿐이라고 기록하였다.

장차 무슨 요술을 하기 위해 주선할 즈음에, 품속에서 접시 하나가 쟁그랑 하고 땅에 떨어지면서 붉은 대추가 흩어졌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일제히 웃고 요술쟁이도 웃었다. 이내 그릇과 도구를 주워 담아 놀이를 끝냈다. 이는 재주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 날이 저물어서 바로 파하려고 했기에, 일부러 파탄(破綻)하여 여러 사람에게 본래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준 것이다.<sup>324)</sup>

뿐만이 아니라 박지원은 중국의 洪臚寺 少卿 趙光과 함께 幻戲의 ‘幻’ 자를

323) 洪大容, 『湛軒燕記·幻術』, “諸譯言術者將施技, 必前期裝置于外, 不假人而術以致之, 及還出.”

324) 朴趾源, 『熱河日記·幻戲記』, 258면, “周旋之際, 懷中一盤錚然墜地, 赤棗迸散. 眾人齊笑, 幻者亦笑, 收藏器什, 因爲拔戲. 非不能也, 日暮將罷, 故爲破綻以示眾人, 本此假者.”

토론하면서, “오늘 幻術을 구경하였는데, 요술쟁이가 눈속임해서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는 자가 스스로 속은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철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요술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여 그 스스로 현혹되는 것일 뿐이므로, 요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술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이에 趙光은 “幻術의 술법은 비록 천변만화하여도 족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요술이 있으니, 그것은 크게 간사한 자가 충성스러운 체하는 것과 鄉願이면서도 덕행이 있는 체하는 것일 것입니다.”<sup>325)</sup>라고 대답하였다. 환희의 ‘幻’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두 사람의 관점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

325) 朴趾源, 『熱河日記·幻戲記』, 259면, “近日觀幻, 非幻者能眩之, 實觀者自眩爾.” “幻之爲術也, 雖千變萬化, 無足畏者. 天下有可畏之幻, 大奸之似忠也, 鄉願之類德也.”

## V.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형상의 특징

### 1. 기성관념에 따른 이데올로기화된 중국의 형상

비교문학 형상학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단적 상상의 특징을 띤 상상은 ‘社會集團想象物’이라고 불린다. 이는 “한 사회(人種, 敎派, 民族, 行會, 學派 등)에 대해 집단적 묘사의 전체”를 이루기도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었거나 새로 창조한 묘사 전체”를 이루기도 한다.<sup>326)</sup> 따라서 “사회집단상상물”을 연구할 때는, 사회집단상상물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이국적 묘사를 생산한 사회집단의 여러 층위가 드러난다.<sup>327)</sup>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연행사는 18세기 중국의 형상을 묘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빚어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18세기 중국의 형상은 주로 연행사라는 조선 지식인들을 통해서 빚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해석학자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그의 『해석학논문집』에서 “사회적 상상의 다양한 실천은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유토피아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작가의 붓끝에서 이루어지는 異國과 異族의 형상은, 이데올로기화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가가 “자국의 지배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이국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국 문명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태도로 본다는 뜻이다.”<sup>328)</sup> 이는 연행사가 묘사한 18세기의 중국 형상에도 잘 반영되어 있

326)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31면.

327) 위의 책, 31면.

328) 陳淳·劉象愚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2006, 227-228면.

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4명의 연행사는 모두 유교 문화를 신봉하였기 때문에, 蠻族이 지배하는 청나라에 대해 여전히 강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청나라가 100년에 걸친 안정으로 번영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측면에서 여전히 폄하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폴 리코르(Paul Ricoeur)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집단 기억의 연결체로 작용한다. …… 이데올로기 현상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연결 속에 통합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적으로 해석되면서, 이를 통해서 집단이 자신의 존재를 재현하기도 하고, 이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그 내용으로 정의되기보다, 주로 특정 그룹에 끼친 통합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해당 집단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세계사적 위치에 따른 관점에서 외국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이질성의 ‘통합된’ 형상이다.”<sup>329)</sup> 따라서 18세기 연행사가 청나라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이념적 위상을 이해해야 한다.

지식인의 지배적 사상은 조선 건국 이래 견지해 온 유교 사상이다. 정확히는 ‘성리학’이었다. 일찍이 고구려 때부터 중국의 유교 사상이 한반도에 전해져 “그리하여 小獸林王 高丘夫(?-384)의 2년(372)에 秦僧 順道(?)가 高句麗로 나왔으며, 太學을 세워 儒學을 가르쳤다.”<sup>330)</sup> 사회가 발전하면서 유교의 학설이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요한 사상 규범과 행동 준칙이 되었다. 특히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주자 성리학이 李滉(1501-1570)과 李珣(1536-1584)에 의해 절정에 달하여, 성리학이 조선 입국의 근본이 되었고 ‘聖學의 근본’으로 추앙받게 되었다.<sup>331)</sup>

329)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32-33면.

330)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2018, 17면.

331) 『英祖實錄』, 卷五十九, 二十年三月五日(癸未).

성리학은 조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통이자 경전으로 추앙되었다. 영조 26년(1750년, 건륭 15년)에 우의정 鄭羽良은 奏疏에서 理學을 彙編한 『性理大全』을 높이 평가하였다.

학문의 工程은 선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性理大全』<sup>332)</sup>에는 理氣心性의 학설과 風俗是非의 분변 등이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智慮도 늘고 식견도 통달해지며 誠正과 治平이 모두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sup>333)</sup>

이에 따라 조선은 명대의 이학을 전면 수용하여 국가의 정치 생활과 백성의 일상생활을 관철했다.

18세기 전반 조선 양반은 성리학 사상의 指導에 따라 청나라를 배척했다. 이에 조선 지식계에 북벌론이 성행했다. 의리파가 제창한 ‘北伐’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胡兒無百年之運’이라고 홍보했다. 일부 연행사는 북벌론에 맞춰 청나라를 희화화하고, 청나라의 자연재해, 혜성 등 현상을 과장하여 멸망의 징조로 해석하기도 했다. 청나라는 ‘改正朔’<sup>334)</sup>과 ‘薙髮易服’ 등을 추진하여 민족문화의 심리를

332) 『性理大全』이라고도 불리는 『性理大全書』는 명나라 胡廣 등이 칙명을 받들어 편집한 것이다. 明 永樂 13년(1415) 9월에 明 成祖가 직접 서문을 지어 권두에 올려 전국에 간행하였다. 이 책은 송대 이학의 저서와 이학자들의 언론을 모은 것이다. 조선은 명대 성리학을 전면 수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관철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반들의 고행으로 통치 사상인 성리학이 하루 종일 무의미한 논쟁을 벌여 성리학이 활력을 잃고 공허한 이론으로 전락했다. 퇴계, 고봉, 우계 등의 선조들이 학문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던 것이, 당쟁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해치는 도구로 변모하기도 했다.

333) 『英祖實錄』, 卷七十一, 二十六年五月二十五日(丙寅), “學問之工, 自有先後. 『性理大全』 理氣心性之說, 風俗是非之辨, 罔不備載, 觀是書, 則智慮長而識見通, 誠正治平皆從此中做出.”

334) 改正朔은 매년 정월 초하루의 구체적인 시기를 다시 정해 새로운 역법을 공포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고대 통치자들은 종종 새로운 역법의 수립을 개국의 상징으로 삼아 새로운 정권의 권위와 존엄을 구현하였다.

뒤바꾸려 하였는데,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자국을 구하는 공을 세운 명나라를 우방국으로 추앙하였다. 조선은 감정적으로, 청나라의 일련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북벌론’은 조선의 유교 문화를 소중화는 ‘小中華’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소중화 의식은 유교 문화의 尊王攘夷 의식에서 비롯됐다. 孝宗은 1649년(順治帝 6년)에 즉위한 뒤에 북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창하였다. 그래서 북벌을 주장하는 대신을 重用하고, 한성의 병영에 병력을 늘렸다. 이런 방법으로 북벌하여 청나라의 지배를 무너뜨리고자 꾀한 것이었다. 1670년(康熙帝 9년)에 즉위한 肅宗도 적극적으로 북벌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대만의 鄭氏 가문, 그리고 일본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북벌을 실행할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나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sup>335)</sup>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할 수는 없었으나, 조선 사회에서 유행하는 ‘排淸復明’을 옹호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숙종 30년(1704년, 康熙帝 43년) 음력 3월 19일에 명나라 멸망 60주년을 맞아, 숙종을 위시한 조선 정부는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낸 일이 있다. 肅宗은 “宜春門에서 禁苑壇으로 나아가 太牢로 皇帝에게 제사하였다.”<sup>336)</sup> 아울러 제사할 때 사용한 제단을 ‘大報壇’이라고 불렀다.<sup>337)</sup> ‘大報’라는 말은 『禮記·郊特牲』에서 유래하였다. ‘郊大’의 뜻도 있고, 겸하여 報德의 뜻도 있다.

따라서 異國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할 때,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선으로 이국 형상을 그려내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속한 곳의 사상 문화적 입장 위에서 이국 형상,

335) 陳尚勝, 「論朝鮮王朝對明朝的事大觀」, 『第三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9, 932면, 934면.

336) 『肅宗實錄』 卷三十九, 三十年三月十五日(戊午).

337) 吳晗, 『朝鮮王朝實錄中的中國史料』, 第10冊, 中華書局, 1980, 4232면.

이른바 이데올로기화된 이국 형상을 그려낸다. 이런 시각은 본 논문에서 논증한 18세기 연행사 4명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로 물질 경관, 인물 형상 및 종교 신앙 등 여러 측면에서 표현된다.

#### 1) 물질 경관을 대하는 고정된 인식

물질 경관은 첫 번째 공간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연행사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 위에서 그것을 서술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물질 경관은 주관적 색채를 띤다. 예컨대 연행사들은 중국에 이르기 전부터 수많은 고서적과 선배 연행사의 기록을 읽어서, 이미 중국의 山川과 河谷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묘사할 때, 그들은 사회와 인생에 대한 자신의 많은 관점을 표현하게 되고, 삶의 志向과 理想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된다. 묘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나 인문 경관 묘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김창엽, 홍대용, 박지원은 모두 청나라의 마을을 묘사할 때, 민족의 기억이 깊게 깃들여 있는 장소를 언급하였다. 특히 청나라 군대의 진입을 저지하다가 파괴된 옛 성터가 더욱 감회를 일으키는 장소였다. 이의현이 처음 청나라에 출사하여 심양을 지날 때, 한편으로는 심양의 발전상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적 트라우마를 담고 있는 사건을 이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탄식하였다. 심양은 만주족에게는 “龍興之地”에 해당하는 곳이고, 또한 청나라 통치자가 中原으로 들어가 주인이 된 뒤에 남겨진 陪都이기도 하다. 그래서 ‘三代帝王京’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로서 일부 규제가 북경과 같았으며, 도시가 변화하여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변화한 이곳은 연행사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많은 곳이었다. 이의현은 “이곳은 바로 병자년(1636, 인조14)과 정축년(1637) 이후에 昭顯世子와 孝宗大王(당시 鳳林大君)께서 인질로 왔었고, 淸陰과 三學士가 구금되어 있던 지역이다. 관사에서 이분들이 우거한 사실을 물어보았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탄식할 만하다.”<sup>338)</sup>라고 기록하였다. 昭顯世子와 孝宗大王이 인질로 살았던 큰 사건이 이곳에 얽혀 있는데 아무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의현의 안타까움이 엿보인다.

또 다른 예는 안시성과 요동성에 대한 묘사이다. 이 두 도시는 청나라 군이 관내로 진입했을 때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던 곳으로, 명나라 군인들이 이곳에서 청군의 공격에 맞서 죽기로 저항하여 청나라 군이 큰 타격을 입고 큰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 두 성을 함락했을 때, 직접 옛 성을 파괴하고 바로 옆에 새로운 안시성과 요동성을 재건하였다. 바로 이런 두 성을 방문했을 때, 연행사는 새로운 성의 번영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옛 성과 옛 성의 전투에 대해서도 몹시 감개무량하였음을 표현하였다.

김창업과 박지원이 모두 당태종 李世民에게 저항하며 충을 겨눈 안시성 성주 楊萬春의 이야기를 묘사한 것은, 당나라 군대가 고려를 공격한 역사와 분명하게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예는 요동성에 대한 묘사이다. 박지원은 『熱河日記·駟汎隨筆』에서 특별히 「舊遼東記」를 따로 두어 ‘舊遼東’을 언급하였다.

그는 먼저 熊廷弼이 세운 요동의 역사적 유래에 관해 이야기하고, 熊廷弼과 袁崇煥이 청나라 군에 맞서 싸운 무용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명나라 멸망의 원인을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338)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此是丙、丁後, 昭顯世子、孝宗大王來質, 淸陰及三學士被拘之地. 問館萬事實, 竝無知之者, 可歎.”

청나라 군이 관내에 들어온 외적 요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내부의 부패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 “아아, 슬프다. 명나라 말기에 인재를 쓰고 버리기를 거꾸로 하였고, 功과 罪가 분명하지 못했다. 熊廷弼과 袁崇煥의 죽음을 보건대, 스스로 長城을 허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찌 후세에게 비난받지 않으리오.”라고 적었다.<sup>339)</sup>

명나라 말기에는 정치적 부패가 심하여 熊廷弼과 袁崇煥 같은 용감하고 피가 있는 충신들이 중용되지 못하고, 조정의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였다. 만리장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박지원은 청나라가 중원에 입성한 이래로 명나라가 멸망한 내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명나라 멸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 몇 안 되는 견해에 해당한다.

연행사의 청나라 물질 경관에 대한 묘사가 이데올로기화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청나라의 기이한 경관에 대한 묘사, 특히 ‘燕都八景’<sup>340)</sup> 중 ‘薊門煙樹’에 대한 묘사에서 볼 수 있다. 김창업은 특별히 『연행일기』의 『往來總錄』에서 薊門煙樹를 ‘天下第一觀’이라고 칭하였다. 그는 薊門煙樹를 두 번이나 묘사했는데, 豐潤縣을 지날 때 처음 묘사하면서 “십여 리 사이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출렁이는 듯이 보였다. 마치 맴도는 洲渚와 같은 모습이었다. 숲이 모두 물속에 있는 듯이 겹겹이 서로 비쳤는데, 그 광경이 기이하기 그지없다. 처음 보면 바닷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줄이 하는 말이, 이는 바다가 아니라, 이른바 ‘薊門煙樹’라고

339)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32면, “嗚呼! 當皇明末運, 用舍顛倒, 功罪不明. 其視熊廷弼、袁崇煥之死, 可謂自毀其長城矣, 惡可免后代之譏哉.”

340) 燕京八景은 盧溝曉月, 薊門煙樹, 玉泉垂虹, 瓊島春蔭, 金台夕照, 西山晴雪, 居庸疊翠, 太液秋風을 가리킨다. ‘八景’의 설은 金明昌 연간에 시작되었고, 원, 명, 청의 세 왕조를 거쳐 마침내 건륭 시기에 ‘御制’라는 국가의 意志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확립되었다. 이로써 燕京八景이 더욱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李好, 「明清 “燕京八景” 詩 研究」, 南京大學 석사학위논문, 2021, 1면.

하였다.”<sup>341)</sup>라고 하였다.

연행사 일행이 풍운현의 길을 걷다가, 앞쪽 수십 리가 마치 바닷물이 출렁이는 듯하고, 마치 바닷속에 작은 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또 바다에서 숲이 나타나 바닷물과 숲이 서로 어우러진 것 같아서 보기에 매우 좋고 특이했다. 모두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 수행하는 통역사가 바다가 아니라 계문연수라고 알려주었다. 김창업은 계문연수를 풍운현 부근에서뿐 아니라, 玉田에서 薊州에 이르는 길에서도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침 안개가 나무에 얼어 얼음꽃이 되었다. 이른바 ‘계문연수’라는 것이다. 이것이 은색 바다에 구슬 꽃처럼 변하니, 천하의 기이한 경관이다.”<sup>342)</sup>라고 하였다. 김창업의 눈에 비친 계문연수는 수백 리에 걸쳐 펼쳐진 것이었다. 또한 이를 바다의 기이한 경관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은 풍운현이건 옥전현이건 간에 모두 바다에서 백 리 밖으로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 이 계문연수가 몽환적 색채를 띠는 환상적 광경을 빚어낸 것이었다.

김창업보다 조금 늦게 온 이의현은 계문연수를 곧장 신기루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그 위치가 鰲山店에 있다고 하면서, “별산점은 서남쪽 사이의 연무 속에서 한 줄기 긴 숲이 있어서 수백 리 밖에서 은은하게 비추어 보인다. 곧 이른바 ‘계문연수’라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 낀 나무 같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신기루가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참으로 기이한 경관이다. 이것이 燕都八景의 하나이다.”<sup>343)</sup>라고 하였다.

또 홍대용은 薊州 남쪽에 있는 계문연수를 묘사하면서 “남쪽으로 계주

341) 金昌業, 『老稼在燕行日記』, 十二月二十二日, “十數里間, 忽見海水晃漾, 宛有洲渚縈紆之狀. 樹林皆在水中, 重重相映, 光景奇絕, 始見以爲海水. 驛卒言, 此非海也, 乃所謂薊門煙樹也.”

342) 위의 책, 十二月二十四日, “朝霧成木稼, 所謂薊門煙樹, 化爲銀海瓊花, 天下奇觀也.”

343)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鰲山店, 望見西南間煙霧中, 有一帶長林, 隱映數百里外, 卽所謂‘薊門煙樹’也. 遠而望之, 宛如云樹, 迫而察之, 无所見, 如蜃樓之起滅于空中, 眞奇觀也. 此爲燕都八景之一.”

평야[薊野] 수백 리가 이어졌는데, 烟樹가 보일 듯 말듯 아물거렸다. 그 신기하고 황홀한 광경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홍대용이 기록한 계문연수는, 그가 계주의 盤山에 오를 때 본 것이다. 반산은 계주 북서쪽에 있다. 그는 반산의 명소 중 하나인 盤石에 올라, 남쪽으로 수백 리에 걸쳐 모락모락 烟波가 피어오르는 ‘끝없는 연수[無邊煙樹]’의 환상적 광경을 목격하였다.

세 사신이 묘사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永平府에서 북경에 이르는 수백 리 길에 계문연수가 이어지고, 풍운현, 옥전현, 별산점에서 계주에 이르는 사이에도 역시 계문연수가 존재한다. 이것이 실경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여 詩人이 신기루처럼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계문연수에 대한 세 연행사의 인식은 청나라 지식인의 인식과 전혀 달랐다. 청나라 지식인은 계문연수가 북경 외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실경이라고 보았다. 이미 명나라 永樂 연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계문은 옛 성의 북서쪽 구석에 있다. 성문 밖에는 예전에 樓館들이 있어서 조각하고 채색한 난간과 마루가 허공으로 치솟아 있었다.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이곳을 왕래하다가 시가로 읊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문만 남아 있다. 흙으로 덮인 두 언덕 사이에 나무가 울창하고, 맑은 안개가 허공을 덮어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문연수’라고 한다.<sup>344)</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계문의 위치와 ‘계문연수’로 이름 붙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 지리 위치가 북경 옛 성의 북서쪽에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나무였다. 그런데 사신들은 도리어 이를 “신기루 [海市蜃樓]”라고 하면서, “그 지리 위치는

---

344) 于敏中 等, 『日下舊聞考』 卷八, 北京古籍出版社, 2000, 124면.

薊州를 중심으로 하면서 通州, 三河, 玉田, 豐潤의 광대한 지역으로 확장되고, 심지어 천여 리 떨어진 遼野의 烟樹도 계문연수의 범위에 포함된다.”<sup>345)</sup>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사신들이 계문연수의 풍경을 묘사하고 그 지리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모두 주관적 경향이 강하고, 일정한 가치 인식의 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명백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인물에 대한 이데올로기화된 인식

인물 형상은 이국 형상 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연행사들은 청나라에 입국한 이후 청나라의 황제와 문무백관, 그리고 서민에 이르는 많은 인물을 묘사하였다. 그 가운데 특이한 집단 중 하나가 중원에 들어와 청나라의 지배계층이 된 만주족 집단이다. 연행사들은 만주족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함께 자신의 문화(사회적 집단상상물)에 영향을 받은 이데올로기화된 묘사를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만주족 여성에 대한 묘사이다.

김창업, 이의현, 홍대용, 박지원이 출사한 18세기는 조선의 상처받은 기억과 명나라에 대한 심경의 영향으로 연행사들이 청나라에 대해 비판적 시선과 문화적 우월감을 띠던 시기이다.

한편으로 만주족이 조선에서 ‘丁卯胡亂’과 ‘丙子胡亂’을 벌였다. 특히 뒤에 벌어진 ‘虜亂’이 조선 전체에 재앙을 끼쳤다. 이 때문에 연행사들은 만주족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만주족은 북방의

---

345) 趙瑤瑤, 「被塑造的景觀：朝鮮朝使臣眼中的“薊門煙樹”」, 『東疆學刊』 Vol.37, No.4,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20, 22면.

야만족으로서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여기고, 조선이 유가 문화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여겼다. 박지원은 朴明源의 사촌 동생으로서 연행사를 따라 북경에 이르렀다. 그때 청나라 선비들과 필담을 나누던 중에 조선의 4가지 좋은 점을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비록 외지고 바다를 끼고 있으나, 네 가지 좋은 것이 있다. 유교를 따름이 첫 번째이고, 재난이 없음이 두 번째이고, 물고기와 소금이 풍부하여 타국의 것을 들여오지 않음이 세 번째이고, 여자가 남편을 바꾸지 않음이 네 번째이다.<sup>346)</sup>

위 말을 통해 박지원이 유교 문화적 입장을 갖고 자신과 타인을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네 연행사가 붓으로 기록한 만주족 여성에 대한 묘사는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앞에서 만주족 여성의 활발하고 밝은 성격, 우월한 가정과 사회적 지위에 감탄한 사실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유교적 입장에 따라 만주족 여성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비판도 많이 하였다.

여자는 본래 조용하고 현숙함을 아름다움으로 삼아야 하지만, 만주족 여자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귀밑머리에 꽃을 꽂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드러내었다. 또 남자를 피하지 않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다. 심지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대담하게 연행 사신의 행동을 관찰하기까지 하였다. 여자는 본래 남편을 존경하고 자신을 첩이라고 지칭하며, 뜨개질하고, 남편을 받들어 모시고, 자녀를 잘 교육해야

---

346) 朴趾源, 『熱河日記·太學留館錄』, 131면, “敝邦雖僻居海陬, 亦有四佳. 俗尚儒教, 一佳也. 地无河患, 二佳也. 魚鹽不藉他國, 三佳也. 女子不更二夫, 四佳也.”

하는데, 만주족 여자는 편하게 놀기만 하고, 방아를 찧고, 물을 길고, 뜨개질하는 일을 모두 남자가 대신했다. “남자가 밭을 경작하고, 여자가 옷감을 짜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유교의 ‘禮儀忠順’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禮儀忠順’은 유교 윤리 체계의 핵심으로, 남녀 관계는 윤리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이 고대 유교 문화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부부관계는 고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으로서, 군주와 신하 관계로 비유되기도 했다. 또한 문화,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의미가 있다. 연행사가 ‘예의충순’을 강조한 것은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자, 명 왕조에 대한 추모이며, 조선이 침략당하고 점령당한 것에 대한 개탄이다. 연행록에 나온 만주족 여성상은 조선의 연행사들의 굴욕감을 반영하고 있다.<sup>347)</sup> 연행사는 유교 문화적인 입장에서 만주족 여성을 묘사했으며, 만주족 여성이 유교 문화의 사상적 규범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반드시 단정하고 얌전해야 했다. ‘男女有別’과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각자 지켜야 할 규범이 있음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세 명의 연행사가 여정 중에 마주친 여자들은,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여성이 갖추어야 할 미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여성이라는 자각 없이 남자처럼 낯선 남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담배를 피우고, 남자를 피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의현은 연행 중에 목격한 만주족 여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

347) 姚曉娟, 「朝鮮時代“燕行錄”與清代滿族女子的域外鏡像」, 『湖北民族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 6, 湖北民族大學, 2010, 133면.

역졸들을 피하지 않고, 같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무릎을 맞대며, 남자를 피하지 않았다. 실로 우습다.<sup>348)</sup>

김창업은 북경으로 가는 길에 방문한 “貴家를 위해 무덤을 지키는 자”인 만주족 가정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였다. 이 집의 여성은 남자를 피하지 않고, 여성적인 모습이 없어서 연행사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 여성은 서른살로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는데, 겉으로는 자중하는 듯했으나 겉눈질로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남편은 별다른 동요 없이 방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sup>349)</sup>

김창업은 남성을 피하지 않는 만주족 여성들이 예의를 모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적 입장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그는 만주족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한족 여성의 지위가 비천한 것과 달리 만주족 여성은 샤머니즘과 모계 중심 사회의 영향을 받아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이는 남존여비의 전통을 가진 조선 사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

만주족 여성들은 남성처럼 같이 앉아 식사하고 자유롭게 외출했으며, 남자처럼 말을 타는 등 성별에 따른 제약이 없었다. “여자가 채찍을 들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남자와 다를 바가 없다. [女人執鞭馳馬, 不異於男.]”라고 하였다. 또 황실의 귀족 여성도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하였는데, “공주가 올해 열한 살인데, 말을 탈 줄 안다. [公主今方十一歲, 亦能跨馬而來.]”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창업은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만주족 여성의 시원스럽고 활발한

348)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驛卒輩則不避之, 至與之雜坐吸煙, 接膝交手, 而不以爲嫌, 亦可笑也.”

349) 金昌業, 『老稼在燕行日記』, 十二月二十七日, “其女年幾三十, 而冶容甚, 外似矜持, 而頗類偷眼視人, 其態可惡. 其夫終始相守不暫動, 顯有防閑之意.”

성격과 남자를 결혼질로 바라보는 점을 싫어했다. 심지어 이러한 만주족 여성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했다.<sup>350)</sup>

사실 오늘날 만주족 여성의 아름답고 명랑하며 대범한 성격은, 바로 그들의 선명한 특징이며, 그들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교 문화의 입장에서 그들은 여성의 행동 준칙을 어김으로써 비판의 대상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이데올로기화된 비판이다.

### 3) 유불선의 사상 추이에 대한 세태 비판

4명의 연행사가 청나라인의 신앙 문제에 관해 기록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 하나는 청나라의 廟宇와 道觀이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웅장함에 감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교와 도교에 대한 청나라인의 집착을 은연중에 비판한 것이다. 당시 조선은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가 사상을 행동 준칙으로 삼았다. 민간에서도 유가의 도덕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박지원의 말에 따르면, “온 나라 풍속이 유교를 숭상함 [俗尙儒教]”이 조선의 ‘4가지 좋은 점 [四佳]’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이었다. 유교를 존중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는 것은, 이미 조선 지식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것이 아울러 청나라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4명의 연행사는 18세기 청나라 민중의 종교 신앙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使行의 여정 중에서 연행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廟宇와 道觀에 특별히 주목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나라 민중의 신앙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기

---

350) 金昌業, 『老稼在燕行日記』, 一月初一日.

때문이다. 청나라의 사찰과 도관은 그 수가 많고 장식이 화려한 특징이 있었다. 김창업은 사행 길에서 청나라의 사찰과 도관이 몹시 많은 것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의현도 “마을이 있으면 반드시 사찰이 있고 사당이 있었다. 예컨대 遼陽과 瀋陽, 山海關 등 지역에 가장 많았다. 북경은 성 안팎으로 사찰과 道觀이 있어 거의 인가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sup>351)</sup>라고 하였다. 이의현은 사찰이 얼마나 많은지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요양, 심양, 산해관 등 지역에 가장 많다고 하였다. 또 북경의 경우는 사찰의 수가 인가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청나라 민중이 神佛을 숭배하였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연행사가 보기에, 절에 있는 승려들은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거나 도를 깨달은 자들이 아니었다. 그 승려들은 모두 “글을 알지 못하고 완고하며 무뚝뚝하고 공손하지 못하여 승려로서 수양하거나 근신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sup>352)</sup> 자들이었다. 사신의 시각에서 볼 때, 청나라 민중 사이에서 神佛을 숭배하는 풍조가 성행했다. 하지만 사찰의 승려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道를 논할 수 있는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자가 아니었다.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수양도 하지 않는 추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신들은 청나라의 많은 사찰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신앙에 불교와 도교가 뒤섞여 있다고 기록하면서 “집마다 關帝의 화상을 모시고 조석으로 향을 피웠다. 상집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關帝廟에는 반드시 부처를 모시고, 사찰에서도 반드시 관제를 모셨는데, 승려들이 한결같이 이를 받든다.”<sup>353)</sup>라고 기록했다. 도교는 청나라의 전통 종교인데, 불교가 오래 전해지면서 서로 섞이게 되었고 민간신앙과도 융합되었다. 18세기의

351)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有村, 必有寺有廟, 如遼陽、瀋陽、山海關等處最多. 至北京城內外, 寺觀比人家, 幾居三分之一.”

352) 위의 책, “其僧皆不識文字, 而玩梗不恭, 全無釋子修謹貌樣.”

353)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家家奉關帝畫像, 朝夕焚香, 店肆皆然. 關帝廟必供佛, 佛寺必供關帝, 爲僧者一體尊奉, 曾無分別.”

關羽(관제) 숭배가 좋은 사례이다.

김창업은 이렇게 종교가 혼합된 상황을 기록했다. 연행사 일행이 머물던 東關驛의 역참 동쪽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다.

정문에는 사천왕이 있고 전 위에 佛像과 十羅漢이 있는데, 모두 정신이 어려 있고 채색이 정교하다. 전에 본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동서 행랑채에 각기 塑像이 있는데, 그중에 關帝가 있었다. 또 아름다운 소년의 상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二郎神이다”라고 승려가 말하였다.<sup>354)</sup>

이 절은 원래 불교 사찰이지만, 도교의 二郎神과 민간에서 신봉하는 關羽가 함께 있었다. 당시 중국인들의 신앙이 융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경의 사찰과 도관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었다. 특히 불교는 이미 세속화된 경향이 있었다. 홍대용의 연행작품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雍和宮과 弘仁寺에 있는 승려가 이미 수천 명이다. 거동과 용모가 모두 거만하고 무서워 山人의 氣味라고는 전혀 없었다. 라마의 신비와 이적은 역시 없어진 듯하였다.<sup>355)</sup>

---

35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六日, “門有四天王, 殿上佛像及十羅漢, 皆有精神, 設彩精工, 殆非前見之比. 東西廊各有塑像, 其中有關帝. 又有一美少年僧, 言是二郎神也.”

355) 洪大容, 『湛軒燕記·寺觀』, “其(喇嘛)在雍和宮, 弘仁寺者, 已數千人, 皆儀貌侈悍, 全無山人氣味. 喇嘛神異之蹟, 想亦衰矣.”

북경의 사찰이 세속화됐을 뿐 아니었다. 김창업은 걸어오면서 수많은 극장(戲子屋)이 사관 옆에 붙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봤다. 寧遠의 西門 안에 다채롭게 채색한 누각이 한 채 있었는데, 따르던 관리들이 이를 ‘戲子屋’이라고 칭했다. 김창업은 이에 대해 “여기서부터 시가가 변화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집이 많았는데, 반드시 사찰과 도관의 문 앞에 있었다. 아로새긴 용마루와 단청한 기둥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중국의 사치스러운 풍속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sup>356</sup>)라고 하였다. 김창업의 기록을 보면 영원에 있을 때부터 시읍면 대부분에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은 보통 사관 옆에 있어 당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원은 청정한 장소인데 오히려 옆에 극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초에 중국의 사관이 세속화되었고, 사치스러운 풍조가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통치자나 민간이나 모두 그러했음을 알 수 있다.

절의 세속화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연행작품에도 묘사되어 있다. 북경 宣武門 밖에 있는 報國寺가 상업화된 사찰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사찰에서 한 달에 두 번 장이 서는데, 승려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보통 북경에 장사하러 온 상인이거나 여행객이었다. 보국사의 第一殿에는 ‘一塵不到’라고 적은 편액이 있다. 본래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한 불문 성지인 곳인데, 이제 시끄럽게 교역을 벌이는 상품 집산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사찰이 세속화하고 상업화한 추세를 보여준다.

청나라가 불교, 특히 티베트 불교를 추앙하고, 특히 라마를 추앙하였다. 이는 통치자의 정치적 책략과도 관련이 있다. 박지원은 『熱河日記·黃教問答』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35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十六日, “自是凡市鎮熱鬧, 去處多有此屋, 而亦必在於寺觀門前, 雕甍畫棟, 照耀街路, 中國侈靡之俗, 此亦可見.”

황제는 西番의 僧王을 맞아다가 스승으로 삼고 황금으로 전각을 지어 그를 살게 하였다. 천자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참람한 예절을 쓰는 것일까. 명목은 ‘스승’으로 대접하는 것이지만, 그 실상은 전각 속에 가두어 두고서 하루라도 세상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西番이 蒙古보다도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일은 황제의 마음이 이미 괴로움을 보여준다.<sup>357)</sup>

이곳에서 말한 西番의 僧王은 티베트 라마교의 종교 지도자이다. 이른바 판첸(班禪)을 가리킨다. 판첸에 대한 청나라 통치자들의 추앙은 국경의 안정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판첸을 북경으로 불러들여 황금옥에 연금하는 회유책으로 티베트를 달래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연행사들은 청나라 민중의 신앙 상황뿐 아니라 유가와 불교에 대한 청나라 지식인의 태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연행사들은 儒家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지식인의 불교 숭배에 반대했다. 예컨대 홍대용은 청나라 지식인과 필담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멀리하고 유가의 정수를 익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乾淨衞筆談』에서 “문장과 인품이 탁월하여 전할 만하다”라고 평가받는 西林先生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홍대용은 감탄하면서 “그 성덕과 지행은 사람을 감발하게 한다. 다만 그가 佞佛하는 것이 몹시 애석하다.”<sup>358)</sup>라고 하였다. 홍대용의 눈에는 이처럼 덕과 재능을 겸비한 유가 지식인의 불교 숭배가 참으로 애석하게 여겨졌다.

함께 필담을 나누던 秀才 嚴誠은 자신도 가끔 밤을 새워 불경을 보는데,

357) 『熱河日記·黃教問答』, 165면, “皇帝迎西番僧王爲師, 建黃金殿以居其王, 天子何苦而爲此非常僭侈之禮乎? 名爲待師, 而其實囚之金殿之中, 以祈一日之無事, 然則西番之尤強於蒙古可知也. 此二者, 皇帝之心已苦矣.”

358) 洪大容, 『湛軒燕記·幹淨衞筆談』, 二月初八日, “其盛德至行, 令人感發, 但其佞佛, 極是可惜.”

유가는 불교의 정수를 흡수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교 문화의 강력한 포용과 흡수 능력을 여로써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대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장점을 취하여 나의 마음 다스리는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면, 무엇이 나쁘겠는가? 다만 淫聲과 美色처럼 차츰차츰 그 속에 빠질까 봐 두려울 뿐이다.”<sup>359)</sup>라고 하였다. 홍대용이 볼 때 유가가 불교의 장점을 아무리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淫聲 美色처럼 안 좋은 것이 점차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홍대용을 비롯한 연행사들이 불교를 배척하는 태도는, 이들이 이국 형상을 묘사할 때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방인 여행자로서 글을 쓰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글쓰기 대상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영국 학자 존 어리(John Urry)는, 보는 주체로서의 글쓰기 주체가 작용하는 한 가지 역할에 대해 밝히면서 “시선은 여행자가 ‘타자’와 마주치는 수단이 되어, 여행객에게 일종의 성취감과 쾌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낼 수 있게 한다.”<sup>360)</sup>라고 하였다. 18세기 중국의 형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행사의 우월감이 자신의 처지와도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게 된 이후로 한족과 만주족의 관계가 바뀌었다. 유교 문화를 표방하는 한족에서 샤머니즘을 표방하는 만주족으로 지배계급이 바뀐 것은, 유교 문화를 숭상하던 연행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역사를 둘러싸고 청나라 초기에 조선은 이를 후계 관계가 아닌 단절 관계로 보았다. 대규모 인원이 滿淸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만주족에 대해 이런

359) 洪大容, 『湛軒燕記·幹淨衛筆談』, “取其長, 以補吾治心之功, 亦何傷乎. 但恐如淫聲美色之駭駭然入其中矣.”

360) (英) 約翰·厄裏, 喬納·森拉森, 『遊客凝視』, 楊慧·趙玉中·王慶玲等 譯,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198면.

인식은 연행록 저자에게 첫 번째 기대 시야를 주었다.”<sup>361)</sup>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교 문화의 가치관을 가진 연행사들은 만주 통치하의 중국 형상을 부정하고 비판하였다.

---

361) 李根碩, 「朝鮮的中國想像與體驗從17世紀到19世紀-以“燕行錄”爲中心」,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15면.

## 2. 여행을 계기로 형성된 유토피아화된 중국 형상

여행 문학은 이국 형상에 자아를 복제하거나 새로운 환상을 창조하는 전통이 있다.<sup>362)</sup> 여행작품도 어떤 의미에서 여행 문학의 일종으로, 여행사가 이국 형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집단적 상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점은 크게 이데올로기화와 유토피아화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데올로기화된 묘사는 이국을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로 보는 것이고, 유토피아화된 묘사는 이국이라는 매개를 빌려 이상적 자아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평가는 이데올로기화된 묘사이고, 이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찬양적 평가는 다소 유토피아화된 묘사라고 부른다. 본질적으로 18세기 중국에 대한 여행사의 찬사와 긍정의 평가는 모두 조선 사대부가 자신의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학습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18세기 조선 사회는 “봉건사회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돌아섰다.”<sup>363)</sup> 1592년에 ‘壬辰倭亂’이 발생하고, 1627년과 1636년에는 女眞人이 세운 後金 정권(1636년 ‘칭나라’로 개칭)의 침입을 받아 정치, 경제, 사회에 큰 피해를 보았다. 사회생산이 크게 파괴되고 전후 재건과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했다. 18세기 조선의 사회생산이 회복되고 현대적 의미의 상품경제가 시작되면서, 점차 국제무역이 활발해졌다. 주로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였다. 그러나 선비와 부유한 상인들의 富 축적 및 토지 검병과 토지상품화로 인한 流民 문제는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원은 『限民名田議』라는 政論을 발표하여 토지 문제에

362) 洪思慧, 「晚清西方漫遊者對中國城市社會空間的凝視維度」, 『蘇州教育學院學報』 Vol.3 5, No.2, 蘇州教育學院, 2018, 72면.

363) 張麗娜, 「『熱河日記』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9면.

관한 견해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귀족 양반과 평민 간의 신분 제한이나 嫡庶를 差別하는 등의 엄격한 신분제도에 균열이 생기고, 상품경제 발전에 따라 계층과 신분 간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각종 사회적 신분 간에 경계가 날로 모호해지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正祖 때부터 시작된 勳戚跋扈와 관가의 부패는 18세기 조선 정치가 낡은 병폐였다. 이는 한국의 저명한 한학 전문가 李家源 교수의 말과 다르지 않다.

조선의 전 시대를 통틀어 국가적 大失策을 유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① 太祖의 西北人 廢棄 정책
- ② 太宗의 庶孽枳塞
- ③ 仁祖의 野黨禁錮<sup>364)</sup>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강대국에 침략당하는 아픈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격려하였다. 한편으로는 문학작품으로 민간의 고통을 반영하고 경제, 정치 등 사회개혁 방안을 논의하여, 조선이 국제적 형세와 국내 발전에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의 실학과 운동을 촉발한 계기는 ‘西學’<sup>365)</sup>과 ‘北學’으로, 이는 유럽의

---

364)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2018, 280면.

365) 조선에 서학이 전래한 경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경로 중 하나가 곧 청나라에 파견한 燕行使이다. 북경은 서학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燕行使의 작품에는 燕行使가 북경에서 서인의 서학을 접한 기록과 중국 지식인과 서학을 논의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홍대용과 박지원 모두 방문 당시에 견문한 선교사와 관련된 문물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과학 기술 문화와 중국 청나라의 문명에서 유래한 것이다.”<sup>366)</sup> 명나라가 멸망하자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 큰 분노와 소외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청나라는 중원에 입성한 후로 100년 동안의 노력으로 사회경제를 회복시키고 백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변화로 인해 조선도 康熙, 雍正, 乾隆 3대 왕조에 걸친 선진적 기술 발전에 따른 긍정적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분노하고 소외하던 태도에서 점차 학습하는 태도를 전환하게 되었다. 여전히 달갑지는 않지만, 청나라의 앞선 기술을 배워 자국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생각이, 박지원의 『熱河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진실로 이적을 물리치려 한다면, 중화의 遺法을 전부 배워서 먼저 우리나라의 유치한 풍속을 변화시킴보다 좋은 일이 없다. 밭농사, 양잠과 도기를 빚고 쇠를 다루는 일에서부터 공업과 상업에 이르기 까지도 배우지 않음이 없다.<sup>367)</sup>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선진기술을 배우되, 우선 농업, 상업, 수공업, 군사 등을 배워서 자국을 강대하게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박지원의 『熱河日記』의 중심 사상이다.

한편으로 청나라 사회의 공간 형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색채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이질적으로 대비되는데, 이는 연행사의 신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대체로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학습하는 마음으로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를 관찰하고

366) 張麗娜, 「『熱河日記』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25면.

367) 朴趾源, 61면, “故今之人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椎魯. 自耕蠶陶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焉.”

기록하여 국가의 강대함과 발전을 도모했다. 파조(Daniel-Henri Pageaux)는 “형상란 문화적 현실에 대한 묘사이며, 이를 통해 그 형상을 만드는(또는 찬성, 홍보) 개인이나 집단이 기꺼이 있을 수 있는 허구의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공간을 나타내거나 표현한다.”<sup>368)</sup>라고 말했다. 특별한 역사 배경으로 인해, 연행사들은 청나라 사회 공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대부분 청나라의 물질 경제와 기술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 측면에서는 만주족이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첫째, 청나라의 광활한 영토와 거대한 도시 규모, 변화한 도시 때문에 연행사들은 감탄했다. 연행 문헌에서 거의 모든 연행사는 청나라의 거대한 도시 규모, 넓은 거리, 변화한 시장, 변화한 상업 및 무역에 대해 간략하거나 자세히 언급하였고, 심양과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김창업은 청나라의 거대한 도시 규모에 대해 대략적인 언급을 하면서 도시 면적, 건축자재, 성벽 높이, 외부 金碧照明 등 중국 도시 규모의 웅장<sup>369)</sup>함을 설명했다.

이의현은 처음 盛京에 입성했을 때, “이곳은 盛京이라고 한다. 성은 方形으로 2리가 되는데, 한쪽에 각각 문이 2개가 있어서 모두 8개의 문이 있다. 또한 門路가 가로세로로 성안을 꿰뚫어서 마치 ‘井’ 자 모양을 하고 있다. 남과 북의 두 길이 동과 서의 두 길과 서로 교차하는 곳에는 모두

368)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156면.

369)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山川風俗總錄』, “北京城周四十里, 南邊重城, 周二十八里. 通州城周八九里, 西有重城. 薊州城, 永平府城, 周俱八九里, 而无羅城. 錦州衛城周八里, 東有羅城. 寧遠衛有內外城, 周八里. 山海關城周七里許, 有東西羅城. 沈陽有內外城, 外土城, 內城周八里. 中右所, 中後所, 前屯衛, 中前所等處, 城周與錦州衛相等. 凡城皆甃筑, 而高三丈以上. 山海關最壯, 撫寧縣, 玉田縣, 丰潤縣, 三河縣及諸驛堡, 莫不有城, 而其高皆不下三丈. 縣以上, 城皆有十字街樓, 二檐或三檐, 金碧照曜半空.”

十字樓閣이 서 있다. 민가가 즐비하며, 시장이 풍성하고 사치스럽다.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한다.”라고 말했다.<sup>370)</sup>

심양은 청나라 사람이 중원에 입성하기 전에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기 때문에 규제는 연경과 비슷했다. 관내(중국 동북 지방)의 제1의 성으로서 변화하여 연행사 이의현을 놀라게 했다. 당시에 대도시 심양은 물론 주변 도시도 변화하였다. 박지원은 “천천히 문밖으로 나섰다. 그 변화함과 부유함이 비록 연경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 길 좌우에 즐비하게 늘어선 점방들은 모두 아로새긴 들창과 비단을 드리운 문, 그림 그린 기둥, 붉게 칠한 난간, 푸른 柱聯, 황금빛 현판들이 현란하게 눈부실 지경이다.”<sup>371)</sup>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청나라 국경의 작은 마을이 이처럼 변화할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북경의 변화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시장이다. “북경의 시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월에서 선달까지 거의 며칠 간격으로 다양한 廟市가 열려 시장이 차지하는 지역을 크게 확장하였다.”<sup>372)</sup> 연행사는 대부분 문화 수준이 높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시의 문화 분위기가 짙은 유리창에 관심이 많았다. 홍대용은 북경 유리창의 변화한 광경에 대해 “시장의 전체 길이는 5리쯤 된다. 비록 누각과 난간이 다른 시장처럼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보배스럽고 괴상하고 기이하고 교묘한 물건들이 넘쳐서 흐를 만큼 벌여서 쌓여 있다. 시장

37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此處號稱盛京, 城方可二里, 而每方各二門, 共八門. 門路縱橫貫城中, 如井字狀. 南北兩門路與東西門交界處, 皆有十字樓. 閭舍櫛比, 市肆丰侈, 人物繁衆, 頓令人異觀.”

371)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15면, “緩步出門, 繁華富麗, 雖到皇京想不更加, 不意中國之若是其盛也. 左右市廛, 連互輝耀, 皆彫窗綺戶, 畫棟朱欄, 碧榜金扁, 所居物皆內地奇貨. 邊門僻輿之地, 乃有精鑒雅識也.”

372) 劉靜, 「從“燕行錄”看18世紀中國北方市集」, 『北京社會科學』 第3期, 北京市社會科學院, 2006, 34면.

위치도 古雅하였다. 책 가게는 일곱 곳이 있다. …… 한 점포 안의 책만도 수만 권이나 되어 고개를 들고 한참 있으면 책 이름을 다 보기도 전에 눈이 먼저 핑 돌아 침침해진다.”<sup>373)</sup>라고 하였다. 시장은 규모가 ‘5리’일 뿐만 아니라, 길을 따라 서서히 걸어가면 마치 페르시아[波斯]의 보물 시장에 들어간 것처럼 그저 황홀하고 찬란하기만 하다. 종일 다녀야 물건 하나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다. 서점의 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청나라에 대한 연행사의 평가는 홍대용의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홍대용은 “또 내가 중국에 들어와서 보니, 지방이 크고 풍물이 성대하여 일마다 기쁘고 건마다 정묘하다.”<sup>374)</sup>라고 평가하였다. 홍대용의 평가는 과장된 뉘앙스가 짙어 유토피아적 색채가 강하다.

둘째, 18세기 중국의 선진기술은 연행사에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였다. 김창업은 당시 중국의 앞선 기술과 수공업용 기구가 매우 편리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그 밖에도 갖가지 工匠들이 큰 나무로 수레를 만들고 의자와 탁자를 만드는 것과 납, 철, 구리, 주석 등을 두들겨 그릇을 만드는 것과 쌀을 갈고 옷을 꿰매며 숨을 타는 따위의 것이 이것저것 모두 마련되어 있다. 기계가 편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 열 사람의 몫을 겸할 수 있었다.”<sup>375)</sup>라고 하였다. 처음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의현은 청나라의 여러 지방과 본국의 사정을 비교하여 도시 규모, 성벽 규제, 성내 민가 건축 양식으로부터 창조지, 기와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벽돌을 만들려고 해도 工役이 몹시 거창해서 많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373) 洪大容, 『湛軒燕記·琉璃廠』, “蓋一市長可五裏, 雖其樓欄之豪侈, 不及他市, 珍恠奇巧, 充溢羅積, 位置古雅, 遵道徐步, 如入波斯寶市, 只見其環然燦然而已. 終日行不能鑒賞一物也. 書肆有七, …… 量一肆之書, 已不下數萬卷, 仰面良久, 不能遍省其標號, 而眼已眩昏矣.”

374) 洪大容, 『湛軒燕記·幹沌淨洞筆淡』, “入中國地方之大, 風物之盛, 事事可喜, 件件精好.”

37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初七日, “各色工匠, 如巨木造車造棺造椅卓, 打造鐵器, 錫器及磨米縫衣彈綿花之類, 種種皆有, 而器械無不便利, 一人所爲, 可兼我國十人之事.”

燕中에서는 잠깐 사이에 능히 만들어 내고 또 몹시 견고하다. 흙이 우리나라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工人들이 묘한 방법을 알아서 그런 것인가?”<sup>376)</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도자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하면서 “또 磁器에 그린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희미한 것이 많다. 그런데 燕中の 그릇은 마치 가는 붓으로 그려서 만든 것과 같아서, 실이나 터럭만큼 가느다란 것도 자세하여 분명하다. 또한 구워 만드는 기술이 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sup>377)</sup>”라고 말했다. 청나라에서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양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도 비록 소위 육초[肉燭]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정밀한 정도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sup>378)</sup>”라고 하였다. 북경의 도시 모습을 평가하며 “도량과 오물이 없는” 북경 거리의 깨끗함과 깔끔함에 감탄했다. 청나라의 선진기술에 대한 홍대용의 전반적인 소감은 “중국의 기물(器物)들은 오로지 편리한 것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구차하게 경솔히 만들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다.<sup>379)</sup>

박지원은 연행작품에서 청나라의 벽돌 굽기 기술, 수레 제작 기술, 축산 기술을 모두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를 관찰한 목적이 空談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이른바 이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허황한 이야기일 뿐이지 않은가.”라고 하여 남의 장점을 취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 성곽, 궁실, 경작, 목축, 陶冶 등 이용후생의 모든 방법이 그 안에 있으니, 이는 立言하고 設教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80)</sup> 利用厚生과 立言設教가 목적인 박지원은 城郭宮室과 耕牧陶冶에

376)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我國雖或造成甄甃, 工役甚巨, 不能多造, 而燕中則頃刻能造, 又甚堅韌. 豈土品勝於我國而然耶? 抑由於工人之得其妙耶?”

377)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且磁器所畫, 我國則例多熹微, 而燕中之器, 如以細筆畫成絲發之微, 曲折分明, 亦可見燔造之美矣.”

378) 위의 책, “我國雖有所謂肉燭, 而製造之精, 大不及此.”

379) 洪大容, 『湛軒燕記·器用』, “大抵中國器物, 專事便利, 不如東俗之苟率也.”

380) 朴趾源, 『熱河日記·序』, 2면, “其所謂談理者, 豈空談悅(恍)惚而已耶? 風謠習尚, 有關治

주목했고, 이런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자국의 실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자’ 형상에 대한 긍정의 형상학적 의미는, 공간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이거나, 때로는 자아 존재와 타자의 동종현상에 대한 긍정이나 찬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의현은 寧遠街를 지나다가 祖大壽와 祖大樂의 패루를 보고 그들의 증조가 모두 名將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증조 鎮과 조부 仁과 부친 承訓이 모두 명장이다. 承訓은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구한 공이 있다.”<sup>381)</sup>라고 밝혔다. 그러나 大壽와 大樂이 한 때의 명리를 구하기 위해 명나라를 배반하였다. 이의현의 말은 祖家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조가 형제가 청이 중원에 들어올 때 지조를 잃은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명나라에 대한 추모와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 것이며, 연행사의 지조를 다른 방식으로 긍정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 평가는 변증법적으로 살핌으로써 과장되지 않은 부분과 이상화된 색채를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는 여행 문학의 전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평가의 신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덕적 평가는 다양성과 불확정성을 띠고 있어, 도덕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국의 분위기나 외국인 형상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기본적 대립에 관한 변화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다.”<sup>382)</sup>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행사의 중국 향상에 대한 묘사는 이데올로기화와 유토피아화가 양립하는 두 가지의 글쓰기 태도를 보인다. 두 가지의 대립과 통일은 같은 사물을 달리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향상에 대한 연행사의 글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토대 위에서,

忽. 城郭宮室、耕牧陶冶, 一切利用厚生之道皆左(在) 其中, 始不悖於立言設教之旨矣.”

381)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其曾祖鎮祖仁父承訓, 具爲名將, 而承訓壬辰救我國有功.”

382)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225면.

서로를 포괄하고 종합적으로 재현하는 형상을 생성한다.

## VII. 結 論

4명의 연행사가 청나라의 사회 공간에 들어선 후 가장 먼저 본 것은 청나라 사회의 물질적 공간이었다. 청나라의 물질적 공간 속 자연 풍광과 성곽, 국경의 험준한 모습에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사진으로서 여정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청나라의 특색과 풍습을 접하게 되었다. 그들이 기록한 청나라인, 청나라인의 민속 문화, 경제적 삶과 여가 생활에 대한 묘사하다. 다채로운 중국 형상을 묘사했다. 그렇지만 연행사들은 중국 형상에 대한 묘사가 양면적이었다. 그들은 중국의 이름다운 산천과 명승고적을 볼 때 4명 연행사가 모두 긍정과 칭찬을 주는 한편 험하고 수려한 산봉이나 중국 도시의 변화함과 화려함을 감탄한다. 18세기의 연행사들에게는 중화 [中華]은 여전히 예전에 그들을 동경하고 사랑하게 하는 중화인데 거기의 산천과 하류가 그대로 있고 조용히 제자리에 있기만 한다.

그런데 사행 계속함에 따라 연행사들이 뭔가 중화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예전에 알던 중화와 좀 다르게 변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화는 이미 그들이 알던 중화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화는 이미 만주에게 지배되고 있는 중화이 되었고 옷이나 모자가 다 호인(중국 북쪽에 있는 민족에 대한 일컫는 말)의 풍습에 의해 변했다. 이것은 유교 문화를 신봉하고 있는 연행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4명 연행사들 중에 이의현와 홍대용이 청나라의 학자와 신봉상황, 의복, 혼례와 장례 예절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선 학자들 내부에 다른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18세기 중반부터 일부 학자들이 북벌론의 관점에 대해 의심하고 반대하기 시작했다. 청나라가 백년을 넘어 발전을 끊이없이 하고 변영한

풍경이 조선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다음에 그들은 청나라 번영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에 비판적 의심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홍대용과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북학파가 일어남에 따라 청나라에게서 선진적인 것을 배우면서 자강적인 관점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은 바로 홍대용과 박지원의 연행 작품에서 긍정과 칭찬의 내용이 많다는 원인이다. 심지어 청나라에 항상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의현도 중국의 선진 기술은 조선이 따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교문학 형상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는 이데올로기화, 유토피아화 되어있는 것이다. 청나라 형상에 대한 연행사들의 묘사는, 감각적 구상과 종합을 통해 이루어낸 것으로, 칭찬과 비판, 긍정과 부정이 드러나 있다. 이는 비교적 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청나라의 형상을 보여준다.

4명의 연행사가 18세기 청나라의 형상에 대해 묘사한 것에는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 집단적 상상물’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사회 공간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8세기 조선과 청나라는 모두 봉건 사회의 생산관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청나라 사회의 생산관계를 주도하는 세력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래 주체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던 한족이 통치 지위를 상실하고, 거꾸로 ‘오랑캐’로 불리는 만주족이 생산관계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비록 청나라 정부는 여전히 유교 문화를 존중한다고 공언했지만, 연행사들이 보기에 청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한족으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의 전통을 크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연행사들은 ‘盛京’을 ‘비린내 나는[腥膻]’ 곳이며, 관습과 문화가 이미 오랑캐들에게 ‘물든[熏染]’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이 목격한 청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복식은 薙發(변발), 紅纓, 左衽(왼쪽으로 여민 옷깃), 窄袖

등이었다. 유교 문화의 상징은 이미 사라지고, 유교 문화와 중화의 禮儀, 典章制度 따위가 이제 광대들의 연극 소재 정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점에 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하였다.

연행사들이 보기에 만주족의 중원 입성은 문명의 퇴보였다. 또 만주족의 청나라 통치는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비록 100년에 걸쳐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고, 변화한 국가의 모습을 이미 갖추었으나, 연행사들은 여전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교문학 형상학 관점에서 볼 때, 연행사는 유교 문화의 정통적 위치에서, 당시의 청나라를 평가하는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지닌다.

둘째, 18세기 청나라를 포괄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연행사들은 청나라 건국 초기 만주족이 통치하는 청나라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중후반에, 특히 ‘북학파’가 일어난 후에는, 많은 연행사가 ‘이용후생’의 학문적 시각에서 18세기 청나라를 관찰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은 변증법적 시각을 통해 청나라 사회 공간의 형상을 묘사할 수 있었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평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로써 대립하는 현상들을 종합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제 현실의 문제를 쫓았고, 다양한 각도로 진실한 청나라의 공간 형상을 보여주었다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북학파’ 연행사들의 주요 관심사는 ‘선진기술’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연행 작품에 나타난, 연행사들의 淸의 사회 공간에 관해 서술은 긍정과 부정, 비판과 찬사를 오고 간다. 예를 들어 康熙帝에 대한 평가에서, 金昌業은 강희제가 暢春苑을 짓고 전국 방방곡곡의 미녀들을 그곳에 모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실제로 보니, 들은 것과 크게 다르다. [今來見之, 與所聞大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희제가 창춘원을 지은

목적이 황족들에게 ‘안일함을 경계 [警其安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강희제에 대해 긍정과 부정 양면에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康熙帝는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며, 관대하고 간소한 규모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며, 재물의 사용을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50년 동안이나 통치하였으니, 태평을 이룩한 것은 당연하다. 정치에 유교를 숭상하여 孔子와 朱子를 높였으며, 몸소 효도를 닦고 嫡母를 잘 섬겼으니, 비록 魏나라 孝文王이나 금나라 세종 完顏雍에 비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 사람 됨됨이는 현명하고 뛰어나지만, 너그러움은 부족하다. 재능이 많아 자신이 앞서기 좋아하고, 도량은 좁아 스스로 자랑하길 좋아한다.”<sup>383)</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勤政愛民, 勤儉節約, 重視農業, 持守孝道의 봉건적인 황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그는 독단적 기질이 있고 성품이 그다지 너그럽지 못했다. 그런데 淸 사료에 나오는 강희제의 형상에는 찬양과 과장이 많다. 하지만 이와 달리, 金昌業은 康熙帝에 대해 긍정과 부정 양면에서 평가하여 생동감 있고 실제에 가까운 황제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셋째, ‘클리셰 [套話]’와 차이점을 추적한 말들이 공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淸 연행록 연구 전문가인 漆永祥은 일찍이 “제가의 ‘연행록’이 전후로 서로 답습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sup>384)</sup> 도시 공간에 대해서 연행사들이 주목하는 점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이 때문에 같은 주제와 같은 표현이 서로 다른 시기와 작가의 연행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많은 묘사 내용이 타인이 관찰한 결론을 참고한 것이거나 상호 검증한 것이다.

383)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二月初七日, “而以康熙之儉約. 守汗寬簡之規模. 抑商賈以勸農. 節財用以愛民. 其享五十年太平宜矣. 至若治尙儒術. 而能尊孔朱. 躬修孝道. 而善事嫡母. 則雖比於魏孝文. 金主雍. 無媿矣. 第其爲人. 明秀有餘. 渾厚不足. 才多. 故好自用. 量狹. 故喜自矜.”

384) 漆永祥, 「“燕行錄學”芻議」, 『東疆學刊』 Vol.36, No.3,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9, 10면.

연행사들의 이와 같은 묘사는 여전히 감각적 공간 인식에 속한다. 작가들이 타인의 기록을 참고하여 썼기 때문이다. 이에 여행객으로서 청나라에 도착한 연행사들은 종종 사회 집단적 해석에 따른 이국 형상의 클리셰의 영향 속에서 청나라를 묘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동시에 강한 주관적 정서를 지닌다. 이런 특징은 이의현의 작품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나라 산천에 대한 이의현의 총체적 서술, 만주족 남자에 대한 평가, 청나라의 기와 굽기 기술에 대한 평가는 김창업의 평가와 완전히 같다.

연행사들은 때로는 앞서 다녀간 전임자들의 영향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 다르거나 기이한 현상을 과감하게 탐색하였다. 이로써 상투적으로 언급되는 내용과 차이 나는 사물을 찾아내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활용하여, 만주족이 다스린다는 이유로 형성된 편견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인식 경향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예컨대, 많은 연행사는 연경에 도착한 뒤에 뇌물을 요구받은 정황이 있음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이의현은 북경에 도착한 후 세자 책봉의 일과 관련하여 예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려는 계략인 듯하다.”라고 추측하였다.<sup>385)</sup> 그러나 김창업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곳곳에서 북경의 넉넉한 인심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首譯이 와서 말하기를, ‘驛卒 한 사람이 八里鋪에서 뒤떨어졌는데, 지금껏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衙門에 이야기하여 甲軍을 풀어서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고, 게다가 그 사람은 초행길이라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가에 들어가서 머물지 못했다면 동사했을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갑군이 그를 데리고 왔다. 물어보니, 날이 추워서 한 점방에 들어갔더니, 따스한 온돌에 재워 주고 밥도 주더라고 하였다. 이곳의

385)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以不成說之言, 如是恐嚇, 似出於索賂之計.”

풍속이 넉넉한 것을 알 만하였다.”<sup>386)</sup>라고 하였다. 이어서 모든 일을 뇌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였다.

그는 조선인들의 일 처리 능력이 청나라 경성 지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전에 들으니 이 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데다 근래에는 기강까지 없어서 모든 일을 뇌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와서 보니 또한 그렇지는 않았다. …… 이번 일로 보더라도, 처음에는 문서만 보고 오해하였지만, 張遠翼의 말을 들은 뒤로는 곧바로 의혹을 풀어 버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sup>387)</sup>라고 하였다. 연행사들 가운데 김창업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성의 풍속이 넉넉하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선인들의 기록과 다르다.

또 이국의 형상에 대한 묘사는 세계 역사라는 큰 배경 안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행사들이 묘사한 18세기 청나라는 청나라 사학자들이 ‘康乾盛世’로 일컫는 시기였다. 100년에 걸쳐 국가를 안정시켜 淸의 판도가 확대되고, 국경이 안정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과도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 류큐, 베트남 등 국가에서 매년 사신을 보내는 등 유교문화권 내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경제가 회복되어, 백성들의 생업이 편안하였다. 이 때문에 청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전의 혐오와 반대는, 곧 인정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崔德中은 “황제는 거칠고 음란하며 법도가 없다. 그러나 민심은 깊이 결속되어 있다. 게다가 백성에게 군역을 지우는 일도 없고,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

38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十二月二十八日, “朝, 首譯來告曰 ‘驛卒一人, 自八里鋪落後, 至今不來, 言于衙門, 使甲軍尋來. 而昨日極寒, 其人又初行, 不通言語, 或不能得入人家, 則不無凍死之慮.’ 已而甲軍率來. 問之, 言因日寒入店, 處以溫炕, 饋之食. 此地風俗, 可知其厚也.”

387) 위의 책, 一月十七日, “嘗聞此國人多慾, 近來無紀綱, 百事皆以賄成. 今來見之, 亦不如此矣. …… 雖以今番事觀之, 初則只見文書誤認, 而聞張遠翼言後, 卽爲解惑, 無少持難. 此等事亦非我國人所及處.”

평안하여, 군주를 잃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했다.<sup>388)</sup> 여기에서 崔德中이 비록 청나라 황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청나라 치하의 청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다. 사회의 생산관계 측면에서 볼 때, 淸은 아직 농업 사회였다. 하지만 유럽은 이미 산업혁명이 끝나 산업 사회로 진입했다. 그때는 미국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乾隆帝는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과 동시대 인물이다. 乾隆帝는 비록 선교사를 欽天監 관원으로 등용했지만, 서양의 계몽운동과 근대 과학, 이성 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天國 上朝’라는 개념을 고수하면서, 근대 문명의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심지어 박지원이 淸에 다녀간 후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때에, 청나라는 유럽에 의해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서로 다른 두 문명이 충돌한 결과, 淸이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가 된 것이었다.<sup>389)</sup> 이에 따라 서양 여행가들은 대부분은 계몽운동 이후의 근대 과학 정신과 이성적 사유를 표준으로 삼고, 유럽의 정치, 사상적 가치관과 산업화를 표준으로 삼아, 청나라의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큰 우월감을 보였다. 조선 사신과 서양 여행가들의 청나라 형상에 대한 묘사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행 작품은 한국 고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과 청나라의 학자들은 이에 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풍부한 성과를 획득하였고, 이로써 후인들에게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본 연구는

---

388) 崔德中, 『燕行錄』, “皇帝者雖荒淫無度, 固結民心則深矣. 且無役民之事, 亦無別賦之規, 民皆怡安, 恐失其君.”

389) 1842년 8월 29일(도광 22년 7월 24일), 청나라와 영국은 淸 근대사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을 체결하였다. 난징조약으로 청나라의 영토 보전과 관세 주권이 파괴되고 영국의 대중 상품 수출이 용이해졌으며 이 때문에 청나라는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난징조약 체결 후 서구 열강은 혼란을 틈타 청나라 정부에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나아가 청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淸의 자연 경제를 파괴하였으며 청나라의 몰락을 앞당겼다.

선배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서도, 20세기 서양의 문학 이론을 활용하여 고전 작품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비록 억지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연구의 길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의 계기를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향후 연행 작품 연구에 좋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1. 基本資料

- 崔德中, 『燕行錄』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39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32-33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金景善, 『燕轅直指』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70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李押, 『燕行記事』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52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李有駿, 『夢遊燕行錄』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77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35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洪大容, 『湛軒燕記』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42-43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閔鼎重, 『老峯燕行記』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22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朴趾源, 『熱河日記』 (朱瑞平 校點),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7.
- 沈樂洙, 『燕行日乘』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57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 徐有素, 『燕行錄』, (임기중 편(2001), 『燕行錄全集』 79 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임기중, 『燕行錄全集』,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2. 著書類

孔子, 『論語』

孟子, 『孟子』

(宋) 司馬光, 『書儀』 (四庫本)

『清實錄』,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1985.

『欽定大清會典』 卷三十九 (光緒十五年原刻本影印), 台灣: 新文豐出版公司, 1976.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首爾: 普成文化社, 2018.

박향란, 『연행록 소재 필담의 연구: 홍대용·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서울:보고사, 2013.

정민, 『북경 유리창: 18, 19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거점 - 北京 琉璃廠』, 서울: 민속원, 2013.

—,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과주: 문학동네, 2014.

한영규, 『18-19세기 한·중 문인 교류』, 서울:이매진, 2013.

신익철, 『연행사와 북경 천주당』, 서울:보고사, 2013.

—, 『연행사와 18세기 한중 문화교류』, 서울: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包亞明, 『後大都市與文化研究』, 上海:上海教育出版社, 2005.

陳惇·劉象愚 主編, 『比較文學』, 北京:高等教育出版社, 2006.

陳尙勝, 「論朝鮮王朝對明朝的事大觀」, 『第三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濟南:山東大學出版社, 1999.

戴逸, 『乾隆帝及其時代』,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董耀會 主編, 『康熙永平府志』, 秦皇島歷代志書校注, 北京:中國審計出版社, 2001.

方漢文, 『比較文學學科理論』, 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1.

(明) 龔用卿, 『使朝鮮錄·序』 (陶鳳樓影印本), 薑亞·沙經莉·陳湛綺 編, 『朝鮮史料彙編 (全 20 冊)』 第 19 冊,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4.

薑亞·沙經莉 陳湛綺 編, 『朝鮮史料彙編 (全 20 冊)』, 北京: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4.

金柄珉, 『朝鮮—韓國文學的近代轉型與比較文學』, 延邊:延邊大學出版社, 2004.

柯愈春, 『清人詩文集總目提要(中冊)』, 北京:北京古籍出版社, 2002.

劉爲, 『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 哈爾濱: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李英順, 『朝鮮北學派實學研究』,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劉小萌, 『清代北京旗人社會』,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 劉錚, 『燕行與清代盛京——以「燕行錄」為中心』, 北京:九州出版社,2019.
- (美) 愛德華·W·蘇賈 (Edward W. Soja), 『後大都市: 城市和區域的批判性研究』, 李鈞譯, 上海:上海教育出版社, 2006.
- (美) 愛德華·W·蘇賈(Edward W. Soja), 『後現代地理學——重申批判社會理論中的空間』, 王文斌 譯, 北京:商務印書館, 2004.
- 孟華 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1.
- 邱瑞中, 『燕行錄研究』, 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 全海宗, 『中韓關係史論集』, 全善姬譯,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 (清) 李恒, 『國朝耆獻類征初編』卷一七〇『張廷枚』, 周駿富編, 『清代傳記叢刊』第 154 冊, 臺北:明文書局, 1985 年.
- (清) 徐乾學, 『資政大夫經筵講官內閣學士兼禮部侍郎牛公鈕墓誌銘』, 『碑傳集』卷四十, 周駿富編, 『清代傳記叢刊』第 108 冊, 臺北:明文書局, 1985 年.
- 漆永祥, 『燕行錄千種題解』,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21.
- 王增永·李仲祥, 『婚喪禮俗面面觀』, 濟南:齊魯書社, 2001.
- 吳晗, 『朝鮮王朝實錄中的中國史料』第 10 冊, 北京:中華書局, 1980.
- 薛毅, 『西方都市文化研究讀本』第一卷, 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薛毅, 『西方都市文化研究讀本』第三卷, 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徐毅, 『18 世紀中朝文人交流研究』, 北京:中華書局, 2019.
- (英) 約翰·厄裏,喬納·森拉森, 遊客凝視』,楊慧, 趙玉中, 王慶玲等譯, 桂林:廣

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于敏中 等, 『日下舊聞考 (卷八) 』,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0.

殷夢霞·于浩 選編, 『使朝鮮錄 (全二冊) 』,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趙東一 等著, 『韓國文學論綱』, 周彪·劉鑽擴 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趙慶男, 『亂中雜錄』 卷九, 『清人入關前史料選輯』,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 3. 學位論文

崔香, 「『熱河日記』中的中國人形象之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8.

金柄珉, 「朝鮮中世紀北學派文學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1990.

冀穎, 「朝鮮使臣所見清前期滿族習俗」,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

韓龍浩, 「19世紀燕行錄中的中國形象研究—以三種燕行錄爲中心」,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李根碩, 「朝鮮的中國想像與體驗從 17 世紀到 19 世紀——以“燕行錄”爲中心」,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李好, 「明清“燕京八景”詩研究」, 南京大學, 석사학위논문, 2021.

李孟眞, 「“燕行錄”中清代遼東地區民俗文化研究」, 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19.

劉廣銘, 「朝鮮朝語境中的滿族形象研究——以十七、十八世紀的使行文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 牛聰, 「17至18世紀遼東地區的滿族文化研究－以“燕行錄”爲中心」, 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22.
- 牛伊凡, 「晚清朝鮮燕行使筆下的中國(1850－1895)－以“燕行錄”爲中心」, 河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9.
- 朴青梅, 「“燕行錄”中的中國知識份子形象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 張麗娜, 「『熱河日記』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 張鐘午, 「通過“燕行錄”看18世紀北京琉璃廠與韓中文化交流」, 北京第二外國語學院, 석사학위논문, 2021.
- 吳雪, 「康熙時期“燕行錄”中的中國：以『老峰燕行記』『老稼齋燕行日記』『庚子燕行雜識』爲中心」, 上海外國語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 楊光, 「『老稼齋燕行日記』滿族形象及滿族文化研究」, 長春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1.
- 楊昕, 「朝天錄中的明代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09.
- 楊雨蕾, 「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以朝鮮赴京使臣爲中心」, 夏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 張麗娜, 「『熱河日記』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 趙瑤瑤, 「朝鮮燕行使筆下的清代北京形象研究」,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21.

#### 4. 一般論文

- 김동석, 「18세기 청나라로 간 조선 상인들의 활동」, 『동방한문학』 73, 동방한

- 문학회, 2017, 331-363면.
- 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규장각』 第17輯,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4, 1-55면.
- 김문식, 「명사(明使) 공용경(龔用卿)이 경험한 외교의례」, 『조선시대사학보』 73권, 조선시대사학회, 2015, 195-228면.
- 김민호, 「他者の 視線으로 바라 본 中國 江南 형상—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中國語文論叢』 第43輯, 淸어문학회, 2009, 357-382면.
- , 「연행록(燕行錄)에 보이는 북경(北京) 형상 연구」, 『淸어문학지』 32권, 淸어문학회, 2010, 163-187면.
- , 「燕行錄에 보이는 中國女性形象」, 『淸어문논총』 제54집, 淸어문학회, 2012, 299-330면.
- 김선자, 「淸 소수민족 신화 속 영웅의 형상— 이족의 즈거아루(支格阿魯)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107 號, 淸어문학연구원, 2017, 313-347면.
- 김철, 「“연행록(燕行錄)” 중의 맹강녀(孟薑女) 전설 기록 양상 소고(小考)」, 『민족문화연구』 6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157-209면.
- 金泰俊, 「중국 내 연행노정고」, 『東洋學』 第35輯, 東洋學研究所, 2004, 43-58면.
- 金暎綠, 「조선시대 사행기록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32권, 진단학회, 2019, 309-338면.
- 김한규, 「명사(明使) 공용경(龔用卿)의 『사조선록(使朝鮮錄)』 과 조명(朝明)

- 창화(倡和) 외교(外交)」, 『동아연구』 60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1, 77-117면.
- 노대환, 「18세기 후반 연암(燕巖) 일파(一派)의 연행(燕行)과 청조(淸朝) 정세 인식」 『대동문화연구』 85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51-287면.
- 杜慧月, 「다른 나라에서 같은 점을 찾다: 명나라 문신의 사조선록(使朝鮮錄) 연구」, 『연민학지』 第21輯, 연민학회, 2014, 123-175면.
- 유정, 「湛軒홍대용 『乙丙燕行錄』의編撰及文本構成研究」, 『열상고전연구』 80집, 2023, 389-412면.
- 리엔리리(連麗麗), 「서사학 관점에서 본 청나라 만주족 여성상 연구-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 작품을 중심으로 -」,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第21輯, 2023, 181-206면.
- , 「18세기 연행 사신의 淸 도시 사회 공간에 관한 기록- 김창업, 이의현,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第41輯, 연민학회, 2024, 405-431면.
- 박수밀, 「북경 유리창(琉璃廠)과 지식인 교류의 세 층위」, 『한국언어문화』 제4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51-80면.
- 박향란, 「『熱河日記』 筆談에 포착된 淸朝 지식인의 형상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39호, 동방한문학회, 2009, 1-15면.
- 박현규, 「조선 사신들이 견문한 北京 琉璃廠」, 『中國學報』 第45輯, 한국淸학회, 2002, 169-188면.
- , 「북경(北京) 유리창(琉璃廠) 화폭과 한국 고문헌」, 『동방한문학』 第42

- 輯, 동방한문학회, 2010, 254-278면.
- 안상복, 「연행록(燕行錄)의 잡기(雜技) 관련 기사(記事) 연구」, 『淸문학』 第53輯, 한국淸어문학회, 2007, 161-184면.
- 안순태, 「연행록 소재 동물희(動物戲) 기사 연구」, 『민족문화연구』 8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243-269면.
- 안순태, 「환희(幻戲)의 연행(演行) 양상과 흥미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연행록 소재(所載) 북경(北京)환희(幻戲)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78권, 한국한문학회, 2020, 117-147면.
- 文麗華, 「한글본 연행록에 나타난 淸 여성」, 『한국고전연구』 제5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93~130면.
- 王珂·한종진·당윤희, 「명청(明清) 교체기 조선 사신의 해로사행 노선(海路使行路線) 중 산둥(山東) 청주부(靑州府) 이제묘(夷齊廟)의 문화공간 연구」, 『淸문학』 110권, 한국淸어문학회, 2022, 87-122면.
- 왕연,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오류거 서점과 조선 지식인」, 『韓國漢文學研究』, 한국한문학회, 2022, 第85輯, 349-384면.
- 왕광의·리기기, 「조선 연행사(燕行使)가 본청대(淸代) 淸 동북지구 형상」, 『淸사연구』 75권, 淸사학회, 2011, 265-271면.
- 양흔, 「김구용(金九容)과 그가 기록한 淸 남방(南方)」, 『연민학지』 第27輯, 연민학회, 2017, 111-138 면.
- 윤재환, 「18세기 전반 연행록(燕行錄)에 나타난 엽헌 인식과 하민(下民)의 묘사」, 『한민족어문학』 85권, 한민족어문학회, 2019, 149-178면.
- , 「동월(董越)과 공용경(龔用卿)의 비교(比較)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

- 鮮 認識」, 『한민족어문학』 68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213-255면.
- 은설정, 「龔用卿出使朝鮮考述 - 以龔用卿『使朝鮮錄』與朝鮮『丁酉皇華集』爲中心」, 『淸문학』 59권, 한국淸어문학회, 2009, 235-271면.
- 이성형, 「『使朝鮮錄』에 나타난 明 使臣의 朝鮮 認識」, 『열상고전연구』 80권, 열상고전연구회, 2023, 439-470면.
- 이창숙, 「연행록(燕行錄)에 실린 淸 연희(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20권, 한국실학학회, 2010, 131-175면.
- 이승연·이상해, 「청대(淸代) 淸(中國) 동북부(東北部) 지역(地域) 일자옥(一字屋)에 관한 연구(研究) - 연행록(燕行錄)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建築歷史研究』 8권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9, 47-57면.
- 이승수, 「연행로 중 요양(遼陽) ~ 심양(瀋陽) 구간의 노정과 풍물 - 지리 감각의 갱신과 신흥 왕조의 체험 -」, 『고전문학연구』 50권, 한국고전문학회, 2016, 261-296면.
- 이정재, 「조선 사절 燕行錄(연행록)에 나타난 청대 후기 北京의 민간연극」, 『淸어문학지』 52권, 淸어문학회, 2015, 103-134면.
-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유와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조건 - 홍대용(홍대용)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4, 289-320면.
- , 「연행록(燕行錄)에 전하는 건륭제(乾隆帝) 계황후(繼皇后)의 유폐사건(幽閉事件)에 대한 풍문(風聞)」, 『어문연구』 44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241-263.

-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18\_19세기 연행록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第47輯, 한국한문학회, 2011, 593-622면.
- , 「연행록 소재 북경 유리창 기록의 변화 추이와 의미 탐색」, 『漢文學論集』 第41輯, 근역한문학회, 2015, 339-375면.
- , 「『연행록(燕行錄) 국역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학술적 가치와 연계하여 —」, 『온지논총 온지학회』 第67輯, 근역한문학회, 2021, 167-196면.
- 임기중,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의 복식(服飾)」 『한국복식』 10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2, 25-105면.
- 임기중, 「연행록의 대청의식과 대조선의식」, 『연민학지』 第1輯, 연민학회, 1993, 117-152면.
- , 「연행록(燕行錄)의 환희기(幻戲記)」, 『韓國民俗學』 Vol.31 No.1, 한국민속학회, 1999, 257-328면.
- , 「연행록 세계인 인식 담론에서 가치와 역가치」, 『국학연구론총』 9권, 태민국학연구원, 2012, 9-44.
- 임준철, 「연행록 환술기사(幻術記事) 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환사(幻史)」, 『한국한문학연구』 51권, 한국한문학회, 2013, 487-533면.
- 임영길, 「18~19세기 조선 문인들의 北京 인식과 기록 양상-탐방 공간의 확장과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 54권, 동양한문학회, 2019, 157-195면.
- 임유의, 「연행록을 통해 본 청대(清代) 지방수재(地方秀才) 제패련(齊佩蓮)의 생애와 조선사신(朝鮮使臣)과의 교류」, 『어문연구』 46권1호, 한국어문

- 교육연구회, 2018, 269-305면.
- 서의, 「18세기 조청(朝淸)문인 교류 장소 논략(論略)」, 『한문학보』 30권, 우리한문학회, 2014, 397-453면.
- 신익철, 「연행사와 양한적(養漢的) -역관-사상이 접한 淸의 창루 풍경」, 『한국 고전 여성 문학 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17, 29-58면.
- 정훈식, 「北京學의 시각에서 본 조선 후기 燕行錄 I-筆記雜錄의 시기별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번역원』 64권, 민족문화, 2023, 137-181면.
- , 「조선후기 燕行錄에 기록된 청대 風俗 인식의 추이 -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권, 한국문학회, 2021, 35-68면.
- 전민경,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 후기 만주족에 대한 인식」, 『동양한문학연구』 60권, 동양한문학회, 2021, 97-122면.
- 전혜숙, 「18세기 初 “燕行錄”에 기록된 朝鮮知識人の 服飾觀 - 김창업 崔德中의 燕行錄을 중심으로 -」, 『한복문화』 8권1호, 한복문화학회, 2005, 117-137면.
- 조하나, 「연행록의 송가성(宋家城) 기록 고찰」, 『연민학지』 第30輯, 연민학회, 2018, 221-270면.
- 정혜중,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북경견문 -김창업의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3권, 명청사학회, 2005, 33-65면.
-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청국 여성관-김창업과 박지원의 기록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73집, 한국淸학회, 2015, 377-397면.

- 조명화, 「조선조사대부(朝鮮朝士大夫)의 淸관(中國觀) —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에 보이는 홍대용(洪大容)(1731-1783)의 淸관(中國觀)을 중심으로」, 『淸문학』 43권, 한국淸어문학회, 2005, 179-196면.
- 최식, 「燕行錄의 地名과 人名—연행록국역총서를 중심으로—」, 『韓國實學研究』 42권, 韓國實學學會, 2021, 385~422면.
- 邱瑞中·崔昌源, 「『燕行錄』의史料價値(之一)」, 『중국연구』 3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淸연구소, 2004, 409-429면.
- 허경진, 「근대 연행록에 나타난 만주 의식」, 『연민학지』 第40輯, 연민학회, 2023, 261-301면.
- 한위성, 「홍대용의 연행록에 나타난 한족 지식인 형상 연구」, 『국어교육』 139권, 한국어교육학회, 2012, 211-229면.
- 白凱·趙季, 「清代奉使朝鮮紀行文獻提要與價値考論」, 『東疆學刊』 Vol.40, No. 1,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23, 29-36면.
- 程廣麗, 「空間正義理論的重構——愛德華·蘇賈的社會空間批判理論解讀」, 『雲夢學刊』 Vol.39, No.5, 湖南理工學院, 2018, 118-124면.
- 陳尙勝, 「明清時代的朝鮮使節與中國記聞 —— 兼論“朝天錄”與“燕行錄”的資料價値」, 『海交史研究』 第2期, 中國海外交通史研究會, 2001, 38-55면.
- 丁晨楠, 「韓國所藏淸朝塘報關聯文獻初探——以首爾大學藏《環報刪節》爲中心」, 『曆史檔案』 第4期, 中國第一曆史檔案館, 2021, 91-97면.
- (法)讓-馬克·莫哈, 「試論文學形象學的研究史及方法論」, 孟華 譯, 『中國比較文學』 第2期, 中國比較文學學會, 1995, 144-158면.

- 韓東, 「韓國燕行文獻研究綜述」, 『中國文學研究』第1期, 湖南師範大學, 2015, 116-121면.
- 洪思慧, 「晚清西方漫遊者對中國城市社會空間的凝視維度」, 『蘇州教育學院學報』 Vol.35, No.2, 蘇州教育學院, 2018, 69-76면.
- 金柄珉·金剛, 「對中國“燕行錄”研究的歷時性考察」, 『東疆學刊』 Vol.33, No.1,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6, 102-112면.
- 金哲·秦亞偉, 「朝鮮朝文人對“夷齊”的接受與認知研究——以“燕行錄”中伯夷叔齊記錄為中心」, 『當代韓國』第3期, 中國社會科學院 韓國研究中心, 2014, 59-72면.
- 李雪景·徐永彬, 「18世紀訪華遊記中的中國形象——以『熱河日記』與『馬夏爾尼私人日志』為例」, 『東疆學刊』 Vol.39, No.1,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22, 1-16면.
- 劉靜, 「從“燕行錄”看18世紀中國北方市集」, 『北京社會科學』第3期, 北京市 社會科學院, 2006, 34-38頁.
- 劉錚, 「朝鮮使臣筆下的滿族建築」, 『殷都學刊』 Vol.40, No.3, 安陽師範學院, 2019, 42-46면.
- 皮慶山, 「明清時期山海關的薑女廟與孟薑女傳說——以朝鮮燕行文獻的記載為中心」, 『求是學刊』 Vol.44, No.3, 黑龍江大學, 2017, 141-148면.
- 漆永祥, 「“燕行錄學”芻議」, 『東疆學刊』 Vol.36, No.3,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9, 1-16면.
- 孫衛國, 「試論清朝對朝鮮國王與使臣的優禮」, 『當代韓國』第4期, 中國社會科學院 韓國研究中心, 2003, 38-41면.

- 王若明, 「清代蒙古族大臣花沙納『東使紀程』研究」, 『湖湘論壇』第1期, 湖南省委黨校, 2015, 141-144면.
- 王政堯, 「略論“燕行錄”與清代戲劇文化」, 『中國社會科學院 研究生院學報』第3期, 中國社會科學院, 1997, 54-61면.
- 一一, 「“燕行錄”初探」, 『清史研究』第3期, 中國人民大學, 1997, 1-8면.
- 王政堯·赫曉林, 「簡論“燕行錄”與清代中朝文化交流」, 『韓國學論文集』第7輯, 北京大學 韓國學研究中心, 1998, 320-327면.
- 徐東日, 「朝鮮朝燕行使臣筆下清朝形象的嬗變及其內因」, 『東疆學刊』Vol.27, No.4,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10, 1-6면.
- 一一, 「朝鮮燕行使臣眼中的中國漢族士人形象」, 『河南師範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Vol.37, No.6, 河南師範大學, 2010, 143-147면.
- 徐鳳·金東國, 「18 世紀中日、中韓文學文化交流比較研究」, 『重慶三峽學院 學報』Vol.30, No.149, 重慶三峽學院, 2014, 110-114면.
- 姚曉娟, 「朝鮮時代“燕行錄”與清代滿族女子的域外鏡像」, 『湖北民族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湖北民族大學, 2010, 124-134면.
- 尤旭東, 「遙領芝告向東藩—— 清朝出使朝鮮使臣研究」, 『故宮博物院院刊』第6期, 故宮博物院, 2014, 100-115면.
- 左江, 「值得關注的燕行錄文獻」, 『古典文學知識』第1期, 江蘇鳳凰出版社有限公司, 2010, 122-129면.
- 趙維宗, 「“頂碗”漫話」, 『雜技與魔術』2期, 中國雜技家協會, 1998, 21-22면.
- 趙瑤瑤, 「被塑造的景觀：朝鮮朝使臣眼中的“薊門煙樹”」, 『東疆學刊』Vol.37, No.

o.4,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院, 2020, 22-31면.

張循·李玥, 「明代 朝鮮使節 對永平府 夷齊廟 的認知——以『燕行錄全集』爲中心」, 『渤海大學 學報』第5期, 渤海大學, 2019, 63-68면.

## ABSTRACT

### The image of China in 18th century YeonHaengRok

Lian LiLi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shin University

The research on “YeonHaengRok” is primarily concentrated in Korea and China, with scholars from each country exhibiting distinct research characteristics. Korean scholars tend to focus more on the literary aspects, while Chinese scholars pay more attention to its historical value. Chinese scholars have achieved remarkable accomplishments in studying the historical value of “YeonHaengRok”, yet there remains ample room for exploration in its literary aspec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me scholars have delved into it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folklore, imagology, economics, and cultural studies. Building on the work of predecessors, this paper employs the theory of comparative literary imagology as its foundation and framework. With a grasp of extensive historical materials, it analyzes how China and Korea portrayed each other’s images in the 18th century. physical strength, body shape, and pain index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analysis of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exercise. This paper applies the theory of imagology in comparative literature to the study of 18th-century Yan works. Imagology is an important area of research within comparative literature that emerged in France in the 1990s. It is a research field favored by the French school of comparative literature<sup>390</sup>). However, this theory does not refer to literary images in the general sense, but rather to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images in foreign literature”<sup>391</sup>) [2]. The creation of these images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historic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The scope of imagology research is extensive because it studies the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f the “self” towards the “other”. Therefore, all aspects of foreign countries are research objects. Through the foreign materials recorded in literary works, the research objects can include people, urban landscapes, material scenery, and even customs, ideas, and languages.

Given the vast temporal span of the “Yanxing” journeys, the author chose the 18th-century Yanxing works, which possess a strong sense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s the focus of this study. Jin Changye and Li Yixian were representative writers of the early 18th century. Their assessments of Qing Dynasty’s image moved away from the previous bias of blanket criticism, and they began to view Qing Dynasty through their own eyes, marking a significant turning point. Hong Darong and Piao Zhiyuan were notable scholars of the Beixue School, and their Yanxing works gradually shifted from negation and

---

390) 孟華 主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153면.

391) 위의 책, 2면.

criticism towards the “things” and “people” of Chinese society towards affirmation and praise.

When Yanxing envoys traveled to China, a foreign space, the first thing they encountered was China’s material space. This material space encompassed China’s mountains, rivers, scenic spots, cultural landscapes, cities, and palaces, all of which fascinated the Yanxing envoys. Envoys such as Jin Changye, Li Yixian, Hong Darong, and Piao Zhiyuan not only possessed a high level of Han cultural proficiency but also deep insights into Han literature. Before their arrival in China, they had already gained an understanding of the country through previous travel accounts or literary works. On the one hand, they confirmed the descriptions of their predecessors; on the other hand, they sought out differences from what had been written before. Therefore, wherever the Yanxing envoys went, they recorded in detail, marveling at China’s magnificent natural landscapes, magnificent cities, palaces, and historical sites.

Studying the image of a foreign country’s space involves exploring the confluence of various social relations within its social space, encompassing both the mater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at space. The cultural space of a foreign country manifests as a collection of the life behaviors of people from all social strata, encompass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from each stratum and the spiritual, cultural, and economic lives centered around them. During their missions to China in the 18th century, the Yanxing envoys first described the material landscapes of the foreign space, then wrote about its cultural

landscapes, ultimately constructing various images of Chinese social space.

Much like the “social collective imaginary” discussed in the field of comparative literary imagology. Yanxing works carry the color of collective imagination. These imaginations generally manifest in two modes: ideological and utopian. Ideological descriptions portray the foreign land as a stage for exhibiting the self, while utopian descriptions create an idealized self through the lens of the foreign land. Negative, critical evaluations tend to fall into the ideological category, while idealized, praising evaluations often have a utopian tint. Essentially, the Yanxing envoys’ critiques and negations of Qing Dynasty social space in the 18th century stemmed from a sense of superiority associated with the “Little China” mindset following the fall of the Ming dynasty. Conversely, their praises and affirmations were rooted in a learning attitude among Korean scholars–bureaucrats, seeking to revitalize their own country by learning from others.

Regardless of how differently the images of Qing Dynasty urban social space in the 18th century are portrayed, they all reflect the dynamic development of social space production at that time, offering a multifaceted and authentic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space image of that era. Possessing a rational mindset and a comprehensive perspective while observing and writing about a foreign land is a rare accomplishment for a traveler. Those Yanxing envoys with comprehensive and dialectical thinking strive to shake off the influence of social collective imaginary and seek out unique elements that deviate

from stereotypical depictions, correcting any tendencies towards generalizations in their descriptions of Chinese urban social space through personal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Their perceptions of the material space of Chinese cities, derived from calm observation and careful consideration, are not only a sensory understanding of Chinese urban space but also an ideological construction of it, ultimately resulting in a practical spatial cognition that encompasses both perception and imagination.

## 부록 : 설문 조사

1. 성별

A. 남자

B. 여자

2. 직업

A. 학생

B. 교사

C. 공무원

D. 기업과 사업단위의 인원

E. 다른

3. 연행록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4. 여행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5. 여행록의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6. 당신은 「 여행록 」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7. 광서사범대학출판사에서 『여행록전집』을 출판한것을 알고있는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8. 연행록에서 주로 淸 어느 왕조의 일을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잘 알다

9. “연행록”에서 ‘연행’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잘 알다

10. 박지원의 『熱河日記』 아나요?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11. 홍대용의 『湛軒書』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A. 모르다

B. 잘 알다

12. 한국 역사상 문인이 한문을 사용하여 창작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A. 모르다

B. 잘 알다

13. 연행록의 문헌장르가 어떤것인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14. 연행록에서 조선의 사신들이 淸에 갈 때 들른 곳이 대략 어디인지 아십니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15. 연행록의 저자는 명나라 조정을 어떻게 보았을까?

A. 모르다

B. 조금 알다

C. 잘 알다

16. 연행록의 저자는 청나라조정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 A. 모르다
- B. 조금 알다
- C. 잘 알다

17. 기회가 된다면 연행록을 읽어보시겠습니까?

- A. 아니요
- B. 불확정
- C. 네

18. “연행록” 읽기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 A. 외국인이 쓴 것
- B. 번체자는 알아보기 어렵다
- C. 시간이 없다

19. 다른 사람에게 “연행록”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 A. 아니요
- B. 불확정
- C. 네

20. “연행록”을 구매하시겠습니까?

A. 아니요

B. 불확정

C. 네

SPSS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고 추정된 결과, 설문 조사 문제의 설계가 합리적이었다. 이는 현재의 淸 사회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갖는 연행록에 대한 인식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을 조사한 결과, 약 12개의 지방과 도시의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사회 교사, 국가 공무원 및 대학생들이었다. 조사 결과, 50% 이상의 사람들이 연행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내용과 창작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고, 작성자가 조선 사신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대학 교수와 소수의 대학생들 약 20% 정도가 연행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다.